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광역시 '인천민주화운동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단체로, 인천광역시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단체입니다.

<주요사업>

1. 사료실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수집과 보존, 전시, 편찬 사업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



민주화운동 계승과 희생자 추모 사업

3. 민주역량강화사업



민주시민교육, 청소년, 청년 민주화 역량 강화사업

4.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사업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시민의場

인천민주화운동 역사를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으로!

<안내>

인천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 기증받습니다.
문건 사료(간행물, 일기, 메모, 재판자료...), 박물관사료(현수막, 포스터, 의상, 걸개그림...)
멀티미디어사료(비디오, 사진, 슬라이드 필름...), 구술사료(인터뷰, 사건 구술 기록...),
도서류(민주화운동 단체에서 생산된 도서 및 정기간행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찾아서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 현장을 찾아서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
민주야 여행 가자!

탐방 보고 자료집

탐방보고회 2020.09.18.(금)

글 심는 순서

1987, 빛을 밝히는 여정	5
꽃갈피	33
넘어넘어	107
델리민주	131
도원결의	153
레지스탕스	159
민주바보	177
발아(바라)	193
붓따라 먹따라	269
아남네시스	323
언론의 역사와 함께 걷는 민주사	343
역사를 찾는 사람들	365
'Her'story	381
KOI	401
TEAM 안개	419

모듬명 : 1987, 빛을 밝히는 여정

구성원 : 박준희, 이은혜, 전주영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인천, 부산과 같이 각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항쟁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상은 멀지만 한 줄기 빛과 같은 항쟁 정신은 같았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민주주의라는 맥락을 살펴 볼 수 있는 여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탐방주제

1987년 6월 민주항쟁

탐방계획 요약

부산 - 서울 - 인천 순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역사현장 기념시설 및 유적지들을 탐방하며 올라간다.



부산-인천-서울

2020인천청년민주주의 현장탐방

1987,

빛을 밝히는 여정

民主

主義

☼ 1987, 빛을 밝히는 여정 ☼

주제 선정 이유

왜, 1987년
6월인가?

1987년은 민주주의를 위한 온 국민의 열망이 이루어진 해로써 대통령 직선제가 실현된 해이다.
당시 군부 독재 정치에 저항하여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이에 우리팀은 국민들의 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주주의 역사를 세운 1987년을 파헤치면서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빛을 밝히고자 하였다.

40년도 채 되지 않은 민주화를 향한 전국적 항쟁.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국민들은
누구나 기억할,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해야 할
그 시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비교적 가까운 역사의 일인만큼
그 시절에 그토록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컸다.
계다가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등 대학생들이 앞장 서
민주화를 외쳤던 1987년의 6월은
이 시대의 6월과 어떻게 달랐을지 알아보고
지금의 우리를 반성해보고 싶었다.

이러한 계기로 우리는 긴 민주화를 향한 항쟁의 역사 속
6월 민주 항쟁을 선정하여 깊이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1987, 빛을 밝히는 여정

첫 번째,

"부산"

6월 민주항쟁의 큰 불씨가 된 박종철 열사의 물고문 사건. 박종철 열사의 고향인 부산에서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가 주도하는 2.7 추도 대회와 3.3 평화 대행진에 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고문을 규탄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 부산역 광장에 올려퍼진 민주화 염원 ❦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이어 시민들의 민주화 뜻을 펼칠 수 있었던 부산역 광장. 현재까지도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 백남기 농민 추모 대회 등 다양한 시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으니 과거를 이어 현재까지도 민주화의 기가 흐르는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 **민주 항쟁을 한 눈에,**
민주공원 & 민주항쟁기념관 ☼



여러 민주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민주공원과 한국의 민주항쟁 역사를 알기 쉽게 전시한 민주항쟁기념관. 특별 전시를 통해 당시 항쟁의 의미를 담은 민중 미술도 접할 수 있었다.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산책을 하는 동시에 민주화도 배울 수 있는 공간.

☼ 항쟁의 불씨를 살리다. 가톨릭센터 ☼



꺼져가던 민주 항쟁의 불씨를 살린 가톨릭센터에서의 7일간의 점거농성. 부산 시민들로 하여금 민주화에 의식을 갖고 행동하도록 부추긴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톨릭센터 앞까지 가득 찼던 시민들. 그들의 모습이 부산을 6월 항쟁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1987, 빛을 밝히는 여정

두 번째,

"인천"

1986년 5월 3일 인천 시민들은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 주안역 일대에서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헌법 쟁취를 요구하며 민주화운동을 벌였고 이후 1년 뒤, 1987년 6월항쟁이 시발점이자 전두환 정권의 퇴직과 대통령직선제를 이끈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다시 부르는 민주주의, 인천 5.3민주항쟁터 ❦



옛 인천시민회관은 1986년 5월 3일에 인천직할시의 시민회관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의 주요 터이다. 인천 5.3운동은 다음해 6월 항쟁의 불씨가 되는 민주화 운동사의 중요한 사건이다. 사실상 6월항쟁의 1년전 예고편이었다.

☘ 인천지역 6월항쟁이 시작된 답동성당 ☘



1987년 전두환정권에 맞서 일어난 인천지역 6월항쟁 시작
이 된 답동성당은 1987.6.10. 오후 4시 답동성당과 부평지
역에서 국민대회 참가를 촉구하는 가두방송을 내보냈다.
또한 박종철고문치사 사건 이후 박종철군 추모미사에 이어
진혼제를 개최하면서 고문 종식과 민주화를 기원하는 집
회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1987, 빛을 밝히는 여정

세 번째,

"서울"

서울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명동성당과 함께 6월 항쟁의 상징적인 장소인 향린교회가 있는 곳이다. 명동성당과 향린교회는 종단을 뛰어넘어 6월 항쟁을 함께한 특별한 이웃이었다. 물리적 충돌도, 강제 진압도 없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시위대가 농성을 끝내도록 한 평화적 해결을 이루어낸 곳이다.

✿ 옛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 ✿



민주인권기념관은 1987년 1월 14일, 경찰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을 불법 체포하여 고문하다가 사망케 한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 현장과 당시 사회를 살펴 볼 수 있는 곳이다. 공안당국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그 진상이 폭로되어 1987년 6월항쟁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 이한열 열사의 혼이 깃든 이한열기념관 ✧



1987년 6월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21살의 청년으로 산화한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학생과 시민들의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6월항쟁을 일으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 민주화운동의 소신을 비춘 **향린교회**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가 치솟던 중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가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재야인사 150여 명은 경찰을 따돌리고 향린교회에서 대회를 무사히 마치는 등 당시 향린교회는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 민주화운동의 성지 명동성당 ✠



명동성당은 5·18 민주화 운동 7주기 추모 미사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와 관련된 경찰의 은폐 조작을 폭로한 장소이다. 그 해 6월 10일, 치열한 시위 중 경찰에 밀리던 시위대는 명동성당으로 들어왔고 6월 15일 까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전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뜨겁게 타올라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했다.

1987, 빛을 밝히는 여정

소감

2020년의 우리가
느낀 모든 것

소감 - 전주영

성인이 된 후 여행과 답사를 다니면서 학창시절 교과서와 매체로 배운 역사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 머릿속 지식을 눈 앞에 남은 흔적과 연결하여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역사를 매체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장소에서 역사 속 인물들을 상상하며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또한, 역사적 순간을 담은 장소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 가까이,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학생들의 배움 속에 역사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현장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후에 교사가 되었을 때 역사 수업을 탁상뿐 아니라 체험으로도 이끌어아겠다 결심했다.

사실 학창시절부터 역사를 배우고
진행 중인 역사의 여정에 서 있지만,
역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을 통해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고 계획한 여정을 팀원들과 다니면서,
역사에 더 가까이 다가갔으며
‘역사적 동행’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홀로 여정을 다녔다면 여정 중
선택마다 과감하지 못했을 것이며
다양한 생각과 느낀점을 공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현대와 가까운 근현대사 중에서도 ‘1987’을 중심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민주주의로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천천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를 만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현재진행 중이다.
지난 역사로 현재를 만들고
현재에서 지난 역사가 보이기에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평소 지나쳤던 일상적인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역사 속 사건이 동떨어진 과거가 아니며
당시 시민들 또한 오늘날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역사 과정의 긴밀성과 지난 어둠을 잊지 않고
현재에도 민주주의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소감 - 이은혜

그러나 탐방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보았던 과거의 시민들과 학생들은 정의와 올바름을 위해 싸웠고 비인간적 인권 유린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본인의 유익이 아닌, 나라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로 여기며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투쟁하였다.

그런 그들을 보며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일은 내가 착해서, 잘나서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음을 이번 탐방단 경험으로 새로이 깨달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을 돌아다니며 당시의 흔적과 기억들을 엿보면서 숭고한 민주정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었다. 특별히 당시의 나와 같은 또래였던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는 왜 그토록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본인의 몸을 아끼지 않았는지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되새겨보고 직접 발자취를 따라가며 부끄러우리만큼 민주화에 대해 무지했음을 스스로 발견하였다.

향린교회와 명동성당 등 종교계 또한 민주주의에 이바지한 것을 보며 앞으로 학생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미래교사로서 민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게 된다.

탐방단을 마치고 우리의 탐방을 되돌아보며 소감을 작성하는 지금도 역시,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 바뀌어야 할 작은 일이 있거든,
그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고 신경 써서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과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또 한번 하게 된다.

작은 부패와 비리들을 방관하다보면 그것들이 쌓여 결국 큰 화살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인이 되기 위해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그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과목이다.
이번 민주주의 현장탐방단을 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 또한 머리에만 쌓아두는 지식이 아닌 실천하는 지식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행하기를 원한다.

소감 - 박준희

대학생이 되어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완벽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항상 죄책감이 들었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공부하리라 다짐하면서도 매번
다른 일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등한시했던 것 같다.
그렇기에 이번 프로그램은 친구들과 함께 즐기듯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니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서울에 민주주의 관련 기념관, 유적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모두 답사하는 것을 목표로였으
나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던 것이 다소 아쉬웠다.

하지만 덕분에 우리는 무려 '부산'까지 가자고 결심할 수
있었으니, 오히려 더 풍성한 민주주의 여행 경로가 열렸
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큰 틀에서 하나의 소주제,
1987년 6월 항쟁을 잡고 여정을 계획하였는데
이가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에 집중하게 되니
그 사건을 더욱 자세히 이해하고
내가 그 시대에 가 있는 듯 이입할 수 있었다.
또한, 부산 민주공원기념관과
서울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다른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읽어보며
학습할 수 있었으니
우리가 직접 찾아 탐구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호기심은 해결되었다.

이번 여정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주목한 민주 열사들이
지금 우리의 또래였다는 점이다.
지금 나에게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여정 내내 고민해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움직임을 더욱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생각도 거듭해보
며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은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잘 알고 앞으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거듭 사회 구성원으로서
확인하고 참여하는 일이라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모듬명 : 꽃갈피

구성원 : 박고은, 김지수, 황유림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민주의 꽃을 찾아 기행의 책갈피로 만들다

저희는 경인교육대학교의 사회 기행 및 실천 활동 동아리, '같이가치' 집행부입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 역사였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한 뒤에 발로 뛰는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장 탐방 프로그램 공고를 보고, 집행부인 우리가 더 배우고 동아리원들과 나누자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탐방주제

모두가 함께한 민주주의의 역사

탐방계획 요약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민중의 발자취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동학농민운동부터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 419혁명, 6월 민주항쟁, 현재의 모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로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구성하는 민주주의 탐방의 모든 결론은 민주주의는 결코 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다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6시 부평역

* 실제보다 차량이 많습니다.




부평역 쉼터광장







민주주의 기행 탐방팀, 민주화⁺⁺의 꽃⁺⁺꽃갈피

시작합니다 

민주화(花)의 꽃갈피

청년 민주주의 기행 탐방

경인교육대학교 재학생

박고은, 김지수, 황유림



8월 8일

일정

김포독립운동기념관



김포독립운동기념관

김포지역에서 일어났던 3.1 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관람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무료 해설 프로그램을 신청해 생생한 역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정 전시관 옆의 작은 전시실에서 기간 별로 주제에 따라 다른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어 알차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사태로 독립운동기념관 건물의 북카페와 문화관을 이용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평소에는 독립운동기념관 2층의 청년 사업회 공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체험 및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층 로비에서 민주운동가들의 의복 체험을 할 수 있는 포토존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번 작은 전시회 주제는 8.15 광복이었습니다.
독립과 광복 그림과 예쁜 글귀들이 담긴 캔버스로 벽면을 꽉 채운 게 참 예뻐답니다.



김포독립운동기념관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찰칵 -

코로나와 시설공사로 인해 전시관을 제외한 기타 공간은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포토존 의복체험도 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만 본 전시관과 미니전시회실은 잘 되어있었습니다.

청년만세운동의 고장, 김포

김포는 1919년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양촌읍, 고촌면, 하성면, 월곶면 등에서 전개된 대규모의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경기도지』(1955)의 ‘경기도 지역의 운동일지’에 따르면, 김포는 집회 횟수 12회, 집회 인원 15,000명, 부상자 120명, 체포자 200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경기도 내 집회 참가인원 2위로 기록되어 있고, 미주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한민보』의 기사에서는 3월 23일 김포 지역의 만세 시위 운동에 대해 ‘1만여 명의 대관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독립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젊은 학생과 청년들이 김포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김포는 지리 상 넓은 농지, 한강줄기, 서해와의 만남으로 커다란 시장, 풍부한 농지와 물을 가지고 있어 먹기 살기 좋고 교육열이 높은 곳이라 독립 운동을 할 때에도 학교 훈장과 학생들이 앞장서고 주민들 또한 다른 지역들에 비해 대규모로 먼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포 오라니 장터에서 일어난 대규모 만세 운동의 모습〉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듣다

중봉 조헌

중봉은 조 헌의 호입니다. 임진왜란 전에 일본이 '조선을 치지 않을테니 명나라 칠 길만 달라' 등의 이상한 낱새가 보이니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게 강력히 막고 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일본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를 막고자 문신 출신이었기에 관군을 모으지 못하고 의병을 1600명 넘게 모아 계속해서 잘 싸워내었는데 이에 관군은 문신이 백성을 구한다는 질투심에 방해공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는 금산전투였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의병에 가담했다면 관군들이 그 사람의 주변 인물을 붙잡아 괴롭히다보니 여러 의병들이 빠지게 되었고, 금산전투에서 권을 장군과의 협력을 논했다고 합니다. 무신 출신으로 전쟁의 흐름을 잘 파악하던 권을은 만나기로 한 약속 날짜에 적의 정세를 보니 다른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편지를 써서 다른 날에 싸우자고 이야기했으나 중봉은 그 편지를 받기 전에 이미 출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후퇴를 할 수도 없었기에 마지막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이 당시 700명 의병(금산 칠백의총이 바로 700명 의병들의 죽음을 기리는 것임)과 중봉, 중봉의 아들까지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전쟁사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은 것은 드문 역사입니다. 중봉이 너무 무모하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평가에서는 의병들을 우습게 보고 있던 일본군의 기세를 꺾고 목숨을 걸고 나섰기에 일본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으며 전투를 통해 일본군을 상대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이후의 전쟁에 이길 수 있던 도화선이 된 것이라 봅니다.

박충서 학생

이 운동의 주축에 있었던 경성 제일고교 학생 박충서가 만세 운동의 주요 인물로 부상하자 일본 헌병들이 여러 정보를 모아 훈장이었던 박충서의 아버지에게 협박을 했고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되어 본가인 김포로 오라고 했으나 박충서는 김포에 가서 친가, 외가, 포래 등 김포 사람들을 계몽시켜 함께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오라니 장터에서 김포의 동지들과 함께 사전에 태극기를 배부하고 특정 시간이 되면 태극기를 꺼내어 독립 만세를 불렀고 그는 2년형을 받고 나와 독립운동을 더 하고자 강원도 태백으로 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지주, 윤주섭 윤재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지주들은 스스로 직접 나서서 땅을 팔고 그 돈을 독립운동 자본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임용우 학교 선생님

독립 운동을 위한 단체 활동의 기회를 얻기 위해 일본 당국엔 운동회를 한다하고 모여 대한독립 운동을 했습니다.

이살늬(이경덕)

3.1운동에 참여했던 여학생으로, 신학을 공부했다. 독립 선언서를 옷 속에다 숨겨 김포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옥에 다녀온 이후 목사님 자격을 가질 수 없어 선교활동 하면서 양아들을 데려와 키웠고 양아들은 이경덕의 병이 위험했기에 야밤 중에 공동묘지에 시신을 매장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들이 죽고 며느리에게 그 장소를 물어보자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여 아직까지도 통진 쪽에 가면 이경덕 기념 표석은 있는데 무덤은 없습니다.

박용희

이경덕이과 함께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본에 잡히지 않도록 도망간 후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서 독립 기구에 자금을 보냈습니다.

의병

개인은 아니지만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 온다는 것을 알고 먼저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리나라 관군들이 어마어마한 배가 들어오니 갈팡질팡했고 백성들이 당황하였을 때 농민들이 의병을 일으켜 농기구를 들고 죽창을 들고 일본군의 무기를 뺏고 기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만세운동은 2년 정도의 형이었지만 의병들은 10년형, 총살 등등 다양하고 가혹한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병들은 광복군이나 무장독립 단체가 되어 싸웠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더 지배하면서 군대를 해산시켰을 때 관군이 의병으로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1 운동 당시에 태극기를 찍어내었던 태극기 목재판〉

당시 사람들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으니 태극기 하나를 위해 무명천에 건곤감리의 검정색을 입히고 오려서 바느질을 하며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수고를 덜고자 나무에다가 태극기를 조각해 물감을 발라 한지나 무명천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



〈안중근 의사, ‘국가안위노심초사’〉

나라의 안위를 마음으로 애쓰고 속 태우다.

해설사 선생님께 듣는 재미난 독립이야기

민족자결주의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가 행동한다면 강대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었으나 실제로 독립운동에 있어 강대국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민족자결주의는 독립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도록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인 결속의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 유학생의 YMCA, 도쿄 2.8 독립 선언

일본 당국에는 웅변대회를 한다고 신고하고 몇 백명이 모인 곳에서 김포 출신 김도연 선생이 독립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현장의 독립 결의문은 독립선언문보다는 더 강한 결의와 주장이 담겨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혈전까지도 생각한다. 또한 사태가 벌어지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일본 당국의 문제이다.'

독립선언문 일화

당시 건의문의 형식으로 온건하게 '독립 건의문'을 쓰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건의는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여 선언문으로 정명하였다고 합니다. 동양의 평화를 위해 행동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최남선 선생님이 초안을 쓸 당시에, 일본이 우리말을 못 쓰게 하니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나라의 옛날 고전을 발굴해 정리하는 '광문회'란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 임규라는 회원의 부인이 일본인이었기에 부인의 안방에서 일본의 눈을 피해 3주간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독립선언문을 인쇄, 배부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했고 현재 서울 낙원동에 자리한 '천도교 회관'에서 도맡아 주류였던 천도교(동학)이 2만 천 부 이상 찍어내어 비밀리에 배부했다합니다.

태화관과 탑골공원

태화관에 모인 민족 대표들은 100장의 독립선언문을 펼쳐 설명하고 나눠주었고 2시에 만해 이를 한용운이 낭독했다. 같은 시각 탑골공원에는 서울 학생들이 모였으나 2시가 되어도 대표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지 않아 당황하고 실망했다. 학생 정재용이 독립선언문을 읽고 모두 끌려갔다. 민족 대표들은 사전에 일본 헌병들에게 난리가 나니까 태화관에서 자발적으로 전화해서 일본이 출두를 했다고 한다.

3.1운동이 3월 1일날 일어난 이유

고종이 1월 21일날 갑작스럽게 승천했고, 원인으로서는 독약에 의한 죽음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그 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고종의 인산일이 3월 3일날로 정해지고 많은 사람이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 때를 기회로 생각하여 만세 운동을 계획합니다. 인산일 당일은 국장일이기에 3일날은 피하고 당겨 2일날에 하려고 했는데 민족 대표 33인 중 가장 높은 종교 비중을 차지한 기독교에서 2일날이 일요일라서 기독교가 예배를 해야한다고 하여 하루 더 앞당긴 1일날에 만세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의 만행

일본은 우리나라를 면단위로 착취하고 식량이 떨어지면 침탈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월급을 준다는 꼬드김으로 어린 아이들을 배에 태워가 하시마섬에서 노동을 착취한 군함도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아이들은 땅 속 1000미터 이하에서 석탄을 캐야했고 한 달의 임금만 지불받아 임금 문제로 항의를 했으나 일본은 조선인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돈으로 다 쓰인다고 임금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미쯔부시 회사

위와 같이 착취해서 돈을 번 기업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배우 송혜교에게 중국에 상품을 팔기 위한 모델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키시마오 사건

광복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던 한인 가족들이 탄 배가 일본 연안을 돌아오다가 폭침한 사건입니다. 사망자는 3000여명 정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이 일본 연안을 돌아가면 기름을 넣어야 한다니 미군이 바닷속에 설치한 어뢰에 의해 터졌으니 하는 괴변을 늘어놓자 그것을 확인하고자 연구한 한국 교포가 있었습니다.

그가 확인하여보니 미국의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면 아래에서 위로 뚫린 배가 되어야 하는데 다 찾아보니까 위에서, 내부에서 생긴 것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과 스코필드 선교사

제암리에서 일본군이 3명에게 발포를 했고, 주민들이 분노하며 저항하자 일본에서 일대 마을을 다니면서 주동자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주동자가 잡히지 않자, 일본군이 본인들이 발포한 것을 사과할 테니 만 15세 이상 남자들을 교회에 오라고 초대했고 이후 사과를 받기 위해 간 사람들이 교회가 간혀 일본인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일본인은 총살당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불을 지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대를 지나가는 스코필드 선교사가 이를 발견하고 들키기 않게 새벽에 사진기를 몰래 가져가 찍고 캐나다 영국으로 전송했습니다. 스코필드는 일본의 만행을 국제에 최초로 알리고 시신 처리를 도와주며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책도 출판하는 등 끝까지 남아서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을 각국에 전달해 민족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 소감

☞ 지수

김포 독립운동 기념관을 돌아보며 나는 이게 바로 역사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김포 지역의 독립운동을 비롯해 전국의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기념관에는 독립을 위해 맞서 싸우신 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은 벽면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벽면에는 이름만 있고 사진과 정보 하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을 비롯해 이름도, 사진 한장도 역사에 남지 못했지만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운 아무개들을 생각하면 놀랍고도 소름이 돋는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 장사를 하던 사람들, 교육을 받는 학생 등등 모두 자신을 비롯해 가족,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만세를 외쳤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굵직한 사건에는 항상 민중이 함께 해왔다.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정말 특별한 사람 한 명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함께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지쳐 이런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마다 우리는 역사를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뜻 깊은 기행이었다.

☞ 유림

사적에서 좋은 문장에서 전시회처럼 잘 배치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설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다. 지역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학생들이 소감 남긴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일화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 고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으로 걸어오면서 태극기와 무궁화가 거리에 늘어선 길을 걸었다. 기념관에 들어가기 전체 태극기와 무궁화를 보고 벽찔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았다. 건물 외벽은 독립 운동가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워온 모두를 대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기념관 관람은 해설과 함께 해서 더 좋았다. 미처 모르고 지나가던 독립 운동의 흔적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내용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역사책에서 내가 알던 독립운동은 고작해야 3.1운동이었다. 역사 시험에 나올만한 독립의 의미와 사건을 배워왔다. 서울이나 특정 지역에서 크게 번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기준은 누가 잡는 것인가? 대학생이 된 지금에서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역사는 어떤 것일까? 대학교에서 역사에 대해 배웠던 것이 기억났다.

역사는 사실이라기보다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다. 진정한 역사 공부라는 것이 미처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애써 찾아내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행위임을 해설을 들으면서 느꼈다.

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새삼 신기했다. 다시금 변화와 혁명은 혼자서는 불가능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팀이 계속해서 추구했던 모두가 힘을 합치는 민주화의 모습을 독립운동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운동이나 지향하는 바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함께 하는 집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관람을 마치고 여러 독립 운동가 분들이 일본이라는 위협을 무릅쓰고 나섰던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이런 일을 한다고 본인이 대단한 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을 것이다. 일제의 탄압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친일파가 되거나 숨어다녀 살아갔을 것이다. 그들은 혼자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이 주체성을 가지며 살아가고 나의 후손이 억압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일제에 대항했을 것이다. 주체성과 민주화를 염원하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의 당연하지 않은 희생의 목적을 너무 외면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이 들었다.

해설에서 김포시 있던 독립운동들은 대부분 젊은이, 지식인들이 주체가 되어 이끌었던 결과라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 아니 오히려 더 어린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면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던졌을까. 아니다. 그들은 그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했던 사람들이다. 지금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사회에서 우리가 운동의 주체가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던가?

나 또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교육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아야 함을 깨달았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내가 민주주의, 민주화의 염원이 깃든 곳을 기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8월 10일

일정

답동성당 - 5.3민주항쟁터(시민공원역) - 6월 항쟁 기념비(부평역)

인천 답동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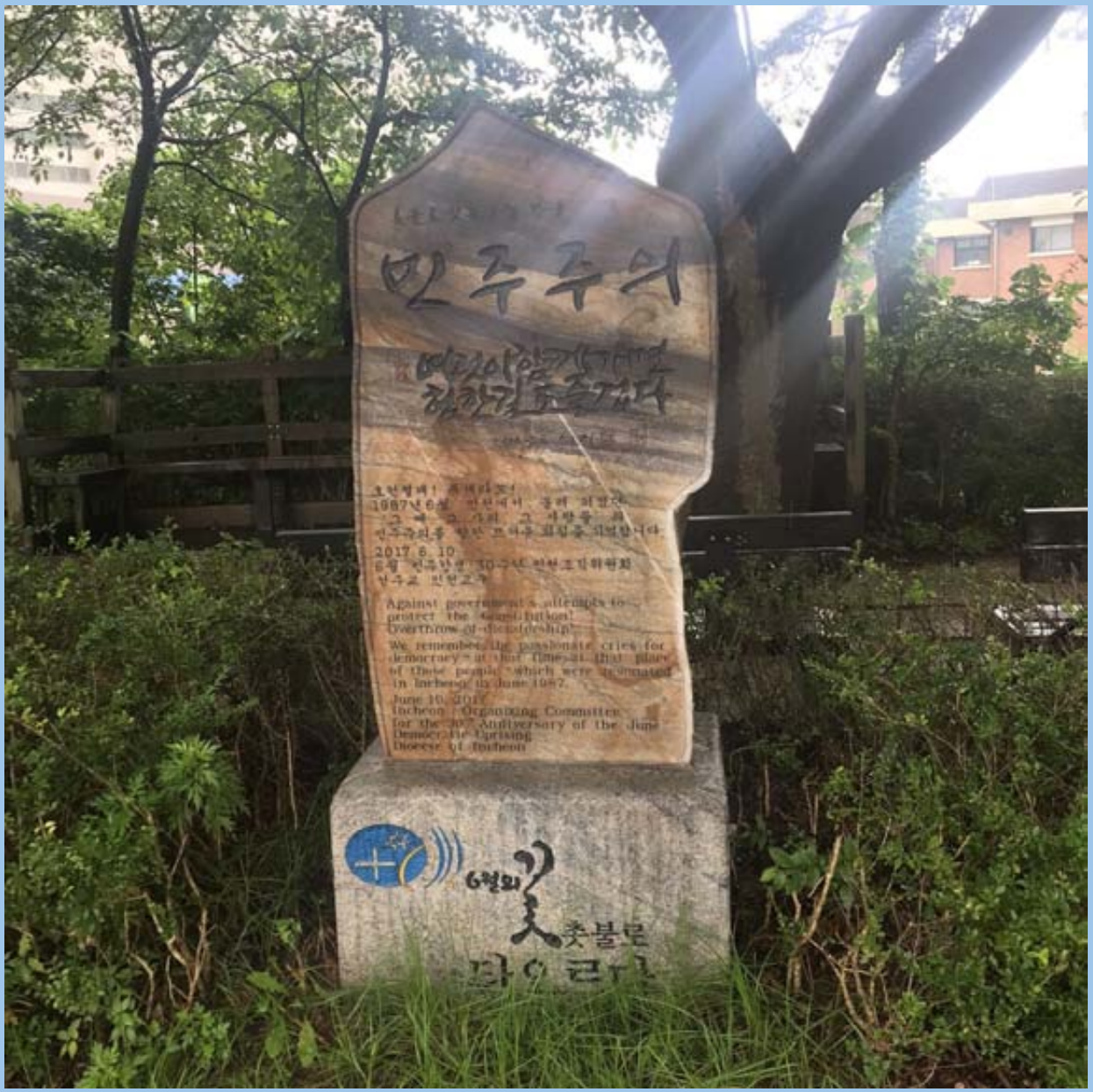
〈답동성당 앞에서 찍은 사진〉

우리나라에서 건축된 오래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 중 하나로 인천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이자 투쟁의 에너지를 제공한 곳입니다.



〈답동성당 내부 사진〉

이곳에서 사람들은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를 중대한 국가범죄로 인식하고 추도식 및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4월 13일 전두환이 호헌조치를 발표하자 민주개헌을 위해 미사를 봉헌한 뒤 답동성당 건물 중 하나인 가톨릭 회관에서 단식기도에 들어가 5월 6일까지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답동성당 앞에 있는 6월 민주항쟁 기념비>

인하대생, 시장 상인들, 의사, 변호사, 노동자 등을 비롯해 신부와 목사와 같은 종교인 모두가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함으로써 인천 시민들은 더 끈끈히 결집되어 투쟁하였습니다.

인천 5.3 항쟁터



〈옛 시민회관 쉼터 안의 민주항쟁 터와 기념비〉

과거 5.3 민주 항쟁의 장이었던 인천 시민 공원은 기념비를 세워 5.3민주 항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념비에는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라는 문구가, 뒷면에는 구속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작은 표석에는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인천지역 노동자, 학생,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헌법 쟁취를 외치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이다. 오늘 우리는 항쟁 발발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날의 외침을 인천지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으로 기억하고자 여기 표석을 남긴다.”는 말이 쓰여져있었습니다.



<터를 표시한 바닥판이 보존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지수가 다시 만들어 주었다>

인천 5.3 항쟁터에 숨겨진 역사

부평역



〈인천의 6월 민주 항쟁 기념비〉

부평역 십터 광장에는, ‘6월의 꽃, 촛불로 타오르다’라는 제목과 함께 호헌철폐! 독재타도! 1987년 6월 인천에 울려 퍼졌던 그 때, 그 자리, 그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외침을 기억한다는 내용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부평역 속 숨겨진 역사



1987년 6월 10일 오후 6시 부평역 광장에서 군부독재 타도하자라는 외침 아래 수천명의 시위대가 광장과 거리를 메웠습니다. 시민과 노동자, 학생들은 대학교 부근, 성당과 교회, 동인천역과 부평역 등거의 인천 시내 전역에서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6월 18일에는 최루탄 추방 전국대회를 진행했고 만 명이 넘는 시민과 학생, 노동자들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시위대가 1만 5천명으로 늘어나자 경찰은 최루탄 발사는 물론 백골단을 대거 투입하여 해산에 나섰고 무차별적인 폭력 아래 700명이 넘는 시민, 학생, 노동자가 연행되었으나 6월 29일 노태우가 민주화 선언을 할 때 까지 인천 시민의 민주주의 함성은 계속되었습니다.

● 소감

☞ 지수

인천에 숨겨진 민주주의를 찾아다녔던 오늘의 기행은 굉장히 신선했다.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대규모의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다루는 지역은 극히 정해져있다. 그렇기에 자꾸 특정 지역을 위주로만 사건을 떠올릴 때가 많았었다. 그렇기에 오늘의 기행은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 볼 수 있었다.

1986년 5월 3일, 다음 해에 있을 6월 민주 항쟁의 전초이자 불씨였던 그 날. 사람들은 인천시청 광장에 모인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라고 외치며 경찰의 무력 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인천 시민들.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민주화는 시작되었다. 1987년 6월에는 인천 시민들 또한 국민 모두의 소원이었던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거리에 나와 민주주의를 열망했다. 이렇게 인천에서도 민주주의를 꿈꾸며 투쟁했던 이들이 거리에 가득했었던 것이다.

기계공고는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출입하지 못했지만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열망, 부평역, 시민공원역에서 독재타도를 외쳤던 민중들은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에도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던 기행이었다.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 5.3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유적들을 좀 더 확실히 보전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점이였다. 우리가 많이 남기고 기록한 만큼 우리와 가까워진다. 그렇기에 단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기행이었다.

☞ 유림

역사박물관이나 기념관처럼 역사의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역사를 기억하는 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하루였다. 오늘 갔던 민주사적지들 모두 건물 및 조형물, 거리만 보면 민주화의 역사가 담겨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못할 만큼 훼손되어있거나 사람들의 무관심에 잊혀져 가고 있었다. 주변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을 설치하고 건물과 비석에 자세한 설명란을 비치해놓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텀블벅처럼 민주화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후원금을 받아 보존 및 기념 사업회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민주화역사를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 고은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간 3곳은 모두 민주화의 흔적이나 열망을 기념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우리가 애써 찾아낸 곳이었기에 현재 모습을 볼 수 있었지, 관심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획 지나가는 장소에 자리잡고 있었다. 잘 보존하고 있는 민주화의 역사적 장소도 일반인들이 밥먹듯이 들르지 않는 실정인데, 과연 인천의 이 세 곳을 다른

사람들이 인지를 하며 지나갈까. 가장 속상했던 것은 간단한 소개 안내판 하나가 없었다는 것이다. 조금 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보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대부분 역사가 그렇다. 애써 굳이 보존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에 덮여 잊혀지는 그러한 것들. 인천 지역에서도 민주화 운동과 항쟁이 진행되었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민주화를 위해 앞서 나갔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 그를 위해 애쓰던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 노력이 있었음을 깨닫기 어려웠다. 우리는 미리 사전 조사와 공부를 했음에도 허망한 마음이 들었다.

가끔씩 우리가 지나다니는 이 길이 과거의 한 때에는 민주화를 위해 사람들이 스러져가던 장소임을 알게될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저러온다. 내가 밟 디딘 곳곳에서 그들의 처절한 목소리와 강렬한 얼굴들이 스치는 느낌이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광장을 빼곡히 메우고 외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는 그들이 아닌 길을 걸어다닐 자격이 있을까.

앞으로는 기념관이나 박물관 등 좀 더 사람들일 오래 보고 기억할 수 있는 시설물이 늘어나 꼭 인천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람이 찾아와 인천의,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주화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

8월 11일



일정 : 서대문 형무소 - 이한열 기념관 - 연세대 캠퍼스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 부터 1987년 까지 사용된 일본이 지은 근대식 감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항일 독립가들이, 해방 후에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갇혔던 곳입니다.



건물은 **붉은 벽돌**로 이루어졌습니다. 붉은 벽돌들은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이 만들어낸 벽돌들이 같은 조선인들을 고문하는 건물의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 정말 비통해 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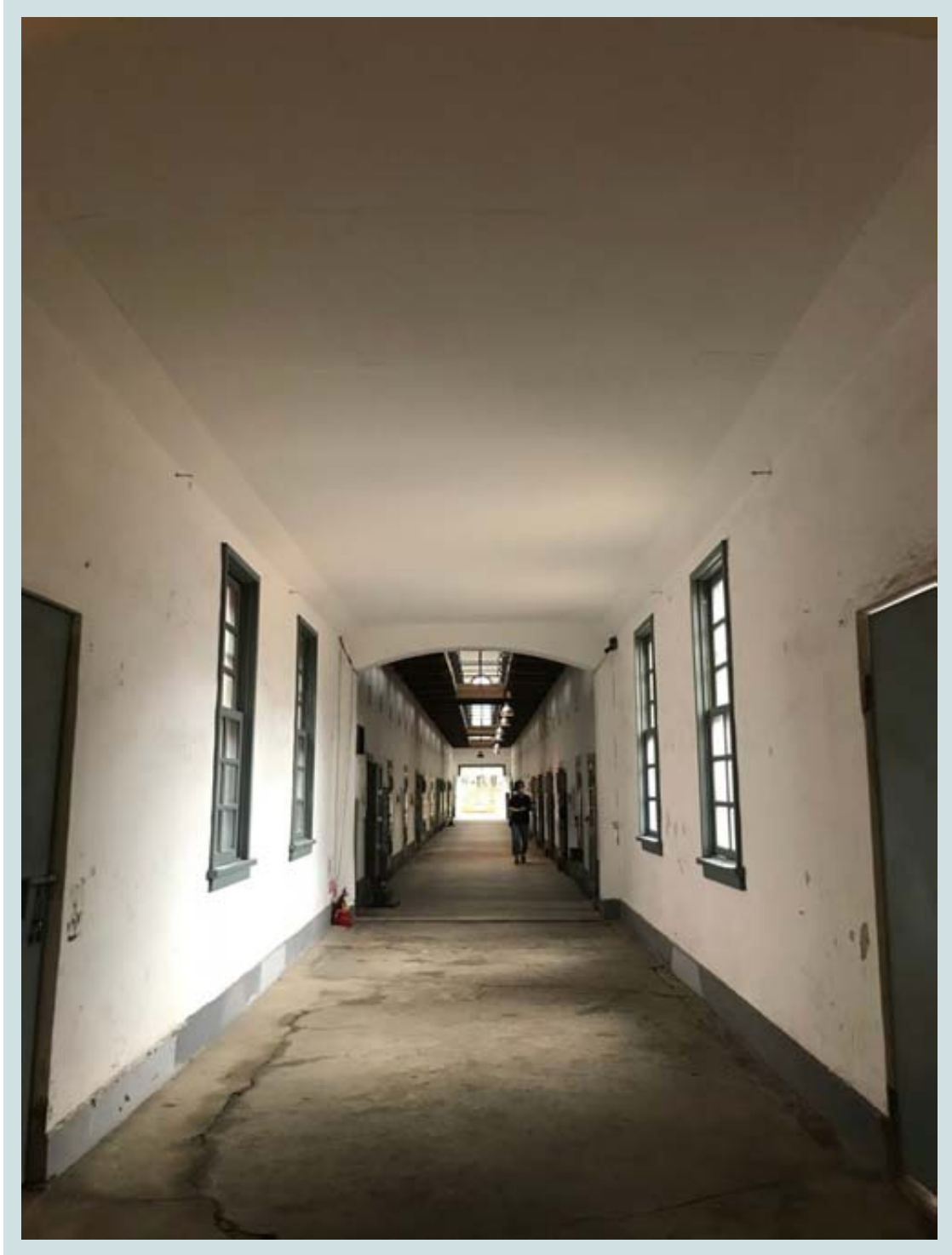
현재 서대문 형무소는 보완과 청사, 9~12옥사, 공작사, 여옥사, 사형장 등의 시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의병운동 참가자들을 수감하는 장소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를 수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현재에는 독립운동가와 민주투사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신념을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수감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갔을 때 한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도 섬뜩합니다.



11옥사, 12옥사는 수감자들이 수감되는 곳으로 많은 감방이 있었습니다. 한 방에는 10명이 넘게 수감되어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아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잠은 서로 순번을 정해서 자고, 대화는 일체 금지이기에 벽을 두드리며 신호를 보내며 밖에서의 독립운동 진행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매년 3월 1일이 되면 한 감방에서 시작된 대한 독립 만세는 옆 방으로 퍼져나가 형무소 전체에 울려퍼졌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려 그들의 의지를 꺾으려는 **지옥의 공간**에서 오히려 **그들의 열망의 불꽃**이 시작되고 피어났습니다.

현재 11옥사, 12 옥사는 감방마다 1970-80년대 민주운동가 분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간에서 현재의 민주주의가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동교육은 노동의 심지와
자유에 관한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신인령 심인령



세대문구민은 당신의 현사를



또한 매년마다 **이 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12명의 독립운동가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프로젝트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옥사의 경우 여성 독립투사들을 수감하는 곳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갇혔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유관순 열사 뿐만 아니라 조선의 독립에 인생을 바친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옥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서로 돌아가며 아이를 챙기고 함께 키워나가기도 했습니다.



위 사진은 실제 사형이 집행되었던 **사형장**입니다.

내부는 촬영 금지라 찍지 못했지만, 입구에서부터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형장의 이슬이 되어 통곡의 눈물을 흘렸을 곳이었습니다.



이 문은 **시구문**으로 사형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구문은 **시체가 지나가는 문**으로 시신을 외부로 몰래 반출하기 위해 뚫어 놓은 비밀 통로입니다. 나중에 일제는 이 통로의 흔적을 없앴고, 지금은 복원하여 모양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형기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의 벽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분들의 수형기록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찬찬히 돌아보고 해설까지 들으면 하루가 모자란 민주화사적지입니다. 건물의 위치와 구조, 터가 일제강점기 시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시대 독립투사들과 조선인들, 한국의 독립을 도왔던 외국인들이 투쟁하고 일본의 각종 고문을 버텨온 과정을 생생히 느낄 수 있던 곳입니다.

독립문







독립문은 높이 14.28m, 너비 11.48m 크기의 문으로 ‘독립문’이라는 글씨와 함께 좌우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서재필이 독립 협회를 조직 한 후 독립문 건축을 건의하고 이에 황제를 비롯해 애국지사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조선의 자주적 독립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한열기념관



2004년 개관했으며, 이한열 열사의 유품과 6월 민주항쟁의 기록을 보존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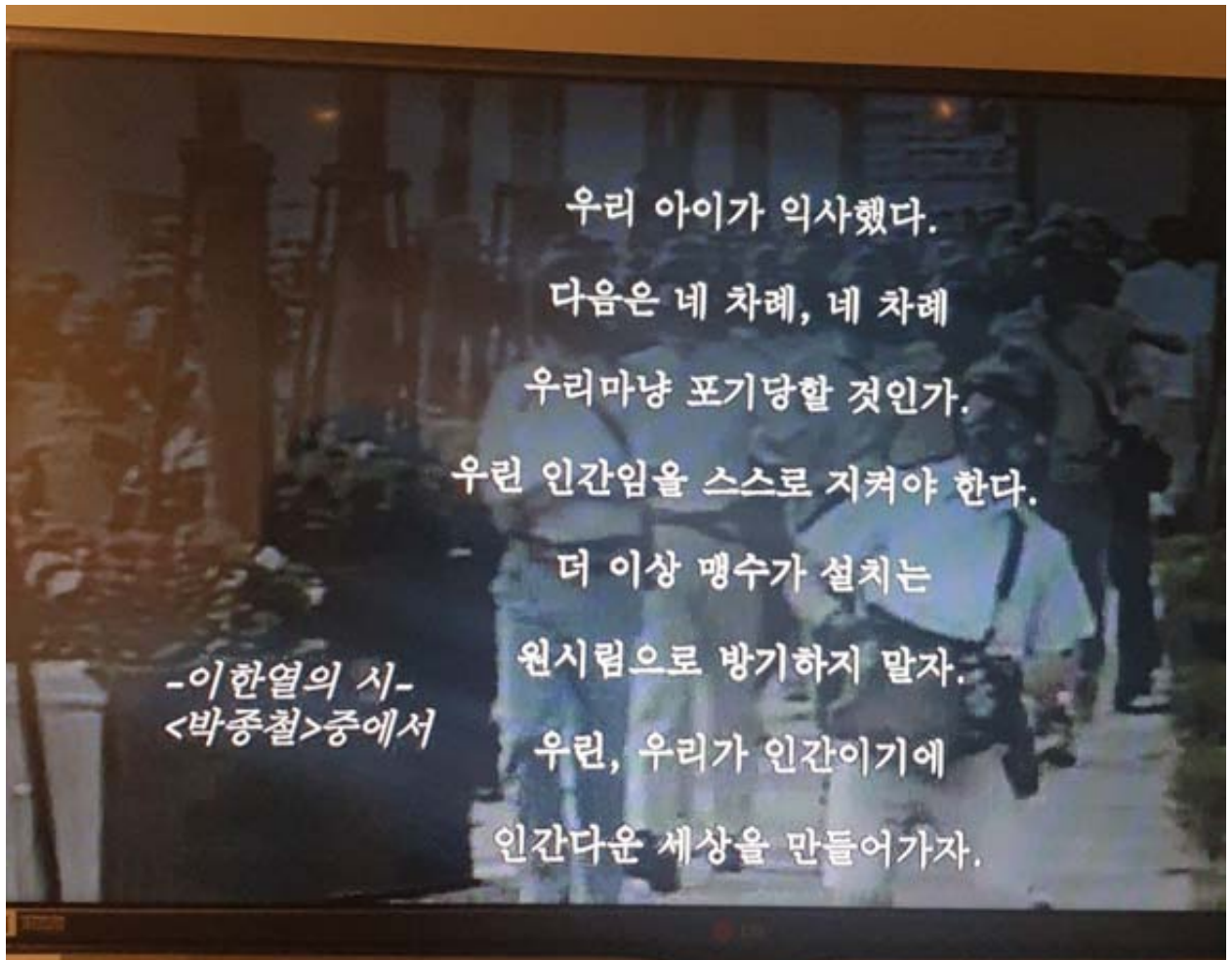
1987년 1월 14일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한 후 명동성당에서는 그와 5.18 광주 민주 항쟁의 추모 미사를 진행합니다. 미사가 끝난 후에는 그의 고문치사의 진상이 조작 되었다며 낭독을 시작했고 당국은 은폐조작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진실 규명을 요구합니다.

그 이후로 전국에서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최대규모로 열리고 이 대회 바로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집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한열 열사가 서있었습니다. 그렇게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집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전두환 정부의 폭력성을 규탄하며 학생들과 함께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하는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시민들은 마침내 민주주의를 이루게 됩니다.

기념관에는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을 때 입고 있던 티셔츠와 청바지, 운동화가 전시되어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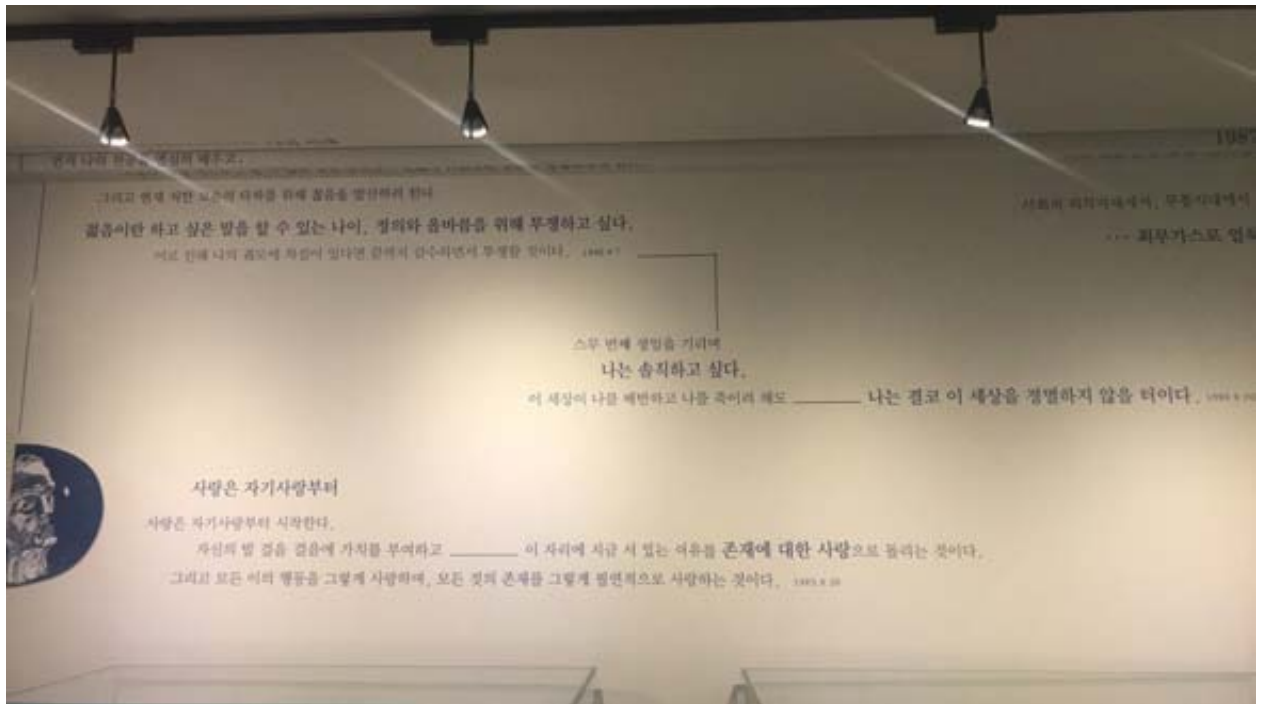


우리 아이가 의사했다.
다음은 네 차례, 네 차례
우리마냥 포기당할 것인가.
우린 인간임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더 이상 맹수가 설치는
원시림으로 방기하지 말자.
우린, 우리가 인간이기에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한열의 시-
<박종철>중에서



이
뿐만 아니라 그의 사진과 썼던 시, 그 당시의 학생들끼리의 약어 등 그 시절을 느낄 수 있는 유물들로 6월의 민주투쟁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투사 이한열과 인간 이한열을 둘 다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젊음이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나이, 정의와 올바름을 위해 투쟁하고 싶다. 이로 인해 나의 궤도에 차질이 있다면 끝까지 감수하면서 투쟁할 것이다. 1986.9.7

✓ 스무 번째 생일을 기리며 나는 솔직하고 싶다. 이 세상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결코 이 세상을 경멸하지 않을 터이다. 1986. 8. 30.

✓ 사랑은 자기사랑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발 걸음 걸음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이유를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의 행동을 그렇게 사랑하며, 모든 것의 존재를 그렇게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1985 . 8. 30.

✓ 사회의 외곽지대에서 , 무풍지대에서 스스로를 망각한 채 살아왔던 지난 날이 부끄럽다. 최루 가스로 얼룩진 듯한 저 하늘 위에라도 오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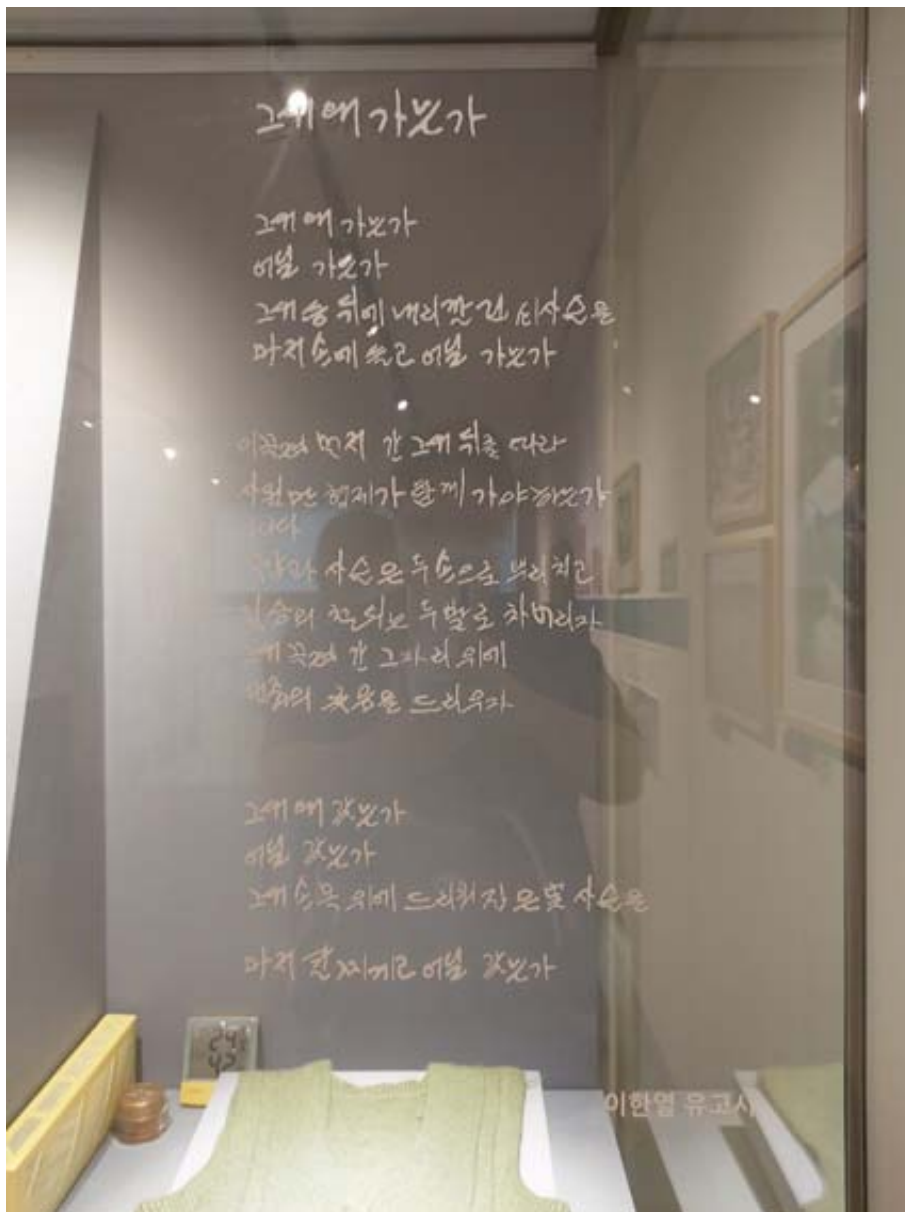
이 말들은 그가 20대에 남긴 말입니다. 짧은 문장에서도 그의 이상과 생각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보면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성찰해 보게 됩니다.

연세대 캠퍼스

연세대에서는 **한열 동산**과 **한열 동판**이 있습니다. 한열 동산이 생기기 전에는 **추모비**를 세워 그를 기렸습니다.

추모비에는 추모글과 그의 유고시, 숯구치는 유월이라는 제목의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추모글 : 여기 통일 염원 43년 6월 9일 본교 정문에서 민주화를 부르짖다 최루탄에 쓰러진 이한열 님을 추모하고자 비를 세운다



그대 가는가

-이한열

그대 가는가

어딜 가는가

그대 등 뒤에 내려 깔린

쇠사슬을

마저 손에 들고

어딜 가는가

이끌려 먼저 간

그대 뒤를 따라

사천만 형제가 함께

가야하는가

아니다

억압의 사슬은 두 손으로 뿌리치고

짐승의 철퇴는 두 발로 차버리자

그대 끌려간 그 자리위에

민중의 웃음을 드리우자

한열 동산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추모비는 박물관으로 옮기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에는 '198769757922'라는 숫자가 새겨져있습니다. 숫자는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1987년 6월 9일, 사망일인 7월 5일, 국민장이 치러진 7월 9일, 당시 그의 나이 22살을 의미합니다.

- 소감

- ☰ 지수

-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일제 강점기,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앞장 서서 조선의 독립을 외칠 수 있었을까, 앞장 서서 민주주의를 열망할 수 있었을까.

- 젊음이란 하고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나이, 자신이 궤도에 차질이 있더라도 끝까지 정의와 올바름을 위해 투쟁하고 싶다고 말했던 22살의 이한열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준다.

- 오늘 기행 장소들은 내가 학생 때부터 너무나도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 조금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갔지만, 두근거림도 잠시 그 당시 그들이 느꼈을 생생한 어둠과 고통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 되었다. 처절한 지옥의 공간에서도 희망을 외치며 버티고 버텼을 그들을 생각하면 그저 존경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 바람이 불어 쓰러 지긴 해도 절대 뿌리 뽑히지 않는 풀들처럼,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푹푹 뭉쳐 일제라는 바람, 독재라는 바람에 뿌리 뽑히지 않은 민초들.

이들 모두 평범한 일상 생활을 보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농사를 지으며, 자식을 돌보며, 공부를 하며 말이다. 그들은 위기가 있을 때 숨지 않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 일제 강점기에도 그랬고, 독재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는 그러하다. 시대는 다르나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관통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보통의 존재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 그들이 있기에 지금이 있고, 우리가 있다.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결코 한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는 것. 함께 내딛으며 함께 고통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든 정말 뜻깊은 기행이었다. 더불어 일제강점기, 독재 시대에 비굴함이 아닌 처절한 저항을 선택한 모든 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준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할 수 있었다.

☎ 유림

그냥 막연히 슬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민주주의를 만들어 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해서,

함께 다닌 친구들에게 보이긴 민망하지만 계속 눈물이 나서 많이 울었던 하루였다.

(마스크가 수건이 됐다..^^:)

대한민국은 항상 피해를 받고 강대국 사이에 끼여 힘도 못쓰고 독재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 살기 힘든 역사를 거쳐왔다는 생각이 강했다. 우리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앞으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곤 했는데 오늘 기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 한 몸바치고 때론 눈물삼키며 살아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좀 더 자부심을 가져야한다는 생각, 앞으로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대문형무소. 우리의 조상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도 우리나라 한몸바쳐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공간. 그 공간을 두 발로 돌아다녀보는 경험은 그 어떤 학교 교실, 인터넷 강의의 역사수업보다 값졌다.

공간에 두 발로 딛고 서 여러 사진들과 글과 조형물, 전시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며 일제 강점기 시대의 사람이 되어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상상하며, 이곳에서 싸워온 사람들을 그 공간에서 그려내어 볼 수 있었다.

서대문형무소가 있었던 그때의 사람들은 눈물보단 분노로 동정보다는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스스로 삶의 터전을 지켜내고자 하였다.

어두운 시기는 맞지만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일제강점기는 투쟁의 역사이다.

사람들의 피와 살을 양분으로 성장해온 우리 일제강점기 역사를 그저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자부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 고은

어렸을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 적 있었다. 그때에는 어렸기에 민주 독립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다. 그저 여러 섬뜩한 고문 기구들과 생존자분이나 가족들의 인터뷰와 관련 영상들을 보며 정말 잔혹하고 끔찍했던 그 당시에 대해서 어렵풋하게 생각했을 뿐이다.

예전부터 나는 서대문 형무소의 특징인 붉은 벽돌이 싫었다. 굉장히 엄격해보이고 시린 느낌이 있었다. 출입문 또한 나에게서는 두려웠다. 드라마에서 출소하는 장면에서 많이 보이던 회색빛 철문이 굉장히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관람을 하면서 정말 머리가 아플정도로 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저마다의 희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만났다. 이름이 있다면 다행인 것이고 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고 스러져간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무서웠다. 그저 나와는 동떨어져 과거에 희생을 당한 이들이라고 치부해 넘기기엔 나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나의 조상이자 나와 같은 사람, 아니 그냥 나와 같았다. 나는 이들의 희생이 있어, 이들의 저항이 있어 지금 잘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들은 미래, 후손을 위해 갈리고 깔려야 하는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 속으로 조용히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우리 민족이었다. 평소에는 이들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시금 불러볼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수감 생활이 상상이 되니 그들이 끝끝내 지키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다.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비좁은 공간에 많은 수감자가 다닥다닥 붙어 생활해야 하고, 계절에 따라 고된 삶을 보냈을 것이다. 밀고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고 변절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들이 끝끝내 버틴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나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한다.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절망에 빠질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이, 그리고 독립은 언젠가 올 거라는 기대가 그들을 버티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민주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느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확보해야 하고 해야 할 것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내가 지금 민주화의 역사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는 동아리에서의 공부와 영화 1987 등을 통해서 많이 접했다. 그래서 기념관은 언젠가 한번 꼭 가서 그의 옷과 운동화를 직접 보겠다고 생각했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한열의 삶을 쪽 느껴보기에는 충분했다. 그의 어릴적 사진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머리에 최루탄을 맞아 피를 흘리며 힘이 없는 그의 얼굴만 보았는데,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카메라를 또랑또랑한 눈으로 보고 있는 그의 눈을 보았다. 나는 그때부터 호흡이 떨렸던 것 같다. 그의 눈을 계속 보고 있다가는 눈물이 후두둑 떨어질 것 같았다.

나는 현 사회에서 민주화가 퇴보하는 모습을 볼 때,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행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곤 한다. 이한열 열사 또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마음 속에 분노를 느끼고 직접 행동했다. 그가 눈을 감은 나이는 고작 22살이다. 내가 그와 같은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 그의 죽음이 나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까닭은 그가 나였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나고 나는 그이다.

그의 옷과 바지, 신발을 마주했을 때 나는 찬찬히 그것들을 들여다보았다. 그것들이 온몸으로 이한열을 나타내는 것만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혼란스럽던 상황에서 사라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존재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했다.

22살의 젊은 나이로 삶을 마감한 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 그의 운동화는 민주를 향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동화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한열의 삶을 보고나니 앞으로 더 고민하고 사상에 대해 공부하며 마음을 다잡게 된다.

8월 12일

일정

박종철거리 - 명동성당 - 서울 YWCA - 이회영, 이시영 6형제 집터
- 향린교회 - 나석주 열사 동상 - 서울광장 - 민주인권기념관



박종철 거리

박종철 열사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다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1987년 범국민적 항쟁으로 전개된 6월 민주 항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박종철 거리는 박종철 열사가 서울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시국에 대해 토론하고 하숙하던 골목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박종철 벤치에 쓰여져 있는 편지 내용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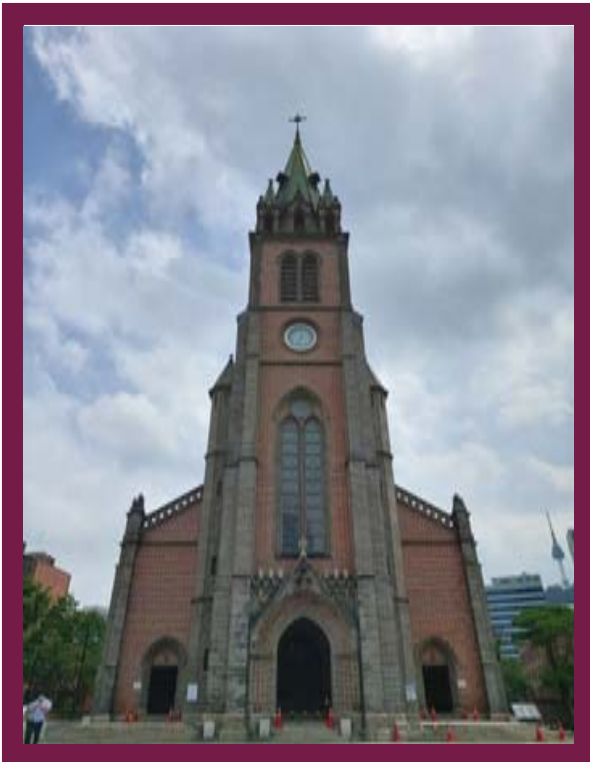


〈벤치에 앉아 있는 박종철 열사의 동상〉

명동성당

김수환 추기경 서임 이후 1971년 12월 24일, TV로 생중계된 성탄절 미사에서 박정희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유신을 발표하고 74년에 원주교구의 지학순 주교를 민청학련 사건 배후자로 만들어 구속했습니다. 이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결정되어 75년 ‘인권회복 및 국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인 데 이어 76년 3월 1일에는 함세웅, 김승훈, 문익환 목사, 김대중, 함석헌 선생 등 12명이 서명한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명동성당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메카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알몸’과 ‘인분’으로 처절하게 저항한 ‘동일방직 노동자투쟁’ 등과 같은 노동운동에도 명동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민운동과 인권운동에도 늘 동행했습니다. 특히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술한 반독재 집회가 열리는 등, 명동성당은 명실공히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쟁취”를 외치며 들고 일어난 1987년 6월 항쟁의 진원지 역할을 했습니다.



〈명동성당의 모습〉

서울 YWCA

10.26 사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가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979년 11월 24일 민주인사들이 결혼식을 가장해 서울 명동 YWCA 강당에 모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잠정 대통령 선출저지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유신헌폐와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러 민주 인사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회영, 이시영 형제 집터

이씨 집안은 한말에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여섯형제와 일가족 전체가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이회영은 ‘서전서숙’, ‘신민회’, ‘헤이그 특사’, ‘신흥무관학교’, ‘고종의 국외망명’, ‘의열단’ 등 국외 항일운동의 전반에, 이시영은 임시정부, 한국독립당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자주적인 독립과 민주화에 대한 마음을 키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회영 흉상과 이회영, 이시영 6형제 집터 표석>

향린교회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로 호헌 철폐를 위한 범국민연합전선이 필요했고 야당, 종교계, 재야 세력을 총망라해 5월 27일 창립 대회를 열기로 하고 경찰의 눈을 피할 장소로 찾은 것이 바로 향린교회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동판이 교회 입구에 붙어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 기념 동판>



나석주 열사 동상

나석주 열사는 4년간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귀국했습니다. 1919년에는 의열단에 입단하여 1926년에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으나 불발하여 조선철도회사에서 일본인들을 저격하고 자결했습니다.



〈나석주 열사 동상과 의거 기념터 비석〉

서울역 광장

10. 26 사건 이후 새로운 민주사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정부와 유착한 학원에 대한 시위를,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드디어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35개 대학 10만여명의 학생들이 비상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져 수백명이 연행되고 부상자만 23명이 나온 치열한 시위였습니다. 비록 회군을 했지만 민주화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민주인권기념관

1. 민주화를 부르짖는 시대적 상황

10. 26 사건 후 1979년 12.12 사태로 전두환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이후 1980년 5월 15일 서울의 봄 때 전두환 정부의 탄압으로 서울역 회군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모두 다 똑같이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5월 18일날 청량리나 신촌, 영등포 부근에서 만남을 기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일 저녁부터 17일 저녁까지 집회 주도에 대해 논의하던 이화여대 집행부들을 끌고가 18일날 주도하는 학생들이 없었기에 허무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당시 광주에서는 전남대에서 학생들이 모이기로 결정했습니다. 18일 자정 기준 전두환은 계엄을 포고했고 오전 7시에 전국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오전 10시쯤 200명 정도의 학생이 모이자 공수부대 철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광주 시민들은 학생들 주변에 모이지 않았고 학생들을 공수부대들이 쫓아와 대검으로 지르고 쓰러지자 시민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정부에서 일으킨 만행으로 피해자들은 5월이 오면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끔찍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입니다.

광주 사건 이후 대학생 기준으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고민하고 학생 노동자 등에 대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소리치며 정부에, 정부를 도와 군사력을 보태준 미국에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두환은 복지 사상을 만든 사회주의를 파랑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만들어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을 강제로 징집해 프락치활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나 군대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고문을 당한 사람이 있고 여러 명의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이후 1986년 인천 5.3민주 항쟁이 있었습니다. 주된 슬로건은 직선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항쟁 때 연행되어 잡힌 사람들은 엄청난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민주 항쟁에 대해 조사하던 권인숙을 성폭행한 부천서성고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28일날 건국대 사태도 있습니다. 국화꽃 축제를 준비하던 중 타학교 학생이 들어와 집회 준비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진행하고 귀가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교문을 봉쇄하고 뉴스에는 좌경용공 세력들이 건국대를 점거했다고 왜곡보도를 했습니다. 그 후 10월 28, 29일날 전기를 끊고, 물을 끊어 3일 후에 헬리콥터 소방 30대가 물에 최류탄 원액과 소이탄 등을 섞어 뿌려 1000명 이상을 구속했습니다.

2. 민주인권기념관 역사

건물이 지어지기 전 1972년, 남북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비합법적 모임에서 남북은 간첩 활동이 비효과적이었기에 그만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간첩 수가 점점 줄어 90년대에 두 자릿수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간첩 수가 점점 줄어드는 1976년, 박정희 유신 정권 절정기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치안본부 대공과 대공분실, 현재의**

민주인권기념관 건물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민주화 학생 노동자 운동하는 세력을 좌경용공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좌경용공 세력은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세력이라는 뜻으로 간첩 조작이 매우 쉬운 집단이었습니다.

치안본부 대공과 대공분실이 생겨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당시 대공 업무 파트와 함께 간첩을 다루었기에 대공 경찰들이 힘이 강했습니다. **이들이 간첩을 잡아 조사해야 그들의 직업에 대한 정당성을 세울 수 있는데 간첩의 수가 낮아지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첩 대신 유신에 반대하는 사람, 민주화 노동 운동한 사람을 강제로 연행해 고문하고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적화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가난하지만 평범하게 살던 시민들도 연행해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70~80년대의 주된 피해자들은 배우지 못해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이런 만행이 국민들에게 밝혀지게 된 것은 **1985년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자인 김근태 의장이 9월 4일부터 23일간 고문기술자들에게 515호실에 당한 고문을 법정에서 증언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형을 집행했고 부인 인재근이 사실을 녹음해 미주 한국일보 심기섭 기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타임즈에서 고문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국제 엠네스티에서 고문을 그만하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자행했고 그러다가 1987년 박종철 물고문 치사 사건 발생하게 되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그 당시에 홍제동에도 대공분실을 하나 짓고 있었는데 완공되기 전에 홍제동 팀이라고 대공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잠시 남영동 남영동 대공분실에 왔었습니다. 그 수사 2팀에서 바로 박종철 물고문을 자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홍제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1991년도에 경찰청 보안분실로 사용되었고 2005년에는 보안분실이 홍제동으로 옮겨가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박종철 아버님과 많은 사람이 과거의 야만의 시대를 말하고 인권을 생각하는 센터로 만들자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10일에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변화되어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고 시민의 품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3. 건물 외부

민주인권기념관 부지 내에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영화 1987에서도 등장한 장면으로, 대공 경찰들이 테니스를 하며 고문을 위한 체력 길렀습니다.

건물 왼쪽 뒤에는 영화 '1987'에서 하정우와 김윤석이 대치했던 소각장과 남영역이 있습니다. 고문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관련 자료를 태우는 소각장과 대공분실 주변을 빙 두르는 위압적인 철조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시설이 있었기에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만들지 않았고 일부러 역 옆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철문이면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이중문을 설치해 보안을 강화해 연행자의 가족들도 정확한 위치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대공 경찰들은 연행자의 눈을 가리고 고개를 숙여 끌려온 피해자들이 어디로 온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위장 간판이 달고 대공업무를 봤기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건물 주변에 있던 건물에서 보는 것을 금하기도 했고 외부로 유출되는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작은 창문을 만들었기에 고문하는 모습과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고문실인 5층 창문이 작은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게 창문 비율을 모두 맞춰 만들었기에 목격자에 의하면 건물 외관상이 이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 건물 내부

연행자가 고문실 5층으로 향하는 방법은 1층부터 중간에 있는 층에 도달할 수 없이 바로 고문실로 향하는 직각에 가까운 나선형 철제 계단이었습니다. 나선형을 이용해 공간 감각을 상실하도록 만들고 철제 계단을 걸으면서 서늘한 느낌과 쿵쿵 들리는 소리로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5층 방 호실은 501이 아닌 1, 2, 3... 으로 적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철제 계단의 모습〉

여러 번 리모델링되면서 박종철이 있던 509호만 원형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곳에 연행된 이후에는 좁은 방 안에서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창문은 투신을 하지 못함과 동시에 외부와의 단절하기 위한 용도로 밖을 못 보게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일반 가정에서 보기 어렵던 욕조 세트와 침대가 갖춰져 있는 이유는 이 또한 고문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물고문, 잠 안 재우기 고문, 물 안 주기 고문, 밥 안 주기 고문 등 생리적인 고문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방에 책상과 의자는 쇠붙이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죄수가 책상이나 의자를 들고 던지지 않기 위해서였고 전등도 깨뜨려 자해나 자살, 또는 경찰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로 만질 수 없게 막았습니다. 방음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비명을 지르거나 먹이 따지는 듯한, 흐느끼는 낮고 음산한 소리의 고주파 소리는 들려 수감자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던 509호〉

대공분실이 악질 구조였던 또 다른 이유는 경찰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음을 느껴 자기검열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무엇을 하든 모니터링 실에서 관찰이 가능했으며 cctv를 이용해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고 짜맞추기 용도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문도 굉장히 특이한데 문고리가 앞뒤로 똑같이 생겨 안에서 잠그고 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밖에 있는 경찰만이 문을 열고 잠그고를 할 수 있어 문조차 자유롭게 열 수 없었습니다. 외시경도 문에 달려 있어 안에서 밖은 못 보더라도 밖에서 안은 한눈에 다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문의 크기와 색깔을 같게 해 출구를 찾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

방 밖에서는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로 조명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빛의 세기가 달라져 수감자가 시간의 흐름을 잘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특정 색깔을 이용해 고문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14호와 김근태 의장이 있던 515호는 작은 방 두 개를

합쳐 전기 고문을 위한 방이었습니다. 김근태는 전기고문 기술자 이근안 등 한 번에 다섯 명씩 들어와서 폭력을 당하고 물고문 전기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출소 이후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도 다행히 시집은 읽을 수 있어 혼자서 고문 후유증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김근태는 고통이 생생한 텐 데도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고문에 대해 책을 썼습니다. 현재 515호는 따님이 추모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515호 추모의 방의 일부 모습〉

5.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의 사회

1987년 7월부터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노동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두발 자유화, 사복 입기 등으로 이어져 학생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학내 운동으로 형태가 변화해도 여전히 정부의 탄압은 강했고 그러다 결국 명지대 강경대 학생과 성균관대 김귀정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더불어 이 시기에 사회주의가 몰락했기에 앞으로의 비전은 없고 노태우 정권의 폭압은 여전했기에 투신을 많이 해 분신 정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철은 투신자살을 합니다. 정권에서는 이를 이용해 조작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입니다. 운동권

사람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김기철의 친구 강기훈이 김기철을 부추겨 자살을 유도했고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결국에 강기훈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6.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나 민주화 운동가를 유린했던 사람들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치권 주요 요직에 올리면서 그들은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나 군사독재 세력을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권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름을 바꿔 살아가다가 우연히 잡혀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죄책감에 대해 묻자 “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열차를 만들었다.”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죄책감을 받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부모에게도 잘 행동한 사람입니다. 이를 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은 근면성을 무죄가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은 유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70~80년대의 대공 경찰들도 아이히만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자신의 승진과 명예를 위해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치적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야 하며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표자들은 책임을 지켜야 합니다.**





● 소감

☞ 지수

국가란 무엇인가. 기행 내내 들었던 생각이었다. 국민을 지켜야할 국가가 앞장서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국민의 숨통을 조인다. 소리 소문 없이 고통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박종철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직접 대공분실을 둘러보니 그가 느꼈을 공포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를 비롯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왔을 수많은 사람들. 남영동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의 고문 장소가 되었을 대공분실들. 우리는 이러한 국가에서 살았던 것이다. 국민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국가.

국가 폭력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국민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국가마저 국민을 짓밟기에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애국심이라는 명분 아래, 단지 폭력을 승진의 수단으로 여기며 국가 폭력에 앞장 섰던 그들.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 다며 발뺌하고, 자신의 잘못을 축소시키고 은폐하려는 자들. 고문기술자라는 말도 안되는 전문성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세운 그들은 아직도 뉘우치지 않고 사죄하지 않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음에 분노해야한다.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한다. 기억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되풀이 된다.

공포의 대공분실에서 꺼져가야만 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불씨를 생각해서, 앞으로의 우리를 위해서 말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교사가 될 나는 큰 책임을 느낀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 그러면서도 함께 발 맞춰 치유해내가는 공감과 포용. 이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하루였다.

☞ 유림

우리나라는 왜 민주운동가들에게 속좁고 야박한 대우를 해왔나.

첫째, 적폐 청산을 못해서.

둘째, 우리의 일상에서 그들을 찾을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민주에 대해 기꺼이 찾아보지 않고 알아보려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적폐 세력이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 낸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앞으로의 평화를 만들어 낼 사람들의 팔다리를 묶는 것을 묵인하는 것과 같다. 적폐 세력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왔다.

그래서 우린 안주하지 않고 배워야 한다.

내가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때론 기울어진 운동장의 반대편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세상을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자주성과 불의에 맞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로
왜곡, 축소되어온 민주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제대로 기억하려는 시도에,
정의를 기억하고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 맞추어 함께 가자.

-> 박종철 거리

너무 좁은 공간과 보존이 안되었는 공간에서 홀로 벤치에 앉아있는 박종철 열사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헛웃음이 나왔다. 그의 죽음은 대공분실의 민낯을 밝히고 6월 민주항쟁의 불씨를 타오르게 했다. 민주화 역사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민주사적지나 터를 잘 보존하는 것을 넘어 새롭게 민주 역사를 꾸준히 기억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과연 이 거리는 보존부터 안되었었다. 아파트 놀이터나 한강공원보다 훨씬 못한 거리. 그를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기꺼이 알아내어 찾아오겠지만 과연 일반 시민이 길을 가다 이곳을 보고 들러볼 정도인지는 의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전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언제든지 보고 듣고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 거라면, 좀 더 우리와 가까운 곳에 민주열사거리도, 위안부 소녀상도, 추모기념비 등의 민주화 역사가 함께 해야 한다.

-> 명동성당 ~ 서울역 광장

영화나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향린 교회를 제외한 장소들은 알고 가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 같다. 직접 찾아보고 해설도 해보면서 몰랐던 것을 알아 갈 수 있었다.

-> 민주인권기념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얘기할 때 꼭 가보거나 이야기해야 하는 곳이다.

국가 폭력 피해자분들이 밖을 바라보는 창문은 좁게 만들고 주변 건물과 마주보는 면은 일반 건물같이 창을 크게 여럿 내놓고, 고문 경찰의 심터, 그리고 그들이 들락날락하는 출입구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출입구로 사람들을 들여보내 건물의 외관와 바깥 모습 몇 층인지 모르게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적어놓지 않고 나선형 계단을 만들고, 도망쳐나와도 어디가 출구인지 모르게 모든 문을 같은 색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건물의 내관

남영동 대공분실은 무엇을 위한 공간인지에 대한 의도가 명확하고 악랄하고 비인권적인 건물구조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관만 볼 수 있었던 당시의 시민들은 이곳이 그냥 부자가 사는 대주택이겠거니 생각했다고 한다. 그 안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국가폭력행위를 철저히 은폐했다는 것에 경악하고 화가 났다. 정작 그 시대의 대통령은 과연 그 죄값을 제대로 치르고 있지도 반성하지 않는 현실이 화가 났다.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억하고 또 알리고 함께 모여 분노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사회단체, 시민,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교육과 인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정부에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부정축재자 처벌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대에 있었던 기득권과 가담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고통의 역사는 어떤 형태로든 반복될 것이다.

☰ 고은

뜨겁다 못해 몸이 녹을 것 같던 날에 서울 민주화의 열기와 흔적을 보기 위해 돌아다녔다. 박종철 거리는 내가 생각한 것 보다 더 작은 공간이라서 아쉬웠다. 기념관이 세워질 예정이라니 다음을 기약했다. 박종철 열사의 동상이 그의 신념을 잘 보여주는 문장이 적힌 벤치에 앉아있었다. 나도 그의 옆에 슬쩍 앉아보았다. 동상이 살아있을 리가 없을텐데 고개를 돌릴 때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저들이 비록 나의 신체는 구속을 시켰지만 나의 사상과 신념은 결코 구속시키지 못합니다.” 그의 편지 내용이였다. 동상에서 보여지는 그의 올곧은 눈이 그 내용을 증명하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민주화의 흔적을 더 많이 보기 위해 명동성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YWCA, 이회영, 이시영 형제 집터, 향린교회, 나석주 열사 동상, 서울역 광장을 거쳐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걸어가는 코스를 선택했다. 사실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서울 기행은 아니었다. 회색 도시에서 민주 열기가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나마 기행 전에 미리 공부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쪽 걸어보며 민주화의 주요 장소였던 곳을 보면서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장소가 서울에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다.

민주인권기념관에서는 정말 깊고 자세한 내용을 듣고 볼 수 있었다. 영화 1987의 실제 촬영지임을 알게되니 더 집중이 잘되기도 했다. 이번 기행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마주한 폭력의 모습이었다. 합법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단결해서 행동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에 대항하여 진실을 드러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나에게 국가 폭력을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최적의 장소처럼 느껴졌다.

건물 외관이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모두 설계된 것이고 계획된 것이라는 점을 듣고 치가 떨렸다. 끔찍했다. 그리고 곧 두려움이 마음에 일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못을

해서 끌려간 것이 아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 아무런 이유없이 보인 존재들이다. 난 이런 조작 사건이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섬뜩한 기분이 든다. 불과 몇 십 년 전에 자행하던 모습이고 그들은 또 다른 나다. 내가 대공분실에서 쉽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처럼 조작당해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무섭다.

이유없는 고문과 폭행이 일어났을 때, 나는 나의 소신을 뚜렷하게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할까. 몇 주 심하게는 몇 달동안 갇혀 지낸다는 고문실 5층의 방을 보니 숨이 턱막혔다. 층을 알려주지 않는 등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인간이길 포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박종철 열사가 끌려와 죽음을 맞이한 509호. 실제 구조를 눈앞에서 보니 금방이라도 내가 대공분실에서 갇혀있을 것만 같았다. 나와 같은 사람들, 또 다른 내가 이곳에서 죽어가지 않았을까. 도저히 죄송하다는 말로는 그들의 피해를 덜 수 없을 것 같다. 일전에 갔던 서대문형무소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들 정도로 감시와 폭력에 최적화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안에서는 열 수 없는 문고리, 머리를 내밀어 볼 수 없는 창문,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타인이 감시할 수 있는 cctv와 외시경, 물고문에 최적화된 옥조... 이런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아직도 처벌받지 않으며 잘 살아가는,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섬뜩하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은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 계속해서 그때의 기억으로 고통받으며 말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살아왔기에 그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사회에서 분노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우리의 주체적인 민주화 열기를 계속해서 불태워 가기 위해서는 그에 위반되는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넘어가야 한다. 폭력의 피해자들이 당당히 국가에 맞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도 함께 걸어가며 대항해주는 것밖에는 없다. 그들과 같은 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예의주시해야 한다. 박종철이 구속이 되어도 저버리지 않은 사상과 신념을 다시금 곱씹어 본다. 폭력이 사상을 지배할 수는 없다.

8월 30일

국립 4.19 민주묘지

1945년, 35년 동안의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난 우리 민족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강대국들에 의해 남북분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2년도 채 되지 않은 1950년,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을 겪어야 했으며, 3년에 걸친 전쟁으로 우리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재건하고 국가경제를 일으켜야 할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꾀하며 부산 정치파동, 사사오입 개헌, 반대세력에 대한 폭력 등 온갖 정치적 부정과 탄압을 일삼았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1956년 민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자 이에 불안해진 자유당은 1960년 3월 15일에 있을 정·부통령 선거를 대비해 선거 1년 전부터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알게 되고 1960년 4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해, 불의의 독재권력에 항거한 4·19혁명이 일어났습니다.

4·19 민주묘지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자행한 권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던 민주 영웅들을 모신 묘역입니다. 권력의 총칼에 굴하지 않고 자유 민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몸을 바친 영령들이 이곳 민주주의 성지의 주인공들입니다. 4·19 혁명은 민주적 시위를 통해 독재의 질곡을 물리치고 민의가 반영된 정치체제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선진 사례입니다. 선열들의 정신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헌법 전문의 표현대로 동시대인들과 후손들이 이어가야 할 자랑스런 유산이기도 합니다.



- 민주의 뿌리 : 독재와 부정의 시대 상황을 뚫고 솟아난 기상을 표현한 조각상입니다.
- 수호예찬의 비 : 독재와 부정의 시대 상황을 뚫고 솟아난 기상을 표현한 조각상으로 4·19혁명을 소재로 발표된 시 중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한 12수의 시를 각인했습니다.
- 정의의 불꽃 : 4·19혁명의 역사적인 의미를 불꽃형상으로 표현한 조각상입니다. 사각의 기념비적이고 수직적인 형태 안에 불꽃의 형상을 투각하여 3개의 무궁화 꽃잎을 상징하는 반원형의 형태가 그 수직적인 형태를 부드럽게 감싼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조형물과 연계하여 결실의 완성적 의미를 표현합니다.
- 군상부조 : 중앙부에 환조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측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벽면조입니다. 좌측의 1·2부는 4·19혁명 당시 암울했던 시대상황과 민중들의 자유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고 우측의 3·4부는 4·19혁명 이후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구상적 수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 참배단 : 4·19혁명 희생영령에 대한 참배 시 헌화·분향을 위한 단입니다. 천제를 3등분하여 중앙 부에는 향로를 형상화하였으며, 향 하단부에는 태극의 핵을 형상화한 반구의 받침이 향로를 받들고 있는 모양을 묘사했스빈다.
- 연못 : 상징문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의 쉼터입니다.
- 상징문 : 철탑으로 기념탑 전면에 좌우 5개씩 위치하고 있으며 성역 공간과 이용공간을 구분했습니다.

- 자유의 투사 : 쫓겨나고 학생과 진압경찰의 대치된 상황을 수평적 구도로 묘사한 조각상입니다.
- 수호자상 : 대한의 건장한 남·여 한쌍으로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형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조각상입니다.
- 기념탑 및 분향소 : 기념탑은 4·19민주묘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유와 평화를 기리는 애국·애족·호족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현충문은 현충탑을 출입하는 문으로 우리 전통양식의 다포식 한식 기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군상환조 : 기념탑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4·19혁명 당시 민중의 형상을 반추상적으로, 그 날의 현장을 지켜보며 후세에 이를 증거하는 묵시적 형상을 표현했습니다.
- 만장 : 기념탑 좌우뒤편 묘역에 10개씩 위치하고 있으며 4·19혁명 희생자의 영령을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 묘지 : 4·19혁명에서 희생하신 분들이 안장되신 묘역입니다.
- 기념관 : 4·19혁명의 배경과 내용 및 역사적 의의를 알리고 그 뜻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건립했습니다.

출처

인터넷 자료 - 홈페이지 명, 「자료명」, 작성일, 사이트 주소, 접속일자

신문자료 - 글쓴이, 「글 제목」, 『신문사명』, 신문 날짜

-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립배경 및 목적」, <https://www.fgy.or.kr/1931gimpo/PageLink.do>, 2020.08.08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천의 명동,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인 ‘답동성당」, <https://www.kdemo.or.kr/blog/poem/post/1332>, 2020.08.10
- 이한열기념사업회, 「청년 이한열」, <http://www.leememorial.or.kr/>, 2020.08.11
- 네이버 포스트, 「[오래가게 스토리투어] 녹두거리와 박종철 거리」, 2019.11.22, <https://blog.naver.com/socoolment?Redirect=Log&logNo=221710311416>, 2020.08.1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약자들의 안식처이자 소도 ‘명동성당’을 찾아」, 2017.01.24, <https://www.kdemo.or.kr/blog/find/post/1348>, 2020.08.12
- 네이버 백과사전, 「YWCA위장결혼식사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0455&cid=62048&categoryId=62048>, 2020.08.12
- 민주야 여행가자!, 「서울역 광장(서울역 회군)」, <https://www.minjuroad.or.kr/location/91>, 2020.08.1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명동성당에 가려진 성당과 교회 - 성공회 대성당과 향린교회」, 2013.06.13, <https://www.kdemo.or.kr/blog/location/post/804>, 2020.08.12
- 국립 4.19 민주묘지, 「민주화운동 - 역사적의의, 발생배경, 전개과정」, <https://419.mpva.go.kr/>, 2020.08.30

민주화*

꽃길

모듬명 : 넘어넘어 : 시대의 아픔을 넘어 우리의 마음 속으로

구성원 : 김경서, 장아온, 김도연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실천하고 전달하고 싶은 '넘어 넘어' 모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결의로 일구어낸 민주주의가 시대가 지날수록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잊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살게 될 시민들은 민주화 투쟁이라는 단어가 먼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저희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 시민들의 분노,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을 현장 탐방을 통해 직접 체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느낀 바를 그대로 간직하여 아이들에게, 미래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하기까지 생생했던 투쟁 현장 탐방을 통해 지금의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있어온 것이 아님을, 그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어나가야 함을 마음 속 깊이 느끼고, 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이번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탐방주제

5.18 민주화 운동 속으로

탐방계획 요약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한 개념과 지식을 익히고, 직접 광주로 내려가 5.18 기념재단, 5.18 국립묘지, 전남도청 및 금남로, 윤상원·박관현 추모비,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을 순회하며 자세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탐방보고서

넘어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 우리의 마음 속으로

이 름 김경서, 김도연, 장아은

차 례

I. 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

1. 청년민주주의탐방을 참여하며
2. 사전 조사

II.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광주에 가다

1. 전남대학교
2. 아시아문화전당
3. 기록관
4. 전일빌딩
5. 5·18 문화 센터

III. 소감문

참고문헌

I. 죽음을 넘어, 시대를 넘어

1. 인천 청년 민주주의 탐방을 참여하며

수많은 사람의 투쟁과 결의로 일구어낸 민주주의가 시대가 지날수록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남아 잊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가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살게 될 시민들은 민주화 투쟁이라는 단어가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저희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 시민들의 분노,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을 현장 탐방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미래 교사가 되어 가르칠 미래 시민인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룩하기까지 생생했던 투쟁 현장 탐방을 통해 지금의 민주주의가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님을, 그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어나가야 함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많은 민주화 운동 중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탐방을 기획했습니다. 1980년 이루어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2020년인 올해 40주기를 맞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이후 4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의 시대가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40주기를 맞이한 5.18 민주화 운동으로, 광주의 전남대는 민주주의 길을 열었고,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는 광주에 가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더 배우고, 느끼기로 했습니다.

2. 사전 조사

1. 전남대

이곳은 5.18 민주화 운동 발원지로서 의미가 있다.

1980년 5월 18일 비상 계엄군은 광주광역시의 각 대학을 장악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했다. 이에 울분한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비상 계엄군 간에 충돌이 일어났고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한 학생들이 속출하면서 학생들은 '계엄철폐' '휴교령 철폐'를 외치며 광주의 중심대로인 금남로로 진출했다.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들과 일반 시민들도 구타하고 사망자가 많이 나온 무력으로 권력 장악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전남대 정문 옆 잔디밭에 5.18 사적지 1호 풋말과 표지석이 세워졌다.

정문에서 바로 오른쪽 올라가는 길이 '관현로'이다. 그 주인공인 박관현 열사의 비석이 오른쪽에 위치해있다.

'윤상원의 방'에서 윤상원은 5.18의 대표 인물이자 대표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다. 시민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끝까지 계엄군과 맞서다 구 전남도청에서 숨을 거뒀다.

인문대 건물 안에는 '김남주 기념홀'도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민주길 안내

- | | | |
|------------|---------------|----------------|
| A 5·18광장 | B04 김남주 뜰 | B08 용봉열사 추모의 벽 |
| B01 박관현 언덕 | B05 교육지표마당 | B09 박승희 정원 |
| B02 윤상원 숲 | B06 벽화마당 | B10 전남대 정문 |
| B03 윤한봉 정원 | B07 오월열사 기억정원 | |



‘민주길’은 학내에 산재해 있는 11개의 기념공간을 3개 노선으로 연결하고, 세 곳의 공간으로 나눠 구성됐다.

제1노선은 학교의 중심축으로 '정의의 길(1.7km)'로 이름 붙여졌다. 5.18사적지 1호인 전남대 정문을 시작으로, 박관현의 언덕 - 윤상원의 숲 - 김남주의 뜰 - 교육지표마당 - 벽화마당 - 전남대 5.18광장 - 박승희 정원 - 용봉관(옛 본부)을 거쳐 다시 전남대 정문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제2노선은 캠퍼스 동쪽에 조성된 '인권의 길(1.8km)'이다. 전남대 5.18광장 - 용봉열사 정원 - 오월열사 정원 - 전남대 후문 - 용지 - 전남대 정문으로 이어진다.

제3노선은 학내 서편에 조성된 '평화의 길(1.5km)'로, 경영대 교차로 - 윤한봉의 정원 - 수목원 - 전남대 정문으로 연결된다.

각각의 기념물과 기념공간에는 명칭을 새롭게 하고 소제목과 안내문, 지도, 이미지 등을 추가한 공간안내판(국, 영문)을 세워 순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윤상원의 숲에는 어록석 8개가, 김남주 뜰에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이란 시를 새긴 바닥시문 1개가 들어선다.

정의의 길에는 80년 당시의 구호와 유인물 등을 새긴 바닥도판 37개가 깔린다. 인권의 길 바닥도판에는 학생들의 증언과 전남대 동문들의 묘비문 등을 새긴 39개가 배치되고, 평화의 길에는 통일운동과 관련 구호를 중심으로 17개가 설치돼 누구나 간단한 문구를 쉽게 읽으며 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들을 떠올려볼 수 있도록 했다.

세 곳의 공간은 핵심지구, 역사지구, 연계지구로 나뉜다.

핵심지구는 1만5천㎡ 규모의 백도(백색 건물의 도서관 별칭) 앞 5·18 광장이다.

광장 중앙의 수변공간인 '봉지'를 광복절의 의미를 담아 지름 8.15m로 축소했다. 잔디밭과 보행로 간의 높은 턱을 없애고 전체를 대형 잔디광장으로 재편됐다.

역사지구는 1만7천200㎡에 10개의 5·18 기념공간과 시설들로 구성됐다.

5·18 발원지이자 사적 제1호인 정문 옆에는 반사 연못과 분수를 조성하는 등 규모를 넓혀 민주광장으로 조성됐다. 정문과 5·18 광장을 잇는 캠퍼스 중심축은 420m 가량의 수로와 함께, 정원과 휴식·기념 공간이 어울리는 새로운 도보 진입로가 추가됐다.

연계지구(6천㎡)에는 시작, 도약, 성장 등을 주제로 한 정원들로 단장됐다.

전남대는 5.18 전국 대학생순례단을 비롯해 일년내내 계속되는 방문객들을 위해 '민주길 방문자센터'를 추가해, 편의 제공은 물론 영상물 방영, 자료전시 등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구분	시설	관람료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무료
	아카데미	무료(일부 교육 유료)
문화창조원	복합관(복합1관 ~ 6관)	전시에 따라 별도 책정
예술극장	극장1,2, 아뜰리에1 등	공연에 따라 별도 책정
어린이문화원	어린이체험관	개인 -36개월 이하 : 보호자 동반 시 무료(증빙서류 지참) -37개월 이상~만 19세 : 5,000원 -만 20세 이상 : 3,000원 ※ 일부프로그램은 별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어린이극장	공연에 따라 별도 책정
	어린이창작실험실	정기형 60,000원, 수시형 10,000원 ※ 할인정책 제외
	어린이도서관	무료
	유아놀이터	무료
민주평화교류원	5.18 민주평화 기념관	준비중
	문화교류협력센터	준비중

민주평화교류원

민주평화교류원전경

아시아 문화교류·협력 네트워크의 허브'를 지향하는 민주평화교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에서도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상징적 기념 공간들인 옛 전남도청, 경찰청, 상무관 자리에 위치해 있다. 민주평화교류원에는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아시아에 전파하기 위한 민주인권평화기념관과,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가 위치하며, 아시아문화공동체를 추구하는 전당의 교류협력사업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 방문자를 위한 효과적인 쌍방향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문자서비스센터가 있다.

5.18민주평화기념관 문화교류협력센터

3. 5.18 기록관

관람료: 무료

9:00~ 18:00

✔ 해설 시간표

1회 10:00

2회 11:00

3회 14:00

4회 15:00

5회 16:30

Ⅱ.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광주에 가다.

1. 전남대- 민주의 길

(1) 정의의 길

정의의 길은 '5.18 광장, 박관현 언덕, 윤상원 숲, 김남주 뜰, 교육지표마당, 벽화마당, 박승희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5.18 광장

5.18 광장은 도서관 앞에 있는 곳으로, 넓은 잔디가 펼쳐진 공간입니다. 5.18 광장은 1980년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시위와 집회가 개최되었던 민주화 운동의 기념비적 장소라고 합니다. 1980년 봄, 학생과 시민들은 이 광장에 모여 함께 민주화를 외쳤고, 이후에도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확립, 평화통일과 참교육 실현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된 장소입니다. 나아가 전국의 대학생, 교사, 노동자, 농민들이 5.18 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거나, 박관현, 이한열, 이철규, 신장호, 강경대, 박승희 등 민족·민주 열사에 대한 추모 의례를 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본 5.18 광장은 과거에 뜨거운 시위와 집회가 개최된 곳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40년 전 다 함께 모여 민주화를 외치던 곳에 앉아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② 박관현 언덕

박관현은 신군부의 반인권적 폭력에 죽음으로 저항했던 민주열사입니다. 1980년 4월 학우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박관현은 탁월한 연설과 지도력으로 민족 민주화 성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이는 5.18민중항쟁의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5월 17일 수배령이 내려져 도피 생활을 하던 박관현은 1982년 4월 체포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 되는데, 이후 '5.18 진상규명과 재소자 처우 개선'을 위해 50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이다 1982년 10월 12일, 30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그를 공부하면서 저 또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③ 윤상원 숲

윤상원은 5월 광주의 영원한 대변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윤상원은 5.18민중항쟁 당시 도청에서 최후까지 민주주의를 사수했던 시민군입니다. 5.18 당시 윤상원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투사회보'를 제작·유포하였고, 새로운 항쟁지도부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격에 31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

니다.

윤상원 숲을 가면, 고뇌에 빠진 듯한, 혹은 기도를 하는 듯한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 또 어떤 바람을 가졌을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④ 김남주 뜰

김남주는 민주주의와 민족해방을 위해 독재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민중 시인입니다. 전남대 영문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 최초의 반유신 투쟁을 위한 지하신문 <함성>과 <고발>을 제작·유포하다가 1973년 구속되었고, 1979년 남민전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15년 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 되었습니다. 1974년 "창작과비평" 여름호에 "젓더미", "진혼가" 등을 발표하며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김남주는 가혹한 옥중상황에 굴하지 않고 시 쓰기를 계속했고, 김남주가 남긴 510여 편의 시 중에서 360여 편이 옥중에서 쓰였으며, 그의 시편들은 반독재투쟁의 현장에서 민중의 구호와 노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김남주 뜰에서 그가 쓴 시를 읽으며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시에는 그의 열정과 마음이 잘 나타났습니다.

⑤ 벽화마당

이 벽화는 전남대 벽그림 추진위원회가 1990년 6월 6일부터 5일에 걸쳐 완성한 '광주민중항쟁도'입니다. 5·18민중항쟁을 형상화한 유일한 벽화로, 그림패 '마당', 예술대학 미술패 '신바람', 그리고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구성원들에 의해 그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벽화를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그림이 주는 압도감이 온 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입니다.

⑥ 박승희 정원

박승희는 노태우 정권의 폭력성을 규탄하고, 학우들의 단결을 촉구하기 위해 분신했던 민주열사입니다.

(2) 평화의 길

평화의 길은 '전남대 정문, 윤한봉 정원, 평화 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전남대 정문

전남대 정문은 5·18민중항쟁이 시작된 곳입니다. 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군인들이 전남대를 장악하자 18일 오전 10시, 박관현 총학생회장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학생들이 정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출입을 막는 계엄군과 충돌했으며, 이후 금남로로 진출해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면서 민중항쟁이 시작됩니다. 이후에도 정문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가권력이 충돌했던 곳으로,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적 장소가 되었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계엄군이 학교를 막자 자신들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학생들의 노력이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② 윤한봉 정원

윤한봉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회운동가입니다. 전남대 축산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후 반독재투쟁의 과정에서 수차례 옥고를 치렀다. 5·18민중항쟁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지자, 그는 1981년 4월 미국으로 망명했고, 이후 윤한봉은 미국 전역에 민족학교와 청년연합을 설립하고 '국제평화대행진'을 개최하는 등 청년운동과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합니다. 1993년 수배가 해제되어 12년 만에 광주로 돌아온 그는 '5·18기념재단'과 '민족미래연구소'의 설립을 주도하며 5·18정신계승을 위해 노력하다가, 2007년 6월 영면했다고 합니다.

③ 평화 쉼터

부속 연습림은 실습장의 역할 이외에도 캠퍼스 내의 대부분 수목이 여기에서 양묘되어 공급된 것으로 캠퍼스 생태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부속 연습림 내 수목원은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어 학생과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3) 인권의 길

인권의 길은 '용지, 전남대 동문, 오월열사 기억정원, 용봉열사 추모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용지

용지는 용이 놀 수 있는 연못입니다. 용지는 캠퍼스가 위치한 용봉에 용이 놀 수 있는 연못이 있어야 한다는 풍수지리적 발상에서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1976년 용지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공폭포와 동산 등을 만들고 끊임없는 정화작업 등을 통해 학교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았습니다.

② 전남대 동문(후문)

전남대 동문은 랜드마크적 문화공간으로 실제 사람들의 출입이 활발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③ 오월열사 기억정원

이곳은 1980년 5월 18일 전남대 정문 앞 시위를 시작으로 27일 도청에서의 마지막 항전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에 죽음으로 저항했던 오월열사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

한 정원입니다. 10일간의 항쟁 동안 계엄군은 광주시민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전남대 학생 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현장에서 김광석(행정학과 3학년)이 총격으로 사망했으며, 5월 27일 도청에서 서호빈(화학공학과 2학년)과 류영선(화학공학과 2학년), 그리고 이정연(상업교육과 2학년)이 최후까지 항전하다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편안한 삶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고귀한 생명들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④ 용봉열사 추모의 벽

용봉열사 추모의 벽은 독재정권의 전체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전남대 열사들을 기리기 위한 곳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곳입니다.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구 전남도청)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는 옛 전남도청을 역사적 사실과 시민들의 증언에 기반하여 복원한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평화기념관' 이라고도 불리는 옛 전남도청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었습니다.

(1) 옛 전라남도 경찰국

① #1. 광주로 가는 길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전 광주가 겪은 근대 100년의 역사, 배경, 의미들을 벽에 새겨둔 곳입니다. 1관부터 5관까지 이어진 5.18 민주평화기념관의 첫 전시로서, 5.18 전의 유신정권이나 4.19 혁명 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어 5.18 민주화운동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② #2. 5월엔 만인의 얼굴이 눈부시다

전시장의 3층을 통과하는 대형 상징 조형물로서, 광주시민 및 국내외 시민들의 사진이 분할된 화면에 가득 차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 온 관람객들을 맞이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③ #3. 봉인된 시간, 1979-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본격적 전시 전 1979년부터 1980년까지의 '봉인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20세기는 전지구적으로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외친 한반도는 이념대립에 의해 원치 않았던 남북분단 및 냉전 상황을 거쳤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남북 분단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성장하지 못하고 유보, 봉인되게 하였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그 봉인된 시간이 다시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봉인된 시간'이란 이러한 의미로서, 전 세계적으로 얼어붙어 있었던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봉인된 시간, 5.18 민주화 운동이 한반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짐작해보았습니다.

④ #4. 빛의 정거장

사방이 긴 스크린으로 가득 찬 돔 형태의 전시관입니다. 5월 16일,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들의 촛불성회를 표현한 전시였습니다. 1980년 5월 16일 저녁 8시 광주 금남로에서는 3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계엄령에 대항한다는 한 뜻을 가지고 모여 촛불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이는 18년 동안 이어졌던 유신정권 독재 시대를 촛불로 밝히겠다는 의지였으며, 5.18의 서막을 알리는 대규모 집회이기도 했습니다. 1972년부터 이어져온 유신체제 하에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갖고 있지 못했던 국민주권, 생각하고 표현할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민주주의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굳센 결심이자 열망이 촛불성회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얇은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행진하던 시민들의 얼굴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⑤ #5. 광주를 지나간 시간: 5월 18일- 27일

5.18 민주화운동의 10일간의 전체 내용을 경험자 증언을 중심으로 구성한 곳이었습니다. 10개의 영상 속 경험자의 증언들은 너무나 구체적이면서도 참혹했습니다.

“주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처음 맡은 독한 최루가스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고타소리, 기침소리 등으로 들끓었다.”

“도망가는 학생들을 쫓아온 전경들의 무차별 구타와 연행이 시작되었다.”

감정이 배제된 글로 접하는 것과 경험자의 증언으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계엄군의 무자비함과 잔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끊임없이 뭉치고 투쟁했던 시민군의 모습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⑥ #6. 일요일의 아우성, 5월 18일

5월 18일, 일상을 지내던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행을 두 눈으로 목격했을 때의 상황을 표현하여 전시한 곳입니다. 맑았던 5월 18일의 휴일, 이루 말할 수 없이 충격적이었던 그 날의 사건을 이야기하라는 듯 중앙에는 커다란 확장기 여러 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가두방송을 확장기에 외치며 5월 18일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⑦ #7. 20일 화요일 저녁의 헤드라이트

어두운 공간, 벽 곳곳에 튀어나온 차량들과 눈이 부시게 번쩍이는 헤드라이트들이 가득합니다. 5월 20일에 있었던 금남로의 차량시위를 표현한 곳이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광주 금남로에 약 200여대의 차량이 일제히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거리에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와 버스 기사들은 차량시위 행렬의 가장 앞쪽에서 계엄군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이 날 금남로에는 20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계엄군이 시민군에 밀려 제압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집단 발포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택시기사, 버스기사들,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시장 속 눈이 부시도록 번쩍였던 헤드라이트와 커다란 차량들은 든든한 아군이 있는 것처럼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1980년 5월 20일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사님들과 시민 분들의 희생에 묵념하였습니다.

⑧ #8. 21일 13시 0분의 애국가

어디에서 빛이 나오는 지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 속 지나치게 고요한 전시장이었습니다. 전시 공간 속 빼곡하게 들어찬 사람들의 모형은 일제히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5월 21일, 13시의 애국가 방송 이후의 금남로 집단발포를 다룬 전시였습니다.

1980년 5월 21일 13시, 전남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순간 계엄군의 무차별적 집단발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청 앞에 모였던 시민들은 61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집단발포 명령 여부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전시장 안의 사람모형이 많았던 이유를, 그럼에도 그 많은 모형들이 실제 희생당한 사람들의 수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는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 옛 전라남도 경찰국

① #9. 환희: 22일- 26일

계엄군이 잠시 철수하고, 그야말로 해방과 자유를 누렸던 5월 22일부터 26일까지의 광주를 다루는 전시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22일부터 26일까지의 해방광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진과 함께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의 광주는 그야말로 '시민 자치'의 표본이었습니다. 국가가 부재한 상황, 시민들은 폭력으로 인해 어지럽혀진 도시를 알아서 청소하고, 부상자들을 위한 헌혈에 줄을 서고, 함께 장례를 치르며, 주먹밥과 음료수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혼란 범죄 한 건 없이 평화롭게만 지나갔던 광주의 나흘은 그야말로 환희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주여 영원하라'라는 문구가 계속 기억에 남습니다. 나흘 간 보여주었던 시민 자치의 모습을,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의 모습이었던 광주의 모습을 저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3) 옛 전남도청 본관

옛 전남도청 본관에는 5.18 당시 시민군 지도부가 모여 회의를 하거나, 방송을 했던 곳들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멀찍이 서서 방송실과 부지사실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방송을 했을지 짐작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상무관

상무관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자들의 주검을 임시적으로 안치했던 곳입니다. 넓은 상무관 안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검은 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상무관에는 계엄군의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가득히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유가족들이 상무관을 찾아와 시신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상무관을 관리하며 죽은 시민들을 운반하고, 그들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지금은 '검은 비'가 있지만, 예전에는 희생자들로 차 있었던 상무관을 상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검을 닦아주고 부패하지 않도록 돌보았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지, 희생자가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것을 보는 건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가족의 얼굴을 상무관 안에서 보고야 만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먹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1980년 5월 18일, 항쟁·민중·민주의 거리인 금남로에서 최초의 학생 연좌시위가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은 금남로 앞 광주 가톨릭 센터 건물로, 흩어져 있던 5.18기록물들이 수집·보관되어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활동과 그 이후 펼쳐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문서, 사진,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생산한 자료에서부터 시민들의 생산 자료,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 미국의 5.18관련 비밀 해제 문서까지 방대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① 5.18민주화운동의 발발 (5.18)

1980년 5월 17일, 임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확대선포안을 의결하자 신군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대도시에서 신속히 군대를 투입했다.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공수부대가 완전무장하고 전국으로 배치되었다.

5월 18일 아침, 학교를 통제하던 계엄군들이 있는 와중에, 학생들은 전남대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도서관에 가려던 학생, '휴교령이 내리면 그 다음날 10시에 교문 앞에 모이자'던 약속을 기억하고 나온 학생들 100명으로 시작해 300명까지 수가 불어났고, 계엄군이 탄압하자 광주역 광장에 재집결하여 300~400여 명의 학생들은 금남로 도청 앞 광장을 목표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을 지나서 가톨릭센터 앞까지 진출하였다.

오후 4시경, 7공수여단은 무자비한 강제해산을 시작하였다. 도청방향으로 전진하면서 금남로 및 가톨릭센터, 충장로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시위진압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도주하는 학생과 청년들을 뒤쫓아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민가에까지 들어가 젊은 남자들을 보이는 대로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두들겨 팬 후 옷을 벗기고 포박하여 연행해 갔다.

② 5월 19일 상황

5월 19일 오전, 2000~3000명으로 불어난 군중들이 부대와 대치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었다. 이들은 최루탄을 쏘는 경찰과 공수부대 앞에서 야유를 보내고, 돌을 던지며 항의를 했다. 30분 후, 7공수여단에 이어 11공수여단이 투입되고, 공수부대의 시위진압이 시작되면서 남녀노소 가르지 않고 진압대상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각종 보도 매체들도 계엄당국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광주의 상황과 관련된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광주는 이렇게 고립되어 갔다.

③ 5월 20일 상황

20일 새벽, 3공수여단이 추가로 투입되며 3400명의 공수부대가 광주에 주둔하게 되었다. 오후 3시, 금남로의 시위대는 수만 명으로 불어났으며, 시장의 상인들까지 장사를 접고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다. 금남로의 시위군중과 경찰 사이에 공방전이 시작되었고, 시민들이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물러드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도망치거나 방관적인 사람 없이, 모두 결사적으로 도청 앞 광장으로 물밀 듯 밀어 닦쳤다. 저녁 7시쯤, 시민들의 투쟁대열에 동참할 것을 결의한 택시운전사들이 200여대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시위에 참가해 시위군중들의 전의를 다시금 불태웠다. 공수부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부수며 전진하였고, 운전기사들을 끌어내 두들겨팼다. 잠시 물러나는 듯한 시위대는 버스를 타고 온 또 다른 시위대와 합류하여 계

엄군을 압박했다.

이날 밤 광주지역의 시위대들은 시간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고 시위를 계속했다. 그리고 공수부대의 만행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정부의 발표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던 MBC와 KBS 방송국이 불태워졌다.

광주역에서 3공수여단과 시위대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 시위대가 군의 저지선을 돌파하려하자 일제히 발포해 2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④ 5월 21일 상황

사망한 시체 2구는 대형 태극기에 덮였다. 시위대의 식사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준비해주었다.

오전 10시경, 10만여명의 사람들이 금남로에 모였고, 쇠파이프나 몽둥이를 든 사람이 많았다. 이 무렵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광주사태'가 '불순분자 및 간첩들의 파괴, 방화, 선동'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광주사태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후 1시 정각, 도청 건물 옥상에 설치된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며, 일제히 요란한 총성이 터져 나왔다. 사격은 10분 동안 몇 차례 지속되며 금남로를 피바다로 만들게 했다. 이 집단발포로 몇 명의 시민이 살상당했는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최소 54명 이상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총상을 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집단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지금도 오리무중이다.

시민군이 조직되었고, 계엄군은 전략적인 퇴각을 하였다. 이 이후로 항쟁은 광주시내를 벗어나 전남 일원으로 순식간에 번져 나갔다.

⑤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상황

계엄군들이 물러가고 시민들이 도청을 장악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실질적인 대민업무를 맡고, 유지급 인사들이 일반수습위를 구성하여 계엄사 측과의 협상활동을 했다. 학생수습위는 장례반, 홍보반, 차량통제반, 무기수거반으로 나누어 당일 계엄사가 요구한 7개항의 요구조건을 홍보하고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차량을 통제했으며 총을 수거했다.

민주수호 범시민 쫓기대회는 항쟁 기간 중 23일부터 26일까지 하루에 1~2회씩 모두 5차례 개최되었다. 이 쫓기대회를 통해 시민들은 무기 반납 등 협상 의제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 수렴은 물론, 도청의 시민군 지도부 교체를 통한 협상력 강화 대

학생 시민 자원 병력 모집, 시민 생활의 질서유지 활동 등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의 도덕성과 자치능력에 의해 질서와 공동체가 유지되었다.

⑥ 5월 27일 도청 : 새벽의 마지막 불꽃

신군부의 광주무력진압작전인 '상무총정작전'이 시작되었다. 시민군은 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다. 새벽 4시가 지나면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고,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오전 5시경 YMCA, YWCA, 계림초등학교, 전일빌딩, 관광호텔 등이 이미 계엄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당했고, 도청을 마지막으로 최후의 항쟁은 끝이 나게 되었다.

4. 전일빌딩 245

검은 하늘 그날 : 전일빌딩

장영창 작가

*오월 광주의 하늘은 어찌나.
나는 어쩌면 섬뜩이는 섬광. 공포.
그리고 어두웠던 그날의 하늘을
다시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기억하는 '그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내 붓의 화두는 여전히 밤이고
하늘은 어둡다.*

*전일빌딩은 1980년
오월의 목격자이며
헬기총탄의 희생자이다.*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화 운동 기록 관에서도 볼 수 있다. 전일빌딩 245 역시 민주화 운동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일빌딩을 방문할 이유에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다가 아니다. 전일빌딩은

그 자체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대변한다.

전일빌딩 9층과 10층에는 245개의 탄흔이 있다. 바로 5월 21일 계엄군의 총기 사격의 흔적이다. 전일빌딩은 옛 전남도청과 광장을 사이에 두고 대각선으로 마주하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 광장에서 시위하고 집회를 하다가 계엄군에 쫓긴 시민들이 몸을 숨긴 곳이기도 했다. 또한 전일빌딩은 언론인들의 취재현장으로서 시민군의 저항과 계엄군의 진압을 한눈에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위치와 높이였기 때문에 기자들을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계엄군은 군사적 요충지로 판단되는 이곳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 245개의 탄흔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헬기 사격을 당했던 전일빌딩의 모습.

전일빌딩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문도 있다. 5·18운동이 폭동인가? 북한군의 개입인가? 5·18 유공자는 특혜를 받는가? 등의 가짜뉴스가 적힌 문을 열면 진실의 영상과 글을 볼 수 있다.

5. 5.18 기념 문화센터(5.18 기념공원)

5.18 기념 문화센터가 운영하는 5.18 기념공원에 다녀왔습니다. 5.18 자유공원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이 구금되어 군사재판을 받았던 상무대 군사법정과영창을 복원 및 재현한 곳입니다.

(1) 헌병대사무실

5.18 자유공원은 '23개의 방 이야기'라는 전시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헌병대사무실은 반란의 방, 분노의 방, 저항의 방, 학살의 방, 공포의 방, 왜곡의 방, 해방의 방, 최후의 방, 통곡의 방, 진실의 방까지 총 10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5.18의 발생배경부터 민주화운동의 정당성, 신군부 및 계엄군의 만행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보았던 5.18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2) 헌병대식당

헌병대 식당은 5.18 당시에는 임시 고문실, 취조실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평화로운 식당의 모습인 줄로만 알았지만, 부엌 한켠에는 물고문을 당하는 사람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창생활 중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굶주림이었다. 1인용 식판에 나온 것은 다섯 손갈도 안 되는 밥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두 사람이 먹어야 했다.”

최소한의 먹을 권리도, 존엄성도 존중하지 않고 고문을 행했던 모습은 신군부의 만행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3) 영창

수감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영창으로 가보았습니다. 영창은 전체적으로 부채꼴 모양의 구조였는데, 수감된 시민들을 감시하기 쉬웠기 위함이라 합니다. 넓어 보이지 않는 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며 수감되어 있습니다. 투옥된 인사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16시간 동안 양반다리를 하고, 반성하는 것처럼 머리를 숙인 자세로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구타를 당했고, 시민들은 지시에 불응하면 쇠창살에 매달아 놓고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했던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전시해둔 인형들의 모습에 저희는 화를 삼킬 수 없었습니다.

(4) 법정

법정은 1980년 8월 신군부가 5.18 관련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급히 만들었던 군사 법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설명하듯 법정 앞에는 1980년 8월이라 적힌 머릿돌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법정은 상무대 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 들어가자마자 숨 막힐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과거 재판을 되살린 듯 인형으로 전시해둔 것이었지만, 총을 들고 위협적으로 서 있는 헌병대 군인들과, 절대 시민의 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재판관들이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당시의 재판은 절대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되지 않고 약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고함을 증명받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는 죄와 형벌을 선고받았을까, 그들의 억울함과 한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5) 헌병대 중대 내무반

헌병대 중대 내무반은 5.18 당시 임시 심문실과 고문실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중

대내무반에는 신념의 방 및 추모의 방, 감동의 방, 부활의 방, 여명의 방, 슬픔의 방, 기억의 방, 정의의 방, 평화의 방, 침묵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대내무반은 앞선 헌병대사무실과 달리 5.18을 알리고자 했던, 그리고 끊임없이 투쟁하고자 했던 역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스틸컷 및 촬영현장 사진 또한 나와 있어 영화를 되돌아보며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잔인하게만 보이던 고문과 심문, 없는 죄를 만들어내던 재판에도 불구하고 5.18을 알리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진실을 알고, 민주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Ⅲ. 소감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기를 맞아 다녀온 광주에서 저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는 교과서를 통해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단지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만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탐방을 통해 그 생각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 그날, 그 누구도 발 벗고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삶을 마주하고 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로운 삶, 누구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남대의 민주의 길에서 정의의 길, 평화의 길, 인권의 길을 걸으며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 인물들, 그리고 그 시절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였으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평범한 학생이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이 나의 일상을 통제하고 방해하니 그것을 지키고자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치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였다면 그런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남대 민주의 길에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기념이 되는 공간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그 시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각자 어떤 이야기를 가졌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누구는 그저 엄마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이었고, 또 누군가는 친구의 죽음을 옆에서 목격한 친구였습니다. 시체들이 안치됐던 상무관에 앉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신이 그곳에 몸을 누였는지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록관과 문화 센터에서는 그 역사를 상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기자들의 수첩, 누군가의 일기장을 보며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순수한 아이의 죽음에 관한 글을 읽으며,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게 죽어야했던 사람들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전일빌딩에 박힌 총알 자국들을 보며 무자비한 계엄군의 총격에 함께 분노했고, 함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직도 선명한 그 총알 자국처럼 우리도 선명히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미래에 교사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저희도 잘 모르는 것에 대해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탐방을 통해 역사를 직접 마주하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래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는 많은 아픔을 겪고 이루어낸 소중한 산물이라는 것을 꼭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 아픈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336&cid=43667&categoryId=43667>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https://518trail.jnu.ac.kr/>

<https://blog.naver.com/soobin553?Redirect=Log&logNo=222012244627>

<https://www.acc.go.kr/main/index.do>

[5.18 뉴스기사] 518번은 알겠는데... 광주에 228번, 419번 버스는 왜 있을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615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5.18 뉴스기사] 전두환 재판정까지 쫓아간 5.18 윤상원의 후예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64125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모듬명 : 델리민주

구성원 : 정스런, 진대희, 이송이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저희의 팀명은 데일리민주의 줄임말로, 매일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델리민주와 같이 친근하고 일상에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민주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발자취와 그 핵심이 되는 장소들을 걸어보고 기억해보는 계기로 삼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탐방주제

한국 민주주의의 발자취(4·19 혁명, 6월 민주항쟁)를 걷는다.

탐방계획 요약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역사의 장소에서 당시 인물들의 상황에 이입하고 이를 재해석하는 활동을 해 보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당시의 운동이 일었던 일대를 걷고 다양한 기념관들을 답사하며 알아본다.



델리민주

정스런, 진대희, 이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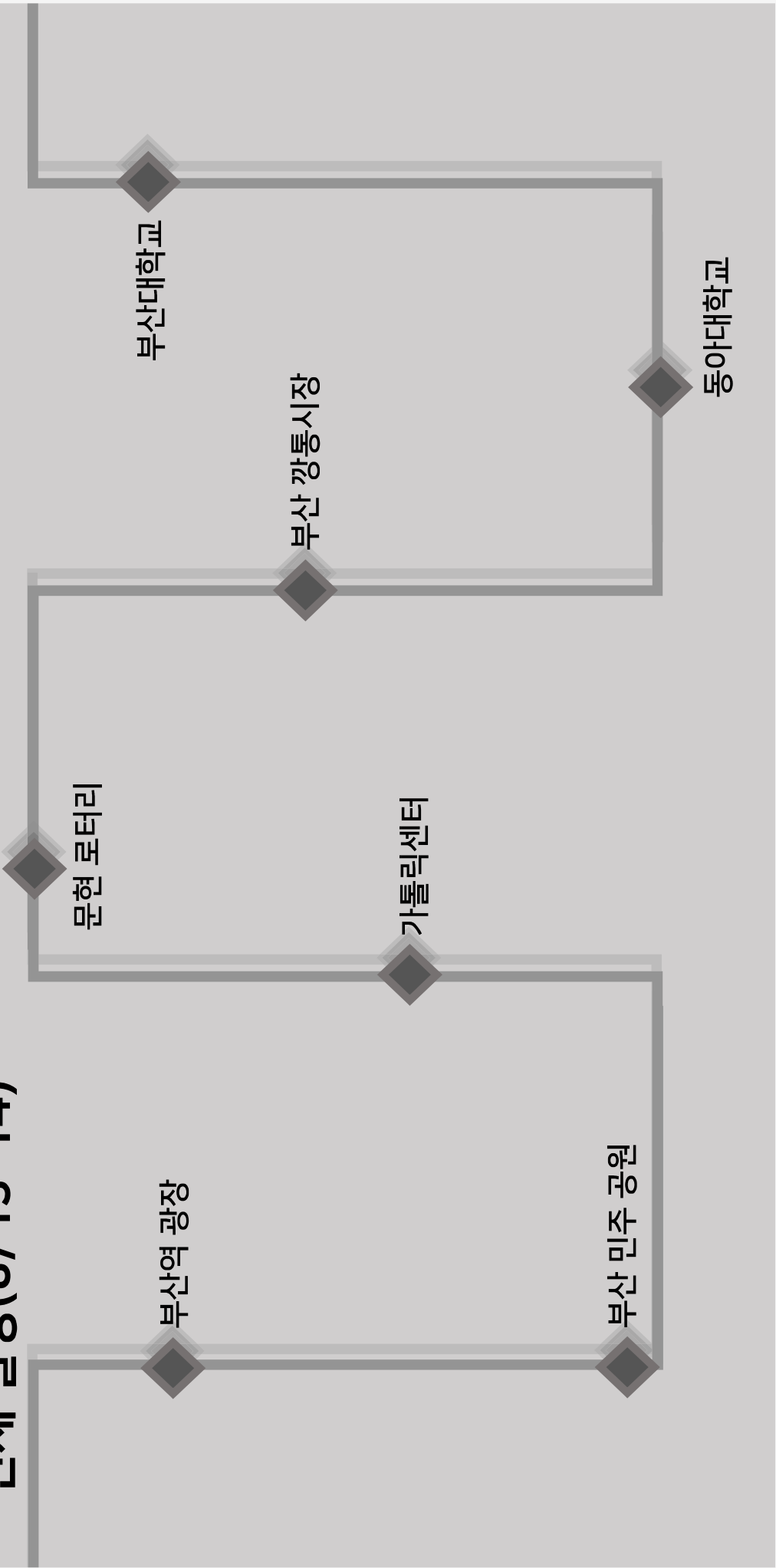
「민주야 놀자」

민주 역사의 자취를 기억하다

6월 항쟁을 따라서...



전체 일정(8/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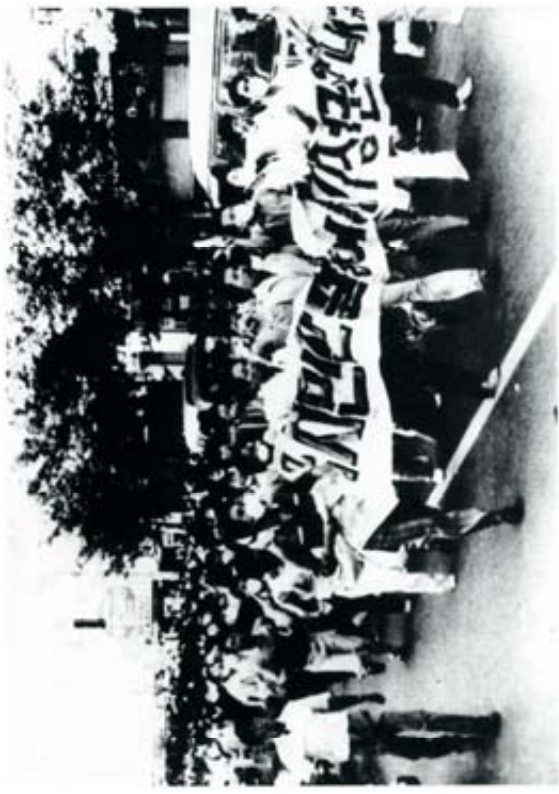


1 부산역 광장



부산역 광장은 학생들, 시민들이 함께 시위를 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대표적인 장소다. 연좌 농성을 하는 학생들을 발견한 시민들은 거리에서, 대합실에서 나와 그들과 함께했다.

부산역 광장에서는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과 시민 토론회 등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촛불항쟁까지 역사적 의미가 깊다.



1 부산역 광장

#방문이유 #설명

부산역 광장은 여러 집회가 일어났던 곳이자 지금도 집회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등이 거행되는 등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방문하고 의미를 되새긴다.

과거부터_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의 상징
6월민주항쟁의열기를기억하며
함께하자_델리민주

#위치



#한줄평

송이- 부산 일정의 시작.
거정과 설렘을 안고 6월 항쟁의 자취를 찾아서....!
대희- 다시 생각해도 설레는 여행의 시작점! 부산역 :)
스런- 모이자! 외치자! 그때의 열기가 전달되는 기분:)

부산 민주 공원

2

부산 민주 공원은 '역사를 배우고 오늘의 우리를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부산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림과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위치



#한줄평

송이- 뜨거운 열기 속 찾은 민주공원. 하지만 그렇기에 더 기억에, 마음에 남을 장소!

대희- 시원한 에어컨과 알찬 기억들이 남아있어서 더 기억에 남는 장소였다!

스런- 기억의 소중함을 되새긴 시간

부산 민주 공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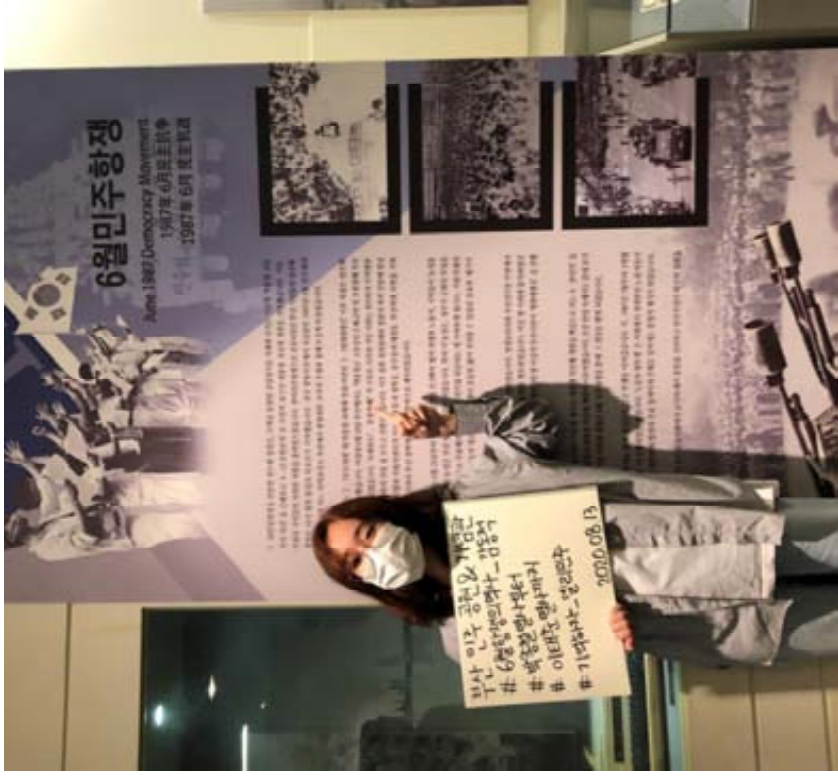
#방문이유 #설명

부산 민주공원을 방문함으로써 민주항쟁의 흐름과 역사를 알아보고 박종철, 이태춘, 황보영국 열사 등 열사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 이야기들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다.

- # 6월항쟁의역사_감동적
- # 박종철열사부터
- # 이태춘열사까지
- # 기억하자_델리민주

3

부산 민주항쟁기념관



부산 민주항쟁기념관은 부산 민주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 공간으로 민주항쟁과 관련된 유물, 조형물, 시, 그림,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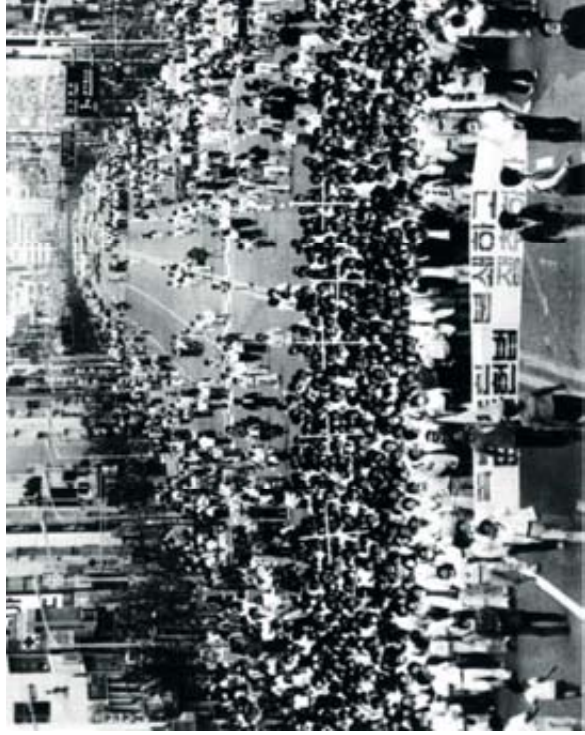
4.19 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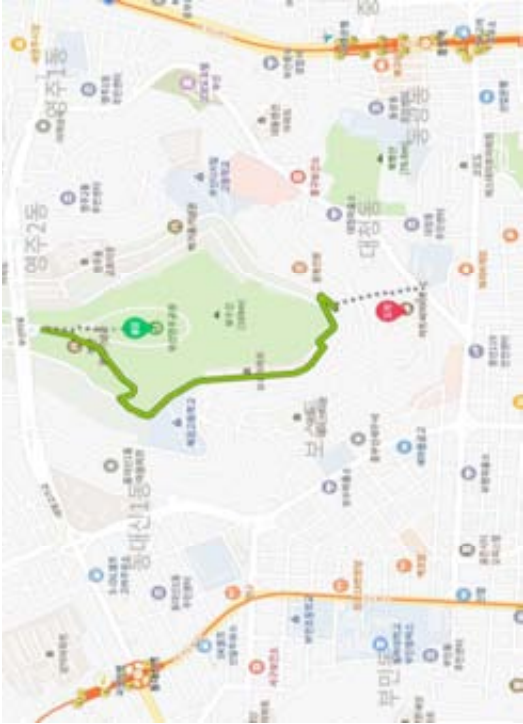
가톨릭센터

4

가톨릭 센터는 부산 민주 항쟁의 심장과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곳은 시민들이 집결하는 주요 장소 중 한 곳이었으며 이곳에서 부산 시민 시국 토론회가 열리고, 대형 십자가를 들고 모이는 등 부산 시민들의 주요 행보와 관련이 깊다. 그래서 부산의 '명동 성당'이라고도 불린다.



#위치



#한줄평

송이- 아프지만 꼭 알아야할 역사의 장소들임에도 그 흔적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듯하다.

대희- 여러 사람이 모이고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중심지가 잘 남아 있어서 좋았다.

스런- 지금은 고요해서 오히려 그때의 뜨거움이 다가오는 것 같다

가톨릭센터

4

#방문이유 #설명

부산의 명동 성당이라고 불리며 6월 부산 민주 항쟁의 중심지가 되었던 가톨릭 센터를 방문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느껴 본다.

#부산의_명동성당
#6월민주항쟁의심장
#민주화를위한목소리를내다
#외치자_델리민주

부산 중앙성당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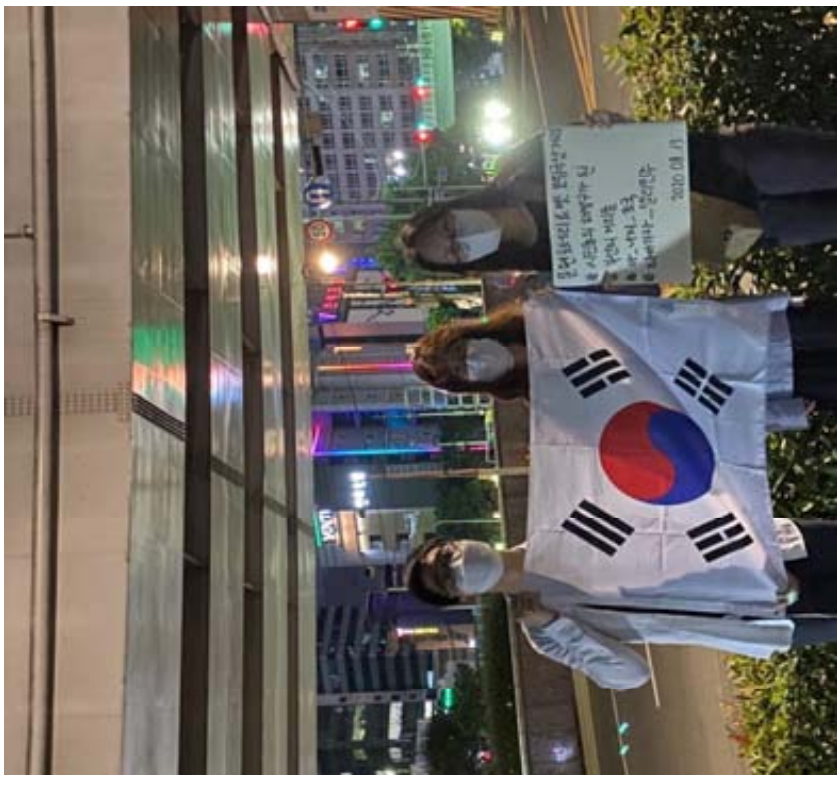


#위치



문헌 로터리 6

문헌로터리는 유명한 '아, 나의 조국'이 찍힌 장소이면서 여러 행진들과 시위가 진행된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는 여러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옛 로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곳이다.



#위치



#한줄평

송이- 정말 우리 주변, 우리가 지나치는 장소 하나 하나가 역사의 장소임을 깨달았다.

대희- 사람들이 몰려가는 당시를 생각하니 가슴이 웅장해짐을 느꼈다.

스런- 차로 시끄러운 도로. 당연히 인도일줄 알았는데 차도여서 충격적이었다.

6 문헌 로터리

#방문이유 #설명

당시 시민 항쟁의 중심지였던 보림극장, 문헌로터리 등을 방문해 현장의 분위기를 체험해보고 당시 시민들의 외침을 마음에 되새긴다.

- # 시민의해방구가된
- # 부산의거리들
- # 아_나의_조국!
- # 나아가자_델리민주

7

부산 강동시장



시장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시장에 삶의 터를 잡은 상인들,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시장은 사람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

시장과 관련한 가장 큰 사건은 2.7 추도대회다.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시장 쪽으로 진입하자 시민들이 함께 했다. 기껏 박수나 치고 방관만 하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시민들도 깊이 분노한 것이다.



7 부산 강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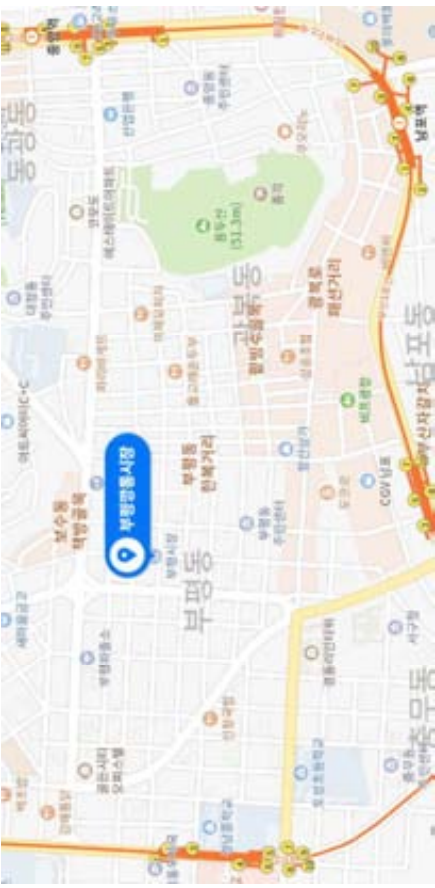
#방문이유 #설명

6월 항쟁 당시 시장 거리는 부산 시민들로 붐볐고 이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형제이고 이웃이었다. 당시 시민들의 하나됨을 시장을 방문해 기념한다.

- # 인간다운세상을만들
- # 한걸음한걸음의행진
- # 간절한마음을모아서
- # 동행하자_델리민주

* 당시 답사할 때에는 동선을 고려해 자갈치 시장 (및 진시장)을 답사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강동시장으로 변경하였다.

#위치



#한줄평

송이 - 가장 대중적인 장소이기에 시민들이 단결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

대희 - 시장에 가서 먹거리와 볼거리를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스런 - 민주주의를 위해 하나로 뭉치고 합쳐지는 삶의 터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그들을 기념한다.

동아대학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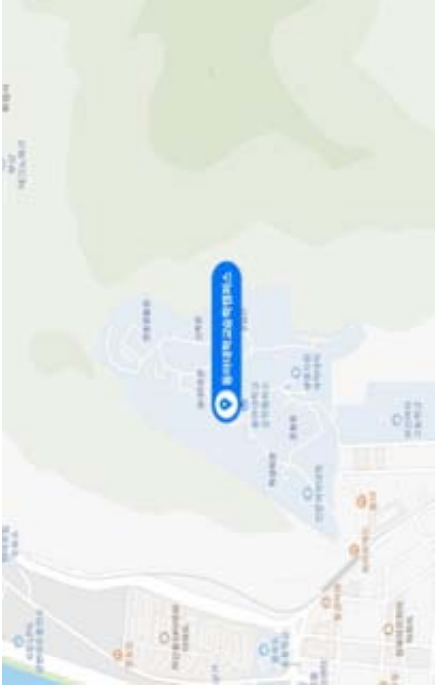


동아대학교 학생들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앞장서 민주화를 외쳤다. 이태춘 열사를 비롯한 동아대의 학생운동가들이 있었기에 부산의 6월이 더 뜨겁지 않았을까.

동아대에는 6월항쟁도, 기념비를 비롯한 민주 항쟁과 학생운동가들을 위한 공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 장소와 의미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위치



동아대학교

6

#방문이유 #설명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동아대 학생들을 이해 해보고 또한 6월 항쟁 기념비, 항쟁도 등을 통해 당시 생생한 현장을 느껴보기 위해서 방문 한다.

- # 이태춘열사모교
- # 6월항쟁도_기억하자
- # 우리의불씨하나가
- # 광야를 태우리라_델리민주

#한줄평

송이 - 가장 충격적이었던 곳. 재학생들에게도 잊혀지는 장소를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의미있는 '기억'이 될 것 같다.

대희 - 학교에 남겨진 항쟁의 여러 흔적들을 방문하며 신기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스런 - 부산 여행에서 가장 진하게 남을 곳.

부산대학교

9



부산대학교는 경상권 대학의 최고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경상권의 청년 지성인들을 대변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당시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함께 시민들과 거리에 나서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지금도 남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9

부산대학교

#방문이유 #설명

민주 항쟁 중 6월 18일, 대학생 2만 여명이 집결해 대규모 집회의 불씨를 지폈던 부산대를 방문해 당시의 발자취를 알아본다.

- #학생민주운동
- #청년학도들의외침
- #너희들의 정열은 어디있는가
- #각성하자_델리민주

#위치



#한줄평

- 송이 - 현재를 담고 있지만, 그 역사가 진하게 녹아있는 곳. 좋은 학교!
- 대희 - 여러 번을 방문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부산대!
- 스런 - 마을같은 부산대! 이곳에도 많은 역사가 담겨있겠지... 더 알고싶다!

감사합니다.



1987 06 7891

[텔레리민주]

정스런, 진대희, 이송이

민주 역사의 자취를 기억하다

6월 항쟁을 따라가다..

END

모듬명 : 도원결의

구성원 : 정혜민, 최소은, 김규영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저희는 인하대학교 스킨스쿠버 동아리 구성원들입니다. 곧 사회에 진출할 우리가 올바른 민주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자 지원계기입니다. 한국 현대사 과목을 수강하면서 단순히 공학 전공만을 공부한 대학생활에 아쉬움을 가졌었고, 한국 현대사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민주야 여행가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IT전공의 한국사 새내기들 세 명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탐방주제

한국사 새내기들, 민주시민으로의 첫걸음

탐방계획 요약

서울과 인천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광주에서 영화 1987을 보고, 영화에 나왔던 장소 위주로 탐방하며 영화를 되새겨 보고 그 당시를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민주야 여행가자탐방결과보고서>-- 도원결의

1. 탐방주제

“ 한국사 새내기들, 민주시민으로의 첫걸음. ”

저희는 인하대학교 스킨스쿠버 동아리 구성원들입니다. 곧 사회에 진출할 우리가 올바른 민주주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입니다.

2.계획&진행과정

#기존계획은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견학하고 서울과 인천에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민주화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이었으나,코로나로 인해 8월 말에 갈 예정이었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대문형무소 시설이 잠정 휴관이 되어 아쉽게 가지 못하였습니다.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꼭 가볼 계획 입니다.

8/12

옛 전남도청 →상무관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금남로 →전일빌딩

8/13

국립 5.18민주묘지 →망월공원묘지 →옛 전남도청

8/27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 5.3 민주항쟁 터

3. 탐방수기 & 자료조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 광주였을까 <https://blog.naver.com/jhm2335/222087446002>

왜 신군부의 대상이 광주였을까. 그 원인을 정치, 사회, 지리,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발발 <https://blog.naver.com/jhm2335/222069885140>

- 5.18 광주민주화운동 10일간 <https://blog.naver.com/jhm2335/222069904251>

5월 18일-27일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전남도청 시민개방>, <5월 18일, 맑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내용을 교차하여 옮겼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5월 21일 <https://blog.naver.com/jhm2335/222069948618>

-왜 국민의 군대가 국민들에게 총을 쏘았을까 <https://blog.naver.com/jhm2335/222087465322>

왜 그들은 입에 담기도 힘든 잔인한 짓을 자행했고 이것은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일까. <그들의 5.18>,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을 옮겼다.

탐방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전남도청 시민개방> <https://blog.naver.com/jhm2335/222071598874>

주제, 장소별 설명을 옮기고 느낀 점 위주로 서술하였다.

-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https://blog.naver.com/jhm2335/222071644632>

-전일빌딩 <https://blog.naver.com/jhm2335/222071657505>

-국립 5.18 민주묘지, 망원묘지 <https://blog.naver.com/jhm2335/222074031237>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 5.3 민주항쟁 터 <https://blog.naver.com/jhm2335/222087405763>

#인스타그램(일정요약 및 사진)

https://www.instagram.com/dowon_family/?hl=ko

4. 결과(주제,느낀점)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면 알수록 “도대체 왜”, “왜!!!!”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잔인했는가.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을까. 무엇을 감당한 것일까.

왜 사람들은 아직도 희생자를 인정받지 못한 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가.

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영화와 소설은 민주화를 일군 개인들을 들여다보게 해주었다. 그리고 실제의 증언과 기록이 담긴 책은 사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했다. 그에 더해 광주에 가서 희미하지만 남아 있는 흔적을 보고, 현장에 계셨던 해설가분들께 직접 전해들은 말들은 추상속의 역사를 구체화시켰다. 개개인의 삶을 들여볼수록 5.18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였다. 도대체 왜 공수부대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자행했고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이며 스스로 판단하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들이 받은 훈련은 무엇이고 명령을 내린 자들은 무슨 생각이었던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이나, 일말의 이유와 정황이라도 알고 싶어 우리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사실은 왜곡되었고 주장은 엇갈렸으며 그들은 역사의 심판을 피해갔다.

우리 자신이 광주 시민이었다면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 우리가 군인이었다면 명령에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나는 목숨을 걸지도, 명령에 의문을 가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잘 가공된 뉴스에 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나는 그러지 못했을 걸 알기에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도 괴로웠다. 생각, 생각과 판단을 하자.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은 지키면서, 그것이 어딘가에서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 관심을 가지자.

3.1절,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현충일, 광복절. 잊지 않기 위해 기념일을 정하고 광주의 518번 버스는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 있으며,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역으로 향하는 버스에선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구도 청입니다.”라는 방송이 나온다. “민주야 여행가자!”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경험을 마음에 새기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지금의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한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모듬명 : 레지스탕스

구성원 : 윤라현, 장유라, 경해찬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경인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같은 과 학생들로, 월 1회씩 세월호, 5.18 민주항쟁 등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사회적 주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영상 및 사진, 글로 접했던 사실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생생하게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생생하게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교사가 되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민주주의 의식을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더불어 인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인천의 민주주의 현장 탐방을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민주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모듬 명을 레지스탕스라고 한 이유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저항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군사독재정치와 같은 비민주적인 정치체제가 행해졌고, 그러한 불의에 대한 저항이 바로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모듬 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탐방주제

제1공화국, 제2공화국~제5공화국 기간의 핵심적인 민주화 운동의 현장 탐방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하기

탐방계획 요약

08/19 첫째 날, 인천과 서울용산 일대의 민주주의 현장을 탐방하고
08/20 둘째 날, 서울일대의 민주주의 현장 탐방 후 광주로 이동하여
08/21 셋째 날, 광주의 민주주의 현장을 탐방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결과보고서>

레지스탕스: 장유라, 윤라현, 경해찬

목차

가. 탐방결과

나. 탐방과 관련하여 고안한 교육 프로그램

다. 느낀점

라. 활동을 돌아보며

붙임1)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붙임2) 탐방지원금 수령확인증

가. 탐방 결과

-주제: 제1 공화국, 제2 공화국~제5 공화국 기간의 핵심적인 민주화 운동의 현장 탐방

8월 15일에는 인천과 서울에 있는 민주주의 현장을, 8월 26일에는 광주에 있는 민주주의 현장을 탐방했어요.

8월 15일 탐방 장소: 5.3 민주항쟁 터-> 6월 항쟁 기념비-> 민주인권기념관(남영동 대공분실)-> 전태일 기념관-> 식민지역사박물관

첫 번째로 간 곳은 인천 5.3 민주항쟁 터 (옛 시민회관 쉼터)로 '인천 5.3민주항쟁' 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사실 이번 민주주의 현장 탐방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인천 5.3민주항쟁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0년 광주 항쟁 이후 독재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 간에 벌어진 가장 큰 시위이자 정치 투쟁인데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 다. 역사 교과서에서도 이 사건에 배운 적이 없습니 다. 그 이유는 아직 인천 5.3민주항쟁에 대한 평가가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 다. 인천 5.3민주항



쟁에 대해 알아보시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시민 회관 앞에서 대한민국의 재야,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민주 헌법 쟁취와 독재 타도, 노동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던 민주화운동입니다. 인천 5.3민주항쟁의 배경과 흐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986년 2월 12일 신민당(신한민주당)은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 운동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넓혀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신민당에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서 회담을 마련했고, 전두환은 개헌 논의 허용을 발표하고 신민당 이민우 총재는 과격 좌익 학생 운동과의 결별 의사로 응대했습니다. 이에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는 신민당의 타협성과 보수성을 비판하며 멀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민당 개헌 추진 위원회의 경기, 인천 지부 결성 대회가 5월 3일 개최될 예정이었고, 여기에 사회단체, 학생, 시민들 3만 여명이 참여하여 타협적 보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군부독재에 반대하며 보수대연합 음모를 규탄하고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 건설"과 "삼민(민족, 민주, 민중) 헌법 쟁취"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에 나섰고, 이에 대항하여 시위는 고조되었고 결국 대회는 무산되었습니다. 인천 5.3민주항쟁을 기점으로 정부는 공안 기관을 총동원하여 민주화 운동 진영 전체에 대한 총체적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5.3민주항쟁은 이후 독재 세력의 탄압과 억압 국면을 넘어서 민중의 힘으로 성취한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지요.

인천 5.3민주항쟁 이후 경기도 부천시에서 발생한 '경찰의 권인숙 성고문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권 유린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언론은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성적 수치심까지 정치적으로 이용 한다"라며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춰 언론을 통제했던 독재정권의 부도덕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암울한 시대 속에서 거대권력에 맞서 진실을 폭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용기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간 곳은 **부평역 광장**으로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6월 민주항쟁은 한국사 시간에 꼭 배웠던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군부 독재 정치의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뿌리내리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는 6월 민주항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시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꺾기대회가 오후 6시, 부평역 광장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애국가와 함께 택시기사들의 경적이 울려 퍼지면서 '장기 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라는 대형플래카드를 앞세운 수 천 명의 시위대가 광장과 거리를 메웠습니다. 이후 매일 시민과 노동자, 학생들은 대학교 부근, 성당과 교회, 동인천역과 부평역 등 거의 인천 시내 전역에서 시위를 벌리며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인천 지역 6월 항쟁의 하이라이트는 '6월 18일, 최루탄 추방 전국대회'였고, 그 무대는 부평역 광장이었습니다. 오후 6시 만 명이 넘는 시민과 학생, 노동자들이 모여 토론회를 가졌고, 11시 40분경에는 전두환 화형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정오 이후에 시위대가 1만 5천명으로 불어나자 두려움을 느낀 경찰은 최루탄 발사는 물론 백골단을 대거 투입하여 해산에 나섰는데 '부평만행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력과 연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계속된 이 '작전'으로 무려 700명이 넘는 시민, 학생, 노동자가 연행되었는데 인하대생만도 219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인하대생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는 부평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려 했지만 계속 경찰의 원천봉쇄로 저지되었습니다. 26일야 범시민 평화대행진을 부평역 광장에서 열었고 결국 충돌이 벌어졌지만, 대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시위대는 경찰버스에 연행된 사람들까지 구출할 정도로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흘 후 노태우가 6.29선언을 하면서 장대했던 6월 항쟁은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해 도착한 **민주인권기념관**은 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故 김근태 의원이 민청련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 기술자 이근안에게 고문을 받았던 곳이며 '책상을 탁치니 역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1976년 건축가 김수근에 의해 5층 규모로 지어진 남영동 대공분실은 치안본부 대공과 대공분실로 사용되었고, 이후 1983년 12월 7층으로 증축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시민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OO해양연구소'라는 간판으로 철저히 위장했다고 합니다. 전철 바로 옆 담 하나를 두고 일어났던 잔인한 고문이 행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죠.



미리 정기해설을 신청해서 해설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공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5층만 길고 좁은 창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5층은 고문이 자행되었던 조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조사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추기 위해서이죠. 5층 창문 말고도 건물의 구석구석을 보면 이곳은 철저히 고문을 행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을 사용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건물의 사용 목적을 모르고 짓는 건축가가 있나요? 각 조사실은 문이 서로 엇갈려있게 배치되어있어 문이 열리더라도 수감자들은 서로를 볼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밖에서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외시경과 천장과 벽 모서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사실 문 위의 호수, 즉 층수가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좁고 긴 나선형 계단을 통해 방향감각이 상실한 채 올라오게 해 자신이 있는 곳이 몇 층인지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목재 타공판으로 방음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목재 타공판이 저음은 흡수하고 고음은 더 증폭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고문 받는 비명이 더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 심리적 공포감까지 이용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철저히 고문을 위해 지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 받다가 숨진 509호실도 보았습니다. 다른 호실들은 다 리모델링되었지만,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가 이 공간 하나만이라도 그대로 보존한 채 지켜야 한다고 해서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물고문을 했던 옥조, 인간의 욕구인 수면을 가지고 정신

적 고문을 하기 위한 침대 그리고 손을 뺏어 때릴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의 책상과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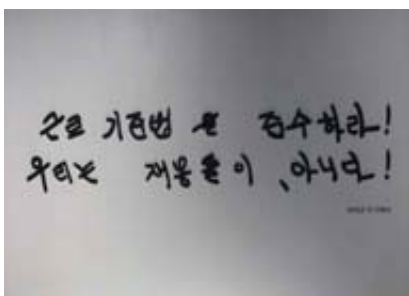


사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은 처음으로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고 경찰이 인정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편지가 나오고 4차까지 수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영화1987을 다시 보니 영화 속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장면이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수많은 이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선택이 있었기에 세상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문기술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문기술자 노덕술-박처원-이근안으로 이어진 고문의 역사를 통해서 친일과 독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친일 청산을 제때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지요. 더군다나 이근안은 고문이 예술이자 애국 행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죠. 끔찍합니다.



민주인권기념관 다음으로 간 곳이 **전태일 기념관**입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은 한국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기점을 마련한 전태일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서울시가 건립한 노동복합시설입니다. 전태일은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가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구에서 태어난 전태일은 서울로 상경해 17살에 본격적으로 평화시장의 봉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직장에서 기술을 배워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바람과는 달리 평화시장의 노동 현실은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어린 시다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태일은 자신의 버스비를 털어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다 주고, 2시간 이상 걸어 집에 가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근로기준법은 있었으나 너무도 형식적이었으며 감독관청도 전혀 이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다들은 햇볕이 들지 않고, 먼지가 심하게 날리며, 다락방을 덧대어 허리조차 펼 수 없는 좁은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밤샘 야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질병에 시달렸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태일은 바보회 이후엔 삼동친목회를 결성, 노동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

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깊은 좌절과 비애를 느낀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결심한 거죠. 자신도 그 불에 함께 타 들어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학생들이 전태일 기념관에 꼭 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과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사람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모든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된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노동권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전태일에 대해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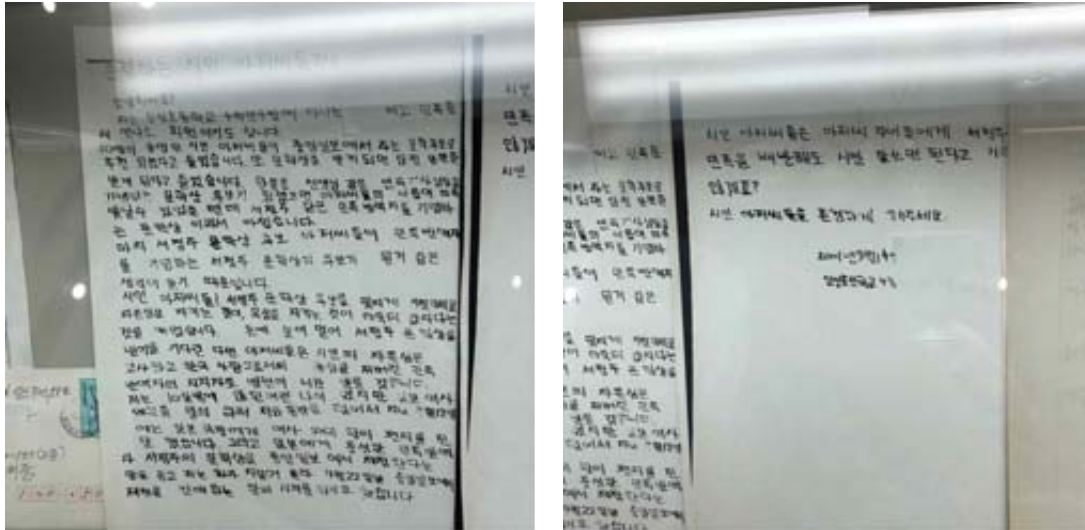
오늘의 마지막 탐방 장소는 식민지역사박물관입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일본제국주의 침탈의 역사와 식민지배의 실상, 이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의 역사와 일제에 부여한 친일파의 죄상을 기록하고 전시하는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역사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반민특위 터로, 민족말살에 앞장섰던 친일파들을 조사하고 처벌하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결과만 보면 우리는 친일파를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친일파 청산 문제는 단순히 반역자를 처단하는 차원을 넘어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었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새 국가를 제대로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갈 일이었고, 친일파 청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친일 세력과 이승만 정부의 저항과 방해로 친일파 청산은 실패했죠.

친일 역사의 시작인 일제강점기로 가보죠. 3.1운동 후 말만 보기 좋게 바꾸었던 '문화 정치'는 일제에 절대 충성하는 자들을 발굴해 관료에 등용하고, 친일 지식인을 키워 친일여론을 만들고, 독립 운동가를 포섭해 변절시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해방운동진영을 분열시켰죠. 이러한 변절자와 친일파가 광복 후에도 이승만 정권의 비호에 의해 처벌되지 않고 대대손손 부와 지위를 이어간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 와서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인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중앙일보에서 주는 서정주 문학상의 후보 10명에게 쓴 편지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서정주 문학상 후보 아저씨들이 민족반역자를 기념하는 서정주 문학상 후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문학상 후보를 멋지게 거절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금통장을 털어서 일본 국왕에게 역사 왜곡 항의 편지를 전달하고, 중앙일보에서 제정하는 서정주 문학상을 받

대하는 항의 시위를 했더니 정말 놀랍습니다. 불의에 맞서 행동하는 시민이 있다면 이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 아이로 구분할 필요 없이 이걸 누구나 보고 배워야할 것 같습니다.



8월 26일 탐방 장소: 국립5.18민주묘지-> 구 전남도청-> 상무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일빌딩-> 민주광장 시계탑



광주에 도착해 첫 번째로 간 곳은 국립5.18민주묘지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 묻힌 공동묘지입니다. 그리고 이번년도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원래는 이곳에서 기념식을 진행하는데, 이번 40주년 기념식은 구 전남도청 앞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국립5.18민주묘지의 제1묘역, 제2묘역 그리고 제3묘원에 직접 가서 5.18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묘역은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들이 안장되어 있으며, 제2묘역에는 민주화운동 이후 사망자들이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1묘역에는 광주 최초의 희생자, 청각장애를 가진 김경철씨가 잠들어 계십니다. 그는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죠. 제3묘원은 1980년 5월 18일 온 국민의 민주화 염원을 짓밟고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려 했던 군사 집단에 항거하여 5월 27일까지 광주를 사수하다가 장렬하게 산화하신 5월 영령과 암울했던 시대에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고문, 살해, 분신 등으로 민주 재단에 바쳐진 열사들의 넋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한열 열사와 백남기 농민이 잠들어 계신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한열 열사는 6월 민주항쟁으로 잘 알고 있었고,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민중총궐기대회 참석 중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운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옆에 쓰여 있는 약력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70-1980년대부터 2016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립5.18민주묘지, 예전부터 정말 와보고 싶던 곳이었습니다. 아쉽게 코로나로 인해 실내시설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외부시설 한 곳 한 곳 다 세세히 둘러보며 5.18민주화운동과 희생자분들을 떠올리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다음번에 광주에 오게 된다면 이곳에 다시 한 번 오고 싶습니다.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 항쟁이 벌어졌던 곳인 **옛 전남도청**으로 갔습니다. 계엄군의 진압작전을 예견한 시민군들은 옛 전남도청에 집결하여 최후의 결사항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군부 쿠데타 세력에서 광주의 심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목숨을 걸고 별관을 사수한 것이지요. 마침내 27일 새벽, 곧이어 어둠을 뚫고 진압하는 탱크

소리와 총소리가 광주의 밤하늘을 메웠습니다. 시민군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체포된 시

민군은 끌려갔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잡혀가고 거짓이 진실을 대신했습니다. 최근 들어 진실이 밝혀진 거죠. 그리고 여전히 진실이 덜 밝혀진 데다 이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 전남도청 앞에 '5.18 진상규명'이라는 큰 글자가 있는 이유입니다. 5.18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가 해내야 할 숙제이며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해내야 할 것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든다는 이유로 옛 전남도청 별관을 철거했습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 날인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 작전 아래 시민군 14명이 사살당하고, 164명이 부상당하고 체포된 최후 항전의 현장인데 말이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진입로를 만든다는 방침으로 미적 기준을 중시해 별관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리에 텅빈 철근 구조물만 남아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날의 흔적이 남아있는 핵심적인 곳을 철거하고 5.18 정신을 기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옛 전남도청 앞에 전두환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무릎 꿇고 있는 전두환 동상이라고 합니다. 제발 죽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밝히고 피해자분들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에 있는 구 전남도청 상무관에 가보았습니다. 구 전남도청 상무관은 그 당시 집단발포와 진압에 의한 희생자들의 주검을 임시 안치했던 곳입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보존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기록물들을 수집, 전시,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로부터 진실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 목적이죠. 실제 이곳은 그 날의 진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으며 날짜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있는 곳이라 나중에 교사가 되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

줄 때 살아있는 배움의 장소로 적합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일빌딩을 마주한 것은 옛 전남도청의 분수대 앞에서였습니다. 저편에 보이는 전일빌딩 한 쪽 면에는 총으로 인해 생긴 구멍이 몇 군데 보였습니다. 그 날의 상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영화의 한 장면이 스쳐갔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것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주광장 시계탑은 우리의 마지막 민주주의 탐방 현장이었습니다. 5시 18분에 시계탑에서 흘러나오는 <님을 위한 행진곡> 음악을 들으려고 기다렸습니다. 시계탑은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에 있었던 시계탑으로, '시계탑은 알고 있다'라는 기사가 발간된 후 신군부에 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2015년 1월에서야 광주 시민들의 요청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5시 18분에 시계탑에서 울려 퍼지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의 상황을 되살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합니다. 광주에 왔으면 민주광장에서 시계탑 음악을 꼭 들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매일 오후 5시 18분에 흘러나오는 <님을 위한 행진곡> 음악이 광주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멜로디가 마치 그 날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계탑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나. 탐방과 관련하여 고안해본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1. 역사 유적지 지도 만들기

-대상학년: 초 3-4

-적용이유(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 초등학교 사회 3-4학년 군에 나오는 지도 제작 활동과 지역의 역사 유적지를 연계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활용방안: 지도 제작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지도를 제작 해 본 후, 우리가 사는 지역의 역사 유적지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낸다.

-특징 및 장점: 사회 수업에 역사적 요소를 가미하여 학습 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에 역사 유적지에 대해 탐구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자신의 삶과 밀접한 주제로, 더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다.

2. 민주주의 현장을 테마로 여행사 패키지 만들어보기

-대상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적용이유(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 국어 교과와 연계하여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홍보하는 글을 작성하는 활동으로 적용한다면 홍보하는 글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활용방안: 홍보하는 글에 대하여 학습한 후,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홍보하는 글을 직접 작성하는 활동을 한다. 이때 여행사 패키지의 테마는 민주주의 현장 탐방을 주제로 하여 패키지 상품을 기획하고 그 상품을 홍보하는 글을 작성해본다.

-특징 및 장점: 여행 패키지 상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현장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교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홍보하는 글을 직접 작성해봄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3. 역사 현장을 느껴보며 시, 산문으로 표현하기

-대상학년: 초 5-6

-적용이유(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 민주주의 현장이나 영상을 보고 든 느낌이나 생각을 문학으로 표현해보면서 시적 감각을 높이고 자신의 생각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용방안: 시와 산문을 공부하는 단원과 함께 민주주의의 역사를 배우는 교재나 영상을 활용한다.

-특징 및 장점: 국어수업과 역사수업의 연계 가능하다. 사회의 다양한 현상에서 자신이 느낀 감동 및 생각을 운율을 지닌 형태의 언어로 나타내기에 유용하다. 글로 자신의 생각을 써보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4. 역사적인 날의 현장을 상상하여 그림 그려보기

-대상학년: 초 5-6

-적용이유(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오신 분들과 그 때의 현장을 상상해보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활용방안: 민주주의 역사 기념일 미술 시간 그 역사를 공부하고 그림으로 나타낸다.

-특징 및 장점: 미술수업과 역사수업의 연계 가능하다. 자신에게는 매우 멀고 추상적이게만 느껴지는 민주주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서 자신과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다. 느낀 점

-경해찬

내가 다녀온 인천, 서울, 광주의 민주주의 현장을 나열하고 그에 대한 느낀 점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겠지만 이번 민주주의 현장 탐방을 하기 전 나와 후의 나를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이번 민주주의 현장 탐방 전의 나는 머리로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해 관심이 많고 나름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은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무지함을 느낄 수 있었고 머리로 공부하고 영상을 보는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직접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은 계속해서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 찾아온 민주주의에 대한 감사함과 그에 맞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 민주주의 현장을 탐방한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항상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 때면 막막함이 가득했지만 이번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을 통해 그에 대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알고 역사를 아는 것은 현재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으며 그렇기에 앞으로 교사가 될 저에게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성 또한 느끼며 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윤라현

최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면서, 대학교 진학 이후 손을 뗐던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암기형식의 지식은 다시 반복하지 않는 한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의 세상과 아주 먼 옛날의 역사보다 근현 역사를 중요시 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은 역사적 장소를 돌아보며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과 경제적인 부담 없이 역사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습니다.

수도권과 인천 권역 탐방을 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역사적 현장들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보존과 운영을 위해 힘쓰는 분들을 보며, 앞으로는 우리 세대가 그 현장의 보존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더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하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 교육에 힘쓰는 교사가 되어 그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교사가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장유라

한 마디로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았지만, 탐구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 문제 인식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은 제게 탐구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경험을 통해 아쉬웠던 점이나 배우고 느꼈던 점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갔던 민주주의 현장 대부분이 건물이었지만, 역사적 흔적을 기념비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민주주의 현장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5.3민주항쟁터도 6월항쟁기념비도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던 것은 우뚝 서 있는 기념비 하나였습니다. 역사를 잘 모른다면 혹은 기념비를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끝나는 것이죠. 공원, 광장으로써 1차원적 역할만을 할 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의미를 갖는 공간은 우리가 배우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이나 기념관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딱하지는 않은 훨씬 더 우리의 삶과 가까운 방식으로 말이예요. '바위에 QR코드'를 새겨 전자기기를 통해 이 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재현조형물이나 글자조형물' 등

을 설치해 그 공간이 어떠한 장소였는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세상은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더 멀어지고 있죠. 바위에 글자를 새긴 기념비도 물론 좋지만, 현재에 맞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주의 현장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든다고 중요한 흔적이 남아있는 옛 전남도청의 별관을 파괴, 훼손하면서 현장을 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지요.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은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친일파 청산,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부끄럽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어요. 막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번 민주주의 현장 탐방을 하면서 직접 보고 들으면서 그에 대한 답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일 역사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절자와 친일파가 광복 후에도 제대로 된 처벌 하나 없이 대대손손 부와 지위를 이어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의 후손은 평평거리며 부유하게 사는 대물림이죠. 그리고 그 후자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기득권층을 이루고 부정부패를 일삼았죠. 그것이 과거와 떼놓을 수 없는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여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제 나름대로 답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이 역사의 자그마한 일부이기 때문에, 여전히 더 알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 민주주의 현장 탐방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었다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 활동을 돌아보며

인천-서울 수도권 권역은 큰 문제없이 탐방을 했지만 광주를 가기로 한 시기는 코로나19 2단계 격상의 영향으로 인해 다소 아쉬운 탐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현장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좋은 친구들과 함께 뜻을 함께하며 역사 공부를 하고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19가 종식 된 후 다시 한 번 광주를 비롯한 다른 민주주의 현장을 더 돌아보려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인천 민주와 운동센터에 감사드리며,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보험가입증명서			
국내여행자보험(고객용)			
메리츠화재 국내여행보험			
본 상품은 별도의 개인별 보험 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온라인 전용 전용 보험 상품입니다. 단, 보험서비스의 질에 의해, 보험증권은 가입확인서(증명서)로 대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어오즈(주)는 플랫폼 서비스 중개자로서, 보상과 관련한 절차 및 문의는, 가입하신 보험사 보상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계약정보			
상품명	메리츠화재 국내여행보험		
계약코드	15030-33495		
보험기간	2020-08-26(07)~2020-08-27(08)		
피보험자	윤리현 님 포함 3 명	부기사람	국내여행
합계보험료	2,790		
2. 피보험자정보			
피보험자	생년월일	성별	가입상품
윤리현	20001021	여성	MK0001
장유리	20001121	여성	MK0001
김재현	20000616	남성	MK0001
3. 가입상품			
피보험자의 출생 및 보장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보장하는 상품 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품코드: MK0001			
보장명	보장금액		
상해사망	5,000만원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	1,000만원		
여행중 예상책임	2,000만원		
후대유족액	-		
4.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5세미만자, 임신양성자, 임신박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상업 제132조) - 사망담보를 제외한 예상책임, 후대유족액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료를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 (공제계약포함) 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제하여 보상합니다. - 해당 상품은 운수보험료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대리점 워비즈앤씨 대리점등록번호 제 2018030036 			

5. 지급제한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을 해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살로 인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산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인후기, 그러나, 보험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피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의 뇌졸중, 질병 또는 심신상실
- 광병진료
- 정부중추군 또는 요동으로 자각능력이 없는 중재
(치각중상, 의학적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중재)
- 약관상 수술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의 경우
(주사기 등으로 찔려들어오는 찌서, 허술 등을 통해 세균을 흡입하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6. 사고발생 시 조치요령

- * 손해사고 발생 시
 - 의료기관 예약, 방문 치료한 경우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주세요.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 영수증 및 처방전을 준비해 주세요.
- * 해당책임 발생 시
 - 계약자의 신변/재물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병원치료비 영수증/손상물 견적서, 사고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세요.



붙임2)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메모할 수 있어요 (최대 20자) ✎

거래시간	2020.07.20 09:05:04
거래구분	일반입금
거래금액	200,000원
거래 후 잔액	315,510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검색하기 >	

윤라현

2020.07.20	
09:07:45 타행IB 인천민주화운동	입금 : 200,000원 잔액 296,780원
08:21:38 적입CC 230237881935	+ 15,000원 잔액 96,780원
2020.07.17	
	○
<	

경해찬

2020.07.20 09:03:53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입금 200,000 원
잔액 5,473,975 원

장유라

모듬명 : 민주바보

구성원 : 박수정, 장가은, 김영주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저희는 민주바보(민주주의 밖에 모르는 바보)팀입니다. 바보같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자 팀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 민주바보 팀의 팀원들은 모두 미래에 도덕/윤리 교사를 꿈꾸는 사범대생들입니다. 만약 꿈을 이루게 된다면, 교과목 특성상 미래에 만나게 될 수 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어 민주주의에 관해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정신/가치들을 직접 체득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과거 위인분들의 숭고한 노력을 잊지 않고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탐방주제

문학(시)로 알아보는 민주화의 현장

탐방계획 요약

저희 팀의 주제는 '예술(시)로 알아보는 민주화의 현장'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민주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의 세 사건을 중심으로 각각 그에 관한 시와 장소를 정했습니다.

<역사-장소-시 (순서대로)>

1. 일제강점기의 민주화 - 인천 - '당신을 보았습니다(한용운)'
2. 4.19혁명 - 서울 - '풀(김수영)';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박노해)'
3. 5.18 - 광주 -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김남주)'



<2020년 인천 청년 민주주의 탐방 현장 보고서>

민주花_ 계속해서 피어나는 민주주의를 꿈꾸며



팀명: 민주 바보팀

목차

- 팀 소개
- 활동 목적&동기
- 활동 계획
- 결과물
- 기대효과

- 활동
 - 인천
 - 서울
 - 광주
- 최종소감

■ 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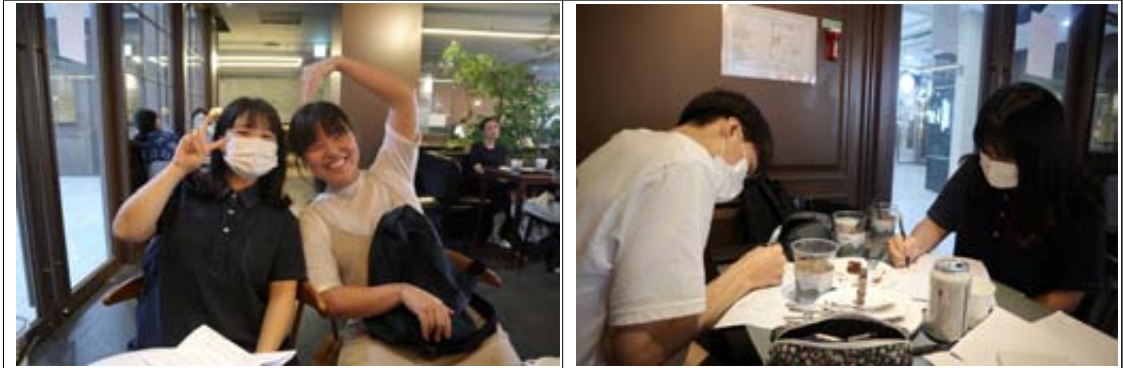
	팀명: 민주바보
	<p>제목: 민주화</p> <p>꽃이 피고 다시 쳐도 그 해 결실을 맺은 씨앗을 통해 다음해에 다시 꽃이 피는 것처럼, 민주주의 역시 계속해서 그 정신이 이어지고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도덕 교사를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생생히 배우고 미래를 이끌어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싶다는 생각에 꽃 화(花)와 민주화를 더하여 ‘민주화’라는 제목과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p>

■ 활동 목적&동기

- ▶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배우고자 한다.
- ▶ 미래 도덕 교사를 꿈꾸고 있는 예비교사로서 민주화의 역사와 정신을 직접 배우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그 정신을 가르치고자 한다.

-> ‘민주화’라는 제목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그리고 미래 도덕 교사를 꿈꾸고 있는 예비교사로서 민주주의의 정신을 직접 배우고 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활동 계획





<회의 준비>

저희 팀은 ‘민주화가 계속되는 그 정신의 흐름’을 탐구 주제로 설정했기에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기보단 큰 사건을 여러 가지 설정하고 그 역사의 흐름을 탐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사적 사건과 장소를 고려하여 ‘개항기·일제강점기(인천)- 419혁명(서울)-518민주화운동(광주)’ 순으로 탐방을 설계했습니다. 초기에는 활동의 목표와 그 방향성을 구체화 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논의한 결과 우리 팀의 탐방 목표를 정할 수 있었고(교육자로서 민주주의 정신의 계승) 그 목표에 따라 각 사건과 관련 있는 장소들을 나누어 조사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역사에 대한 사전공부가 정확하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강의와 동영상을 통해 각 사건의 역사를 공부하고, 활동 장소에 대한 사전지식을 탄탄하게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공부하고 체험한 지식을 어떻게 구성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제작(유튜브), 카드뉴스(인스타그램), 문서작성(보고서)’를 통해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활동의 최종 결과물을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결과물

카드뉴스(인스타그램)	활동영상(유튜브)
 <p>민주花- 민주주의의 연속된 역사를 공유하다 41 인천·일제강점기</p> <p>68명이 좋아합니다</p> <p>janggaeun19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1일차(인천) -민주바보팀 edited by 가은</p> <p>#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 #개항로거리 #차이나타운 #청일조계지경계계단 #제물포고등학교강당 #일제강점기</p> <p>댓글 10개 모두 보기</p> <p>재밌겠다 멋져유</p>	 <p>민주花- 계속해서 피어나는 민주주의를 꿈꾸며 2020 인천민주주의현장탐방 (민주바보팀)</p> <p>#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주바보팀 민주花, 계속해서 피어나는 민주주의를 꿈꾸며 by 민주바보팀 [2020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최종보고영상</p> <p>조회수 34회 · 16시간 전</p> <p>5 0 공유 오프라인 저장 저장</p> <p>영주 구독자 4명</p> <p>게시일: 2020. 9. 12.</p> <p>#2020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주바보팀 #4.19혁명 #5.18민주화항쟁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주바보팀입니다. 저희는 인천, 서울, 광주를 여행하며 각각 일제강점기 및 개항기, 4.19혁명, 5.18민주화항쟁의 역사현장을 탐방하였습니다.</p>

■기대효과

- 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다.
- ② 직접 배운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타인에게 공유함으로써 가치의 확산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직접 보고 배운 경험을 토대로 성장하여 이후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그 가치를 가르치며 민주화의 지속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인천_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① 일정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 개항장거리 -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

② 계획: 인천_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인천의 민주화 역사를 찾아 조사하던 중 인천 중구에 인천의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의 역사유적지가 많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역사와 의미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음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천중구에서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탐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권 피탈의 시대 배경을 보여주는 개항장 거리와 조계지계단을 방문하고 반대로 국권 수호의 장소였던 제물포 고등학교 강당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역사를 더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개항장거리의 역사 박물관도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모든 박물관이 출입금지 결정을 내리게 되며 아쉽지만 개항장 거리, 청일 조계지 계단, 제물포 고등학교만을 방문하였습니다. 일정은 제물포고등학교, 개항장거리,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③ 진행: 8월 19일

	<p>제물포 고등학교 강당(성덕당)</p> <p>이곳은 현 제물포 고등학교의 강당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학교의 건물로 사용되면서도 인천 시민들의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때 철거의 위험을 겪기도 하였지만 졸업생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곳은 등록문화재 42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간 날이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내부는 들어가 볼 수 없었지만 외관과 창문을 통해서 본 내부는 일제강점기 건축형식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학교 건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행사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p>
---	--

	<p>개항장 거리</p> <p>일본 건축 형식의 건물이 나란히 줄지어있는 이곳은 개항장거리입니다. 일본의 조계지였기에 일본 건축물이 남아있는 이곳은 제물포구락부가 있던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옛 건물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현재는 카페나 음식점등 상가 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옛 제물포의 역사를 배우고 당대 시대상을 상상해볼 수 있었습니다.</p>
	<p>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p> <p>문화재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도 모른 채 지나치는 이 계단은 청나라와 일본의 조계지의 경계를 표시한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중심으로 왼쪽엔 청나라가, 오른쪽엔 일본이 그 조계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조계지란 그 영역 안에서 치외법권이 작용하는 곳으로, 치외법권이란 외국인이 해당 영역에서 그 나라의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국의 조계지 안에서 해당국의 외국인이 어떤 범죄를 행해도 그 나라의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 자국의 법의효과를 받는 것입니다. 조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와 일본은 자신이 설정한 조계지 안에서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고 행위했습니다. 더욱이 그 조계지의 영역 경계를 표시한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은 당대의 우리 민족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계단의 왼쪽엔 차이나타운이, 오른쪽엔 개항장거리가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p>

[서울_ 4.19 혁명]

① 일정

옛 반공회관 건물(현 kt광화문지사) - 옛 조선총독부 터(현 광화문 뒤쪽 넓은 공간) - 고대생 학살 현장(현 청계4가) - 옛 서울대학교 문리대 (현 마로니에 공원) - 4.19국립묘지

② 계획: 서울_4.19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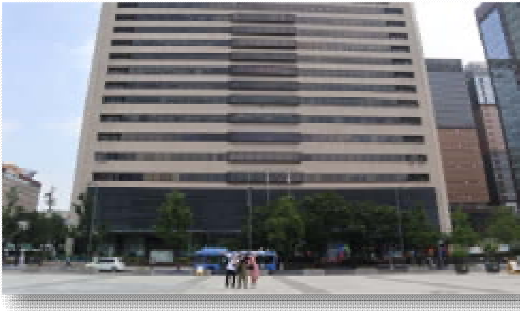
본래는 옛 반공회관 건물(현 KT광화문지사), 옛 조선총독부 터(현 광화문 뒤쪽 넓은 공간), 마로니에 공원, 이화장 같이 길거리에서 직접 4.19혁명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려 했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실내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휴관 상태였지만, 길거리에서도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역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여, 그렇게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행 떠나기 일주일 전 쯤부터, 많은 박물관과 전시관들이 다시 개장하기 시작하여, 근현대사기념관, 민주인권기념관, 4.19민주묘지에 추가로 방문할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야외에 추모관이 있는 4.19민주묘지 외에는 방문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위의 과정대로 서울 여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4.19혁명과 관련된 장소에 방문하면, 혁명과 관련된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장소의 숨겨진 역사를 충분히 공부하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팀원 모두 조선 후기의 역사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며 4.19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근현대사와 4.19혁명의 전개과정이 어떠한지 열심히 탐구하였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긴 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4.19혁명의 위대함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③ 진행: 8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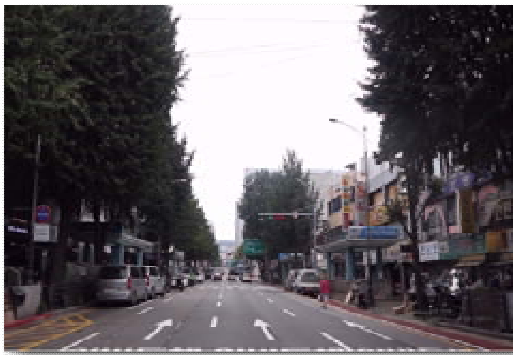
	<p>옛 반공회관 건물(현KT광화문지사)</p> <p>서울 속 숨겨진 4.19 혁명의 역사를 찾으러 처음 찾아간 곳은 옛 반공회관 건물입니다. 이 건물과 관련하여 공부하면서 우리는 처음 ‘대한반공청년단’이라는 세력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꽤나 4.19혁명과 관련된 역사가 있는 건물이지만 방문했을 때는 정말 아무런 흔적이 없는 평범한 빌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 모두 반공회관 건물의 조사를 맡은 김영주 학우의 설명을 들으며, 4.19 혁명의 무대가 된 옛 반공회관 건물의 과거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p>
---	---



옛 조선총독부 터 (현 광화문 뒤쪽 넓은공간)

역사에 무지했던 저희 팀이 길거리에서 역사를 찾는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 중 하나는, 조선총독부가 광화문 뒤에 존재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4.19혁명과는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역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4.19혁명의 사회, 역사적, 공간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탐방지라 생각하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일제의 잔재도 처리하지 못한 혼란한 시국 속에서도, 불의에 저항하며 차근차근 나라를 이끈 4.19혁명의 주역들이 생각났고, 그들이 밟고 경무대로 향했던 그 땅 위에서, 그들을 상상하고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대생 학살 현장 (현 청계 4가)

마로니에 공원으로 향하기 전, 잠깐동안 둘러본 고대생 학살 현장은 여느 다른 거리들과 같이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이곳에서는 반공회관이나 조선총독부 터처럼 정확한 역사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청계 4가를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도로 속에서도 송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슴 속에 새길 수 있었던 뜻 깊은 장소였습니다.



옛 서울대학교 문리대 (현 마로니에 공원)

고대생 학살 현장을 지나 과거 4.19혁명을 이끌었던 서울대 학생들과 교수단의 격동지 서울대학교 문리대 터를 찾았습니다. 4월 19일과 4월 25일, 각각 학생들과 교수단의 시위가 시작된 곳이지만, 이곳도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 날의 현장은, 공원으로 변모하였지만, 그곳에서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왔던 그들의 열정을 저희는 아직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4.19 민주묘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4.19 민주묘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쉽게도 실내 전시관은 관람하지 못하고, 실외 분향소와 묘지만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분향소 앞에서 묵념을 통해 4.19혁명의 희생자, 유공자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희생자 분들께서 안치되어 계신 묘지를 둘러보고, 4.19 민주묘지 속 여러 상징물들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하나 아무 의미 없이 지어진 것이 없는 민주묘지 속 조형물들과 희생자 분들의 묘지 앞에서 저희는 과거를 이끌어주신 데에 대한 감사함과 같이하지 못했던 죄송함을 느낀 채 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광주_ 5.18 민주화운동]

①일정

- 1일차 : 국립 5.18 민주묘지 - 전남대 - 광주역 - 4.19 기념관 -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 옛 전남도청 & 5.18 민주광장 - 전일빌딩
- 2일차 : 505 보안부대 옛 터 - 구 광주 국군 병원


②계획: 광주_5.18혁명

광주 탐방을 계획하는 과정은 다른 지역보다 수월했습니다. 시기적으로 현재와 가깝기도 했지만 광주 시민들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 때문인지 사적지, 기록관 같은 것들이 시의 관리 하에 잘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월길’ 코스를 토대로 우리가 방문할 곳들을 추려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5.18 민주묘지’, 우리 또래의 학생들이 목숨을 바쳐 항거했던 ‘전남대’, 현재 모습은 타지의 일반적인 역들과 다를 바 없지만, 40년 전 많은 희생이 있었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던 ‘광주역’, 시민군의 항쟁 본부이자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총격이 있던 ‘전남도청과 민주광장’, 과거 광주를 향한 계엄군의 무자비한 헬기사격에 대한 증거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알리고 있는 ‘전일빌딩’, 계엄군의 지휘 본부인 ‘505 보안부대’, 군인들과 잡아온 시민들을 치료했던 ‘광주 국군 병원’, 이 모든 기록들을 보존해 전시하고, 그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광주의 4.19 역사를 알 수 있는 ‘4.19 기념관’ 들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③진행: 8월 21일-8월 22일

	<p>국립 5.18 민주묘지 & 추모관</p> <p>국립 5.18 민주 묘지는, 5.18 혁명 당시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각 묘비마다 써 있는 개인의 이름, 직업, 나이를 보며 당신들의 인생을 ‘죽음’으로 헌신한 희생에 감사함과 그 헌신을 망각하고 살던 과거에 대해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p>
	<p>전남대</p> <p>40년 전 고작 우리 또래 나이의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사실이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에 목숨을 바쳐 저항할 용기가 있을까. 현재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은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역시 누군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선</p>

	<p>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p> <p>광주역 광주역은 다른 곳에 비해 현재 전철역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이 곳에서 시민들을 향한 집단 총격이 있었고, 사망자가 두 명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이, 계엄군의 비윤리적인 무자비함이 잘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p>
	<p>4.19 기념관 3.15 의거를 시작으로 일어난 광주에서의 4.19 혁명과 그 날의 순국자들을 기리는 작은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의거가 부산과 마산 뿐 아니라 광주에서 역시 일어나고 있었다는 생소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증거들을 볼 수 있었고, 당시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을 인터뷰하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p>
	<p>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40년 전 상황을 재현해놓은 모형과 그림, 실제 그 날의 시간을 담고 있는 듯한 기록물들과 그에 대한 해설사분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다음 일정이 촉박해 해설을 다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워 꼭 한 번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p>
	<p>옛 전남도청 & 5.18 민주광장 이곳은 5.18의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나오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매일 같은 시간, 5시 18분이 되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음악을 들으며 평화로운 분수대를 보고 있자니, 왠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과거 열사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목청껏 외치며 걸었을 거리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는지, 정작 그들이 알 수 없게 돼버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p>

	<p>전일빌딩</p> <p>5월 21일, 국민을 지켜야 할 계엄군의 국민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전일빌딩에 245개의 자국으로 남아있고, 수많은 증인들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들의 열정과 끈기가 아무 것도 하지 않던 우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p>
---	---

■최종소감

김영주

우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 뜻깊은 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 큰 행운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시작하기도 전이지만 벌써부터 힘겨웠던 계획서 작성을 마치고, 찌는 폭염과 코로나 사태 같은 악재가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힘들어 하진 않을까 걱정부터 했던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정을 짜야할 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날짜 순으로 돌아다녀볼까?',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정을 잡아볼까', '박물관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등등, 결국에는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생각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정말 4.19혁명, 5.18민주화항쟁, 그리고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의 역사까지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를 여행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도시의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리교사를 꿈꾸는 학생들로서, 학교 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넓게는 마을과 사회까지 민주적인 교육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광주의 교육 환경이 더더욱 이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탐방한 4.19혁명이나 5.18민주화항쟁, 그리고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의 역사 이외에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 냈던 소중한 사건들과 많은 열사 분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여행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숭고한 희생들이 있었던 많은 역사를 놓치지 않으려 계속해서 공부하고, 충분히 체득하여 미래에 학생들에게 그들의 희생들을 전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박수정

4일간의 민주화 여행은 역사에 무지했던 과거의 저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던 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민주화를 위한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역사들을, 직접 발로 뛰며 눈으로 마주하면서, 저는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가 '미래에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핏 값으로 이룬 결실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나는 왜 이들과 달리 현실에 안주하며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한 민주주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조롱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귀한 자리들을 얻은 위정자들의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행동들도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하곤 합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룩한다.'는 민주주의의 정의와는 맞지 않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 동안 민주화를 위한 선조들의 노력을 보며, 비민주적인 일상 속 갖은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현실의 안정감에 안도하며,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의 이기적인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과거의 선조들로 인해 보다 행복한 인생에 가까운 삶을 누리게 된 수혜자로서, 나 역시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민주주의가 되는 길은 어떤 것인지 깊게 고찰하고 모색한 방안을 실천하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장가은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던, 그래서 역사와 민주주의에 적극적이었던 고교생활과 달리 정치와 역사에 무지하고 무던해진 현재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적 싸움과 그 가치관 다툼 속에서 정의는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무지개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가치에 대한 회의감과 내적갈등으로 결국 그 문제를 회피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꾸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없이 현재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민주화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저는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치는 추상적이지만 인간의 행동은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 시킵니다. 역사적 사건과 현장을 되돌아보며, 그 속의 인물들을 공부해가며 우리는 어떤 행동과 마음으로 정의를 지키고 꿈꿔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직도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진실들이 있고, 왜곡되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자 미래 교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진실이 왜곡되지 않게 가르쳐야겠습니다. 그것이 민주화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자, 해야만 하는 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탐방은 제 자신을 한층 성숙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인생의 질문에 한 발짝 다가간 기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함께 뛰어준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모듬명 : 발아(바라)

구성원 : 김민지, 정다운, 최혜영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발아'는 한 식물의 씨앗을 의미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어떤 사물이나 사태가 비롯함을 비유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우리는 민주화운동의 선두로 나섰던,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향해 뛰어든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민주'라는 목적을 위해 혁명을 일구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아를 만들어낸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아의 주체인 학생들의 흔적, 그들과 관련된 민주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며, 그들이 '바라'고자 했던 민주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정의를 바라보고자 '발아'가 '바라'던 민주주의란 뜻에서 이렇게 모듬 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팀원은 모두 인하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이며, 금년에 현대사에 대해 깊이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우리는 '민주화'라는 한 단어를 정의내릴 수 있기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 왔음을 오로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며, 그 안에 수없이 노력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끊임없는 희생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비록 수업 시간을 빌미로 에세이를 작성하며, 민주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대사를 공부하기 위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로나마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한국현대사를 공부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던 중 현 대표 김민지 학우의 제안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 주관하는 '민주야 여행가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학생의 신분으로써 그동안 책과 인강으로만 공부해왔던 민주 열사, 특히 학생들의 깃이 새겨진 흔적을 찾아 답사를 진행해보고, 2020년 4·19 혁명 80주년, 광주 5·18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금 민주주의의 의미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탐방주제

학생, 민주화의 '발아'로 민주주의를 '바라'다.

탐방계획 요약

온라인 강의에서 벗어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가져오는 살아 숨 쉬는 역사는 실로 대단합니다. 이번 탐방의 핵심 주제로 '학생'을 택하여 민주화운동에 어떠한 역사적 관계가 얽혀있는지, 그 근본적인 배경과 과정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생들이 주도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다고 배우지만 그것에 그칠 뿐입니다. 그들의 업적을 기록하며,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관을 세우긴 하지만, 방문하는 이는 매우 적으며, 일시적일 뿐입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첫째, 학생의 운동은 모든 민주화운동의 '발아'로 작용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운동에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등이 있습니다. 모두 그 선두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김주열, 김남주, 이한열, 박종철과 같은 분들 말이죠. 이러한 위인들은 모두 정치적인 민주화운동의 선두자이거나 피해자, 더 나아가 용맹했던 고등·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기리는 기념관이나 역사적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그들이 남긴 발자국을 뒤쫓아 궁극적으로 그들이 '바라'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 학생의 운동으로 그들은 교육에 있어서의 새로운 '발아'를 얻어내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각기 그들이 원하는 00의 자유, 권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이때 학생들은 당연 부조리한 현실, 정부의 타개도 맞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교육의 자유인 것입니다. 특히 그들을 가르치던 교사들도 4·19 혁명 당시 학생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교육 민주화에 대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교원노조를 조직하였고, 합법화 투쟁뿐만 아니라 교육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도 나서서 사친회비와 잡부금 폐지, 학원 내 부정부패 척결, 어용교사 배척, 교과서 자유판매, 학생 예술문화 활동 활성화 등을 부르짖었다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배운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가 교육 민주화를 더욱 외칠 수 있다고 여겨지고, 교사와 학생이 힘을 합쳐 교육의 민주화의 '발아'를 심고, 교육 민주주의에 '바라'던 바를 이루어 지금 저희가 인하대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있음에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탐방을 진행할 것입니다.

1980년대 학생 운동가들은 광주민주항쟁을 계기로 투쟁의 대상이 민중을 학살한 국가권력이며, 투쟁의 주체는 민중·노동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투쟁의 목적이 국민의 권리인 한 표를 행사하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노동자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 운동가들은 '반공주의'와 '성장제일주의'를 내세워 사상통제가 자행된 엄혹한 시대에 사회변혁의 꿈을 안고, 사회변혁의 주체인 노동자와 같이하기 위해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 민주화와 함께 사회변혁을 꿈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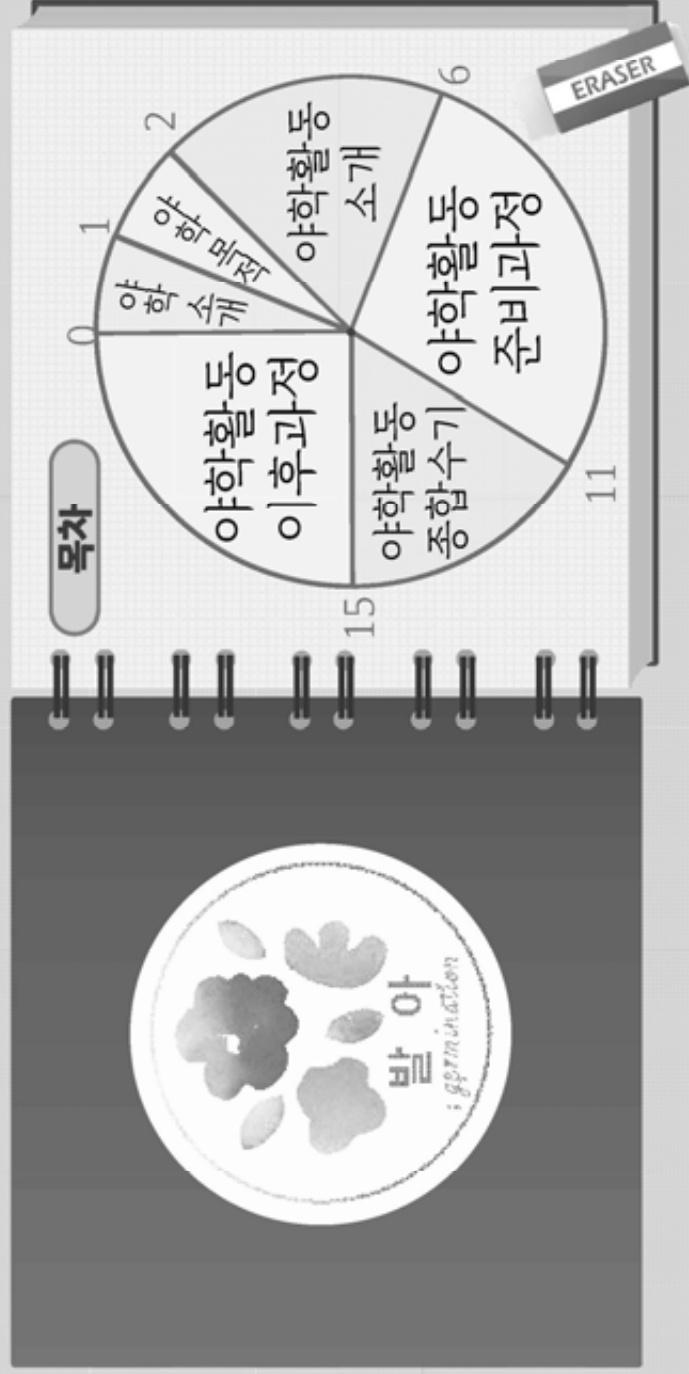
이렇게 당시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고뇌와 눈물, 그리고 희망의 역사가 낳은 민주화의 씨앗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발아'시키기 위해 직접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으로 희망을 또 한 번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정리하고 탐방을 진행할 때 살펴 볼 곳들의 순서입니다.

팀 '발아[바라]'는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준 노학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갈 것이다. 아래의 탐방 세부 일정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민주화운동 관련 장소는 특히 그들의 생가/기록관은 물론, 잊힌 수많은 고등·대학생들의 기록관, 역사/사건의 기념관 등을 추가 방문하여 민주화의 의미를 다지는 시간도 가지게 될 것이다.









‘발아’는 한 식물의 씨앗을 의미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어떤 사물이나 사태가 비로움을 비유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우리는 민주화운동의 선두로 나섰던,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향해 뛰어든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민주’라는 목적을 위해 혁명을 일구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아를 만들어낸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아의 주체인 학생들의 흔적, 그들과 관련된 민주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들이 ‘바라’고자 했던 민주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정의를 바라보고자 ‘발아’가 ‘바라’던 민주주의란 뜻에서 이렇게 모듬 명이자 야학 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준비과정

- 주제 선정
- 지역 선정
- 장소 선정

ERASER



1. 주제 선정

주제 선정

정확히 그 주제(인용)는 대략적으로
읽어내서, 요약과 그때 당시의 학생들과
같은 신에서 그들의 믿음을 갖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인용-통일, 한반도로서의 앞으로의
정치, 교육 등)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2011.10.10

단순히 대학생, 이라는 키워드만 넣으면 내용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서

2011.10.11

어떤 사건이나 인물 등을 삽입하면, 개
개성 풍을 거 같는데.

‘발아’라는 의미를 통해
민주화 운동의 선두로 나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
실을 향해 뛰어든 학생들
에 집중하게 되며 팀

발아[바리]는 난관에 부딪치게 되
었습니다. 주제로 선정하게 된 ‘학
생’이라는 키워드는 너무나도 범주
가 넓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와중,
금년에 진행된 한국현대사 수업에
서 만나 뵈게 된 류창호 교수님의
제안으로
학생이라는 키워드에서 좀 더 구체
화된 노학연대라는 키워드를 알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
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주 선생님 >

발아 참고하여 연마도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주주의 현상범을 간다고 하니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유동우 선생님은 “학림사건”으
로 구속되어 고문받으신 분. 학림사건과 부림
사건을 주제로 하심이 어떻지? 대학로 학림
대방도 가고 부산도 가고 고 노무현대통령 묘
소까지 어떤 기회에 꼭 돌아보심이 어떻지요.

너무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준비 중
인 팀명 키워드는 “대학생” “교육”을 위한
인주화운동이었고, 이에 광주, 서울, 인천에
서 운동하였던 대표적 인물들을 바탕으로 그
현장을 답사하고 취재하는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금 수
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0년대 대학생들의 노학연대 운동에 초점을
맞춰 보지요. 유동우선생님은 노동운동가. 문
동권 대학생으로 노동현장에 투입된 인물이
송영길, 신성철 등. 당시 5천명에서 2만명이
달하는 학생들이 노동현장에 위장투입하였음

당시 공장 야학을 한 곳이나 집회 장소를 찾
아가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유동우 선생님
에게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발아 야학

야학활동 준비과정

전태일 (학병은 아니지만 노학연대 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 생계편의 평화시장에 있는 피복공장에서 근로.
- 1969년 6월, 평화시장 안에 노동조합인 바보회를 만들고 어공과 동료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조건의 부당성을 역설하기 시작. (평화시장 부근 다방에서 바보회 모임을 가짐.)
- 1970년 9월, 다시 평화시장으로 돌아와 바보회를 한 단계 발전시킨 삼동친목회를 조직, 평화시장 내 영학한 환경과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나선 후 9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노동청에 제출. (삼동이관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시장상가를 의미.)
-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핵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절감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말과 함께 분신자살하였음.
- <https://www.issil.org/> 전태일 기념관
- 평화시장

송영길

- 1965년 인천에 있는 대우자동차 요망공장 건설현장에서 배관유정공 일 시작.
- 1967년 인천 북평에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를 열어 노동자들의 인권탄압관련 법률상담, 구제활동과 노동조합 관련 교육, 법적지원활동을 하게 됨.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에 관한 자료를 못 찾았어요)

심상정

- 1980년 위장취업으로 구로공단으로 취업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등 노동운동을 펼침. 대우 어퍼벨 미상사로 일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1985년 6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기 최초의 정치적 연대파업투쟁인 구로동맹파업에 나섬.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5513&cid=42856&categoryId=42856> 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 <https://blog.naver.com/digital5ro/221960235835> 나포리다방 - 구로노동 연구소 - 구로동맹파업 사거리 - 대우어퍼벨 기숙사- 수송의 다리

<노학연대>

첫 시도는 1984년 5월 18일과 5월 25일 구로공단지역의 가리봉 오거리에서 대학생들의 기류 시위였다. 이것은 1980년 이후 최초의 공단지역에서의 소규모 시위였고, 이에 대한 광기서로 '생산지역 정치투쟁'이 나왔다.

대표적인 노학연대 시위는 1984년 9월 19일 정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 가두시위, 10월 26일 가리봉오거리의 노동악법개정투쟁, 10월 27일 구로공단과 부평역 시위, 11월 13일 전태일 수모임에 맞춘 남대문시장과 구로공단시위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야학의 시초로 판단되는 '겨려타야학'은 1976년에 국민대75학번 김성재와 서울대 등의 학계운동가들이 일제강점기의 야학운동 자료를 찾아 연구하면서 긴 준비과정을 거쳐 만들어졌 다. 이들은 경정고시야학이 노동자들에게 현실성 없는 상송교육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뿐이라 며 비판했다. 그 때문에 노동자다운 의식을 갖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갔다.

1980년 경성 때부터 노동야학으로 출발한 제일교회 형제야학도 노동자들을 노동운동가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구로공단으로 옮긴 '겨려타야학'은 1980년 광주항쟁관련 유인물 배포 문제로 탄압을 받아 활동 중단되었고, 구로동의 한민교회 야학은 교회패쇄로 야학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주제인 '노학연대'와 관련된 인물들과 노학연대의 정의, 더 나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 지 등 유래와 사건들을 위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지역 선정

이번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에 참여하는 과정 중에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저희 발아[바라] 팀에게 있어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별개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자료를 조사하며 하나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 팀 발아[바라]는 앞서 선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 속칭 ‘테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지역 선정

<광주>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518민주 항쟁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에서 끝나는 항쟁이 아니게 됩니다. 바로 80년대 학생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기폭제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광주를 방문하면서 80년대 학생운동의 원인으로써 광주518민주 항쟁을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2. 지역 선정

<서울>

서울(80년대 학생운동의 활발히 이루어졌던, 동시에 탄압도 강했던 장소/시기)을 단순히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 당시 장소를 방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7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노동운동에서 노조운동, 더 나아가 노학연대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에 발판이 되어 준 이념, 더 나아가 그 롤모델이었던 전태일, 그리고 그들의 노학연대로 이어나갈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준 사건인 구동파는 물론 다음에 이어진 탐방인인 천지역의 53사건부터 노동자들의 운동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2. 지역 선정

<서울>

80년대 학생들이 운동한 이유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요인 중 하나일 뿐 주된 동인은 아니다. 실질적인 것은 바로 입학 직후 광주항쟁의 진실과 폭력적 대학통제를 충격적으로 접하며 느끼는 정의감과 분노에 있다고 본다. 이어 학원안정화라는 명목 하에 대학 내 경찰의 상주로, 학생들의 분노가 거세졌고 이는 학교 내 서클을 운영하여 금서를 읽는 등 맑시즘의 확산(사회주의 계열)이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 현 정부가 민주주의임에도 너무 독재, 반면 이론이 완벽한 사회주의에 눈길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에 적용시킬 수 없는 모순을 지니긴 하였다.

2. 지역 선정

<서울>

더 나아가 학생운동조직 내에서 노동운동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53 인천 사건부터 80년 구동파(구로동맹파업)이 대표적이다. 이에 다양한 운동 서클이 등장하게 된다. 그들 서클 내 플랜카드의 대표주자는 바로 전태일 기념주간으로 설정된 이 바로 전태일이다. 그를 기리는 날은 11월 13일을 전후로 하는데 이는 그가 분신한 날이기 때문이다. 1985년 11월 13일 고려대에서 경인지구 9개 대학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연합하여 전태일 열사분신 15주기 추도식 및 군부독재 타도와 삼민헌법 쟁취 실천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2. 지역 선정

<인천>

인천은 서울의 주변 도시로,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장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장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서울이나 기타 주요 사건들에 의해 인천의 역사가 잊혀질 수 있으나 우리는 이번 인천 탐방을 통해 70년대부터 80년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역사를 바라볼 예정입니다. 특히 노동자, 학생 그리고 종교인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직업군의 연대를 바라보고, 이러한 연대의 역사를 가진 인천사를 통해 우리 발아[바라]의 최종 주제인 노학연대에 대해 알아가며, 더 나아가 그들이 바라보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인천이라는 장소는 광주와 서울의 주제를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하고 생생한 민주주의의 한국현대사 총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3. 장소 선정

이번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에 참여하는 과정 중에서도,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저희 발아[바라] 팀에게 있어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던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여 팀의 주제와 적합한 장소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개방을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으며, 사전에 장소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탓에 방문하지 못하게 된 장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장소와 주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저희 팀 발아[바라]는 설정해준 테마를 다시 상기시키며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여러 책과 논문들을 참고하고 팀원들과 내용을 함께 공유하여 장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팀이 놓치게 된 장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노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답사지를 제작하여 탐방 과정 중에 단순히 장소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저희 팀의 이념에 따라, 살아 숨쉬는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장소 선정 - 광주



시간(여름·관람시간)	교통수단	출발지	도착지
09:30~10:30(90+00)	택시기	김부공점	광주공점
10:30~11:00(15+15)	택시	광주공점	광산동성당/시인여미프
11:00~11:30(10+20)	택시	광산동성당/시인여미프	건남대학교
11:30~12:00(20+10)	도보	건남대학교	광주역
12:00~12:30(90+60)	-	경성(광주역 인근)	
13:00~15:00(5+1:30)	택시 및 도보	광주역	광남공립대 -광주공점 -북 ymca 건물 -ymca 오피스 -구 mbc 오피스 -북부서점 오피스 -구 건남동성당 -배재여미프 오피스 -남동성당
15:00~16:45(75+30)	518 버스	남동성당	망월요지
16:45~17:30(15+30)	도보	망월요지	국립518민중우회
17:30~18:00(30+00)	택시	국립518민중우회	광주 시내(1+1시간)

앞서 슬라이드에서 제시하였듯이 팀원들이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장소가 주는 의미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15개의 광주 탐방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3. 장소 선정 - 광주

사학명	소재지명	면적(㎡)
1. 김충현고교	광주	200
2. 광주과학고	광주	111
3. 신안초-중-고	광주	111
4. 동산초	광주	111
5. 18번우물	광주	111
6. 동WICA	광주	111
7. 동WIC	광주	111
8. 진안초	광주	111
9. 광주가톨릭고	광주	111
10. 광주가톨릭고	광주	111
11. 광주가톨릭고	광주	111
12. 광주가톨릭고	광주	111
13. 광주가톨릭고	광주	111
14. 광주가톨릭고	광주	111
15. 광주가톨릭고	광주	111
16. 광주가톨릭고	광주	111
17. 광주가톨릭고	광주	111
18. 광주가톨릭고	광주	111
19. 광주가톨릭고	광주	111
20. 광주가톨릭고	광주	111
21. 5.18의용봉조지	광주	111
22. 광주과학고	광주	111
23. 광주과학고	광주	111
24. 광주과학고	광주	111
25. 광주과학고	광주	111
26. 광주과학고	광주	111
27. 광주과학고	광주	111
28. 광주과학고	광주	111
29. 광주과학고	광주	111
30. 광주과학고	광주	111
31. 광주과학고	광주	111
32. 광주과학고	광주	111
33. 광주과학고	광주	111
34. 광주과학고	광주	111
35. 광주과학고	광주	111
36. 광주과학고	광주	111
37. 광주과학고	광주	111
38. 광주과학고	광주	111
39. 광주과학고	광주	111
40. 광주과학고	광주	111
41. 광주과학고	광주	111
42. 광주과학고	광주	111
43. 광주과학고	광주	111
44. 광주과학고	광주	111
45. 광주과학고	광주	111
46. 광주과학고	광주	111
47. 광주과학고	광주	111
48. 광주과학고	광주	111
49. 광주과학고	광주	111
50. 광주과학고	광주	111
51. 광주과학고	광주	111
52. 광주과학고	광주	111
53. 광주과학고	광주	111
54. 광주과학고	광주	111
55. 광주과학고	광주	111
56. 광주과학고	광주	111
57. 광주과학고	광주	111
58. 광주과학고	광주	111
59. 광주과학고	광주	111
60. 광주과학고	광주	111
61. 광주과학고	광주	111
62. 광주과학고	광주	111
63. 광주과학고	광주	111
64. 광주과학고	광주	111
65. 광주과학고	광주	111
66. 광주과학고	광주	111
67. 광주과학고	광주	111
68. 광주과학고	광주	111
69. 광주과학고	광주	111
70. 광주과학고	광주	111
71. 광주과학고	광주	111
72. 광주과학고	광주	111
73. 광주과학고	광주	111
74. 광주과학고	광주	111
75. 광주과학고	광주	111
76. 광주과학고	광주	111
77. 광주과학고	광주	111
78. 광주과학고	광주	111
79. 광주과학고	광주	111
80. 광주과학고	광주	111
81. 광주과학고	광주	111
82. 광주과학고	광주	111
83. 광주과학고	광주	111
84. 광주과학고	광주	111
85. 광주과학고	광주	111
86. 광주과학고	광주	111
87. 광주과학고	광주	111
88. 광주과학고	광주	111
89. 광주과학고	광주	111
90. 광주과학고	광주	111
91. 광주과학고	광주	111
92. 광주과학고	광주	111
93. 광주과학고	광주	111
94. 광주과학고	광주	111
95. 광주과학고	광주	111
96. 광주과학고	광주	111
97. 광주과학고	광주	111
98. 광주과학고	광주	111
99. 광주과학고	광주	111
100. 광주과학고	광주	111

보: 소수원(208); 국: 서울지; 사: 서울지; 총 7; 사: 서울지 12

본격적인 광주 탐방을 진행하기 전,
팀 발아[바라]가 준비한 광주 답사집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활동 계획

본지 광주시립도서관에서 10월 10일(수)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광주 100년'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 내용은 '광주 100년'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 내용은 '광주 100년'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한다.

광주 100년 특강

본지 광주시립도서관에서 10월 10일(수)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광주 100년'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 내용은 '광주 100년'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한다.

구입일정표

본지 광주시립도서관에서 10월 10일(수)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광주 100년'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 내용은 '광주 100년'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한다.

3. 장소 선정 - 서울



시간(이동+관람시간)	교류수단	출발지	도착지
10:00~(0:30(00+30))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지하철 (명동역→보통)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림다방
	지하철 (명동→홍대역)	학림다방	동대문역 일대 -전태일 거리 -전태일 다리 -전태일 동상 -평화시장
	지하철 (홍대역→홍로3가)	동대문역 일대	-전태일 기념관
	-	정심(익선동 일대)	
	지하철 (홍로3가→가산역 지동역)	익선동	구로공단
	지하철 (가산역→합정역→ 보통)	구로공단	민주인권기념관 (+유동우 상생님 영당)

앞서 슬라이드에서 제시하였듯이 때로는 이해가지 않는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하여 주제를 이해하고, 장소가 주는 의미를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9개의 서울 탐방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3. 장소 선정 - 인천



3. 장소 선정 - 인천



서(명)명(동)·관(명)사(간)	내(동)수(산)	종(교)지	포(사)지
10-00-10-3020-161	노(동)	갈(산)재 4층	서(명)정(동) 노(동)수(산) 지
10-30-11-00118-171	노(동)	서(명)정(동) 노(동)수(산) 지	서(명) - 서(명)노(동) 지
11-00-12-0000-001	북(동)1170	갈(산)재 - 서(명)노(동) 지	종(교)지
12-00-13-0000-001	-	경(상)노(동)인(동)의 인(관)	
13-00-13-4010-001	고(동)	노(동)원(지)	경(상)노(동)인(동) 1층
13-40-14-1000-101	서(명)	당(동)원(지)서(명) 1층	경(상)노(동)인(동)인(관)지
14-10-14-6010-101	서(명)	서(명)노(동)원(지)	경(상)노(동)인(동) 1층
14-40-13-3000-001	서(명)정	경(상)노(동)원(지)	경(상)노(동)원(지)

앞서 슬라이드에서 제시하였듯이 주제와 관련된 자료가 적다고 생각했던 지역인 인천이었지만, 유동우 선생님과과의 면담을 통해 장소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그에 따른 자료조사를 통해 장소 선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6개의 인천 탐방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3. 장소 선정 - 인천

도시탐방소 (현 명동초)

현: 인천광역시 중구 명동 1가

이곳은 명동 1가 초등학교 1학년 1반을 가르치는 방과후 학습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명동 1가 초등학교 1학년 1반을 가르치는 방과후 학습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명동 1가 초등학교 1학년 1반을 가르치는 방과후 학습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격적인 인천 탐방을 진행하기 전,
팀 발아[바라]가 준비한 인천 답사집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답사장소

명동초등학교 도서관

현: 인천광역시 중구 명동 1가



이곳은 명동 1가 초등학교 1학년 1반을 가르치는 방과후 학습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명동 1가 초등학교 1학년 1반을 가르치는 방과후 학습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 답사장소

명아 - 책이요리 타

현: 인천광역시 중구 명동 1가



이곳은 명동 1가 초등학교 1학년 1반을 가르치는 방과후 학습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명동 1가 초등학교 1학년 1반을 가르치는 방과후 학습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과후 학습공간은 방과후 학습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번째

종합수기

광주, 서울
그리고 인천 9곳

ERASER



광주 녹두서점 옛터



김 여공: 1970년대 후반 광주 지역 민주화운동세력 중 김상훈 선생은 녹두서점을 열어 '전남구속청년협의회'의 모임 터와 각종 독서그룹을 운영해 학생운동 인자들을 배출시키는 한편, 다른 지역과의 정보 통로를 잇는 중심 역할을 맡았네.

광주 녹두서점 옛터



최 학생: 녹두서점은 유신체제 말기 암울한 시대에 민주 청년 학생들이 모여 열띤 시국 토론을 벌이던 사랑방이었군요!



김 여공: 1980년 5월 17일 밤, 전국에서 많은 민주인사들이 예비 검속되자 청년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격문과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민주화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대책을 논의한 항쟁의 산실이었다고 볼 수 있지.



정 수녀: 항쟁기간 중 광천동 '들불야학'에서 활동하던 강학들과 노동자들도 이곳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그들이 발행하던 '투사회보'를 제작해 광주 시내에 배포하여 민중항쟁 소식을 시사각각 시민들에게 알렸다고도 합니다.

광주 녹두서점 오월 공개구술

Q1. 가장 먼저 1979년 가을 헌책방거리에 있던 녹두서점을 시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주화운동의 장기전을 염두해두고 이동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 젊은이와 토론을 해보기 위해 공부 할 수 있는 자리, 탄탄한 뒷받침이 되고자 했고 그 대표적으로 그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사회과학적인 책, 흔히 우리는 금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시기적으로도 1979년 12월은 민주주의 외침이 불하던 시기임을 고려하면 장기전을 준비하고자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Q2. 당시 녹두서점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나요?

-> 녹두서점은 '사랑방'의 역할이라고 보면 좋다. 항쟁 당시 집에 있는 구호물품을 가져왔고, 또 책을 판매한 수익으로 모두 종이나 먹 등을 사서 투사회보 제작하거나, 음식 등을 구매하여 시민군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광주 녹두서점 오월 공개구술

Q3. 시민군의 입장으로써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 광주에 있는 시민들의 분노는 굉장했었다. 시민을 지켜야 하는 나라의 국군인 계엄군들이 정작 시민들을 향해 5월 21일에 도청 앞에서 집단 살포하는 만행을 광주시민들은 직접적으로 본 것이다. 이에 나(김상집)를 포함한 사람들은 저녁에 향토예비군을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수부대가 해야 할 역할을 이때부터 시민군이 광주의 치안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레 향토예비군과 공수부대의 대립으로 운동의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때 이들은 우리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군 개입설 즉 ‘폭동’이라고 치부했고, 녹두서점에서 고물라디오를 통해 전령을 받았다고 몰아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복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 선출하는 것을 원하는 게 다였다.

광주 망월묘지/국립518 민주 묘지



최 학생: 이 장소는 이한열, 백남기 열사 등 518민주 항쟁과 더 나아가 한국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알리고자 노력한 위인들이 잠들어있어요. 특히 '푸른 눈의 목격자'라고 불리는故 위르계 힌츠페터씨의 무덤도 위치해있죠!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묘지의 면적을 넓히고자 했고 이에 바로 옆에는 신묘지인 국립 518민주 묘지가 자리 잡고 있기도 해요~

광주 망월묘지/국립518 민주 묘지



김여공: 말로만 듣고, 교과서로 보며 영화로만 배워 오던 그들의 일대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그들의 유품 앞에 서는 순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라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일까? 피를 보면서 쟁취하는 민주주의가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군 그래.



정수녀: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함인데,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되찾으려고 하다 생긴 희생이 '승고하다'라는 단어 하나로 그리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분들을 위해 방문하게 되면 코로나 19로, 단체는 어렵더라도 각자 개인 참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광주 망월묘지/국립518 민주 묘지



최 학생: 특히 국립518민주 묘지에 있는 부조벽을 보며 518을 다시금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묘지 내 조용하고 엄숙하며 묵묵한 분위기 속에서 벽 혼자 역동적이게 아 직도 이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많다는 듯, 마치 역사를 하나의 파노라마 형식 처럼 형상화하고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김 여공: 침언을 하자면 정부의 불의와 폭압에 맞서 당시 광주 시민의 불굴의 저항 정신을 몸소 실감하게 해주는 군.



정 수녀: 이렇게 우리가 두 묘지를 방문하니 다시는 이 땅에 불의와 독재가 존재해서는 안 됨을 기억하고 다짐하게 되는 준엄한 역사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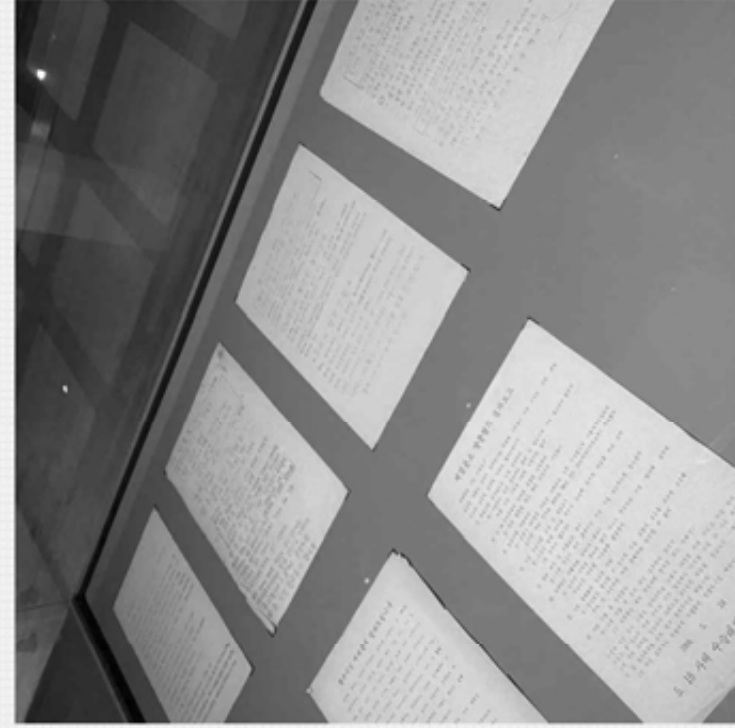
최 학생: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1919년 3.1운동의 결과 탄생했던 임시정부 그리고 1945년의 해방과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시하는 국립박물관이에요.

현재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인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광주 시민의 회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민주시민의 몫을 이어가는 토대가 되었음을 기억하기 위해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해요.



서울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범시민결기대회 전후로 발행된 투사회보



김여공: 광주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외쳤다는 것을 기록해줘서 고맙네. 전시는 압축적이었지만 5.18민주화운동의 발단과 전개 과정, 그리고 역사적 의의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어.



정수녀: 특히 5.18을 은폐하고자 하는 정부에 맞서 투사회보와 같은 유인물 배포해 5.18을 알리고자 했던 학생들의 노력, 정부에 동요되어가는 언론에 회의감을 느낀 언론인들의 진실된 움직임, 마지막으로 이 모든 민주투사들을 돕기 위해 애썼던 광주 시민들의 노력까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서울

평화시장/전태일 베틀다리/전태일 거리/전태일 동상



김여공: 1958년 청계천을 도로로 복개하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재래시장이 사라질 위기였지만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고 건물을 지은 것이 바로 이 평화시장이라네. 평화시장은 평화 통일의 염원을 담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당시 평화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기성복이 큰 인기를 누리면서 빠르게 성장해나갔다네. 그 속엔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자 다수의 희생이 서려있었음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어.

서울

평화시장/전태일 버들다리/전태일 거리/전태일 동상



최 학생: 정말 힘든 시대에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저희가 온전히 공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겠어요. 얼마나 당시의 상황이 참혹한 환경이었으면, 노동자분들께서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말이에요.



김 여공: 맞아, 특히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인해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에 세상이 관심을 가져주었다고 본다네. 평화시장 입구 앞에 있는 전태일 버들다리와 동상은 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우리들의 역사를 기억해주었으면 하네.



정 수녀: 그의 역사에 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전태일 열사가 했던 노동운동을 그의 삶에 비춰서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던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터를 둘러보며 그동안 자료로만 봤던 역사보다 그의 삶의 현장을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역사를 하나의 공감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전태일 기념관



김여공: 전태일 기념관에서는 그의 전반적인 생애와 민주적인 노동권 발전에 그가 기여했던 일들, 그리고 전태일 분신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게 된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네.

서울

전태일 기념관



정 수녀: 전태일 분신 사건은 1970년대 노동문제에 대한 학생운동세력의 관심을 고조시켜 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습니까?



김 여공: 특히 이 기념관의 전시에서는 분신 사건 이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네. 분신 사건 후 학생운동세력은 근로조건 개선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민청학련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이후 학생운동 출신자들은 노동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 노동자들의 고통에 동참하거나 야학 활동을 하면서 노동문제에 접근하기도 했어.



최 학생: 특히 저희 학생운동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민주노조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존권 투쟁에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연대하며 투쟁을 이어 나가기도 했죠.

서을

전태일 기념관



최 학생: 전태일 열사가 노동권 주장을 위한 배움의 노력이 보탬이 되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를 보면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힘들게 사셨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애달프게 느껴졌습니다.



정 수녀: 우리도 그동안 노동운동에 참여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껏 걸으면 민주주의를 외쳐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회의감과 부채의식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리고 '노동자'라는 그들의 위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지요. 이를 계기로 우리 종교계 인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울

민주인권기념관



김여공: 남영동 대공분실은 피고문자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공산주의 사상범으로 조작하기 위해, 허구의 조서에 담긴 내용을 모두 시인하도록 고문실의 내부 또한 특이하게 개조했다네. 바닥과 벽면을 모두 붉은 계열의 페인트로 칠하고 수용자의 자살 방지와 고문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나무 보드 흡음재를 벽면에 부착했지.



김여공: 맞네, 아주 제대로 봤어. 경찰청 인 권센터로 탈바꿈된 이후 이러한 잔혹한 고문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바닥과 벽면을 기존의 붉은 계열의 페인트에서 연두색 페인트로 다시 칠하고 본래 옥조가 있던 자리에 세면대와 변기를 놓아두고 바닥에 나사로 고정되는 의자까지 떼어버리는 현장 왜곡을 실시하게 되었네.

실제로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실마다 있는 라디에이터를 기울이거나 흡음재의 구멍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처 손을 대지 못한, 왜곡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새빨간 벽면과 페인트 자국을 볼 수 있다네.



서울

민주인권기념관



최 학생: 그런데 장소가 굉장히 어색하네요. 연두색 계열의 벽면과 플라스틱 가벽을 보면 전혀 그런 장소라고는 안 느껴지네요!



정 수녀: 복원사업으로 인해 저희는 이곳의 어두운 역사를 모른 채 지나갔을 겁니다. 당시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진영의 상황과 내막들, 더 나아가 유동우 선생님의 고문과 관련된 한달 간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의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 민주인권기념관

Q1. 부평공단 내 최초의 노동조합을 만드셨는데,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유동우 선생님: 이 얘기는 내가 책에 미처 담지 못했어요. 우연히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종사자들을 만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전도만을 할게 아니라 공장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노동현장 속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뺨이 없고 이렇게 해서 무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 있고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에게 당하고, 그래서 아주 비참한 삶을 구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걸 내가 적어도 고통 받는 약자 편에 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울 민주인권기념관

Q2. 70년대에는 동일방직 사건이 있지만, 사실 선생님께서는 80년대 학림사건과도 관련이 깊으셨어요. 특히 전민학련으로 많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무자비하게 끌려오셨다는데, '학림사건'이나 '학림다방' 등 이러한 사건이나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동우 선생님: 학림 사건은 명백하게 정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순수하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재보험법, 이런 노동관계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무조건 잡아가면 빨갱이로 나를 몰아가고 두들겨 패고 그때도 엄청 맞았어요. 감옥에도 집어넣고 한단 말이예요. 아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노동 문제는 없구나. 노동 문제는 바로 모든 게 공안 문제구나. 정치 권력의 성격이 바뀌어야한다. 그때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민주적인 권력을 세우고 나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엄청 신장되었잖아요? 바로 그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서을 민주인권기념관

Q3. 우연히 학생들이 노동경험을 이용해 정계에 진출하려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노동운동가로써 어떠한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유동우 선생님: 학생들이 많은 노동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교회에서 하는 야학에 함께하여 노동 권리에 대한 학습을 하는 등 교과 학습과 여러 통로를 통해 관계를 맺었어요. 학생들대로 배운 지식을 공유하는 환경이 되지 못하여 이런 시스템으로 보람을 느꼈고 노동자도 모르는 것을 배우고 함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실제 이것은 정계 진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했지만 이런 학생들이라고 초심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돈벌이도 못하고 가족들에게 체면도 안서는 상황으로 몰리다 보니 변하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단편적인 것만 보고 지식인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활용해 정치적인 출세나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



인천

동일방직 인천공장



김 여공: 동일방직 인천공장은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애환이 담겨 있는 장소이네. 1970년대 당시의 동일방직에 다니던 노동자들은 다른 공장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었지. 월급이라던지, 기숙사 시설이라던지 여러 부분에서 다른 공장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으니까.

인천

동일방직 인천공장



최 학생: 하지만 이렇게 여건이 좋은 만큼 노동 강도는 센 편이지 않았나요?



김 여공: 숨먼지가 눈, 코, 입에 달라붙어 숨쉬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일해야 했고 고무 귀마개를 하고도 귀가 찢어질 듯이 아픈 소음에 시달려야만 했어. 또, 위계적인 체계적인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계들을 한 사람이 관리해야 했으며 특히나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저임금 속에서 노동의 강행군이 끊임없이 이어졌지.



최 여공: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노동 권리들에 눈을 뜨게 되면서 여러 불합리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노동조합 결성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곳은 노동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장소가 되었지.

최 여공은 김 여공 친구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인천

동일방직 인천공장



정 수녀: 이와 같은 운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우리 종교계 인사들도 참 많이 애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도시 산업선교회'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학생: 아 그렇군요. 이런 장소가 현재는 티만 남아있다는 뉴스를 접해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었는데, 마침 공장 출입문에 어떠한 공지 사항이나 경비 업무를 보시는 분께서 보이지 않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공장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인천

동일방직 인천공장



김 학생: 저희가 사전에 조사했던 바와 같이 동일방직 인천공장은 예전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때로는 건물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대부분이 철거되고 내부는 부서져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간혹가다 보이는 예전의 흔적들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해줬던 거 같아요.



정 학생: 그래서 더욱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깨닫게 해주어 가슴이 아팠던, 장소였어요.

김 학생과 정 학생은 최 학생 친구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현 일꾼교회)



정 수녀: 도시산업선교회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단체입니다. 1960년대를 거치면서 단순한 개인적인 전도와 구원 차원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클럽 활동'이라 불렀던 소그룹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현 일꾼교회)



김여공: 침언하자면, 클럽은 회원들이 직접 회장과 총무를 뽑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도 회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했었지. 클럽의 활동 영역은 요리 만들기부터 노동 관련법 학습까지 다양했지.

조직 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갔으며, 동일방직의 여성 노동자들은 클럽 활동을 통해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여성 노동자로서 자신의 처지와 이해관계를 자각할 수 있었어. 당시 여성 노동자들은 클럽에서 회장, 총무를 선거하듯 제대로 선거에 참여해 노조 대의원 41명 중 29명의 여성 대의원을 선출했고, 그리하여 마침내 여성 지부장을 탄생시키는 결실을 보게 되기도 했다네.



최 학생: 인천 탐방을 하기 전, 인천 민주화센터로부터 받은 책인 「열전」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장소에 대한 소감을 짧게나마 말하자면 책 「열전」에 자주 언급되었던 장소이자 노동자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준, 당시 현실에 안주하는 소시민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집결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현 일꾼교회)



김 학생: 또한, 현재의 교회 입구 쪽에 붙여 놓은 사진들과 자료들로 하여금 당시의 노동 활동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는데, 과거에서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꾸준히 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 순간이었어요.



정 학생: 이와 같은 장소에서 운동을 뒷받침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근로기준법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조금 더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학생과 정 학생은 최 학생 친구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인천

인하대학교



최 학생: 인하대에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별도로 운영하던 학생사회개발단인 일명 학사단과 기독교학생회가 학생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와 학교의 연결고리 속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학사단 활동에 뛰어들었죠. 학사단은 전국 단위로 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방학 때마다 노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정 수녀: 종교계도 극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들이 가슴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그들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

인하대학교



김여공: 학생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해 앞장서줘서 너무 고맙네. 학생들과의 연합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위치를 인지시켜 주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

인하대학교 노동조합

신원리향교 역사관 벽면인쇄물 후원금고지서

후원의뢰 : 인천지 동구 만석동 만곡루이 공립유치원
 후원기간 : 1973. 7월 12일 - 8월 12일
 납기예편 : 전월식 - 전속과 3년
 종래년 - 전기와 2년
 이월년 - 조속과 3년
 후원내역 : 1) 조속과 인당
 2) 조속과 심역 아당 (심학 인당분역, 조속조인)
 3) 공립유치 (만석동) 조속과 기수당역 조속
 (가정담당을 총역서)
 본회명 : 향촌진흥회 본회로
 1) 수취지 구하기 힘들었다. (조속과 제외)
 2) 차례와 조속을 겸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3) 조속분역역 대한 차관조속이 부족, 조속과역역 역과역역
 본회명 아당이 당원.

합 계 : 납금 - 5,000 원
 계좌호수 - 3,000 원
 연 조 - 700
 식 당 - 5,700
 부속비 - 11,200
 조역역 - 5,000
 합 계 - 4,500
 계 35,000 원

인 원 : 인천 기독교 도시 신원리향교역과 본원기간을 1주 2회 교육함.
 후원의뢰 : 부산지 3부주 (신원 송산 생활) 이당 조속 후속역사조속 미합 6로
 후원기간 : 1973. 8월 11일 - 23일
 납기예편 : 전 월 식 (인천역 신원공학과 3년)
 후원내역 : 1) 신원생활 4) 신원생활 기원생활 조사
 2) 신원생활 심역 아당 5) 신원생활 조속시안과 임금,
 3) 신원생활 인당 조속조인 조속
 합 계 : 계좌속의 명조도 송납하였음.

58585

153-58585-2-13

인천

인하대학교



최 학생: 그리고서 1973년 10월, 당일 총학생회 주관으로 본관 대강당에 5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민주체제를 확립하라”, “정부는 무기력한 국민과 사상적 내시를 만들고자 하는 문교부의 최근 대학생 장학제도 개선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는 등의 5개 조항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문 쪽으로 행진했어요. 이것은 인하대에선 처음 있는 시위 현장으로 인천에서의 노학연대, 그 중심에는 인하대학교 학생들도 함께 했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동아일보 1987년 6월19일자 10면-

인하대 인천대생 3천5백5십 명(경찰추산)은 18일 밤 인천 시내에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6시반경 인천시 북구 부평동 부평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인천지역 최루탄추방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하려던 학생과 시민 2천7백여 명(연합통신보도)은 경찰이 대회장 출입을 봉쇄하자 오후 6시부터 시내 곳곳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다 북구 산곡동-부평로-청천동 일대에서 이중 1천2백 명이 19일 새벽 3시 반까지 철야횃불시위를 했다. 이날 시위로 남구 주안동 한국수출6공단 앞 공단파출소가 돌과 화염병 습격을 받았으며 학생 8백여 명은 인하대 학생회관에서 철야농성을 했다.



정 학생: 인하대학교가 선배님이 말씀하신 노학연대를 포함한 인천의 민주화운동인 5.3운동, 6월 민주항쟁, 노동자 투쟁과 연관되어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역사를 마주하기 위해 저희는 인하대학교를 찾아가 본관을 배경으로 분수대 앞에서 발아[바라]팀의 마지막 여정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어요.



김 학생: 본관 앞에서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선배님들의 모습을 상상해보았어요. 치열했던 그 날의 역사는 분명 오늘날에 있어 자랑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널리 알려져야 할 것들이에요. 저희는 본관 앞에서 촬영한 사진 한 장으로 탐방 기록을 남겼지만, 이 사진과 함께 첨부할 인하대의 역사는 분명 누군가에게 새로운 사실로서 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김 학생과 정 학생은 최 학생 친구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네번째

이후과정

- SNS 후기 모음
- 면담 내용 정리
- 공개구술 참여
- 영상

ERASER



<SNS 후기 모음>

1. 블로그 후기

세 차례의 걸쳐, 네이버 블로그에 상세히 후기를 입력하였습니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 지도를 활용하여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각 지역마다 첫 시작에는 지역 별 테마를, 마무리에는 탐방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이나 종합적인 느낀 점을 기록하여 순간순간을 기억하고자 하였습니다.

발아[바라]'s 광주 탐방 후기 편: <https://blog.naver.com/kkci3521/222046219149>
 발아[바라]'s 서울 탐방 후기 편: <https://blog.naver.com/kkci3521/222054857182>
 발아[바라]'s 인천 탐방 후기 편: <https://blog.naver.com/kkci3521/222069354493>

발아[바라]'s 인천 탐방 후기 편 (+'낙두서점의 오월' 공개구술)

인천의 탐방을 시작하기에 앞서, '광주-서울' 탐방의 후기를 추가하고자 한다. 지난...

23시간 전
♡ 0 ○ 0

발아[바라]'s 서울 탐방 후기 편

그들은 또한 힘겨게 싸우며세훈은 의지로 고난을 이겨나갈 것이다. 언젠가 또다시 바...

2020. 8. 8.
○ 0

발아[바라]'s 광주 탐방 후기 편

우선 코로나19 속에서 광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를 높인 시점에 광주를 방문하게...

2020. 7. 30.
♡ 0 ○ 0

<SNS 후기 모음>

2. 인스타그램 후기



해시태그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을 활용하여 모두에게 저희의 후기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10개 가량의 사진을 첨부하고 방문했던 장소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계정이 없어 태그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광주

- 1) <https://www.instagram.com/p/CC8GIPTgAu0/?igshid=jdghfeedajxz>
- 2) <https://www.instagram.com/p/CC8VnX0jz82/?igshid=1fgj87zqfas43>
- 3) https://www.instagram.com/p/CC8h99uBs_L4C1on_Sb0BBiCj5xkE63KYf6as0/?igshid=88min75ad1u2

서울

- 1) <https://www.instagram.com/p/CDghHltANZp/?igshid=18b8a1fk7zh0m>
- 2) <https://www.instagram.com/p/CDgLiNDwoG/?igshid=11x1cp96z0ni6>

인천 - https://www.instagram.com/p/CD_GYAPA8HA/?igshid=1mz8dbkxgfyt6



<SNS 후기 모음>

3. 페이스북 후기



해시태그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와 태그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를 활용하여 인스타그램과 동일한 수기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10개 가량의 사진을 첨부하고 방문했던 장소들을 나열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해시태그들을 이용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는 데 페이스북이 한 몫 하였습니다.



광주: <https://www.facebook.com/100033720290543/posts/318001436000530/?d=1>
 서울: <https://www.facebook.com/100033720290543/posts/327409835059690/?extid=QJZKhRyO1BkLWlma&d=n>
 인천: <https://www.facebook.com/100033720290543/posts/335697854230888/?extid=RKzBbSNAC3E5ls3&d=n>

<SNS 후기 모음>

4.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후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했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참여마당 내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에 공유하는
수기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때 저희 발아[바라]팀은 블로그에 자세하
나와있었던 수기를 전체 캡처하여
최대한 블로그와 동일한 수기를 업로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단, 크기가 작아 확대를 해야 보입니다.)

광주: https://idph.kr/board/board.php?code=nboard_visit&w=8&l=0&move=view&num=1397&parent=floor=&depth=&searchword=
서울: https://idph.kr/board/board.php?code=nboard_visit&w=8&l=0&move=view&num=1414&parent=floor=&depth=&searchword=
인천: https://idph.kr/board/board.php?code=nboard_visit&w=8&l=0&move=view&num=1424&parent=floor=&depth=&searchword=

참여마당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53	대리인장: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참가자 1, 2	김민서	2020-08-27	3
52	대리인장: 청년 민주화 운동 2020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김민서	2020-08-27	5
51	대리인장: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참여마당 - 4	김민서	2020-08-27	4
50	대리인장: 2020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참가자	김민서	2020-08-25	15
49	2020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참가자 1인 명 / 1	김민서	2020-08-24	15
48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 후원금	김민서	2020-08-23	19
47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2020 청년 민주주의현장탐방기 4	김민서	2020-08-23	8
46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2020 청년 민주주의현장탐방기 3	김민서	2020-08-23	9
45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2020 청년 민주주의현장탐방기 2	김민서	2020-08-21	13
44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2020 청년 민주주의현장탐방기 1	김민서	2020-08-13	24
43	2020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기 1인명 / 1	김민서	2020-08-12	21
42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2020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기	김민서	2020-08-12	30
41	2020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1807 청년 민주주의현장탐방	김민서	2020-08-05	33
40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2020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기 3	김민서	2020-07-29	32
39	2020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기 1인명 / 1	김민서	2020-07-29	37
38	2020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기 1인명 / 1	김민서	2020-07-29	38
37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2020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기 2	김민서	2020-07-08	47
36	2019 청년 민주주의현장탐방 참가자명단	김민서	2019-08-08	38
35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기 1인명 / 1	김민서	2019-08-08	38
34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기 1인명 / 1	김민서	2019-08-08	39

1 2 3

<유동우 선생님 면담 정리본>



지난 8월 5일 발아[바라]팀은 유동우 선생님과 면담을 통하여 노동운동의 전반적 활동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으시기까지 당시의 정황을 듣고자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남영동 대공분실의 안내 설명과 정황을 자세히 이야기 해 주셨고, 저희는 이를 통해 70~80년대 민주화열사들이 꿈꿨던 삶에 대해 다시한번 고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용우 선생님 연담 정리>

여성의안 고민을 역시로 풀어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절대 해결해줄 수 없다. 단연코 자신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 그럼으로 여성노동운동에 여성 그들 스스로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당시 말해서 과도하고 남용을 저지하라고 여성노동자들을 당혹스럽게 그림에도 불구하고 통일당의 사명을 보면서 노동운동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 대응을 신뢰해야 한다는 한계 성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대중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한다.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대중은 권력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통해 변화하기 때문이다. 대중은 어떻게 직장을 하는가를, 바람직한 변화의 가능성을 믿었다. 그래서 나로 노동운동을 놓지 못한 이유이다.

주한한 사람이 있는데 직장만 한다면 어이머만 예비직로 변화할 수 있기에 교육을 당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풀기는데 힘들 때는 참으셨습니까?
 우선 입어든 독야룡의 인내심이 우선 그것이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주변에 권유도 있었고, 서둘러 그 수 길세만 그 수라고 써보라고 써보라고 권유했던 점과 노동운동을 하고 싶는데 항상 준비하는 상황과 함께 포기 교육을 당하는 등의 힘든 것이 많아서 불확리스토와 취직 어려움을 겪으니 사회에 고립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꿈의 내용이나 꿈중수준이 보면 어쨌든이 취이 없거나 좀 지나친 사회적 대접을 받은 것 같다. 귀양이 있어 보코리올 정도도 보코리올 하고 지금은 집담어리도 없게 된 것도.

원래 이 책을 그냥 재미있고 성장과정과 1년 정도의 노동운동 경험을 담은 것이 첫 책이었고 이후의 노동운동이 의연한정원인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라고는는데 6.10민주항쟁이 아우르는 최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출판하려고 했었지만 미래지니 출판사에서서는 기존의 것을 출판하는 것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원소문 편집과정시경 당시 분신하려는 시도를 행했을 보고서 알게 되었어요.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노동운동을 쓰기에 생각 했던 근로조건에 대해 따질게. 실제 문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는 책상이 달린 문체였다. 산업체제의 중요성도 인원에 최고된 인연산선의 실수로 저절로 나오신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각 회사에서 산업을 예방하고 합리적 체제를 도입하는 관리자가 있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었다. 유출수이라는 분이였다. 당시의 중요성에 전담하게 된다.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선진산업에서 관련 영화도 보면서 산업안전론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서 영향을 받았었다. 편집과정에 있어서는 일어난 일을 함께 되어서 즉각적으로 뛰어올라게 되었다. 그러나 잘못이 하나도 없었고, 다지고 했다. 지금은 남다른 산업안전론에 대한 책부상이 있었다.

학생들이 노동계절을 이용해 정계에 진출하려 한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많은 노동자들을 묶으시기 위해 고쳐야 하는 아파에 참여하여 노동 권리에 대한 학습을 하는 등 그과 학생과 여러 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었다. 학생들이므로 페은 지식을 공유하는 환경이 되어 주하여 이런 시스템으로 보장을 느꼈다. 노동자로 모르는 것을 배우고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를을 추구하는 관계였다. 한국사회의 현실을 노동자의 삶에 현실을 보여 줄만한 것이다. 실제 이것은 공개 진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이라고 쓰성이 빈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손필기도 못하고 기복들에게 제면도 인어는 상황으로 물리다 보니 별하는 사람은 분명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단편적인 것만 보고 지식인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활동의 정치적인 출제나 이익을 위한이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서로가 상호성조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연이연연사부터 지식인들과 학생들에게 권자와 평등이 있었다. 이렇게 권리와 상양을 주었다. 자연스럽게 지식인들과 어울리게 되면 서로 간혹 주변에서 유용성을 지식인화라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이 있었다. 원 문체를 바라보는 시간이 남들과 달랐다.)

이러한 정보를 메모 및 정리하면서 노학연대와 더불어 학림사건에 대해 당시의 정황과 위치를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나아가 탐방을 복습하고, 또 인천 탐방에서 장소 추가의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녹두서점 오월 공개구술 정리본>



지난 8월 11일 화요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주최하는 '녹두서점의 오월' 공개구술 자리에 저자 김상운, 정현애, 김상진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음을 안 받아[바라]팀 대표 김민지는 참석하여 구술의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부터 당시 상황을 자세히 구술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술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녹두서점 오월 공개구술 정리본>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장편소설 - 녹두서점의 오월
 영·내출판사, 2007년 12월 10일 발행, 280쪽, 12,000원

우리 문화구술을 위해 쓴 이유는 형식의 준비 혹은 사생활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게 보충시키고 싶어서였다. 이에 소용과 관련된 일기나 편지 등을 활용하여 거대한 시간으로 된 공간을 형성해보고 싶었다. 서평 중심의 서사로 바꾸고자 하였다.

오월 참여한 사람은 모두 10년주행의 산문적인 세 문물 한사람이었다.

경상은 민중학과 관련되어 첫 행방을 10년 이상 뒤로 두고 녹두서점을 운영하였는데, 현재는 작가에서 벗어나 여러 일을 모두 가늠하여 공구의양을 형성 및 운영하신 분이다.

정혜재, 김정은 부인으로, 딸과 친남편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시고 지금은 여성운동기호며 정계에 진출하였고, 포항에서 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한 분이다.

김정일: 김정은 부인으로, 딸과 친남편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시고 지금은 여성운동기호며 정계에 진출하였고, 포항에서 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한 분이다.

Q1 가장 먼저 1975년 가을 문학잡지에 있던 녹두서점을 시나리오 용기에 되쳤습니다. 이는 민주운동의 장기간을 모두 다루고 싶었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 젊은이와 조롱을 피하기 위해 문물 할 수 있는 시대, 민중의 현실이 되고자 했고 그 때 프로젝트 그룹을 형성시키기 위해 사색과학적인 책, 출판의 유리를 그려야 시작했다. 서적으로도, 1975년 12월은 민주주의 의식이 불타고 있던 시기였을 고대하던 작가들을 준비하고자 했던 이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Q2 사실 김정은 선생님은 1974년 민중학사선으로 연루되시고 1975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의 당면이 뭘 하신가요?

-- 저는 10년주행의 해에 가려고 서점에서 발행 서클이라는 활동을 하였다. 서클은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의해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서클 운동이 조신체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정혜라는 소리만 쓰지 못하는 일이 없었는지 하는 회담이 불타고 있었다.

이해 서클을 단원하여 5-6명 정도로 모여 1개월 간 집중 교육을 받고 이러한 스킴을 통해 총 20여명의 인원을 모집하여 1975년 12월 10일 발간을 하였다. 한 개가 간 건립하고 나니 신문 조종은 물론이요 그날을 함께 지어 버거웠고 이에 학생 대신 책을 공부하라는 방한으로 도착하면서 글씨를 보충하는 녹두서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Q3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 김철민이나 YJCA 건물 등 당시 현장에서 우리 녹두서점은 전국학생을 많이 하였고 후 사회를 제정하여 후자는 형의 일을 보충한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10년에 대한 해의식이 조금 크다. 이에 대해 기록하고 싶어 내리가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었다.

북의 우리 가족은 영어 모두 중국 10년주행의 결어했다. 그 언어는 지적인 교사, 시인, 문인만 아니라 최진과 대령 등 직업도 다양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떠올리는 게 고분이고, 녹두는 그 기억을 아끼 지켜내고 싶었고 있다. 이에 6월 중의 60명정도 정혜재, 김철민이 이 책을 발행하게 된 것이다.

Q4 남편이 갑자기 말하러 피를 흘리는 그 상황,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사실 남편김정일은 영장 없이 건물 수직을 위하여 정월 발행 구출을 두세 차례 당한 바 있다. 이 당시는 그의 친필본이었다. 1969년 민주주의 불을 피우는 단체에도 참여하는 주석대의 상황으로 녹두서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오월 1월 17일 오월 11시 마지막 순방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경찰들이 용이하여 남편을 찾았다. 남편이 유언을 남긴 후를 남겨주었다. 사실 당시에는 용이한 일이와 뒤 후 당장 수색이 되었다. 시간을 위해 최소한은 남편이 간 이후, 며칠후에 출현된 그의 손목에, 그 시체가 정혜재 손목을 보여 영웅으로 더욱 바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Q5 당시 녹두서점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고, 화정이라는 후손 결단이 있었나요?

-- 녹두서점은 '사생활의 열화'라고 보면 된다. 행정 당시 필에 있는 그로움을 기억하고, 또 책을 만드는 수단으로 오월 후의 나날을 사서 구거위로 제작하거나, 우리 글을 구해와서 시민에게 지원해주는 장치를 하였다.

북의 녹두서점은 화정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1975년부터 실버를 필요로 했다. 75년에 오리가 정하는 사업장인 후, 행정, 서장 등이 들어선것은 이에 대해 김남수 사인 후 지인중의 역할은 군사 목적에 대해 어떻게 다뤄야할지 카운트 그림에서 정리하기도 했다.

다. 이에 나입업은 제이한 대표의 승으로 인상을 얻기 보 하고, 1300. 적당 등 화정당에 더 하신도 인상을 한 바 있었다.

이후 13. 12 서장이 끝나고, 신군부 세력이 정권이 잡힐 1981 사복당으로 참여해 비 상 계엄령을 준 실어할 것을 제정한다 공수복다? 용이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을 했다. 이에 화정당을 주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화정당은 정부 뒤 후고 상당 불만 것은 예상되고 할 수 있다. 나입업의 화정당 예상은 조려한데 않고 명을 구할 수 있었다. 우리가 화정당을 제작하는 이유는 사생활 살아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절대 계엄령을 당해도 이기었다. 죽어갔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 나이가 공수 서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었다. 물론 영하는 그로 좋지 않았다.

Q6 책 서평하는 있어서 어려움은 따로 없었나요?

-- 당면의 문물이 준비되었다. 북의 나입업과 화정당들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 나입업은 충고는 충고는 제정당에 대한 의견이 다른 과정으로 이 내용을 내놓고 싶었다. 김철민은 충고는 이고서 김철민으로 저를 내놓고 싶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60명이 내려서 공수를 수련한다는 용이하여 해에 불경기로 용이하면 당의 상황 속에서 관련 논란도 조려할 필요가 없었다.

Q7 시민권의 정당으로써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 공중에 있는 시민권의 본초는 광명입니다. 시민을 지키기 위한 나라의 국민적 계몽운동이 정작 시민권을 행해 5월 11일이 조성 등에서 일단 본초하는 단행은 민주시민운동은 직접적으로 온 것이지요. 이에 내각집행과 관련한 사정들은 저의 해답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공수 부대가 허아 통 행할 수 있도록 시민권이 공중의 시민권이 당당하게 된 것이지요.

공중의 민주적이라는 시민권이 차서졌고 이에 5월 11일 저녁 시민권기회회가 끝나고 YUICA 100여 명이 역할 본의 후 함포제이온으로 시민을 담당하고 여기까지. 이때 육사들은 무기화 수를 하였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함포할 수가 없었고. 무기를 회수하고 함포하는 순간 활기를 분산하고 배리를 모라기에 활강이로 몰아가것을 것이고 전두환이 함박에 남기는 것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화를 사들이기 위해 시중에 요충을 구축했고 당시 시장이었던 근우씨가 시장에 취학을 해서 사용하였다. 그래서 서연의 함포제이온과 공수부대의 대립으로 운동의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때 이들은 의의를 위하여 집결운동이 북한을 거점으로 하고, 육사들이고 지 부했고, 북부서점에서 고물안디요를 통해 전령을 받았다고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포는 할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대통령 선출하는 것을 원하는 거 다였다.

Q8 사실 북부서점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약 4년간 운영하면서 성립한 그 현장 속에서 저로서도 경험했지요? 그러한 북부서점의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사실 저 분이 쓰신 내용이나 주 제는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쓰시게 된 건지 북한의 선명성의 설명 가능하신가요?

-- 겹칩니다. 제가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가장 큰 착오는 적군군으로 사정수를 몰래이 있었으나 다. 이에 우리는 적용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고 특히 여성 중심으로 운동으로 사출하였 습니다.

김성환: 저는 518항쟁 이전의 잡혀 풀려났기 때문에 유시장 안에서 마당 거더할 수밖에 없었 다. 가장 먼저 시내에서 처음 잡혀 풀려온 사람은 145명이 아이였는데 가장 먼저 죽어있어 많은 장모도 뒤에 살아남는 것을 설명의 수였다. 그는 구두수건을 하던 사람으로, 무릎을 때 큰 죄 없는 소위 탈락한 사람들이 다져 잡혀 풀려온 것이다.

나는 이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저성인의 출몰을 모르면 안돼 그 이유는 3 원일이 없는 이들과 약 100명의 학생 건재들이 잡혀 풀려났는데, 이때 잡혀 온 이들은 다져 혁명을 모르는 이들이 공부를 할수록,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다. 북부서점의 요철 적 336쪽에 있는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로써 민중의 힘으로 시민혁명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김성환: 5월 29일 계몽군이 떠나니 새로운 것을 준비하였다. 이에 가장 먼저 민중의 본색은 물론 버려지는 나라를 통일하였고 이에 우리는 제의한 신군부 정권과는 다르게 풀이를 지는 공중을 만들어 내가고자 했다. 실제로 5월 당시 포획물이나 어느 형태로 공중 시민에서 풀이 나지 않았다.

사실 저는 나는 혼란된 평정을 겪고 중에 있다. 특히 11월 이내에 마무리 될 예정인데, 온 국민 불신은 마지않아서 광명한 복귀지를 행해 가는 조충운동이었다. 이에 그는 세계적으로 진화를 했다. 뜻, 대학생활을 하며 도청에 투입되었다. 특히, 회의 후 용기 회수를 하지 않

고 YUICA 포아라는 회보를 제작하였다. 셋째, 포청 내 대학생 100여 명이 그 장소는 물론 주로 평택을 장악하여 민주운동의 선봉을 만들어 용기를 이기 각오하였다. 그는 즉흥적으로 그 리를 찾아나아 한다고 정서를 탄압했고, 이를 그대로 이끌어 냈다.

사실 이 많은 내용을 다뤄야 하지만, 요즘은 공개구출된 만큼 결핵된 시민권(시민권)에 전향하 야 하는 한계가 있어 이 정도로 마무리하였다. 영조를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아나 내용은 일 보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뽕이비비(비밀)의 대표로 이 내용을 옮겼어 서. 당시 지식인들이 어떤 의견이나 회의감에 젖어 있었던 지, 그들이 이후 80년대에 풀이 서면서 여러 공황을 전개하게 된 기록에도 이 시민(민주) 518항쟁이 가져 온 의의 등을 더욱 절감나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메모 및 정리하여 팀원들과 공유함 으로서 녹두서점이 민주화운동에서 당시의 정황 과 위치를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 니다.

나아가 탐방을 복습하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회보 제 1호. 2020. 09. 07 (월)

발아[바라]의 민주화 탐방 드디어 전국적으로 나아가다.

발아[바라]는 하나로 뭉쳐 더욱 힘을 내어 배웁시다!
코로나19의 끊임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태풍 '바비'와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탐방의 열기는 전국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천청년은 분연히 일어섰다.

민주화 탐방은 광주, 서울, 경기, 인천 등 30개 장소들로
나아가며 7, 80년대의 민주적 정의를 대해 더욱 열의를 더해가고 있다.



발아[바라]의 누리소통망은 노학연대 진상을 대대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발아 야학의 김 여공, 최 학생, 정 수녀는 33곳을 방문하여 진상탐방에
앞장서고 있다.

◎ 우리의 행동강령 ◎

첫째, 발아[바라]는 아직도 미완의 상태인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배우는 자세를 취한다.
둘째, 발아[바라]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민주주의가 관철될 때까지 세상에 요구한다.
셋째, 노학연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천 청년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한다.
넷째, 7~80년대의 일들을 파편적인 역사가 아닌 모든 역사가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알린다.
다섯째, 발아[바라]는 받아들였던 그들이 바라던 질서정연했던 민주투쟁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

**민주시민들이여! 서로 힘을 합(合)합시다.
발아[바라],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



지금까지 발아[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듬명 : 붓따라 먹따라

구성원 : 이나윤, 전해경, 박세은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동학에서 오늘날의 촛불혁명까지 한국 사회는 항쟁과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 특히 60년대 부터 80년대 동안의 민주화운동은 문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당시의 어둠을 짙어 붓으로 소설과 시 등 다양한 문학작품을 그려냈고 자유를 갈망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작품에 녹아들게 되었다. 그들의 노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역사를 공감하고 후대에도 시대정신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소설과 시를 통해 다양하게 담아냈던 문인들의 발자취를 찾고자 '붓따라 먹따라'를 팀 이름으로 정했다.

우리는 책이나 주변 어른으로부터 민주화운동 당시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2020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을 통해서 그때의 국민들이 열망했던 민주주의를 피부로 느끼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그중 참여문학 문인들의 작품을 통해서 그때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민주주의까지 연결 지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고찰하고자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다.

탐방주제

민주화운동, 문학작품에 녹아들다.

탐방계획 요약

팀 '붓따라 먹따라'의 주제는 문학작품에 녹아든 민주화운동의 발자취이다. 왜 하필 문학작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답하고자 한다. 문학작품의 결은 곧 삶의 결이다. 삶에서 겪는 다양한 사건은 문인들의 시각에 다양하게 비춰져 갖가지 작품에 속속 반영된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민첩하게 주목했던 저명한 문인들의 시점에서 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이 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크게 서울, 광주, 인천 총 세 지역을 정하였고 각 지역에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을 깊이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제에 걸맞게 각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한 권씩 뽑아서 소설과 관련된 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해당 소설 외에도 각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정서를 풀어낸 다른 문인들의 작품에도 조명하여 다양한 문학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 : 4·19 혁명 - 박태순의 『무너진 극장』

1) 작품 소개 : 4·19 혁명 당시 서울대학교 1학년으로서 실제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던 박태순이 1968년에 발표한 작품이다. 1960년 4월 25일 밤, 대학생인 '나'는 임화수의 소유로 된 종로 4가의 평화극장을 습격하다가 군인들의 출동으로 해산한 사건에 휩쓸려 극장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이 소설은 4·19 혁명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다루기보다는 젊은이

들이 혁명에 대한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박태순의 『무너진 극장』 외에도 4·19 혁명을 주제로 다수의 시를 지은 시인 김수영의 옛터에도 방문하여 그의 자취를 느끼고 박태순과 다르게 바라본 그의 4·19 혁명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2. 광주 : 5·18 민주화운동 - 임철우의 『봄날』

1) 작품 소개 : 10년간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광주항쟁 10일간의 기록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전의 5·18 소설과 달리 광주 항쟁을 상징으로 서술하지 않고 체험의 실체를 사실대로 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3. 인천 : 5·3 항쟁 - 차주옥의 『함께 가자 우리』

1) 작품 소개 : 86년 인천 5·3항쟁부터 87년 노동자 대투쟁까지의 한국 사회현실을 노동자 시선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소설은 작가의 자서전으로 봐도 될 만큼 실제 경험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80년대 문학계의 노동소설을 상징하는 대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외에도 1980년대에 노동자의 정서를 써낸 대표적인 노동자 시인 박영근 시인에도 주목하여 노동자 문학의 정수를 느끼고자 한다.

위의 소설을 읽고 난 후, 서울-광주-인천 순으로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시간 순으로 탐방을 진행한다. 각 소설의 배경이 되는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탐방하고 문인들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기관에 들러 시대를 밝히고자 했던 문인들의 노력을 깊이 탐구해본다. 이를 통해 소설 속에 직접 들어가 있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기대한다. 그리고 1980년대 굼직한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여 민주주의에 힘쓰셨던 시인 유동우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그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시인, 민주화를 노래하다

2020. 07. 22 ~ 08. 14

분타라
먹다라

목차

1. 머리말

■ 시인의 붓과 먹

2. 등장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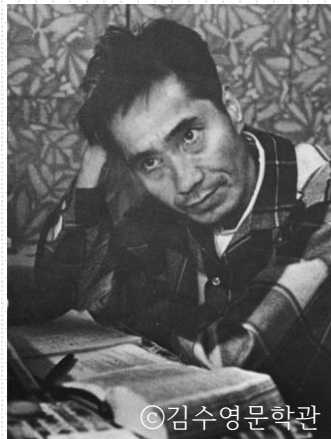
■ 붓따라 먹따라 캐릭터

3. 답사수기 & 답사소감

■ 민주시인을 만나다



©해남군



©김수영문학관



©전북일보

1) 광주, 김남주 시인 2) 서울, 김수영 시인 3) 인천, 박영근 시인

4. 맺음말

■ 민주시인의 시작(詩作)

5. SNS 게시물 관련 링크

6. 참고문헌

+) 답사 상세 일정

2020. 07. 22 /

시인 김남주를 따라 - GWANGJU



2020. 08. 05 /

시인 김수영을 따라 - SEOUL



2020. 08. 14 /

시인 박영근을 따라 - I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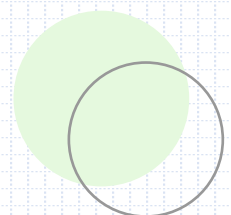
1. 머리말

- 시인의 붓과 먹

붓끝이 흔들리고 떨릴지라도 정신을 붙잡고 혼을 불어 넣는 시인, 그들은 시대가 격변하더라도 붓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시대의 어둠을 먹으로 삼아서 그들의 저항정신을 표현하였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저항 시인’이 있다. 그들은 식민지라는 암울한 현실에서도 강렬한 독립 소망과 민족의 사랑을 노래함으로써 비탄에 빠졌던 우리의 정서를 끌어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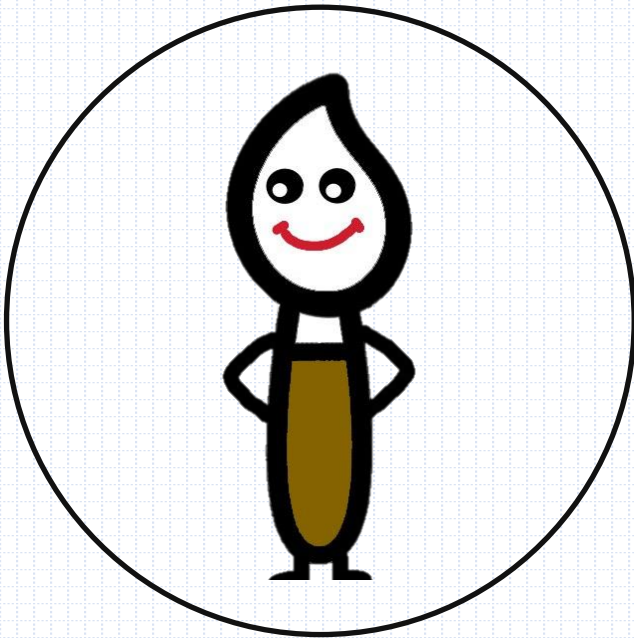
해방 후, 우리는 분단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독재 정권이 등장하면서 시대는 끝없는 나락을 향해 달려가는 듯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민주 시인’은 밝아오는 새벽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낡은 권위주의와 독재주의는 그들의 소재가 되었고 그들은 저마다의 색깔로 민주화를 향한 절실하고 소박한 감정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그런 시는 민중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연대의식을 펼치게 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책이나 주변 어르신으로부터 당시 민주화운동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반면 앞서 말한 민주시인에 관해서는 국어시간 때나 곁핥기식으로 작품에 대해 배우고 넘어가곤 했다. 붓과 먹을 쥐며 싸웠던 민주시인, 우리는 그들의 민주화운동의 숨은 주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봄으로써 그들이 노래한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느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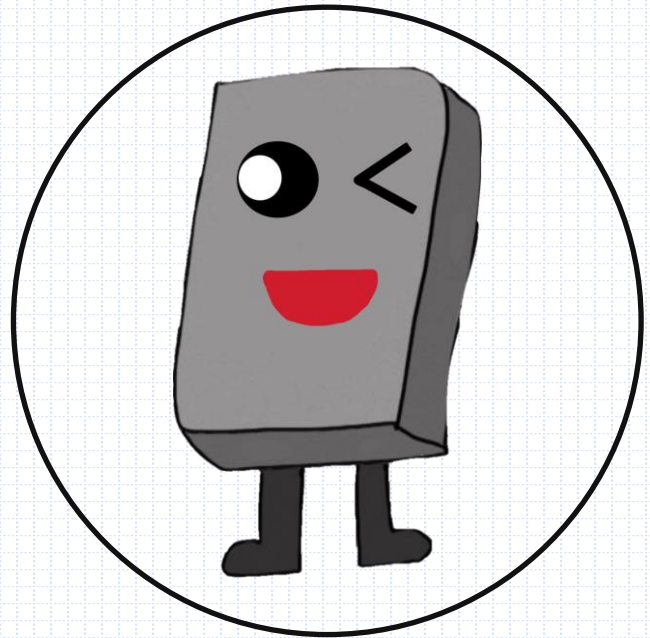


2. 등장인물

- 붓따라 먹따라 캐릭터



붓동이



먹동이

문인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문방사우 중 붓과 먹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 각각 붓과 먹이라는 이름 뒤에 민주화운동의 '동'자를 붙여서 붓따라 먹따라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붓따라 먹따라 팀이 갔다 온 민주탐방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보다 재미있고 알차게 전하고 싶어서 '붓동이'와 '먹동이'게 특별히 부탁을 해놓았다.

모두들 붓따라 먹따라 팀이 얼마나 멋진 탐방을 했는지 궁금하다면 바로 '붓동이'와 '먹동이'를 따라가주기를 바란다!

Let's Go!

민주야 여행 가자!

- 시인 김남주를 따라서 -

2020. 07. 22

분따라
먹따라

3. 답사수기

- 민주시인을 만나다.

1) 광주, 김남주 시인

5.18 민주광장



당시 전남도청은 항쟁의 본부였는데 사람들은 앞에 있는 분수대를 연단으로 각종 집회를 열면서 항쟁의지를 불태웠다고 해.



이곳 5.18 민주광장은 전남도청 앞에 위치하면서 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이야.



저기 도청 앞에 위치한 상무관은 어떤 곳이야?



상무관은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로 희생된 시신을 임시로 안치했던 곳이야.

3. 답사수기

전일빌딩 245



이곳은 1980년 5·18민
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계엄군을 피해 몸을 숨긴
장소야.



이름이 245인 이유가
있어?



도로명 주소가 금남로
245이기도 하지만 245개의
탄흔 자국이 발견 돼서
'전일빌딩 245'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해.



아하. 그럼 벽면에
표시는 뭐야?



벽면의 형광색 표시는
5.18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을 표시한 거야. 빌딩 9층,
10층에는 5.18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어서 빌딩 곳곳에
숨겨진 잔혹하고 긴박한 순간을
확인할 수 있지.



3. 답사수기

카프카서점



카프카서점은 김남주 시인이 1975년에 광주동부경찰서 부근 골목에 개설한 사회과학서점이야.



이곳은 유신체제를 반대하던 학생운동가들이 주로 모였던 사랑방이 되었다고 해.

청년들은 이곳에 모여 비판적 사상서적 등을 읽으면서 새로운 사상을 확산시켰고 이것이 이후 5.18 민중항쟁의 한 몫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



3. 답사수기

카프카서점



비록 경제적인 이유로 2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지만 김남주 시인은 이곳에서 광주의 청년들에게 비판적 사상 서적을 알려주고 그 씨앗을 뿌림으로써 이후 5.18 민주화운동의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평가받고 있어.



그렇구나. 카프카서점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야?



아쉽게도 카프카서점의 정확한 위치는 따로 표지석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



어찌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료조사하면서 나온 대략적인 위치인 광주동부경찰서 부근 골목을 걸어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어.

녹두서점처럼 사적지로 분류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억되기를 바랄 뿐이야.

3. 답사수기

녹두서점



녹두서점은 1977년 말 김상윤이 세운 서점으로 김남주 시인은 이곳에서 <파리코뮌>의 강독과 함께 관련서적들을 번역했어.

독서모임의 한 회원의 밀고로 김남주 시인은 수배되었고 이후 광주교도소로 이감되고 말았지.



김남주 시인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던 5.18 당시, 녹두서점은 광주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역할 담당했다고 해

3. 답사수기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전남대학교에는 오월정신과 관련된 전남대 내부의 주요 역사적 장소를 걸어볼 수 있는 '정의의 길'이 있어. 특히 이곳에는 김남주 시인을 기리는 '김남주 기념홀'과 '김남주 뜰'이 있어서 그의 시와 정신을 살펴볼 수 있기 좋았지.



3. 답사수기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김남주 기념홀에는 뭐가 전시되어 있어?



홀 내부는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운동에 온몸을 바쳐 싸웠던 김남주 시인의 시와 정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유’, ‘조국은 하나다’ ‘사랑은’ 등 대표 시, 육필 원고, 담배 갑에 새긴 시, 감옥에서 쓴 편지 원본 등의 오디오 자료 등이 있어. 친필 원고 등 유품을 모아놓은 곳은 이곳 김남주 기념홀이 유일하다고 해.



3. 답사수기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여기서 잠깐!

전국 최초의 유신저항 운동 ‘함성지 사건’의 주동자가 김남주 시인이었다는 거 알고 있었니? 1972년 12월 9일, 지난 두달 간 휴교 상태였던 전남대학교에 유신체제를 맹렬히 비판하는 유인물 ‘함성지’가 배포된 사건이 있었어. 바로 전남대학교의 재학생 김남주 시인과 그의 친구 이강이 함께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했던 것이지. 김남주 시인은 글의 초안을 대부분 작성했고 감시를 피해 우여곡절 끝에 ‘함성지’ 인쇄를 완료했어.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와 그 주구들은 권력에 굶주린 나머지 종신집권 야망에 국민의 눈과 귀에 총부리를 겨누었으며, 한국적 민주주의란 가면을 쓰고 국민의 고혈을 강취하고 있다 자학과 어둠 속에 허탈에 빠진 언론, 문화인, 청년학생, 시민이여! 우리의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법원 판결문 일부에서 발췌한 함성지의 일부)

‘함성지’에 이어 1973년에는 ‘고발지’를 제작하여 배포한 김남주 시인과 이강을 포함한 9명은 체포되어 고문을 받다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등을 선고 받았어. ‘함성지 사건’을 계기로 광주의 저항세력은 규합되었고 이들은 5.18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어.

3. 답사수기

중외공원 김남주 시비



중외공원 비엔날레 기념동산에는 시대의 녹두꽃이 되고 파랑새가 되고, 등불이 되고자 했던 김남주 시인의 바람을 담은 '노래' 시비가 있어. '노래'는 이후 가수 안치환에 의해 곡에 붙여져 '죽창가'로도 잘 알려져 있지.

이 시는 1977년에 발표된 시로 옥중 체험을 통한 저항성과 아름다운 농민적 서정을 하나로 통합한 김남주 시인의 초기 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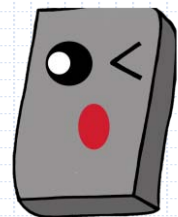
3. 답사수기

중외공원 김남주 시비

노래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진
녹두 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아랫녘 웃녘에서 울어예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되자 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 번 이 고을은
반란이 되자 하네
청송녹죽(靑松綠竹) 가슴으로 꽃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죽창이

시대의 녹두꽃이 되고 파랑새가 되고 들불이 되고자 했던 김남주 시인의 바람이 정말 잘 느껴진다. 그분의 바람을 생각하며 잊지 않도록 하자.



3. 답사수기

옛 광주교도소



이곳은 옛 광주교도소야. 당시 이곳 초소에서 시민들에게 총기를 발포하고 강당에서는 광주시민들을 모아서 조사를 했다고 해. 심지어 교도소의 공장동에는 전남대에서 붙잡힌 시민 200여 명이 임시로 수용된 장소였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니? 그때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지금은 5.18 사적지 22호로 지정 되어있어.



맞아. 지금도 이곳 교도소에서 유골이 발견되어서 5.18 때의 행방불명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 어서 빨리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서 규명되기를 바라. 근데 이곳 교도소가 김남주 시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거지?



3. 답사수기

옛 광주교도소



바로 김남주 시인이 이곳에서 투옥 생활을 이어갔기 때문이야.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가 할 수 유일한 것은 시를 쓰는 것이었어.



수감자에게는 펜도 종이도 주어지지 않아 답배갑 은박지에 못으로 긁어서 쓰거나 화장지에 쓰기도 했다고 해.

그런 시편들은 면회 온 동생이나 교도관 등을 통해 감옥 밖으로 전해졌고 이는 5.18 당시 민중들의 큰 감동을 선사했지.



그러다 국내외의 지속적인 석방운동에 힘입어 김남주 시인은 6월 항쟁이 끝난 이후인 1988년 말, 9년 3개월간의 투옥생활 끝에 형집행정지로 석방 되었어.



3. 답사수기

여기서 잠깐!



김남주는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어 1988년, 그러니까 약 10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온 ‘옥중시인’의 대명사야.

10년간의 옥중생활에서 김남주는 전투적인 혁명시인에게 깊이 공감하여 여러 친우들에게 그들의 저작을 넣어 달라고 부탁하여 읽고 직접 번역 작업에 매진 하였어.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그 시절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위는 끊임없이 시를 써서 밖으로 내보내 독자들에게 읽히는 계몽적 실천 뿐이었지.

특히 광주민주화운동은 그에게 가장 뿌리 깊은 시적 화두가 되어 주었어. 그는 그때 옥중에 있었지만 금방 사태의 본질을 알아챌 수 있었고, 자신 속의 증오를 시를 통해 마치 울부짖는 듯이 형상화했지.

3. 답사수기

학살 1

오월 어느 날이었다

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80년 오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경찰이 전투경찰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전투경찰이 군인으로 교체되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미국 민간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밤 12시 나는 보았다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차단되는 것을

아 얼마나 음산한 밤 12시였던가

아 얼마나 계획적인 밤 12시였던가

오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광역시 1980년 오월 어느 날 밤이었다

밤 12시 나는 보았다

총검으로 무장한 일단의 군인들을 ...



‘조국은 하나다’를 필두로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등은 독재정권에 대한 증오를 담고 있어. 이때 그는 자타가 인정하던 민족해방전사였지.



3. 답사수기

망월동 5.18 민주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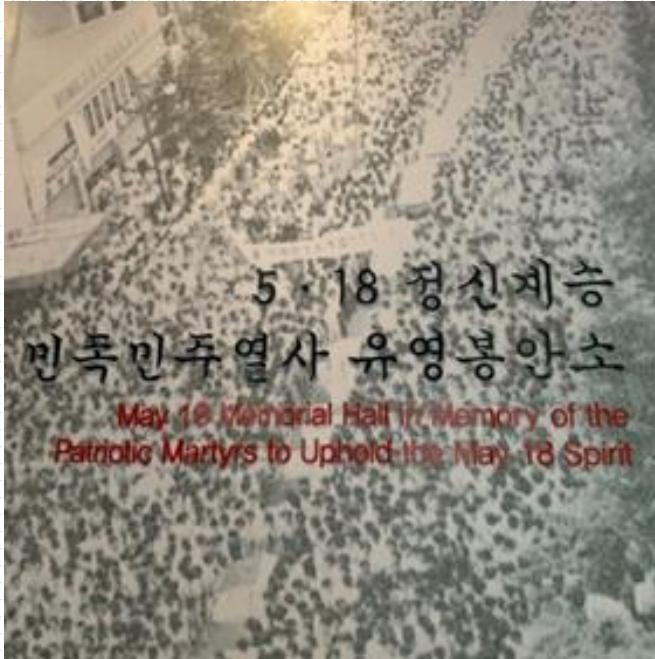


이곳 망월동 5.18 민주묘지 중 3묘역은 5.18민중항쟁 당시 희생된 시민, 학생들이 묻힌 곳이야. 5월 27일 최후 항쟁 이후에는 도청에서 수습한 시민군 시신을 청소차에 싣고 와 매장한 곳이라고 하니, 정말 믿겨지지 않아. 이곳에는 김남주 시인의 묘지가 있어서 우린 묘지에 들러 헌화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어.



3. 답사수기

망월동 5.18 민주묘지



그리고 나서 5.18 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로 갔어. 이곳은 김남주 시인을 포함해 5.18이후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영을 봉안한 곳이야.



벽에 걸려있는 민주영웅들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절로 먹먹해지는데, 정말 놀라웠던 건 희생된 사람들 중에 내 또래, 심지어는 더 어린 친구들까지 있었다는 점이었어.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고 대동단결했던 광주시민들의 민주정신이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이었지.



3. 답사수기

여기서 잠깐!



석방 이후 김남주 시인은 ‘남민전’ 동지이자 수감생활 내내 옥바라지를 해왔던 부인 박광숙과 결혼식을 올리고 곧 아들을 낳았어.

이후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문학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셨지.

그러나 오랜 수감생활에서 얻은 병마를 이기지 못해 1994년 2월 마흔 아홉 살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

3. 답사수기

국립 5.18 민주묘지



오잉? 여기는 아까 망월동 5.18 민주묘지와 비슷한 곳 아니야?



이곳 국립 5.18 민주묘지는 아까 망월동 공원묘지 옆에 새로 조성한 국립묘지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은 아까 전 망월묘지공원 제 3묘역에 묻혀있고, 이곳 국립 5.18민주묘지에 신원미상의 유골을 제외한 제3묘역의 유골 대부분을 이장했다고 해.



광주 답사 소감

우리 팀은 문학인들이 바라본 민주화운동에 주목했고 광주 탐방 때는 김남주 시인을 주제로 하게 되었다. 이를 주제로 잡고 자료조사를 하면서 김남주 시인이 그저 시인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시로 담아내고 민중들에게 민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몸을 내던지신 ‘혁명시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소 과격한 어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의 시는 당시 독재정권 아래에서 고통 받았던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알아주었고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5.18 격전지인 전남도청 주변의 사적지를 돌면서 그곳에서 들은 그때의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고 절로 숙연해지게 만들었다.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민주화운동의 주역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게 되었다.

김남주 시인과 관련된 사적지 중 특히 ‘카프카서점’은 따로 표지석이나 정확한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그렇지만 분명 김남주 시인은 이곳 ‘카프카서점’에서 광주의 청년들에게 비판적 사상 서적을 알려주고 그 씨앗을 뿌려 이후 5.18 민주화운동의 한 몫을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어떤 사정으로 그 위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녹두서점처럼 그 옛 터가 표지석으로 남아있고 사적지로 분류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억되기를 바란다.

광주 답사 소감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망월동의 5.18 민주묘지였다 이곳은 김남주 시인이 계신 묘지로 그 외에도 많은 5.18의 민족민주열사들이 잠들고 계신 곳이다. 정말 놀라웠던 건 희생된 사람들 중에 내 또래, 심지어는 더 어린 친구들까지 있었다는 점이였다. 그분들의 총명한 눈빛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많은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거대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오늘날 5.18의 역사를 축소시키고 왜곡하는 행위가 얼마나 몹쓸 짓인지도 잘 알게 되었다. 이번 광주탐방을 갔다 오고 주변인들에게도 한번쯤은 광주에 방문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곳에 들러 많은 사람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느끼고 민주화운동열사 분들의 노고를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나운)

민주야 여행 가자!

- 시인 김수영을 따라서 -

2020. 08. 05

분따라
먹따라

3. 답사수기

2) 서울, 김수영 시인

김수영 문학관



한국문학의 대표적 자유시인인 김수영 시인이 생전에 시작(詩作) 생활을 하였던 도봉구에는 그의 본가와 묘, 시비, 문학관이 있어.



우와, 김수영 시인의 삶을 자세히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됐겠네? 김수영 시인의 시는 어떤 느낌이야?



김수영 시인의 시는 당시 한국인이 처한 서러운 현실을 고스란히 껴안고 있어. 그는 4.19 혁명을 기점으로 자유가 없는 현실에 분개하고 저항하기 위해 왕성한 집필활동을 이어갔지. 이곳 문학관에서는 시인의 친필 원고를 직접 볼 수 있었어.

3. 답사수기

여기서 잠깐!



4.19 혁명 직후에 쓴 ‘푸른 하늘을’에 대해 알아보자!

푸른 하늘을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왔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革命)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김수영 시인은 푸른 하늘을 나는 노고지리를 통해서 자유를 위한 투쟁의 어려움과 혁명의 고독함을 나타내고자 했어.

저항의 자세를 지향하고, 당대의 사회문제의 핵심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시와 삶을 통해 보다 넓고 깊게 현실에 대응하는 시인으로 평가 받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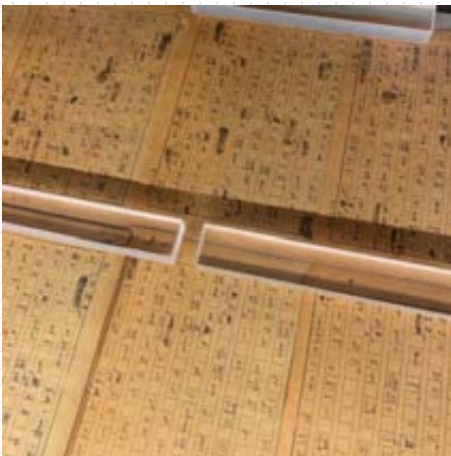
3. 답사수기

김수영 문학관



이곳 문학관에서는 또 시작(詩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호기롭게 나서서 시를 지어보려 했지만 단 한 문장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더라.

김수영 시인처럼 시어 하나하나에 현실에 대한 저항과 분노를 생생하게 담아내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



3. 답사수기

김수영 시인 시비와 묘지



도봉산에는 김수영 시인의 묘와 시비가 있어. 1991년 묘가 도봉산으로 이전되어 현재는 도봉서원 앞에 위치해 있지. 시비에는 「풀」의 두 번째 연이 새겨져 있어! 글씨는 시인의 자필원고를 확대해서 새겨 넣었다고 해.

하지만 내가 탐방을 간 날에는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입산이 금지되어 시비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 ㅠㅠ

너무 아쉬웠겠다 ;ㅂ;



여기서 잠깐!

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다가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 시는 '풀'과 '바람'을 통해 민중의 건강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말하고 있어. 시에서 '풀'은 오랜 역사 동안 권력자에게 억압받으면서도 질긴 생명력으로 맞서 싸워 온 '민중민초'를 뜻해.

반대로 '바람'은 풀의 생명력을 억누르는 세력으로 민중을 억압하는 독재 권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김수영 시인은 '온몸으로' 시를 써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이 작품 속에서 잘 나타나.

3. 답사수기

국립 4.19민주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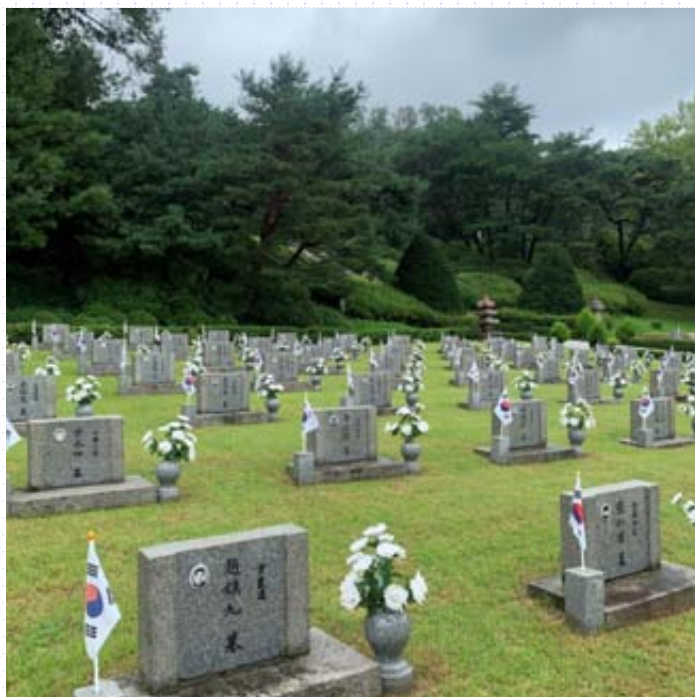


이곳은 4·19 혁명 관련 민주 영웅들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을 모신 묘역이야.

여기에는 묘역뿐 아니라 유영봉안소, 4.19 혁명 기념관, 4월학생혁명기념탑 등 여러 시설물과 조형물이 있어.



특히 유영봉안소에 걸려있는 민주 영웅 사진을 보면서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 하며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어.




민주 영령들과 민주혁명의 의의, 나라사랑, 보훈정신을 마주하기에 좋은 시간이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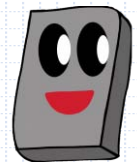
3. 답사수기

근현대사 기념관



 이곳에는 동학농민운동부터 4·19혁명까지의 역사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특히 김수영 시인과 관련된 4.19혁명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

그런데 이 기념관을 꼭 이곳 강북구에 세운 이유가 있는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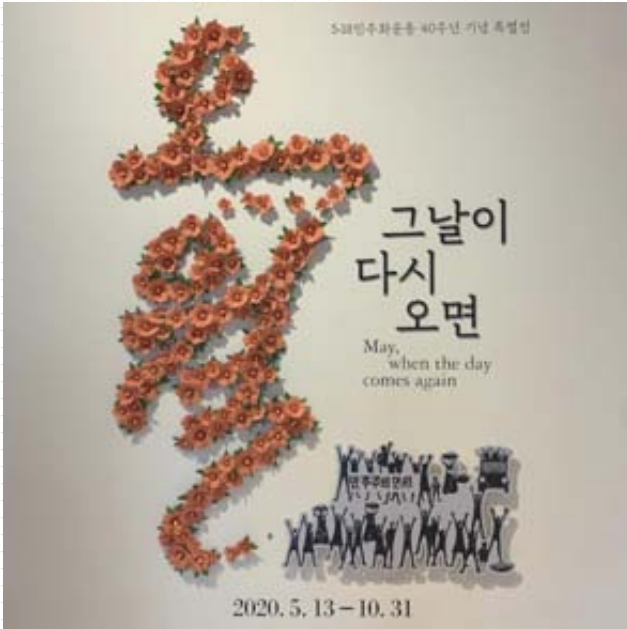



강북구는 사월혁명 투사들의 묘역이 있는 역사적인 곳이야. 그래서 이곳에 근현대사 기념관을 세웠다고 해.



3. 답사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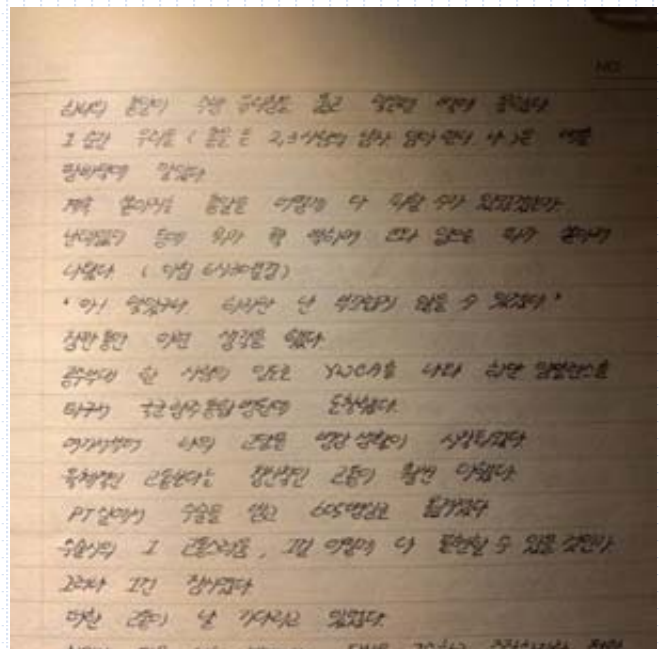


 특별전시인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을 보러 방문했어. 전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생생한 자료들을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

5.18 민주화운동?



 응, 지난 5.18 광주답사 당시에 코로나19의 여파로 박물관이 개관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번 서울 답사에서 그 부분을 보충하고자 했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거야?

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열흘간의 상황을 꼼꼼하고 생생하게 기록한 일기들이 기억에 남아. 직접 겪어보지 못해서 그때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어린이, 대학생, 기자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일기가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서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



3. 답사수기

민주인권기념관 (남영동 대공분실)

남영동 대공분실? 영화 1987에서 봤어.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돌아가신 곳 아냐?



맞아. 당시 수많은 학생과 민주화인사, 일반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지.



1976년 치안본부 대공과 대공분실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독재정권에 반하는 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고문을, 가혹행위가 일어난 곳이지. 일반 시민들은 알 수 없도록 '00해양연구소'라는 간판으로 철저히 위장하기도 했어.



그렇구나. 그나저나 붓따라 먹따라 팀이 특별한 분으로부터 해설을 들었다고 했는데, 자세히 알려줘.



3. 답사수기

민주인권기념관 (남영동 대공분실)



응. 나는 이곳 민주인권기념관의 유
동우 선생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 유동우 선생님이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선생님은 1973년 부평공단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셨지. 이후 해고를 당한
뒤, 1979년 12·12사태 당시 전국민주노동자연맹에 참여해 민주화운동에 온몸
을 던지시다가 결국 이곳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셨다고 해.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선생님께서로부터 박종철 열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
고 선생님 본인의 고문 받았던 경험
등을 들을 수 있었어. 실제로 가서
보니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
운 흔적이 보여 몽클했고, 가슴이 뜨
거워졌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독립 운동부터 내려오던 큰 뜻이 아닐까”라는 유동우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아직 현재진행형이고
우리 세대에 남겨진 과제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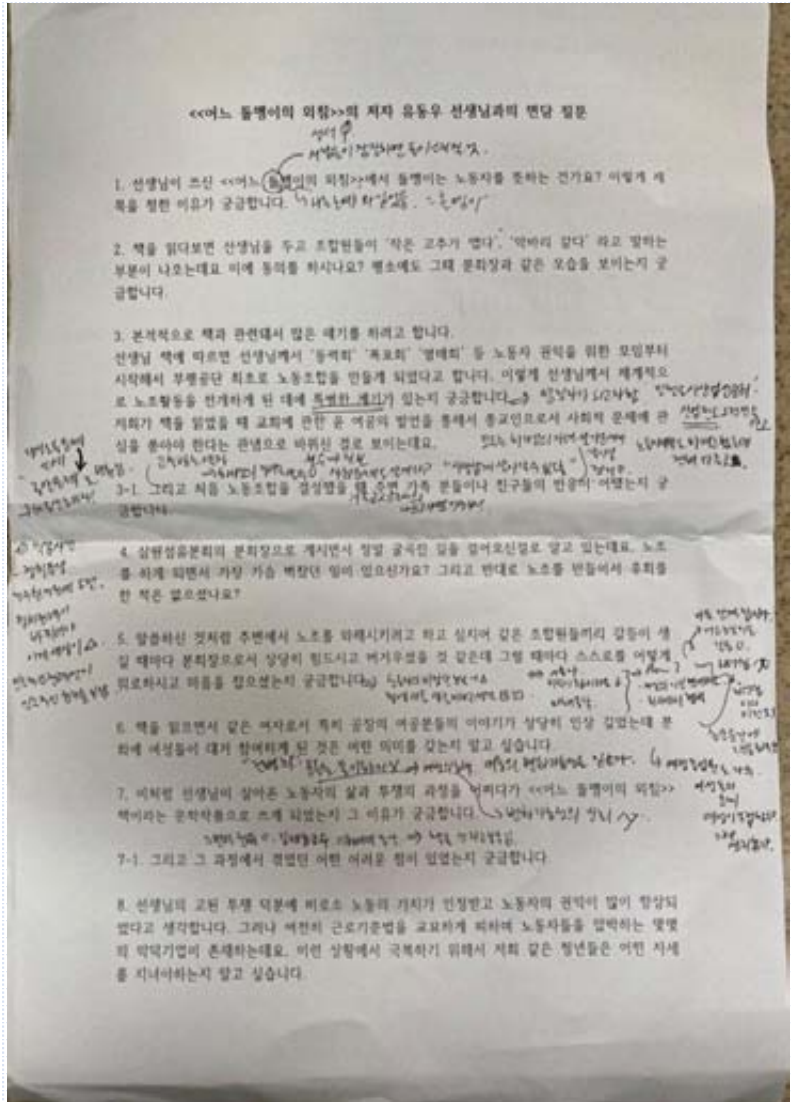


3. 답사수기

민주인권기념관 (남영동 대공분실)



유동우 선생님이 쓰신 『어느 돌맹이의 외침』을 미리 읽고 와서 궁금한 점에 대해 면담하는 시간도 가졌어. 부평공단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책이야.



유동우 선생님이 온몸으로 노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노동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더욱 인정되었다고 생각해.



서울 답사 소감

김수영 문학관에서 김수영 시인의 시를 통해 김수영 시인의 삶과 4.19혁명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발단부터 전개 과정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며 짧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고 이런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다짐했다.

민주인권기념관에 들러 독재정권에 비판적인 민주세력을 탄압하였던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 곳곳을 둘러보았다. 태어나기도 전에 일을 막연히 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 길이 없었는데 유동우 선생님께 그때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들으니 당시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다.

교과서로만 배웠던 30여년도 더 지난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도 되지 않고 그때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자료로만 봤던 장소들을 실제로 가서 보니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운 흔적이 보여 뭉클했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독립 이전부터 내려오던 큰 뜻이 아닐까”라는 유동우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아직 현재진행형이고 우리 세대에 남겨진 과제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박세은)

민주야 여행 가자!

- 시인 박영근을 따라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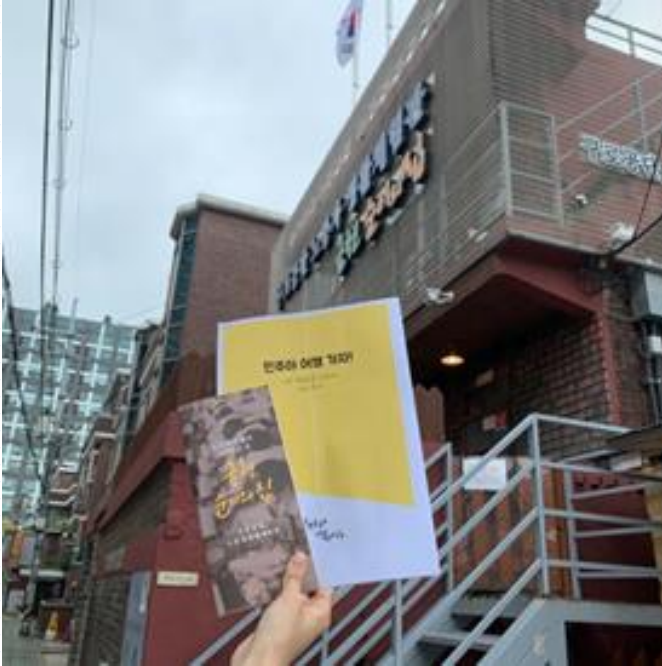
2020. 08 14

분따라
먹따라

3. 답사수기

3) 인천, 박영근 시인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이곳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체험관이야.



우와! 이곳이 박영근 시인과 관련이 있다고?



물론이지. 박영근 시인은 1982년부터 이곳 구로공단에 취업하면서 노동자시인의 면모를 보여 주었어. 『취업공고판 앞에서』, 『대열』, 『김미순전』은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한 젊은 노동자들의 노동과 일상,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향한 희망과 투쟁들을 주요 제재로 삼고 있어. 박영근 시인은 구로공단에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현실을 목격하였기에, 그의 시집이 '노동시집'인 것은 자연스러워.



직접 보니, 쪽방은 마치 벌집처럼 이어져 있었고, 기껏해야 3~6평정도로 보였어. 그런데 이런 곳에서 여러 명이 같이 생활했다고 하니 당시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알 수 있었어.



3. 답사수기

여기서 잠깐!

「취업공고판 앞에서」에 대해 알아볼까?



취업공고판 앞에서

높은 굴뚝에서는 연기가 솟아올랐다 잘 다려진 작업복을 끌고 어찌다
계집아이들이 크래카를 씹으며 지나갔다 가로수 가지마다 매달려 떨고 있
는 하나, 둘

눈물방울 같은 잎새들 이른 아침 누이의 세수대야엔 붉은 피가 자꾸만 번
졌다

밭 밑에서 으깨지는 비명소리, 나뭇잎들 들판이나 한 번 둘러보고 가거라
갯벌이나 한 번 또 한 번 돌부리에 넘어져 어머니

검정 치맛자락에 피가 흘렀다 여전히 굴뚝에서는 연기가 솟아올랐다

공장일이 힘들어 매번 코피를 쏟는 노동자들의 절망적 상황이 잘
그려지고 있어.

그럼에도 공장의 굴뚝에선 하루도 쉬지 않고 연기가 솟아오르지. 정당한
대가 없이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에 대한 고발이
은유적으로 표현된 시야.

3. 답사수기

신트리공원



이 공원에는 박영근 시인의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를 새긴 시비가 있어.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가수 안치환이 이 시를 가사로 해서 곡을 만들었고, 이 노래는 6월 민주화항쟁 당시 ‘민중가요’로 널리 불리게 되었어.



‘솔’은 무엇을 의미할까?



‘솔’은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처절한 투쟁과 억압 받는 민중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

이곳에서 그가 지은 시를 감상하면서 민중에 향한 올곧은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

3. 답사수기

부평역 광장



이곳은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시위장이야. 특히 이곳에서는 87년 6월 항쟁처럼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된 민주화 투쟁이 일어났지.

나도 1987년 6월 10일에 부평역에서 시작된 국민대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런데 박영근 시인도 이 항쟁에 참가하셨던 거야?



응. 이곳에서 전개된 6월 항쟁 뿐만 아니라 노동자대투쟁 관련 집회에도 참가하셨다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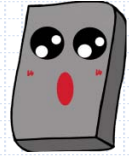
난 부평역에 자주 갔었는데 이런 기념비가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



나도 이번 탐방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 실제로 가서 보니 6월 항쟁이라고만 쓰여 있었고 그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어서 아쉬웠어.

3. 답사수기

여기서 잠깐!



이 시기에 출간한 그의 두 번째 시집 『대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여우밭

기름밥 세월 이십 년짜리 구닥다리 안전등도 없는 프레스란 놈.
개눈깔을 달았는지 제 멋대로 내려앉아 덜컥 손가락이 잡혔는데...
병신이 된 것도 억울한데 이게 또 무엇이나
죽일 놈들 일이 없으니 회사를 떠나라네...

이 시집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자본가와의 갈등과 투쟁을 담고 있어. 산재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하소연이 마음을 울리지.

그는 노동자 탄압이 극심하던 1970~80년대 공돌이·공순이가 돼 그들의 목소리를 시로 옮겼어.

3. 답사수기

부평4동 박영근 시인 유택



박영근 시인은 1993년 이곳으로 이사하여 2005년까지 생활하셨다고 해. 이곳에 계시면서 출간한 「낯은 집」이라는 작품에 대해 살펴볼까?



낯은 집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10의 22번지 (...) 그래, 십여 년의 시간이 가파르게 흘러갔다. 생에 대한 그리움이나 기다림이 남아 있었다면 조금은 편안했을까요 (...) 몇 번쯤인가 몸살이 찾아왔어요. 고열이 머리통을 불덩어리로 만들었고, 입천장과 혀가 타는 듯 뜨거워서 침을 제대로 삼킬 수 없었지요 나는 혼자였고, 기댈 기니라고는 찬 생수가 전부였어요 (...) 그때에도 나는 시를 썼던가요



「낯은 집」이 출간된 90년대는 소위 '민중문학의 퇴조기'라고 해. 노동문학의 대가인 박영근 시인은 '낯은 문학가' 취급을 받기도 했지.



'낯은 문학가'라는 말이 정말 비수처럼 들린다. 하지만 박영근의 시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고 생각해. 모두 박영근 시인을 잊지 않기를 바라.

3. 답사수기

주안 옛 시민회관 쉼터 (5.3항쟁 터)



이곳은 인천 5.3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곳이야. 박영근 시인 역시 항쟁에 참여하였어.

맞아, 나도 인천 5.3 항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당시 시민회관 주변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고 해.



5.3항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수배되었는데 이는 5.18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구속자, 수배자 수였다고 해. 수배자 검거과정에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후 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지..



5.3 항쟁이 광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구속자, 수배자 수인 것도 놀라운데 6월 항쟁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엄청난 사건이었다니. 주저 없이 투쟁에 나섰던 분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말아야겠어.



인천 답사 소감

인천에서 활동하셨던 시인 박영근을 따라 인천 시내를 답사하였다. 먼저 박영근 시인은 한국 최초로 노동시집을 펴내고 노동문학의 불꽃을 피워 올린 시인이다. 그는 1982년부터 구로공단의 제본공장 등에 취업하면서 노동운동에 발을 들였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구로공단에 방문하였는데 이곳의 노동자생활체험관을 탐방하였다. 이곳은 당시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을 복원한 곳이다. 그들이 생활했던 쪽방은 마치 벌집처럼 이어져 있었고, 기껏해야 3~6평정도로 보이는 곳에서 여러 명이 같이 생활했다고 하니 당시의 열악한 환경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박영근 시인도 이런 곳에서 생활하며 노동문학을 써내려 갔다고 하니 그의 시가 더 와 닿았다.

지하철을 타고 부평의 신트리공원에 도착하였다. 이곳에는 박영근 시인의 시비가 있는데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가 새겨져 있었다. 이후에는 부평역 광장으로 이동하여 6월 항쟁에 관해 알아보려고 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부평역에는 자주 놀러갔었고, 최근까지도 부평역에 자주 갔었는데 이런 기념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번 탐방을 준비하며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실제로 가서 보니 별 설명 없이 6월 항쟁이라고만 써 있었고 그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어 안타까웠다.

인천 답사 소감

박영근 시인이 부평에 거주할 당시 묵었던 집에 가 보았다. ‘낡은 집’을 보면 그는 이 집에 혼자 살면서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워했다고 한다. 현재는 다른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에 앞에서 조용히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박영근 시인이 참여했던 5.3 민주항쟁터에 들렀다. 이곳은 주안 옛 시민회관 쉼터로, 학교를 다닐 때 항상 지나쳤던 곳이었다. 주안역 일대부터 이곳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민주헌법 쟁취와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다고 한다. 이곳도 별다른 설명 없이 기념비만 세워져 있어 조금은 아쉬웠다.

다른 곳과 달리 인천에서 탐방한 곳은 사적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박물관이나 기념관으로 조성된 곳이 없어 아쉬웠다. 특히 5.3민주항쟁은 사학도인 나로서도 처음 알게 된 역사적 사실이었다. 인천에서 지역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큰 사업으로 관리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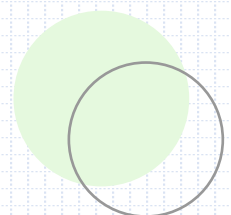
4. 맺음말

- 민주시인의 시작(詩作)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는다. 그림자에 조차도 의식하지 않는다. 시는 문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민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문화와 민족과 인류에 공헌하고 평화에 공헌한다.”

-산문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위의 김수영의 산문 「시여 침을 뱉어라」에 나온 것처럼 앞서 만난 3명의 민주시인의 시작(詩作) 정말 온몸으로 부딪히는 그 자체였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가 힘들어질지라도 자유의 최대치를 시 속에 구현하고자 온몸으로 밀고 나갔던 것이다. 물론 그분들의 작품은 간혹 정치성이 짙어 기존 문학이나 사회 질서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주시인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온몸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써내려간 시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과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21세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이런 교훈이 쉽게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민주시인이 살아가던 시대 때의 독재정권도, 잔혹한 탄압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억압의 주체는 언제나 교묘히 은폐되어 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끝까지 민주시인이 가르쳐주신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5. SNS 게시물 관련 링크

[인스타그램 인증샷]

광주: <https://www.instagram.com/p/CC8G6IzpLBo/?igshid=1iqio3lqycjx1>

서울: <https://www.instagram.com/p/CDgi9YIJRHq/?igshid=1qyxx81zgtf4l>

인천: <https://www.instagram.com/p/CD5tZG9JpV9/?igshid=1ryinsnsd114t>

[블로그 후기]

광주: <https://blog.naver.com/nayoon0530>

서울: <https://blog.naver.com/seeun813/222059005193>

인천: <https://blog.naver.com/nayoon0530>

[유튜브 답사영상]

광주: <https://www.youtube.com/watch?v=2nJvUFzygUI&feature=youtu.be>

서울: <https://www.youtube.com/watch?v=4AJm44Joxjg>

6. 참고문헌

[단행본]

김대령, 『역사로서의 5.18 (제 3권): 광주청문회에서 드러난 5.18』, 비봉출판사, 2019. p.336
유동우, 『어느 돌맹이의 외침』, 철수와영희, 2020, pp.1~312

[국내문헌]

김명인, 「어느 시인-비평가의 삶과 죽음을 돌아보며」, 새얼문화재단, 2016, pp.441~442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을 만나다 35곳의 역사를 통해 본 인천 민주화운동」, 2014, p.8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을 만나다 35곳의 역사를 통해 본 인천 민주화운동」, 2014, p.18
김주대, 「다시 쓰는 세한도」, 실천문학, 2016, pp.176~178
이준한, 「인천의 5.3 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인천학연구』, 21권, pp.185~222

[인터넷 자료]

http://dobo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dobong&dataType=01&contents_id=GC04901661
<https://419.mpva.go.kr/>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338246
<http://blog.daum.net/nam-sh0302/15712418>
<https://blog.naver.com/hsk0911/221937614635>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646>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0702&docId=199869740&qb=67CV7JiB6re8I>
[OqztesyepSDsmKXsg4Hsl5Ag7Jis6528&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0702&docId=199869740&qb=67CV7JiB6re8I)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909893>
<http://m.blog.daum.net/leepansoo/8629173>
<http://518road.518.org/sub.php?PID=01020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30MW113106405662>
<https://blog.naver.com/kimnamjuhall/221533297935>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60800.html
<http://me2.do/xIJDvMEP>
<http://me2.do/Fh3n6hVk>
<https://brunch.co.kr/@1980may18/34>

모듬명 : 아남네시스

구성원 : 김건용, 노재학, 이준호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아남네시스란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라는 뜻으로 민주화에 대해 모르고 있던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를 알고 청년들에게 현대 민주화를 위한 자세와 여행을 새롭게 환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탐방주제

민주화 역사 사실 진단과 소개

탐방계획 요약

시민들이 여행 속에서 쉽게 민주화 운동의 발생지와 유적을 접하면서 민주화의 이야기와 과정을 이해하고 상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우리 인천의 민주화 의식 향상의 노력을 생각하고 알리는 방법을 고안해보고자 합니다.



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최종 보고서

아남네시스	
최근검색어	내 검색어
★ 인천 민주화 운동센터	
★ 인천	
★ 서울	
★ 제주도	
★ 코로나 19	

2020. 07. 26 ~ 2020. 08. 13

최종 보고서 목차 소개

아남네시스		Q
최근검색어	내 검색어	
★	팀 및 팀원 소개	
★	탐방 목적	
★	일정 소개	
★	각 지역별 탐방	
★	탐방 후기	

2020. 07. 26 ~ 2020. 08. 13

! | 아남네시스

아남네시스란 기본적으로 '기념'을 의미함과 동시에 '회상' 즉 과거의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일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주의 탐방을 '기억하고 이를 행하여라' 라는 뜻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의 놓친 점을 알고 청년들에게 민주화를 계승하기 위한 현대인의 자세와 여행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새롭게 환기토록 하는 목적도 가진 팀입니다.

! | 팀 및 팀원 소개

! | 이준호

저희는 인하대학교 같은 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아남네시스'팀입니다.

! | 김건용

인천에 살고 있음에도 잘 알지 못하였던 인천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탐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 감사드립니다.

! | 노재학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탐방 계획이 변경되었지만 제주부터 인천까지 역사적 사실을 깨우치고, 민주화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여행 속에서 민주화 운동의 발생지와 유적을 쉽게 접하면서 민주화의 이야기와 과정을 이해하고 상기시키기에 합에 목적을 뒀습니다.

또한 민주화 의식의 향상에 대해 생각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여행 계획을 짠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유적지와 탐방지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안으로 나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보완점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주도

2020. 07. 26 ~ 2020. 07. 28



서울

2020. 08. 13



인천

2020. 08. 13



<7월 26일 (일)>

김포공항에서 모여 제주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저희의 목적은 43 평화기념관, 너븐숭이 기념관과 낙선동 유적지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의 43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방문 시에 탐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7월 26일 (일)>

저희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제주도 4.3 평화 기념관이었습니다. 국내 휴향지에 대표되는 제주도에서의 아픔과 민주화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고 현재 논란과 오해에 대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주변 관광지가 사실을 아픔이 있음을 고취시킴과 더불어 현장을 찾아보고 직접 사료를 보으므로 제주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월 26일 (일)>

특히나, 다랑쉬굴 사건과 관련하여 다랑쉬굴 발견 당시 그대로 재연해 놓아서 현장감 있는 탐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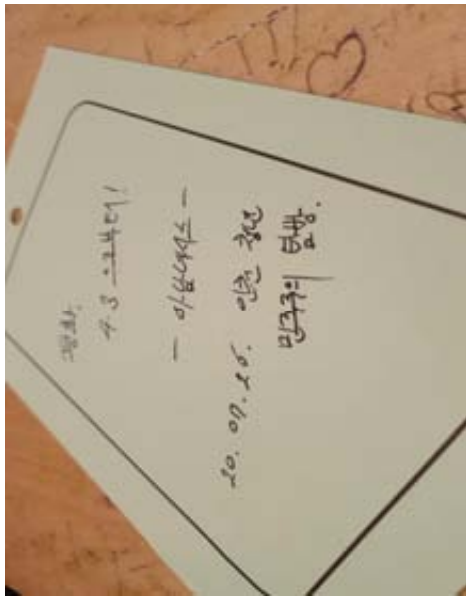
다랑쉬굴은 1948년 4.3사건으로 피신해있던 지역 주민 11명이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현장이라고 합니다.

실제 다랑쉬굴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발견 당시의 모습을 복원으로나마 볼 수 있던 것이 제주 4.3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7월 26일 (일)>

기념관 뒤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4.3사건에서 행방불명인 표석의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사건의 안타까움과 당시의 사건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위령광장과 위패 봉안실에서도 체감하기 어려울 만큼의 희생자를 뵈고 왔습니다. 그리고 위령들께 참배 또한 하였습니다.





<7월 27일 (월)>

비가 많이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너분송이 4.3 기념관과 낙선동 유적지에 방문했습니다.

너분송이 4.3 기념관은 제주 4.3의 상징인 조천읍 북촌리에 4.3 희생자들을 위로하여 후세들의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기념관입니다.

낙선동 유적지는 4.3 당시 토벌대 무력진압 당시 주민들과 무장대 간의 연계를 차단하고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하기 위한 성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8월 13일 (목)>

제주도 이후, 시간이 지난 후 서울과 인천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4.19 민주 묘지와 남영동 대공분실에 갔습니다.

우선 4.19 혁명 기념관에 도착해서 전시실을 둘러봤습니다.

4.19 혁명의 발생 과정부터 전개과정까지의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료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혁명 시간별 정렬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건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시 되어있었습니다.

기념관과 함께 민주묘지가 있었는데, 참배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추모공원으로서 조성 되어 있습니다.



사월 학생 혁명 기념탑





<8월 13일 (목)>

4.19 기념관과 민주 묘지에 들른 후, 저희는 남영동 대공분실로 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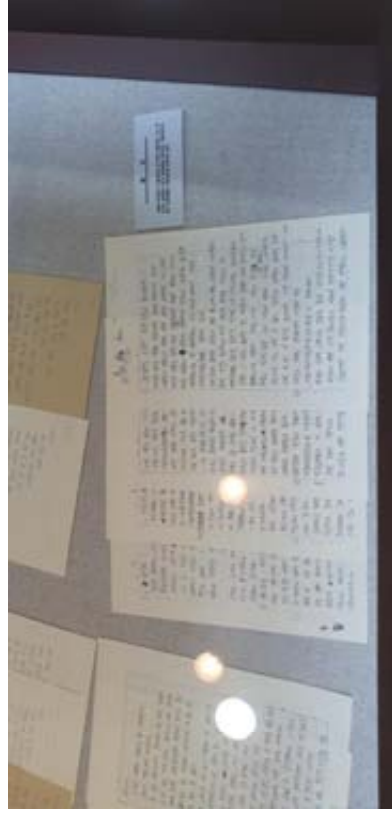
민주인권기념관, 이곳은 故박종철 열사의 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내외 시설에서의 형태와 당시 인권이 유린되었던 사실에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방문자들도 스스로 숙연해지게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국가폭력의 장소였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이제는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고문치사 현장의 보존과 故 박종철 열사의 유품들, 당시 오갔던 편지와 같은 사료를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되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현장





<8월 13일 (목)>

서울 탐방과 가까운 인천 지역의 탐방을 함께하였습니다.

앞선 민주화 연대기에 따라 체험해온 방문지를 바탕으로, 5.3항쟁이 6월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며 인천시민으로서 민주화의식 계승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인하대 근처의 주안 옛 시민회관 앞 광장과 부평역 광장을 방문했습니다. 수만히 지나쳐온 거리에 있었음에도 눈여겨 보지 못한 민주화 흔적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규모의 시위였던 인천의 5.3 민주항쟁이지만, 이번 탐방 전까지 인천의 이러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가장 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 탐방 후기



| 이준호



탐방 이후에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생각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는 민주화 사건 연대를 따라 모르고 있었던 사실과 함께 사료 등을 직접 봄으로써 사실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탐방한 지역처럼 '인천'에서도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을 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민주화 사건에 대해 잊혀져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희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앞으로의 민주주의 역사와 의식 계승 토록하는 자세와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취되는 탐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김건용



청년 민주주의 탐방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모여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향해 도약 가능하다는 점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또는 투표, 뉴스 등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에 일부뿐이며 사회 속에서 제대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관심을 더 가지면서 바꾸어 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역사 속의 아픔을 공감하고 더 성숙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노재학



인천에 살고 있음에도 알지 못했던 인천의 민주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탐방이 되었다. 체크리스트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전시된 것을 보는 것뿐 아니라 작성자 본인도 여행시 관련 사건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었으며, 역사에 대한 무지함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이러한 아픔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가까운 여행지 속에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여행을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청년들이 역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20. 07. 26 ~ 2020. 08. 13

모듬명 : 언론의 역사와 함께 걷는 민주사

구성원 : 변찬웅, 정재찬, 한동연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20년도 1학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발전양상이 궁금했습니다. 많은 발전양상 중에서도 각 조원들의 전공과 관련된 언론의 발전에 초점을 두어 민주화 운동의 발전 흐름을 조사해보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탐방주제

민주화 운동의 발전과정 ~ 언론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탐방계획 요약

인천 - 서울 - 마산을 비롯한 민주사의 현장 답사 및 기록물 탐방

4.19 민주항쟁 - 6월 민주항쟁 - 광화문 촛불시위를 중심으로



영화 「1987」로 본 6월민주항쟁

-민주항쟁 발발 과정과 언론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변찬웅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재찬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동연

목차

1. 답사동기
2. 영화 「1987」
 - 가. 영화 「1987」 내용 정리
 - 나. 영화 속 픽션과 논픽션
3. 시대적 배경 및 답사 내용
 - 가. 5.3 민주항쟁
 - 1) 인천 시민공원
 - 나. 6월 민주항쟁
 - 1) 연세대학교
 - 2) 이한열 기념관
 - 3) 명동성당, 향린교회, 서울 성공회 주교좌 성당
 - 4) 부평역 6월 민주항쟁 기념비
4. 언론의 민주화
5. 느낀점 및 결론

1. 답사동기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했었다. 하지만 주제를 선정하고, 답사지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매우 부끄러웠다. 신방과 학생이라 언론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싶었다. ‘가볍게 민주화 운동 시기의 언론에 대해서 한번 훑고 현재와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으나,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 센터장님의 설명을 듣고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각 언론사들마다 성향 비교를 해봐야했고, 특히 전두환 정권 시기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정리하기엔, 현재 우리로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부터 시작했다. ‘왜 학생들에게 돈을 지원해주면서 이런 활동을 지원해줄까?’ ‘SNS에 활동내용을 올려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도한 것이었을까?’ 여러 고민 끝에 우리가 얻은 결론은 바로 무관심이었다. 한국사라고 하면 대개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등을 떠올리게 된다. 조선시대의 유적지에 대해 지금 당장 말해보라고 하면, 많은 곳들을 외칠 수 있다. 경복궁, 광화문, 송례문, 창경궁, 종묘 등등 다양한 장소들이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근현대사에 관한 장소들을 설명하라 하면? 한 두군데 떠오르거나 아예 안떠오르는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특히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역할을 맡을 대학생들이 잘 모른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다양한 방문지들과 사건을 학생들이 직접 답사하고 관심을 가져, 친구들에게 알리며 점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쉽게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다가 ‘영화’라는 매체를 선택했다. 영화는 재미 요소를 첨가하여 사람들이 부담 없이 볼 수 있고, 최근 영화 ‘택시운전사’나 ‘1987’, ‘국제시장’ 등 근현대사적 내용을 담은 영화가 유행을 하고 있기에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1987을 선택했는데, 택시운전사보다는 관객수가 적었지만 전체적인 6월 민주항쟁의 흐름이라 좀 더 좋을 것 같았다. 이제 답사지를 선정할 차례인데, 지방에 있는 곳들보다는 우리 곳곳에 숨겨져있는 장소들을 찾아서 알리자는 생각으로 우리 주변에서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인천 5.3 사건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 인천 5.3사건은 인천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천 시민들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며, 우리나라 첫 직선제를 요구하며 일어난 의미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주화 운동에 묻혀 그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런 사건들이 진정 이 프로그램의 주제라 생각하여, 우리는 인천 5.3 사건과 1987로 보는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처음 해보고 싶었던 영화에 나오는 언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보고서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논문의 느낌보다는 가벼운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보기로 했다. 처음이라 난잡하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보고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에 관심을 가져주고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

2. 영화 「1987」

가. 영화 1987 내용 정리

영화 1987은 6월 항쟁이 일어난 1987년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6월 항쟁

이 어떻게 퍼졌고, 전파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당시 사건을 은폐하려던 상부 지시를 무시하고 법대로 부검을 진행한 최환 부장검사, 영등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전직 기자이자 민주화 운동가인 이부영이 옆방에 수감된 고문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뒤 친한 교도관을 통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전달하여 폭로하게 된 실제 사건이 소재라고 한다. 영화의 줄거리는 처음 대한뉴스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박처원 대공수사처장 등등 치안본부의 인물들을 치하하는 장면이 나오고, 운동권들과 간첩과 연계되었다고 말하면서 온 국민이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구급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남영동 대공분실로 이동했다. 대공분실 안에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 쓰러져 있었고, 긴박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이었다. 고문을 당하던 박종철은 사망한 상황이었으며 급히 중앙대학교병원 의사 오연상이 내려와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들은 소생시켜달라고 요구하여 가슴의 물기를 닦아내고 강심제를 주사한다. 대공분실에서는 의사가 목격자가 되었다며 질책하지만, 박처원은 별 일 아니라는 듯이 점심을 먹으라며 경찰들을 보내고, 박종철의 시신을 화장하라는 취지로 명령한 후, 안기부의 장부장과 양주를 마시며 재야인사 김정남을 미끼 삼아 김영삼, 김대중 등 거물 정치인들을 단칼에 격멸하겠다고 선언한다. 그 시간 짜장면을 먹으려던 최환 검사에게 공안경찰들이 찾아오더니, 자신들과 술을 먹으러가자고 한다. 그러나 사실 속내는 박종철의 사망경위서와 화장동의서에 싸인을 받기 위해 그런 것이었고,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느낀 최환 검사는 경찰들을 쫓아내고 법대로 진행하려 시신 보존명령서를 발부한 다음, 이흥규 검사를 통해 언론에 정보를 흘리게 된다. 이흥규 검사는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에게 정보를 흘리고, 중앙일보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는데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기사를 본 군인들은 중앙일보를 보도지침을 어겼단 이유로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쑥대밭이 되어있었고, 편집국장은 군인에게 잡혀갔고, 신기자는 도망가게 된다. 중앙일보의 기사로 인해 사회에 큰 파문이 일자, 안기부와 치안본부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쩌다 죽었냐는 질문에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하자, 옆에 있던 박처원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게 된다. 게다가 강민창은 목격자였던 중앙대학교병원 의사인 오연상의 이름까지 말해버리게 된다. 오연상 교수는 기자들에게 물기가 있었다는 말 말고 조금씩 조금씩 진실을 발설하게 된다. 하지만 박처원이 보낸 공안경찰들이 입단속을 시키는 바람에 기자들이 별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윤상삼 기자는 화장실에 숨어 오연상 교수가 화장실에 들르기를 기다린다. 그 시각, 최환 검사는 부검을 위해 한양대병원에 왔지만, 부검실은 공안경찰들이 점거했다. 검사 한명이 검사지위를 들먹이며 이들을 저지하려 했지만, 한 공안경찰이 빼떡한 자세로 검사를 비꼬게 된다. 최환 검사는 부검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박종철의 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황적준 박사에게 의해 실시되었고, 화장실에 숨어있던 윤상삼 기자는 오연상을 만나 물고문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다. 부검담당검사의 대화를 들은 박종철의 삼촌인 박길월은 기자들에게 경찰이 죽였다는 말을 외치게 된다. 많은 사람에게 점차 알려지게 되자 박처원은 당시 고문한 공안경찰인 조한경과 강진규를 감사를 보내게 된다. 윤상삼 기자는 동아일보 본사로 돌아와 이 사실을 기사로 보내자고 주장하고, 편집국장은 기사로 내보내기로 한다. 보도지침에 대해서는 ‘경찰이 고문해서 대학생이 죽었는데 보도지침이 무슨 대수냐’며 보도를 강행한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황적준 박사에게 쇼크사로 위장해달라하지만 이를 거절당하고 부검결과서에 진실을 써도 발표는 쇼크사로 할 것이라며 억박지른다. 박종철의 유해를 뿌리는데 기자들을 경찰들이 방해하고, 유족들은 울면서 박종철을 보내게 된다. 최환 검사는 쫓겨나게 되고 짐박스를 남겨두며 윤상삼 기자에게 부검결과서를

몰래 흘리게 된다. 윤기자는 이를 듣고 동아일보 본사로 향하게 된다. 이 기사가 나게 되자, 감사과에 조사를 받을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 교도소에 있던 교도관 한병용은 동아일보 해직기자 이부영에게 감옥에 갇힌 조한경과 강진규가 고문치사의 범인이라는 것을 듣게 된다. 퇴근하고 한병용은 연세대학교 87학번인 조카에게 이 사실을 몰래 알려달라 부탁하게 된다. 그리고 조카인 연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함세웅 신부와 김정남에게 이를 전해주게 된다. 공안경찰 강진규는 가족들과의 면회에서 죽인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고, 이를 들은 교도소의 보안계장 안유는 공안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박처원은 조한경과 강진규에게 1억을 주고 입을 다물라고 명령한다.

4월 13일, 김대중과 김영삼을 간첩으로 몰아 박종철 사건을 덮어야 한다는 안기부의 장 부장과 통화를 마친 박처원은 재야 인사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르미끼삼아 김정남의 은신처를 알아내려 한다. 그날 전두환이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고, 이 호헌조치에 운동권 학생들과 시민들이 어이없어한다. 호헌조치가 발표되고 박처원은 김정남을 체포하려 한다. 많은 폭력을 당한 안유는 이부영을 독방으로 불러 마지막으로 복구한 대화록을 건네면서 진실을 알리고, 이부영은 이를 정리해 교도관 한병용을 통해 김정남에게 전달하려 한다. 박처원과 공안경찰은 김정남이 은신해 있던 절의 위치를 알아내지만, 욕심낸 공안경찰의 단독행동에 의해 놓치게 되고, 교도관 한병용은 공안경찰에게 얼굴을 보이게 된다. 집으로 온 한병용은 연희에게 이를 부탁하지만, 연희는 거절하게 되고, 그날 밤 연희네 집에 공안경찰이 들이닥쳐 한병용을 체포해간다. 한병용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처원을 만나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된다. 그 후, 연희네 집에 잘생긴 학생이 와서 연세대 만화동아리에 가입을 권유하며 전화번호를 남기고 떠난다. 자신의 삼촌이 잡혀갔던 사실을 알게 된 연희는 남영동에 가고, 전경들에게 화를 내다가 백골단에게 끌려가 시골에 버려진다. 연희는 잘생긴 남학생에게 전화를 걸고, 남학생은 새 운동화를 주며 같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온다. 고문을 당하면서 버티던 한병용에게 박처원이 찾아오고, 가족들을 미끼삼아 협박하게 된다. 결국 한병용은 김정남의 은신처를 실토하고, 공안경찰들은 향림교회로 달려가게 된다. 이 순간 연희는 향림교회로 가서 김정남에게 모든 것을 전달한다. 김정남은 함세웅 신부에게 이를 전달하고, 함세웅 신부는 차를 타고 떠난다. 김정남은 공안경찰들에게 잡힐 뻔 했으나, 함세웅 신부가 명동성당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에게 전달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게 된다. 명동성당에서는 미사 중 고문에 가담했던 모든 경찰을 발표하고 이는 기자들에 의해 전국으로 퍼져가게 된다. 향림교회에서 잡힐 뻔했던 김정남은 다행하게도 잡히지 않았고, 박처원은 자료들을 불태우려하지만, 윤상삼 기자가 막고 의혹들에 대해 질문한다. 박처원은 치안본부로 돌아갔는데, 치안총감실에는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서류가 있었고, 체포당하게 된다. 박처원과 고문치사에 참여한 자들 모두가 구치소에 수감되고, 한병용은 남영동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리고 연희는 신문 뭉치에서 잘생긴 남학생인 이한열이 시위 도중 즉사로 맞은 최루탄에 죽어가는 사진을 보게 된다. 연희가 시청 광장으로 달려가는데, 그 길에는 많은 시민들이 시위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연희는 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구호를 같이 외치며 영화가 끝난다.

나. 영화 속 픽션과 논픽션



-유해진이 연기한 한병용 교도관은 실존인물이 아니다. 한병용은 실존 인물인 한재동 교도관과 전병용 교도관 2명의 이야기를 조합하여 나온 캐릭터라고 한다. 당사자들이 정년 퇴직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도왔다는 사실을 직접 밝히기 전까지, 이부영 등은 이 사람들에게 대해 끝까지 함구해줬다. 이런 이유로 이 2명의 교도관들의 정체는 숨겨졌고, 한병용과는 다르게 고문을 받지 않았다. 다만 전병용 교도관은 당시 수사당국에 의해 지명수배를 당했고, 이후 체포되었다.

-조한경 반장과 함께 꼬리자르기를 당한 강진규는 영화에서는 박종철을 물속에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다리만 잡은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강진규는 고참公安형사였고, 실제로는 박종철의 머리를 직접 물속에 집어넣었다. 극중에서 강진규의 역할은 원래 이정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휴지에 편지를 써서 전달하였으나, 영화에서는 잡지(선데이 서울) 사이에 편지를 써서 전달한다. 이 잡지는 3s정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연희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한열과 연희 관계는 허구이며, 당시 보통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인물이 필요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감옥에서 이부영의 편지는 안유 계장의 묵인하에 한재동 교도관을 통해 전병용 교도관에게 전달되었고, 이후 김정남에게 전달되었다. 영화에서는 한재동 경관의 역할은 연희가 일부 담당했다. 또한 한병용 캐릭터가 다한 것이 아닌, 이부영 기자가 옥중에서 취재하여 전체 그림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영화속에서 안유 계장과 이부영은 사무적인 사이가 아닌, 친밀한 사이였다고 한다.



-영화에서는 최환 검사가 검사직을 그만두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 말까지 검사로 활동하였고, 은퇴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정치활동도 시도했지만 실패하게 된다. 실제로 최환 검사는 인터뷰에서 집에 미친 듯이 전화 온 것은 정말 사실이며, 박처원 치안감이 실제로 '재미없을 겁니다. 밤길 조심하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극 중 김정남은 사찰과 교회에 은신하지만, 실제로는 고향
이흥규 변호사의 집에 숨어있었다고 한다.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가 사건을 처음 보도하게 된 것
은 이흥규 검사의 힌트로 검찰을 들쭉서서 알아낸 것이
다. 극중에서는 이흥규가 작성하고 모든 것을 알려준
것으로 연출된다.



-향림교회는 향림교회로 이름이 살짝 바뀌어 등장하고, 실제 위치는 명동
성당 근처 골목이지만, 달동네 언덕위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한열이 쓰러질 때, 영화에서는 이종창이 한열아!라고 외치
며 부축하지만, 실제로 둘은 모르는 사이였다.

3. 시대적 배경 및 답사 내용

가. 5.3 민주항쟁

1985년 총선 승리로 전두환 정권을 대신할 민주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가면서
총선 1주년인 1986년 2월 12일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2.12 개
헌서명운동)'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넓혀나갔다. 개헌 주장의 요지는 대통령 직선제였
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정권은 신민당에 일정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4월 30일 전두환-
이민우 회담을 마련했다. 당시 양자 간의 협상이 비록 결렬되기는 했지만, 전두환은 개헌 논
의 허용을 발표하고 이에 이민우는 과격 좌익 학생운동과의 결별 의사로 응대했다. 이에 반해
학생운동 세력·노동운동 세력·민통련 등 재야단체 등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진영은 단기적으로

나마 신민당의 타협성과 보수성을 비판하며 일정하게 정치적 분리선을 그으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의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가 예정되었다. 1986년 5월 3일 신민당은 개헌 헌판식을 개최하기 위해 인천 시민회관에서 인천시지부까지 행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민통련,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 등의 사회단체와 학생, 시민들 3만여명이 참여하였다.

그들은 타협적 보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군부독재에 반대하며 보수대연합 음모를 규탄하고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 정부 수립하자”,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 건설”과 “삼민(민족·민주·민중)헌법 쟁취”등을 주장하며 투쟁을 전개하였다. 경찰은 73개 중대 1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에 나섰고, 이에 대항하여 시위는 고조되었다.

한편 시민회관 앞의 2천여 시민, 학생들은 시민회관에 입장하려는 신민당 이민우 총재, 김영삼 고문 등에게 “신민당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로막아 결국 신민당의 개헌추진대회는 무산되었다. 이날 대회장에 뿌려진 유인물은 총 50여 종으로, 재야 단체 10여 종, 인천 지역 노동자단체 10여 종, 학생운동 단체 15종으로 집계되었다. 유인물의 내용은 신민당의 정권과의 야합성을 비판하는 보수대연합 규탄, 반미·반파쇼가 주종을 이루었다. 특히 신민당을 기회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개헌투쟁의 주체에서 신민당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운동과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반미투쟁의 고리를 끊기 위해 5월 7일 솔츠 미국무장관을 급파하고 이민우 신민당 총재와 회동하여 직선제 개헌요구를 포기하고 내각제로의 합의개헌을 종용하여 전두환 정권과 타협하는 보수대연합 구도를 실현시키려 했다. 그리고 정부는 공안기관을 총동원하여 민주화운동 진영 전체에 대한 총체적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공안 당국은 인천 5·3항쟁을 좌경 용공 세력의 반정부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사회운동 진영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배 및 검거에 돌입했다.

5·3인천항쟁과 관련하여 총 319명이 연행되어 5월 5일 배후 주동 혐의로 장기표(민통련 전 사무차장), 이호웅(인사연 의장) 등 129명이 구속되었으며, 민통련 산하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한국노협 인천지역협의회 등 4개 단체의 간부 10명을 비롯 총 60명이 수배를 당하였으며, 6월 6일과 7일엔 수배자 수사과정에서 권인숙에 대한 성고문(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자행되기도 했다.

1) 인천 시민공원



당시 타 지역의 강력한 시위에 점차 위기감을 느낀 정부와 급진 세력과는 길을 달리하는 의원들에 분개하여 시위대는 인천시민회관 주위에서 약 2만명이 집결 후 2킬로미터가 넘는 경인로를 장악하며 항쟁을 진행했다. 이 사건으로 319명이 연행되었고 129명이 구속되었다. 5개월 이후 건대 항쟁에 의해 깨진 기록이지만 당시 얼마나 인천에서의 열기가 뜨거웠는지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던 민주화운동기념회의 글을 참고하여, 흔적을 비교하였지만 아쉽게도 남겨져 있던 것은 글 속에 올라와 있던 기념비석과 짧은 지문만이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사 관련 내용을 다시금 떠올려보며, 당시 주축을 이루던 노동자, 대학생들의 시위 주도는 향후 6월 민주 항쟁과 같은 시위에서도 좋은 밑거름이자 표본이 되어줬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6월민주항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재야 단체들의 참여도 고무적인 사건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부족한 자료와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치된 기념비석을 보며, 근현대사에 관심이 적은 최근 청년층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 조사도 없이 보았을 때 근현대사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했다.

나. 6월 민주항쟁

1979년 10·26 사건으로 17년간 독재정치를 펼치던 제4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하고, 새로 취임한 대통령 최규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다¹⁾.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전두환 등을 비롯한 신군부²⁾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 내 실권을 장악한 뒤 전두환은 최규하를 로봇처럼 조종했고,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집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곧바로 시위 규모는 커졌고, 시위 참가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유혈 진압³⁾하였으며 이후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은 1987년 1월 13일 자정 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된 뒤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 중이던 박종운을 잡기 위해 연행한 것이었다. 취조실에 연행해간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자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했다. 11시 45분경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검진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 치니 역 하고 쓰러졌다'라고 사망원인을 발표하였다. 이에 2월 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범국민추도식" 및 도심 시위가 열렸고, 이어 3월 3일에는 "박종철군 49재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과 함께 또 다른 시위가 열렸다. 이후 4월 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130여 명이 건국대학교 사태 등 시국관련 구속학생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광주항쟁 7주년 미사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은폐되었음을 폭로하였다. 이에 제5공화국 정권을 비판하던 국민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옳지 못함에 크게 분노하였고,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5월 23일 "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6월 10일에 규탄 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던 중 6월 9일 연세

1) 서울의 봄

2) 하나회

3) 5.18 광주민주화운동

대학교 학생인 이한열⁴⁾이 학교 앞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이를 계기로 더더욱 6월 민주항쟁은 불길이 번지듯 강렬해졌고 이후 직선제를 실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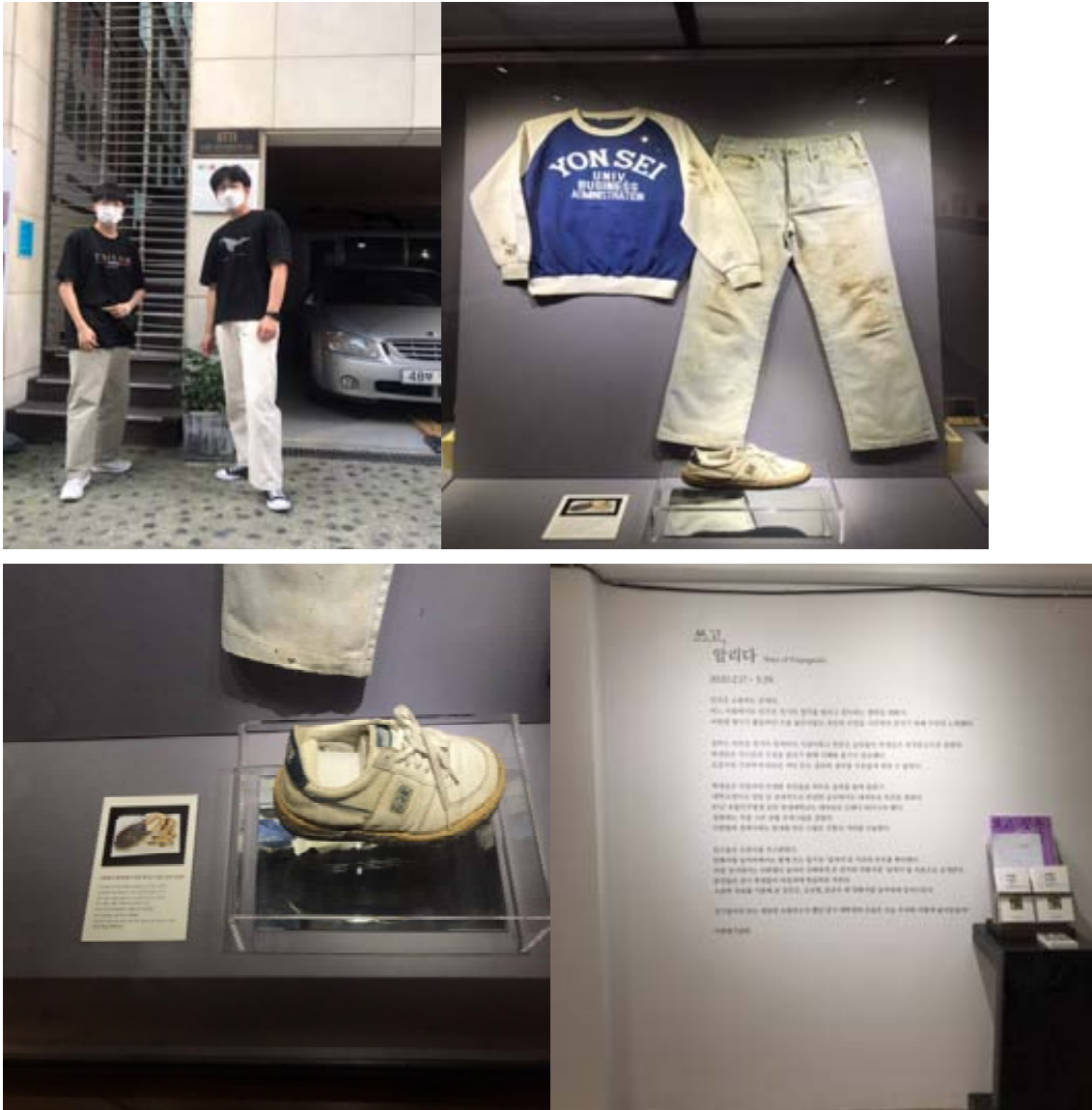
1) 연세대학교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박종철군의 고문치사사건이었다면, 기폭제가 되어준 것은 이한열 군의 시위 도중 최루탄 피격사건이라 볼 수 있다. 비교적 가장 많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던 현장이었다. 동상을 통한 시각적인 효과와 기억해야 할 숫자를 기록한 비석 등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 당시 대학생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던 장소였다. 굉장히 큰 연세대 정문을 가득 채울 정도로 모였던 분들의 발걸음을 이한열 동산부터 정문까지 걸으며 당시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심에 비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이한열 기념관 방문 이후에는 대학생들이 이한열 군을 지키기 위해 병실을 돌아가며 지키는 모습들과 이후 ‘한열이를 살려내라’를 연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당시의 국민들의 분노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었다.

4) 이후 7월 5일 사망함.

2) 이한열 기념관



이번 답사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이다. ‘기념관’이라는 말에 걸맞게 사료들이 가장 많이 모여져 있었다. 설립 취지를 잘 살려 이한열군의 일생부터 당시의 상황을 신문, 글,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간단한 인터뷰 또한 진행할 수 있었다. 자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수, 연령층이 중, 고등학생이며, 대학생의 방문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들었을 때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월 300명 정도가 방문한다는 말씀을 통해 근현대사의 관심이 적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여전히 6월민주항쟁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들으며, 근현대사의 대한 인정과 확인의 미미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기념관 옥탑에 위치되어있는 운동화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읽고 앞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근현대사의 길을 어떻게 되짚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영상 속 외신기자의 사진을 담을 때의 감정과 사실 전달을 위해 감청과 같은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에서는 존경을 이한열 어머니의 인터뷰에서는 슬픔과 비탄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인터뷰

Q : 부끄럽지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한열 기념관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한열 기념관에 대해 관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평균 방문객의 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A : 맞아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실게 아니에요. 영화 1987 방영 전까지는 굉장히 적은 분들이 방문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월 약 300 ~ 400명의 분들이 방문해주셨어요. 하지만 영화 1987 방영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라, 영화에 도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Q : 혹시 그렇다면, 그에 대한 연령층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A : 아쉽게도, 대학생분들을 비롯한 청년분들의 방문은 적은 편이에요. 대부분 중, 고등학생분들이 단체 예약을 통해 방문하시지만, 관심이 적은 학생분들은 아무래도 참여도가 떨어지고, 덧붙이자면 외국인 방문객 중에서는 일본인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고 계셔요. 일본어 팸플렛이 준비되어있는 이유가 바로 그 덕분이고요.

Q : 일본인분들이 방문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의외네요. 근현대사에서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률이 높은 것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A : 일본인분들 중에서도 특히 일본인 교사분들의 방문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뿌려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Q : 이번 기회에 6월민주항쟁에 대해 조사하면서, 오픈아카이브, 민주사업회 등 다양한 사이트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혹시 6월민주항쟁에 대해 조사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자료가 있을까요?

A : 저는 1987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동기와 과정에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민주항쟁 이후 상황에 대해서 비추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1987이한열'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Q : 근현대사에 대한 청년층에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현대사에 대해서 가장 잘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어야 한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A : 저는 6월민주항쟁, 광주민주항쟁들 또한 4.19 민주정신을 본받는다라는 표현이 됨과 같이 엄연한 민주항쟁임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근처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의 경우에는 공간과 외관이 화려하고 거대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때 당시 몸을 받친 젊은이인 이한열 기념관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3) 명동성당, 향린교회, 서울 성공회 주교좌 성당



6월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퍼질 당시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사건의 조작됨을 처음으로 알렸던 성공회 서울주교좌대성당에 방문하여 6월민주항쟁진원비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운동의 중심이 되어주었던 명동성당, 향린교회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설명문을 읽을 수 있었다. 명동성당의 경우 사전 조사가 아니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 2줄 정도로 설명을 그치고 있었고, 향린교회의 경우 기념비를 통해 당시의 사진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사전 조사가 없으며 위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건물들에 의해 가려지고 있었다. 이전 방문의 경우, 다행히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전의 인터뷰한 내용과 사전 조사를 조원들과 공유하면서 그 모습을 지키고 있는 곳 또한 굉장히 적지만, 모습을 지키고 있더라도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곳은 적다는 의견을 나눴다.

인터뷰

Q : 인터넷을 보니 이곳 성공회 주교좌성당이 6월 민주항쟁 당시 국본의 지시부, 즉 수뇌부가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 사실 주교좌대성당은 처음부터 국본이 지휘하도록 되어있던 곳이 아니었어요. 점차 경찰과 군의 감시가 심해지자 그때 당시 주임사제분이었던 박종기 주임사제 분께서 자신의 사택이었던 이곳에 국본 분들을 초대한 것이고 어쩌다보니 자연스럽게 이곳이 국본이 머물게 된 것이에요. 그때 당시 성가대의 일원, 피아니스트, 신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시민들이 들어 왔고 그분들의 몸에 종이를 숨겨서 이후 인쇄 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요.

Q : 그렇다면 그때의 사택이 혹시 어느 곳인가요? 또 그리고 사택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A : 그때의 사택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사제관이랍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 잘 공간도 부족해서 둥글게 누워서 자야할 만큼 공간이 굉장히 부족했지만 계속해서 항쟁을 이어가셨다니 의지가 대단하신 분들이죠.

(중략)

Q : 단순하게 교과서에 3줄 안팎으로 끝나는 내용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어간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사진이나 자료들을 박종기 사제님이 남겨주신 것이 있을까요?

A : 아쉽게도 지금의 주교좌대성당에 남아있는 자료 중에는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국본에서 활동하셨던 유시춘 씨의 인터뷰, 작품들에도 잘 녹여져있고 박종기 사제분이 적었던 작품에도 자세히 드러나 있으니 한번 찾아보는 걸 권할게요. 또, 대한성공회대학교 기념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인터넷으로 방문하면 부족한 자료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4) 부평역 6월 민주항쟁 기념비



앞서 말한 6월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퍼짐에 따라 인천 또한 그 물결을 함께한 순간이 있었다. 특히 부평의 경우 6월 18일 최루탄 추방 전국 대회를 열어 당시 최루탄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과 행동을 함께하였다. 그 과정에서 백골단을 비롯한 폭력 탄압이 이뤄지는 '부평만행사건'과 지속적인 공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26일 부평역 광장에서 평화대행진을 진행하며 강한 열망을 보여준 장소이다. 하지만 앞선 장소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자료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누구나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진들, 설명문을 비롯한 자료들을 설치한다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4. 언론의 민주화

앞서 말했듯 1987년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원년’이라는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낼 만큼 큰 변화의 분기점이 된 해이다. 대통령 직선제 개최를 비롯해 수많은 정치적 민주화를 일구어냈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민주화를 자신들의 손으로 쟁취했다는 심리적 성취감과 해방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 해는 한국 언론의 민주화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1987년 이전까지 한국 언론은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언론의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왔다. 강력한 물리력을 기반으로 한 군부정권은 언론을 자신들의 통치수단으로 삼았고, 이러한 언론통제 정책은 신군부를 바탕으로 한 5공화국 정권 당시 더욱 심해졌다. 언론통폐합이 이루어졌고, 정부의 철저한 감시 하에 언론사들은 보도 지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다음은 1987년 이전 시대인 1980년 민주화 운동에 관한 당시 보도이다.



△1980.05.21 동아일보 1면

다음 보도는 5월 18일 이후 사흘이 지난 21일 보도이다. 신군부에서는 21일이 되어서야 보도 자료를 전달했고, 모든 신문사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도를 21일에 처음 하게 된다. 동아일보에서는 이마저도 ‘광주일원 데모사태’라는 헤드라인으로 간략하게 넘어갔음을 볼 수 있다. 이후 대부분의 관련 보도 역시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인권유린과는 거리가 멀었

고, 사람들의 관심을 북한에 대한 공포와 위기로 옮기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전까지 언론인들이 언론자유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보도지침을 100% 이행하지는 않았으며, “정부 지침에 대한 반발 기사를 쓰거나 요구하는 기사를 작게 취급하는 경우⁵⁾”도 많았다고 한다. 이를 비롯해 젊은 기자들이나 기자협회 등의 주도로 이루어진 조직적 저항도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87년 이전의 언론은 당시 국가를 지지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다⁶⁾.

이러한 언론의 동향이 1987년, 구체적으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기점으로 진일보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관련 시위 보도가 거의 매일같이 톱에 올랐다. 또한 시위 기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보도가 이전까지의 보도량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증가했다.



△1987.01.16 동아일보 3면 중 일부

다음 보도는 14일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룬 보도이다. 박종철 열사가 대공분실로 연행된 후 조사 도중 사망했다는 내용을 담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표현 또한 많다. “왜, 어찌하여 젊디 젊은 청년이 짧은 비명(억 소리)을 지르며, 그렇게도 간단히 숨을 거두었는가는, 곧 있을 예정이라는 검찰의 진상발표를 기다려야 하겠거니와, 우선 나타난 가족들의 사체를 본 소견만으로도, 의문의 여지는 너무나 많다. 온몸에 수십군데의 멍자국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멀쩡한 청년이 갑자기 사망한 것도 상식으로는 따라가기 어렵

5) 여영무. (1989). 80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2: 언론구조개편과 제도언론, 「신문과방송」, 1989년 10월 호

6) 辛京烈. (2000). 6월 시민항쟁과 부끄러운 언론. 관훈저널, 41(2), 188-203.

다.” 이 발췌 부분만 봐도 경찰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오늘 불신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미묘한 사건일수록, 수사과정은 그러므로 어느쪽에 편드는 일이 없이, 한층 공정해야 한다.”, “국민들의 초롱초롱한 눈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냉엄하게 인식하면서 진상을 들춰내고, 책임을 가리는 것이 의혹의 불씨를 없애는 지름길이다.”와 같이 경찰에 공정한 수사과정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표현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후 민주화를 향한 민중들의 길에 언론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



△영화 「1987」에서 윤상삼 기자 역할을 맡은 이희준

영화 「1987」에서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언론인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와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 등 당시 진상 규명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실존 인물들 또한 열정 넘치는 언론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동아일보 사회부장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깟 보도지침이 대수야?”와 같이 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용기있는 행동들이 그려지기도 한다. 물론 극적인 효과를 위해 취재과정과 여러 대사에 있어서 픽션이 가미되었지만, 당시 실제 언론인들도 영화 속 모습과 같이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을 변함 없다.

이렇듯 언론은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언론 스스로도 변화할 분기점을 찾고 6월 민주 항쟁 이후 자기 반성과 민주화 과정을 거쳐 언론의 민주화를 향한 걸음을 뗐다. 이후 언론기본법과 보도지침으로 대표되는 5공화국체제의 억압 또한 사라져 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배경이 마련되었다. 물론 강제적인 면이 사라졌을 뿐 그 빈 자리를 상당히 효과적인 ‘회유’로 채워져 정부와 언론의 협력 관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평도 많고⁷⁾, 이후에도 여전히 이후 전개된 여러 운동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는 분석과 해설에 있어 한계를 지녔다는 평가도 많다.⁸⁾ 하지만 그럼에도 1987년이 언론 민주화에 있어 유의미한 발걸음을 만든 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느낀 점 및 결론

이번 답사를 진행하며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당시의 노력으로 쟁취한 민주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특히 민주화를 ‘쟁취’해야 했던 시대를 지나 이미 민주화를 ‘누리고’ 태어난 현재의 젊은 층들은 더더욱 이에 대해 무관심한

7) 조향제. (2017).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 1987~2017. 언론과 사회, 25(3), 11-78.

8)辛亥烈. (2000). 6월 시민항쟁과 부끄러운 언론. 관훈저널, 41(2), 188-203.

것이 현 세태였다. 답사를 다녀오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우리 역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민주화운동에 무관심한 여러 젊은 층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 사실에서 오는 반성과 부끄러움이 이번 답사 내내 들었던 첫 번째 감정이었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이 잊혀지고 않고, 그 정신이 계승되기 위해선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갈 젊은 층들의 관심과 인식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시대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층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선 당시 시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답사에서 함께 다룬 「1987」과 같은 영화가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번 ‘민주야 여행가자’와 같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이한열기념관 장진석 학예사님과의 인터뷰에서도 「1987」의 상영 이후 방문객 수가 급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한열기념관의 경우 당시 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많은 사료들이 깔끔하게 전시되어 있어 민주화운동 교육에 있어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외에 다른 장소들, 특히 우리가 탐방한 수도권 장소 중에선 기념비가 있음을 인지하고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그냥 지나쳐가기 쉬운 장소들도 많았다. 이러한 장소들이 더 매력적인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4.19 혁명 이후의 민주화운동들이 현 정권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정권이 넘어온 지금부터라도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 많은 젊은 층들이 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계획이 여러 차례 수정되며 답사 일정이 밀렸고, 이 일정이 코로나 재확산 기간과 겹치며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답사였지만 당시 깨어있던 시민들의 민주화 쟁취를 향한 열정과 노력을 어렵잖이나마 느끼기엔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보다 자유로운 여건 속에서 답사가 진행되었다면 더 많은 지역의 민주화 정신을 직접 느끼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은 여전하다. 앞서 말했듯 이와 같이 좋은 기회를 통해 늦게나마 민주화운동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느끼며 당시 지식인들의 희생과 노력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싶다.

-참고문헌

김은규. (2007). 87년 6월항쟁과 언론민주화, 그리고 20년.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 1-16.

여영무. (1989). 80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2: 언론구조개편과 제도언론, 「신문과방송」, 1989년 10월호

辛京烈. (2000). 6월 시민항쟁과 부끄러운 언론. 관훈저널, 41(2), 188-203.

조항제. (2017).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 1987~2017. 언론과 사회, 25(3), 11-78.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0.05.21 동아일보 부분 발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7.01.16 동아일보 부분 발췌

모듬명 : 역사를 찾는 사람들

구성원 : 김도현, 윤성호, 정유진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지난해 2019년은 조봉암 서거 60주년으로 다양한 학술대회와 저서, 기념사업회,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그의 삶과 업적에 대해 재조명 된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기념사업 학술용역 설문 결과 인천시민의 35%는 강화 출신의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죽산 조봉암(1889~1959) 선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인일보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20-07-01> 제3면

우리 모듬원은 진보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그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상, 삶에 무관심했고, 이번 민주주의 현장탐방을 계기로 함께 공부하는 3인(정의당 평당원 활동가)은 '죽산 조봉암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그의 사상과 인물에 대한 인터뷰, 탐방을 통해 그의 사상과 삶을 공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탐방주제

죽산조봉암의 발자취를 찾아서

미션1 : 인터뷰(20분)

미션2 : 기념촬영 및 답사지 방명록 작성

미션3 : 죽산조봉암 평전 읽고 토론회

탐방계획 요약

죽산 조봉암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선생의 마지막이었던 서대문 형무소 방문, 강화도 기념비를 방문하여 그의 삶의 발자취를 탐방한다.



민주야 여행가자
역사를 찾는 녀석들

김남희, 정유진, 김민지

김도현(함께 걸음)

일정

8 / 9

탐방사전작업

-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 방문요청 및 인천시청 주무관 박향연 님 인터뷰 요청(기획연합추진회)

8/12

1. 죽산조봉암 기념비 및 생가터 탐방

8/13

2.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서울)
3.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8/14

4. 인천역사박물관 견학

- 보도자료 배포 및 지역신문 보도화

01. 팀방 사전 작업

(1). 팀방 관련기획 연합추진 회의

1. 회의록-1
<2020.08.10>

탐방사전작업	과정	결과
1. 죽산조봉암 기념사업회 방문 문의	진행중 (조봉암선생 기념사업회 유수현 사무국장님과 통화, 사업회 측 방문 문의, 8월 11일 화요일까지 통보해주신다는 의사)	미정
2. 인천시청 주무관 박향연 님 문의	인천역사박물관 측에 문의할 것을 권유	1. 관련 자료 송부는 가능 2. 관련 자료 안내 3. 인천역사박물관 안내

죽산조봉암 기념사업회 이사 유수연 선생님(이하 기념사업회 측)과의 유선 접촉 시도. 본 센터 소개와 인천민주화 운동센터 '민주야 여행가자' 응모 사업을 통해 장애인 청년의 역사탐방단 기획한 의도와 일정, 귀 단체 방문을 문의함. 자세한 내용은 팩스 송부를 통해 안내
우리 역사를 찾는 녀석들은 최근 코로나 19로 외부 방문에 대한 거절도 있을 수 있다 예상하며 방문 문의를 하였고, 기념사업회 측은 8월 10일 (화)까지 방문 여부를 본 안내자에게 알려줄 것을 약속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 FAX : 02-743-0732
2020.08.07 <17:00>

02

탐방사 전작업

(2).기획 연담추진 회의

2. 회의록-02



8/12(10:00 - 15:00)	죽산조봉암기념비 조봉암선생 생가터 점심식사	인천시 강화군 카카오택시(120분)
8/13(10:00 - 17:00)	점심식사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 업회 서대문형무소박물관	서울 지하철(120분)
8/14(10:00 - 14:00)	인천역사박물관	인천 2마을버스(60분)

1 사전탐방회의록(2020.08.10(월) 오후 2시, <함께걸음 사무실>

일정 : 8/12-14

동선 : 김도현(안내요원, 함께걸음)

카카오택시 : 김남희(모동원)

식당예약 : 정유진(모동원), 김민지(모동원)

결과발표 : 동영상 촬영, 사전접촉, 기념촬영, 보고서 작성 등(김도현), 답사 소감문(김남희, 정유진, 김민지)

2. 소감문

죽산 선생은 인천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바지한 죽산 선생님을 저희 탐방팀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저희 모동원 셋은 함께걸음센터에서 기획회의를 통해 탐방, 답사, 견학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 직업이 있고 회사 휴가와 공부 외종 답사 계획을 세우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역사 탐방 경험이 없었는데 이렇게 민주야 여행가자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신 점 인천민주화운동센터와 함께걸음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김남희)

작년에도 민주야 여행가자 탐방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요. 이번 탐방도 함께걸음센터 소속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죽산 조봉암 선생님에 대해 탐방을 한다고 해서 탐방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이 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지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 그 외 야인시대에서 잠깐 나오신 적이 있어서 ... 선생님 이름만 알고 있는게 전부예요. 아무튼 오늘 기획회의를 통해 강화도 탐방, 서울 탐방, 인천 박물관 탐방 계획을 세웠고, 기대도 됩니다. 강화도와 서울은 저도 많이 가본적 있어서 탐방지 안내는 저도 자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민주화센터에서 탐방비 지원해 주신거 감사해요. (정유진)

03

죽산조봉암 선생 기념비 및 생가터 탐방-1

3. 죽산조봉암기념비-1

<2020.08.12>

8월 12일 일정

모동원들의 각자 스케줄의 변동이 있어 일정을 급히 수정하기로 하였다. 당초 14일 예정이었던 강화도 죽산 선생 기념비 방문을 금일 12일로 당겨 진행하기로 우리 모동원들은 합의하고 출발... 함께걸음 센터 10:30분 카카오택시로 GO GO GO



다리가 아픈 정O진 모동원을 배려하여 카카오택시로 탑승(10:30분 함께걸음을 출발)



우리 모동원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생님께서 묵념... 죽산 조봉암을 기억하는 추모비가 2001년 각계의 노력 끝에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03번지에 세워지게 되었다고 한다.

일정

일정	방문지	탐방
8/12(수)	1. 강화도 죽산조봉암 기념비	기념촬영 추념사 낭독 및 묵념
	2. 생가터	
비고	- 죽산 조봉암 선생 추모비(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진해공원) - 죽산생가터(강화군청 내)	

04

죽산조봉 암 선생 기념비 및 생가터 탐 방-2

죽산조봉암생가터-2
<2020.08.12>



두 번째 탐방지 죽산 조봉암 선생 생가터에서

사실 죽산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61여 년
이 지난 지금 고향 강화에서 그를 기억하
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
을 삶을 되살리기 위한 유족과 뜻있는 사
람들, 그리고 인천시의 지원이 더해져 선생
의 삶과 철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 진
행 중이다.

12일 답사 소회

우리 모두는 직업이 있어 다른 모동원처럼 일정을 여유 있게 짤 수 없었어요. 일정이 되면 죽산 선
생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강화초등학교(강화공립보통학교)에 있는 꽃말과, 청년기 사랑과 독립을
꿈 꾸던 청년 조봉암의 흔적이 있는 강화중앙교회도 방문하고 싶었으나, 우린 현실의 장벽이 높아
(모두 노동자라 ㅠ ㅠ... 모두 오후 회사 복귀)생략할 수 밖에 없었어요.

(역사를 찾는 여성들 모동원 일동)

05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 암기념사업회 방문 및 서대문형무소역사 박물관 견학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 1 서대문형무소역사박물관 2 <2020.08.13>

더디어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유수현 국장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 ... 방문을 해도 된다는 전갈, 코로나 19 시국에
협회 방문을 수락해 주신점 저희 역사를 찾는 녀석들 모듬원 일동은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8월 13일 일정

10:00, 함께 걸음	소집
10:30 출발 - 12:30	5호선 종로3가역 5번출구 하차
12:30 - 13:30	점심식사 - 광장시장 종로5가역(육회비빔밥)
14:00 - 14:30	조봉암기념사업회방문 서울 종로구 수표로 28길 대성빌딩 02)743-0731
14:30 - 15:00	종로3가역 - 독립문역, - 서대문형무소 박물관
15:00 - 16:00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
16:00 - 18:00	인천터미널 도착
18:00 - 19:00	저녁식사 후 해산

06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 암기념사업회 방문 -1

죽산조봉암기념사업회 방문

<2020.08.13>



따뜻한 환대와 안내 사업회 측 실무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2020.08.13).
<왼쪽부터 유수현 사무국장, 김O희(여 34세, 비장애), 정O진(여 23세, 장애), 김O지(여 30세, 장애), 이모세 부회장>

사실 죽산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61여 년이 지난 지금 고향 강화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을 삶을 되살리기 위한 유족과 뜻있는 사람들, 그리고 인천시의 지원이 더해져 선생의 삶과 철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07

서대문형무소역사박물관 관 견학-2

서대문형무소역사박물관 견학

<2020.08.13>



서대문형무소역사박물관 앞에서 멋지게 한 컷

죽산 선생님을 생각하며

“나는 공산당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요.
책임정치! 수탈 없는 경제! 평화통일! 이 세 가지를
주장한 죄밖에 없소.
그저 이승만과의 선거에서 져서 정치적 이유로 죽
는 것이요.
나는 이렇게 사라지지지만 앞으로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곱고루 잘살려고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죄를 짓고 가니 미안할 뿐이요.
가족들은 알아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출처/ 조봉암기념사업회 인용

http://www.jobongam.org/bbs/board.php?bo_table=menu1_4#?me_cod

8월 13일 탐방단 소회
저희 역사를 찾는 녀석들 모듬원은 사협회 측의 따뜻한 환대와 선생님 생애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선현들의 애국심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고 다시 한번 탐방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념사업회 측의 이모세 회장님은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죽산 선생님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집어주셨고, 또한 죽산 선생의 감옥에서의 일화에 대해 (물랐던 귀한 강연) 들을 수 있어 오늘 탐방의 백미를 장식할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박물관에서는 일제의 잔혹한 탄압이 몸으로 전해지는 견학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로 견학의 애로도 있었지만 우리 모듬원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조봉암 선생을 비롯한 옛 선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탐방이었습니다. (역사를 찾는 녀석들 일동)

08

-1

인천시립 박물관 견학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견학

<2020.08.14>

일정

10:00 함께걸음	소집
10:30 - 12:00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도착
12:00 - 13:00	견학, 기념촬영
13:00 - 14:00	점심식사(송도 천지연)
14:00 이후	해산

오늘은 인천시청 박향연 주무관님이 소개한 인천역사박물관 견학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앞에서 멋지게 한 컷



역사 2실에서 기념촬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견학

<2020.08.14>



인천시립박물관 내에서 멋지게 한 컷

역사2실

조선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천과 관련된 자료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석남동 회곽묘 출토 복식은 조선 시대 인천의 생활과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1883년 제물포의 개항으로 인천에는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거주하게 되고 국제화된 근대도시로 변모하게 되며 이 때 전해진 각종 근대 문물이 전시되어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의 인천은 일제에 의해 경제적 수탈을 겪게 되고 대륙진출의 병참기지로 서 도시개발이 진행되는데, 전시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확인 할 수 있다.

8월 14일 탐방단 소회
죽산 조봉암 선생의 인천에서의 행적은 해방 후 인천에서 치안유지회·건국준비위원회·노동조합·실업자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조선공산당 중앙간부 겸 인천지구 민전의장(民戰議長)에 취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인천역사박물관에는 그 당시 인천의 모습과 항일독립운동을 한 선현들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죽산 선생에 관한 자료는 비공개로 관람을 할 수 없었지만, 선생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과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견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동원들에게 역사탐방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인천민주화운동센터를 비롯한 기념회 측, 그리고 함께 걸음 실무진들께 감사 드립니다.

<역사를 찾는 녀석들 모동원 일동> (2020/08/14)

0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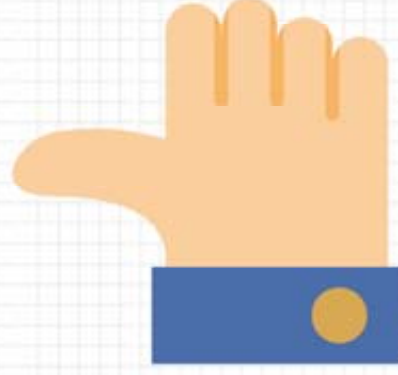
인천시립
박물관
견학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견학

<2020.08.14>



마지막 만찬(송도 전지연)



당신이 최고입니다. <역사를 찾는 녀석들 모듬원 일동>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견학
<2020.08.14 - 08.20>

일정

1. 보도자료배포(2020.08.19) (인천시 지역언론사(100여 곳 배포)	김도현(함께걸음/ 모듬 안내요원)
2. 장애인생활신문(2020.08.20)	차미경 기자
3. 인천투데이(2020.08.22)	이종선 기자

붙임

1. 보도기사(2020.08.19)
2. 장애인생활신문
(2020.08.20) <https://blog.naver.com/handicapinews/222065772695>
3. 인천투데이
(2020.08.22) [://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67](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67)

모듬명 : 'Her'story

구성원 : 오지윤, 배민주, 정지윤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오랜 역사 속에서, 여성과 남성은 언제나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남성 위주로 서술되었기에 많은 여성의 이야기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sbs 스페셜 그녀의 이름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 시민군들의 활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의 이미지는 '주먹밥' 정도로만 기억되고 있지만, 가두방송, 헌혈운동 등을 통해 여성들은 5.18 민주화운동 전반에 걸쳐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을 했으며,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활동한 많은 여성 시민군들은 성폭력, 인권 침해 등으로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숭고한 희생에도, 그들의 노력은 크게 주목받거나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또한 해당 다큐멘터리를 접하기 전까지 이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6월 항쟁 등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역사 속에서 여성은 항상 함께 존재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함께 존재했고, 수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에 비해 그들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민주주의 현장 탐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의 활약'에 대해 알아보자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같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주화운동 속에서 여성의 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찾으며,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신 많은 여성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이번 민주탐방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희생하신 많은 여성 운동가들의 희생에 대해 알고, 그들을 기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기며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서 책임의식을 갖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속 여성의 활동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사에는 소외된 인물, 사건이 많습니다. 저희 셋은 모두 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민주 기행을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민주화운동 속 여성의 기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더 나아가 역사 속 소외된 인물과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할지 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탐방주제

저희의 탐방 주제는 '숨겨진 여성의 민주화 발자취를 찾아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 속에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의 활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속 여성 시민군의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외에도 6월 항쟁 속 여성의 활약, 민주화운동 속 여성 성고문 사건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탐방계획 요약

저희는 2박 3일간 인천-광주-서울 순서로 탐방하며, 여성들의 민주화운동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첫 날(8/3), 부평 6월 항쟁 기념비에서 탐방을 시작하여 6월 항쟁의 정신, 즉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마음속으로 새기며 탐방 의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근처에 살아 자주 지나쳤던 곳이었는데도 무심코 지나쳤던 기념비였습니다. 이번 탐방의 시작에 이 장소를 방문하여 탐방을 끝내면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항쟁에 대해서 제대로 알 것이라는 의지를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5.3 민주항쟁터, 부천소사경찰서로 이동하여 6월 항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5.3민주항쟁, 부천 경찰서 성고문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당시 여성들의 고난을 함께 느껴보며, 6월 항쟁 속 여성의 활약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 후, 광주로 이동하여 5.18 기념공원과 5.18 기념문화센터에 방문하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속에서 여성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날(8/4)은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5.18 민주화운동 중 여성시민군의 활약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우선 광주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소심당 조아라 선생의 기념관에 방문하여 광주 여성운동의 정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후 5.18 당시 헌신했던 여성들의 쉼터인 오월어머니집에 들러 지금까지도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의 활약을 알아보고, 기회가 된다면 어머님들을 직접 만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후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실제 진행되었던 금남로, 충장로 거리를 걸으며 5.18 민주화운동 속 여성의 흔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속 여성 활동이 두드러졌던 새벽방송이 진행되고,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장소인 옛 전남도청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방문하여 민주화운동과 여성의 활약에 대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방문하여 각종 기록들을 살펴보며 5.18 민주화운동 속 여성의 활약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셋째날(8/5)인 광주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망월공원묘지, 국립 5.18민주묘지에 방문하여 5.18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하신 여성 운동가분들을 기리며 광주에서의 기행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광주에서의 기행을 마치고 저희는 서울로 올라와 경찰청 산하의 대공 수사 기관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에 방문하여 끔찍한 고문이 자행된 현장에서 당시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곳에서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된 여성 시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 청년 민주주의 현장’ 답사기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Her’story

오지윤, 정지윤, 배민주

1. 서론

1) 동기

오랜 역사 속에서, 여성과 남성은 언제나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남성 위주로 서술되었기에 많은 여성의 이야기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sbs 스페셜 그녀의 이름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 시민군들의 활약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여성의 이미지는 '주먹밥' 정도로만 기억되고 있지만, 가두방송, 헌혈운동 등을 통해 여성들은 5.18 민주화운동 전반에 걸쳐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을 했으며, 이는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활동한 많은 여성 시민군들은 성폭력, 인권 침해 등으로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숭고한 희생에도, 그들의 노력은 크게 주목받거나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또한 해당 다큐멘터리를 접하기 전까지 이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6월 항쟁 등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역사 속에서 여성은 항상 함께 존재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함께 존재했고, 수많은 희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에 비해 그들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번 민주주의 현장 탐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의 활약'에 대해 알아보자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같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주화운동 속에서 여성의 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찾으려 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신 많은 여성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려 이번 민주탐방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희생하신 많은 여성 운동가들의 희생에 대해 알고, 그들을 기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배움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를 되새기며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서 책임의식을 갖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속 여성의 활동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 역사에는 소외된 인물, 사건이 많습니다. 저희 셋은 모두 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민주 기행을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민주화운동 속 여성의 기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더 나아가 역사 속 소외된 인물과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할지 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탐방 주제

저희의 탐방 주제는 '숨겨진 여성의 민주화 발자취를 찾아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 속에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의 활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속 여성 시민군의 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외에도 6월 항쟁 속 여성의 활약, 민주화운동 속 여성 성고문 사건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3) 계획

① 일자별

1일차(광주)	용산역-광주송정역-5.18기념문화센터-오월어머니집-조아라기념관-대인시장
2일차(광주)	국립5.18민주묘지-망월공원묘지(5.18구묘지)-5.18민주화운동기록관-전일빌딩-황금동거리
3일차 (서울,부천,인천)	송정역1913시장-광주송정역-용산역-민주인권기념관(구남영동대공분실)-부천소사경찰서-부평 6월항쟁 기념비

② 교통편

- KTX (용산 - 광주송정역)
- 지역별 대중교통 활용 (인천지하철, 인천버스, 광주지하철, 518번 버스)

③ 숙소

- 충장로 소재 호텔

2. 본론

1) 1일차

- 5.18기념 문화센터

본 센터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공연장과 공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연은 실시되고 있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책, DVD, 퍼즐 등을 제공해주고 있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 꼭 방문해야할 장소들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 센터에서 앞으로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답사에 임해야할 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 오월어머니집

오월어머니집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여성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고, 노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설립된 공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 어머님들을 만나 뵙고, 민주화운동 당시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느껴보고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이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센터 앞마당에 적혀있는 설명을 보면서 여성민주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월어머니집의 넓은 마당과 넓은 유리창을 통해 오월어머니집이 내부와 외부의 활발한 소통을 구현하고자 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은 틈을 두고 쌓인 외부 벽돌을 보며 이러한 벽돌의 형태가 오월민주항쟁의 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활발하게 소통하고자하는 어머님들의 소망이 담긴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조아라 기념관

조아라 기념관은 조아라 선생의 정신을 전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입구에 적혀있는 선생님의 업적을 읽어보고 기념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독립, 주권회복,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신 조아라 선생의 발자취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조아라 선생님을 통해 우리는 현재 인간이기에 당연히 가진 인권이 사실은 힘겹게 쟁취한 것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대인시장

우리는 5.18민주운동이 행해지던 당시에 길을 돌아다니며 주먹밥을 나눠던 장소 중 하나인 대인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여성시민군은 직접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민군에게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인과 시민군을 모두 같은 자식, 동생이라고 생각하여,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먹밥을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군인들의 참혹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고난 후에는 시민군들에게만 주먹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웃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위험한 거리로 나와 주먹밥을 만들어 나른 당시 여성들의 정의로우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주로 가기 전 출발 전 용산역에서>



<광주 도착 후, 광주 송정역에서>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민주화 편지쓰기>



<오월어머니집에서>



<소심당 조아라기념관에서>



<대인시장에서>

2) 2일차

- 국립 5.18 민주묘지

2일차의 첫 여행지는 국립 5.18 민주묘지였습니다. 들불 7열사(박기순, 윤상원, 박용준, 박관현, 신영일, 김영철, 박효선)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5.18 구묘지(망월묘지)에 묻혀 있다가 현재 이 곳으로 안장되었습니다.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는 영혼 결혼식 거행 이후 1997년에 합장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취해진 계엄군의 광주, 전남지역 무력 진압과 관련,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부당한 국가권력에 항거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분들을 모신 묘지입니다. 이 국립 5.18민주묘지는 크게 3가지의 광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주광장'입니다. 참배객이 오월 영령을 만나기 위해 처음 들어서는 '민주의 문', 신성한 장소로 건나간다는 의미의 '명당수', 비단잉어와 금붕어들이 서식하는 '화계연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배광장'입니다.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두 손으로 받드는 모습을 형상화한 '추념문', 높이 40m의 웅장한 석조탑으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혼령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소망을 담은 '5.18 민중항쟁 추모탑',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군을 형상화한 '무쟁항쟁군상', 슬픔을 딛고 승리를 노래하는 "대동세상"의 모습을 형상화한 '대동세상 군상', 고인이 되신 5.18 민주유공자의 영정을 모신 '유영봉안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광장'입니다. 전통한옥건물의 휴게공간으로 지하에는 어린이 체험학습관이 있는 '역사의 문', 우리나라 역사에서 불의와 폭압에 대한 민족 불굴의 저항 정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들을 형상화한 '부조벽', 옛 성곽에서 주변을 감시하던 누각모양의 건물인 '송모루'가 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들어가 중앙에 있는 묘지에 가기 전에 '5.18'추모관을 먼저 들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이 추모기념관은 당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당시 사용되었던 물품들

이나 기록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침묵의 길, 한줄기 눈물 등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도 있어 천천히 둘러보면서 5월 광주의 그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추모할 수 있었습니다.

-망월공원묘지(5.18 구묘지) (사적 24호)

망월공원묘지 입구에는 '5.18 정신계승-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가 있습니다. 이 한열 열사를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찬란하게 살아갔던 분들의 사진과 삶의 기록이 적혀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처참하게 훼손된 주검을 손수레에 싣고 와 이곳에 묻었습니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5월 27일 전남도청 함락 때 희생된 주검은 청소차에 실려와 묻혔습니다. 구묘지는 당시의 참상을 처절하게 안고 있는 곳입니다. 1997년 국립 5.18 민주묘지가 완공되면서 5.18 희생자들의 무덤은 대부분 이장되었으며, 현재 망월동 묘역에는 당시 희생자 가묘 149기, 5.18 이후 진상규명 등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민주열사 39기 등 총 490기의 영령들이 영면해계시는 곳입니다. 풀이 길게 자란 묘들을 돌아보면서 찬란하게 스러져간 민주투사분들을 위해 묵념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사적4호)

광주시민들이 1980년 5월, 불의한 신군부 세력의 집권음모와 학살에 저항했던 그 당시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해둔 곳입니다.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1980년 5월 역사적 현장이었던 옛 광주가톨릭센터에 자리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는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기록물들이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되어있습니다. 5.18의 발발과 진압을 비롯한 원천자료에서부터 문서, 음향, 구술, 학술, 문화적 재현물, 정부기관과 군사법기관의 자료,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기자들의 사진과 취재수첩, 피해자들의 병원진료 기록 등 4천2백여 권, 86만 페이지, 사진 필름 3천 7백여 컷에 달하는 등재 기록물이 수장고에 영구 보존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항쟁'을 주제로 한 공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이 시간별로 정리되어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해설사분의 해설을 함께 듣는다면 더욱 알차고 자세하게 견학을 할 수 있습니다. 2층은 '기록'을 주제로 민주화운동 당시 다양한 기록물들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또한 각종 5.18 관련 다큐멘터리 등을 상영하는 소형 영상실이 마련되어있어 5월의 광주를 더욱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3층은 '유산'을 주제로 하여 5.18 기록물과 유네스코 세계인권기록물의 가치 및 역사적 교훈을 계승, 발전시키는 공감의 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4층은 자료실, 5층은 수장고입니다. 6층에 올라가면 구 가톨릭센터 당시의 모습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곳에 들어서면 시간을 넘어 가톨릭 윤공희 대주교의 집무실 등을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금남로 거리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창문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당시 윤공희 대주교를 비롯한 많은 신부들이 어떻게 5.18

진상규명과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전일빌딩 (사적 28호)

계엄군의 공중사격의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곳입니다. 2016년 12월 13일 전일빌딩 건물 외벽에서 30여개, 건물 10층에서 193여개의 총탄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탄흔은 헬기에 의한 공중사격으로 항쟁 시기 계엄군의 폭력진압의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상규명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전시한 공간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광주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던 5.18 민주광장과 분수대, 금남로 거리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10층으로 내려오면 전일빌딩의 245개의 탄흔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설치미술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또한 당시 전일빌딩을 헬기로 사격하였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언론에서, 전두환의 회고록에서, 일부 극우세력에 의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왜곡되어왔는지 '왜곡의 역사'도 전시되어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 것이 어떻게 광주 시민들을 괴롭게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VR, AR이라는 현대적인 기술들을 역사체험을 위해서 도입해두었습니다. VR을 통해서 전일빌딩의 헬기사격을 목격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해놓았습니다.

-광주 YMCA

60년대 이후 반독재, 반유신운동의 거점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지도부가 자주 옥내 집회를 열었던 곳입니다. 5월 26일에는 계엄군의 무력진압을 막기 위해 자위적 수단으로 시민군에게 총기 훈련을 실시했으며, 항쟁 이후에도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수많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5.18 국립 민주화 묘지의 민주의 문 앞에서>



<고 최미애님의 묘비 뒤에 적힌 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앞에서>



<전일빌딩 앞에서>



<광주 YMCA 앞에서>

3) 3일차

- 1913 송정역 시장

3일차, 광주에서의 민주 기행의 마지막 코스로 '1913 송정역 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1913 송정역 시장'은 1913년 10월 광주송정역의 시작과 함께, '매일송정역전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191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의 관문'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송정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107년 간 이어져 온 시장인만큼, 시장과 상인들의 모습을 보며 광주의 오랜 역사와 민주주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913 송정역 시장'에서 광주에서의 민주기행 일정을 마무리하며, 3일 간 광주로부터 배운 민주 정신을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의 민주 여행지를 방문하였습니다.

-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

대표적 고문시설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2018년 6월, 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계기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과 관련된 여성의 민주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항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데는 여성의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이후, 다수의 여성 단체들은 성고문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고문과 성폭력 종식을 위한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정권에 분노하여 처음 시위를 한 것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 '여성의 전화'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바로 이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벌이기도 했기에,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에 방문하여 6월 항쟁에 기여한 여성 운동의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고문에 사용되었던 조사실, 회전계단 등의 시설을 직접 보며 당시 독재 세력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민주 열사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부천소사경찰서

부천 소사경찰서는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란, 인천 5.3항쟁의 배후를 캐고자 스물 두 살의 권인숙씨를 성고문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인천 5.3 민주항쟁과 함께 6월 항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운동 속 여성 성고문,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대표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일어난 부천소사경찰서를 방문하여 과거 여성인권운동가들에게 만연하였던 차별에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별의 차이를 떠나, 모든 국민을 수호해야 할 경찰관이, 도심 한 복판의 경찰서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고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 부평 6월항쟁 기념비

민주기행의 마지막 코스로 부평역 광장 앞 '6월 항쟁 기념비'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서 방문하였던 부천소사경찰서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민주 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기에, '6월 항쟁 기념비'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기며 이번 민주기행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1987년 6월 인천에 울려 퍼졌던 '그 때, 그 자리, 그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외침을 기억합니다."라는 기념비의 문구를 보며 대한민국의 민주화역사에 대해 무지했던 지난 모습에 대한 반성과, '그들의 뜨거운 외침'에 다시 한 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광장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념비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또한 이번 민주기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평역 광장에 '6월 항쟁 기념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고, 직접 방문해보니 많이 지나다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민주열사들이 후손들을 위해 이룩해주신 이 땅의 민주화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 실천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1913 송정역시장에서>



<부천소사경찰서에서>



<민주인권기념관에서>



<1층에서 5층으로 바로 이어지는 회전계단>



<창 밖으로 머리를 빼지 못하도록 좁게 만들어진 문>



<6월항쟁 기념비에서>



<6월 항쟁 기념비>

3. 결론

1987,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등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여러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며 항상 생각했습니다. '총을 잡고, 화염병을 던지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은 왜 전부 남성으로 서술되어있을까? 함께 투쟁하며 민주화의 진보에 힘쓴 여성들의 이야기를 알고 싶다.' 이러한 의문점들이 이번 민주화여행의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직접 민주화운동의 장소에 가서 발로 걷고 보고 들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여성들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정리하면서 답사기를 끝맺겠습니다.

1970년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조직은 다양했습니다. 전남구속자청년협의회, 현대문화연구소, 송백회, 한국교육문화사, 녹두서점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70년대 투옥된 민주인사들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송백회'를 조직했고 주로 구속인사 부인, 운동권 학생, 청년운동가 등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활동했습니다. 또한 양서조합, 들불야학, 백제야학, 문화패인 '광대', 가톨릭노동청년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가톨릭농민회, 가톨릭정의평화위원회, YWCA, YMCA 등 종교단체가 중심이 된 활동조직에도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5월 18일, 여성들은 가두투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 소식을 들은 여성들은 가두투쟁에 적극 나섰습니다. 부상자를 치료하거나 시위가담자를 위해 치약, 비누, 수건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조달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흩어져서 계엄군과 투석전을 하며 민주화를 위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5월 19일, 여성들의 선전, 홍보활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언론과 방송이 일제 차단되어 고립된 광주에서 여성들은 광주 시민들에게 정확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들불야학'에서 제작된 소식지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5월 20일, 여성들은 가두방송에 앞장섰습니다. 여성들이 가두방송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도청 앞 금남로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애국가', '아리랑',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노래를 부르며 도청 진입을 시도하였습니다. 대형트럭과 고속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에는 각목을 든 청년들과 여성들이 있었고, 계엄군에게 저항하는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5월 21일, 헌혈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자비한 계엄군의 폭력과 학살로 부상당한 사람들에게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며 시민들에게 헌혈을 호소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헌혈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여고생을 포함한 주부들은 물론 유흥업소 여성들도 모두 헌혈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5월 22일, 학살이 벌어지면서 광주 시내 곳곳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성들은 시신 수습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부족한 관을 들여오기 위해 시외로 나가 구입하였으며, 시신에 옷을 입히는 염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5월 23일, 공수부대가 도청에서 철수한 후 도청 분수대를 중심으로 시민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성들은 궐기문, 성명서, 대자보 등을 작성하고 도청 내 시민군과 항쟁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시민궐기대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되었고, 여성들은 장례준비를 위한 모금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5월 24일, 나눔의 공동체와 여성 항쟁공동체의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들은 동네별로 밥을 지어 시위 차량이 지나가면 주먹밥을 건네주었습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 여성노동자들은 도청 내 취사팀을 구성하여 27일 새벽까지 취사를 담당했습니다. 서로 나누며 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나갔습니다. 송백회, 들불야학, 광대 단체의 활동가들과 청년, 학생들은 YWCA로 모여들었습니다. 항쟁에 참여하기 위해 찾아온 여성들은 대자보 작성 등의 홍보활동과 취사활동에 나섰습니다. 모금, 취사, 가두방송, 대자보, 보급, 리본조, 선전홍보팀 등 광주 YWCA 여성 항쟁공동체가 구성되었습니다.

5월 26일, 새벽 5시경 계엄군이 도청이 진입해 온다는 연락을 받은 후, 제 5차 시민궐기대회가 열립니다. "시민여러분! 내일 새벽에 계엄군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싸웁시다!" 여성들은 시민들을 향해 투쟁을 호소했다.

5월 27일, 마지막 새벽방송이 나옵니다. 계엄군이 도청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여성의 애절한 새벽방송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겨지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도청으로 와 주십시오!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계엄군의 총성이 시작되면서 새벽방송은 끊어졌습니다.

이 이후에도 열흘간의 5.18 민주항쟁에 참여한 많은 여성들은 도청, YWCA, 녹두서점에서 계엄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상무대영창, 보안대 등으로 끌려다니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5월이 진상규명을 위해 구속자 석방운동과 사형수 구명을 위한 혈서탄원서 사건, 전두환 광주방문저지투쟁, 명동성당농성사건 등 여성들은 치열한 투쟁을 통해 5.18 항쟁의 진실을 알렸습니다.(출처:5.18민주화운동기록관)

이 밖에도 인천 5.3 운동과 함께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통해서 여성인권과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민주화역사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많은 후손들이 찬란한 민주화투쟁의 흐름 중심에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주제로 한 많은 전시들과 다양한 작품들이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역사에서 여성과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답사기를 마칩니다.

모듬명 : KOI

구성원 : 박승우, 김지윤, 이한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물고기가 자신이 물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듯, 우리는 공기처럼 민주주의를 누립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 점심 메뉴 투표, 학급회의 등 우리는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지만 이를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한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유적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여름이란 신나는 여행과 휴가의 계절이지만, 그렇게 향한 관광지 곁 어딘가에는 평온한 오늘을 가능케 해준 민주주의 정신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힌 채 잠들어 있습니다. 비단 잉어 코이(KOI)는 같은 물고기여도 어항에서 키우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두면 1m가 넘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저희 정치외교학도 3인방, 'KOI'는 대한민국에 더 넓은 민주주의의 바다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이 그런 '바다'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탐방을 통해 저희는 유명 여름 관광지 곁에 알려지지 않았던 유적들을 방문하고 알림으로써, 공기처럼 곁에 있던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방주제

인생샷 뒤 Behind scene : 당신이 몰랐던 뜨거운 기억들

탐방계획 요약

“당신의 프로필 사진 뒤 숨겨진 뜨거운 이야기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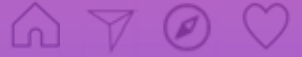
우리는 종종 여행하면서 '인생샷'에 집착하곤 합니다. 더 예쁘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건지기 위해, SNS 속 명소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포즈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진 속 뒤 뜨거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화려한 조명과 멋진 배우들로 꾸러진 2시간 남짓의 영화는 얼핏 보면 아름답게만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매분 매초 발로 뛰는 감독과 스태프들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쩌면 우리의 빛나는 휴가 역시도 '민주주의'라는 열정적인 스태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영화 속 비하인드 씬처럼, 유명 관광지 뒤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았습니다. Ready Action!



Instagram

검색



인생샷 뒤 BEHIND SCENE,

: 당신이 몰랐던 뜨거운 기억들

게시물 21

팔로워 353

팔로잉 3

대한민국에 더 넓은 민주주의의 바다를 만들고픈 물고기들

Instagram



democracy_KOI_님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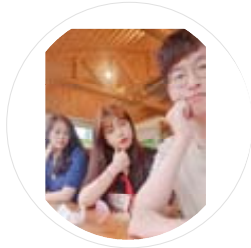
일짱 소개

Day 1

Day 2

Day 3

#2020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보고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KOI_김지윤_박승우_이한



democracy_KOI_

팔로잉



...

게시물 21

팔로워 353

팔로잉 3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탐방단 KOI

대한민국에 더 넓은 민주주의의 바다를 만들고픈 물고기들

우리는 종종 여행하면서 '인생샷'에 집착하곤 합니다.
더 예쁘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건지기 위해, SNS 속 명소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포즈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진 속 뒤 뜨거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화려한 조명과 멋진 배우들로 꾸러진 2시간 남짓의 영화는 얼핏 보면 아름답게만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매분 매초 발로 뛰는 감독과 스태프들의 노고가 숨어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빛나는 휴가 역시도 '민주주의'라는 열정적인 스태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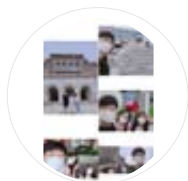
아름다운 영화 속 비하인드 씬처럼, 유명 관광지 뒤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았습니다. Ready, Action!

www.ldph.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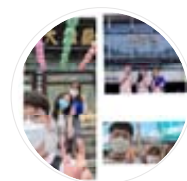
yo._onjigim_, _park_dobby, __hanbeforeu__ 님 외 130명이 팔로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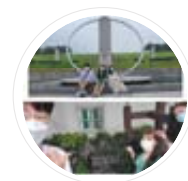
일정 소개



Day 1



Day 2



Day 3

📁 게시물

📺 IGTV


🔖 저장됨


🏷️ 태그됨

일정 소개


#인천 #서울 #부산 #제주
#2020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단 #K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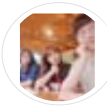
 democracy_KOI_ · 팔로잉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democracy_KOI_
2020.7.20-7.22
#2020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KOI #일정소개

- 1일차 - 인천/서울
부평역 광장 6월 민주항쟁기념 표지석 / 구 대법원 청사 / 서울광장 / 명동성당 / 이화장 / 마로니에 공원
- 2일차 - 부산
부산역광장 / 대각사 / 국제시장
- 3일차 - 제주
4·3 평화공원 / 서귀포 6월항쟁기념비


 yo._onjigim_ 님 외 720명이 좋아합니다
7월 5일

댓글 달기... 게시



democracy_KOI
부평역 광장 6월민주항쟁기념표지석

...



좋아요 720개

democracy_KOI_ 하루에도 수 만명이 지나치는 부평역, 그 곳에는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곳, 뜨거웠던 순간을 다시 되짚어보았습니다.

#부평역광장 #6월민주항쟁기념표지석 #2020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KOI

7월 20일

댓글 달기...

게시



democracy_KOI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탐방단 KOI

회원님을 위한 추천 모두 보기



withbupyeong 팔로우



sema_seoulmuseum 팔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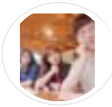


culture_seoul 팔로우



incheon_dph 팔로우

소개 · 도움말 · 홍보 센터 · API · 채용 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약관 · 위치 · 인기 계정 · 해시태그



democracy_KOI
서울시립미술관

...



좋아요 720개

democracy_KOI_ 아름다운 예술품이 전시된 서울시립미술관은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법원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독재를 정당하기 위한 사법살인이 자행되었습니다. 지금은 현관부만이 남아있었지만, 다시금 이 곳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구대법원청사 #2020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KOI
7월 20일

댓글 달기...

게시



democracy_KOI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탐방단 KOI

회원님을 위한 추천

모두 보기



withbupyeong

팔로우



sema_seoulmuseum

팔로우



culture_seoul

팔로우



incheon_dph

팔로우

소개 · 도움말 · 홍보 센터 · API · 채용 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약관 · 위치 · 인기 계정 · 해시태그



democracy_KOI
서울광장

...



좋아요 720개

democracy_KOI_ 민주주의의 장, 이제는 서울시민의 휴식처가 된 서울광장입니다. 4.19혁명, 한일 협정 반대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역사의 전환점에는 늘 서울광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서울광장 #2020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KOI

7월 20일

댓글 달기...

게시



democracy_KOI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탐방단 KOI

회원님을 위한 추천

모두 보기



withbupyeong

팔로우



sema_seoulmuseum

팔로우



culture_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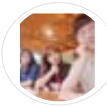
팔로우



incheon_dph

팔로우

소개 · 도움말 · 홍보 센터 · API · 채용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약관 · 위치 · 인기 계정 · 해시태그



democracy_KOI
명동성당

...



좋아요 720개

democracy_KOI_ 대한민국 천주교 최초의 본당이자 한국 가톨릭의 의 본산인 명동성당은 민주화 운동사의 중심에 서있었습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소명 의식을 갖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그 시절을 되돌아 봤습니다.

#명동성당 #박종철고문치사사건 #2020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KOI

7월 20일

댓글 달기...

게시



democracy_KOI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탐방단 KOI

회원님을 위한 추천

모두 보기



withbupyeong

팔로우



sema_seoulmuseum

팔로우



culture_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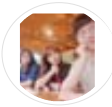
팔로우



incheon_dph

팔로우

소개 · 도움말 · 홍보 센터 · API · 채용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약관 · 위치 · 인기 계정 · 해시태그



democracy_KOI
이화장

...



democracy_KOI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탐방단 KOI

회원님을 위한 추천

모두 보기



withbupyeong

팔로우



sema_seoulmuseum

팔로우



culture_seoul

팔로우



incheon_dph

팔로우

소개 · 도움말 · 홍보 센터 · API · 채용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약관 · 위치 · 인기 계정 · 해시태그



좋아요 7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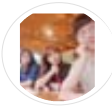
democracy_KOI_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어
데이트 코스로 사랑받는 낙산공원 아래에는 이화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화장은 해방 이후 이승만 前 대통령의 사저로 이용되며 한국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화장 #낙산공원 #2020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KOI

7월 20일

댓글 달기...

게시



democracy_KOI
마로니에 공원

...



좋아요 720개

democracy_KOI_ 낭만의 거리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은 옛 서울대학교 문리대 터입니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들은 전국 유신 철폐 시위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울대 문리대 선언문>을 읽으며 그 기억을 되새겨봤습니다.

#마로니에공원 #옛서울대교수회관및문리대터 #2020청년민주주의현장
탐방
7월 20일

댓글 달기...

게시



democracy_KOI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탐방단 KOI

회원님을 위한 추천

모두 보기



withbupyeong

팔로우



sema_seoulmuseum

팔로우



culture_seoul

팔로우



incheon_dph

팔로우

소개 · 도움말 · 홍보 센터 · API · 채용 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약관 · 위치 · 인기 계정 · 해시태그



democracy_KOI_ · 팔로잉 ...

부산역 광장



democracy_KOI_

부산여행의 인증샷 명소, 부산역

이 곳 부산역 광장은 1987년 사실상의 6월 민주항쟁의 점화가 된 사건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도 부산 시민의 의견을 결집하는 성토의 장으로서 사용되는 부산역 광장을 방문해보았습니다.

#부산역광장
#2020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KOI



hanbeforeu 님 외 721명이 좋아합니다

7월 21일

댓글 달기...

게시



democracy_KOI_ · 팔로잉 ...

남포동 대각사



democracy_KOI_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남포동 팔빙수 골목 아래편에는 대각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형성된 추모대회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장소로 작용한 대각사. 이 곳에서 6월 민주항쟁의 향기를 느껴보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대각사 #남포동 #2020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KOI



hanbeforeu 님 외 721명이 좋아합니다

7월 21일

댓글 달기...

게시



democracy_KOI_ · 팔로잉 ...

국제시장



democracy_KOI_

최대관객상을 수상한 영화 '국제시장'으로 부산의 주요 관광지로 떠오른 국제시장.

이 곳은 6.10대회 이후 각 대학이 연일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한 곳으로, 학생들은 물론 지역시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투쟁에 호응해 온 역사의 현장입니다.

#국제시장
#2020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K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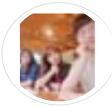


hanbeforeu 님 외 721명이 좋아합니다

7월 21일

댓글 달기...

게시



democracy_KOI
제주 4.3평화공원 추모비

...



...



좋아요 722개

democracy_KOI_ 매년 4월, 제주에는 샛노란 유채꽃만이 아닌 참혹하고 시린 역사가 함께 합니다.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주도의 역사를 직접 배워보고자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제주43사건 #제주43공원추모비 #2020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KOI

7월 22일

댓글 달기...

게시



democracy_KOI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탐방단 KOI

회원님을 위한 추천

모두 보기



special_jeju

팔로우



seogwipo_official

팔로우



jeju43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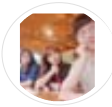
팔로우



incheon_dph

팔로우

소개 · 도움말 · 홍보 센터 · API · 채용 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약관 · 위치 · 인기 계정 · 해시태그



democracy_KOI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6월민주항쟁 기념비

...



좋아요 722개

democracy_KOI_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뒷 편 어린이 놀이터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석이 세워져있습니다. 바로 '서귀포 6월 항쟁 기념비'입니다.

1987년 민주항쟁 당시 천여 명의 서귀포시민이 민주항쟁을 전개했던 장소로, 전 국토에 이른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는 비석이지만 실제 그 곳은 공공연한 흡연구역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곳의 가치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관리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6월민주항쟁기념비 #매일올레시장 #2020인천민주주의현장탐방 #KOI
7월 22일

댓글 달기...

게시



democracy_KOI
2020 인천 청년 민주주의 탐방단 KOI

회원님을 위한 추천 모두 보기



special_jeju 팔로우



seogwipo_official 팔로우



jeju43peace 팔로우



incheon_dph 팔로우

소개 · 도움말 · 홍보 센터 · API · 채용 정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약관 · 위치 · 인기 계정 · 해시태그



democracy_KOI_ 5분



메시지 보내기



모듬명 : TEAM 안개

구성원 : 박채린, 우민지, 이채은

모듬소개 및 지원계기

안개는 큰 물방울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구름과 달리, 작고 미성숙한 물방울들이 모여서 뿌옇게 형성된다. 이러한 안개의 형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어른들보단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지만 변화에 예민하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이 안개의 성질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학생운동은 시위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경찰과 군인들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고 시위현장에 도착하면 학생들은 이미 몸을 숨긴 상태에 이른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특징이 흐릿하고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비슷하다고 연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안개가 갠 후에는 날씨가 맑아진다. 이러한 점에서 안개가 꺾을 때에는 학생들이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땀과 피들이 존재하지만 안개가 갠 후 즉, 변화를 성취한 이후에는 민주화라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팀 이름을 '안개'라고 정하였다.

지난 2016년 희대의 국정농단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지난 시기 한 땀 한 땀 힘겹게 쌓아올렸던 민주화의 성과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뼈아프게 목격하고,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거리에서 치열하게 투쟁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고, 광화문 광장이라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아 결합하면서 시민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 그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시민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그 많은 시민 속에서도 팀 '안개'는 우리와 같은 또래의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역할과 희생이 있는지를 심도있게 알아보고 싶었다.

현재 팀 '안개'의 구성원의 신분은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배울 때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과 같은 거시적인 사건들만 배워왔다. 이러한 큰 사건 사이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을 것이고, 마을 단위로도 많은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 가운데 우리와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이끈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배운 경험이 없다. 따라서 팀 '안개'는 큰 사건들을 탐구하기보다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학생운동을 위주로 탐방할 계획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이라고 하면, 마냥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성세대보다 변화에 예민하며 과거 3.1 운동, 항일운동과 같이 이러한 변화에 중심에는 항상 학생들이 있었다. 이번 대회 주제인 민주화 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학생들이 과연 어떤 민주화 운동을 주체적으로 이끌었고, 어떤 심정으로 참여하였는지를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공감하고 싶어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탐방주제

'그들(학생)'의 삶 속으로 들어가다.

탐방계획 요약

<프로로그>

학생1: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 뭐 배워요?

선생님: 오늘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거예요.

학생2: 어? 근데 선생님 교과서에 만나와있는데요?

선생님: 맞아요, 교과서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과 같은 큰 사건들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과거의 너희 또래의 많은 학생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민주화를 주장했던 사건들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학생민주화운동은 크게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학생1: 선생님, 3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선생님: 학생운동은 정치 변혁의 요구를 집약하여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대마다 학생운동이 내세운 슬로건을 살펴보면 조금씩 달랐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념적 유형을 기준으로 3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학생2: 그러면, 각 시대가 내세웠던 이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1960년대에는 '소시민적 인식 단계' 이자 '반독재 민주주의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60년대는 학생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3.15부정선거'와 같은 독재정권 타도에 중심을 둔 항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는 '6.3항쟁', '2.28 민주화 운동 (2.28 대구 학생 의거)', '3.8 민주 의거'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2.28 민주화 운동'이에요. '2.28 대구 학생 의거'라고도 불리며 1960년 2월 28일, 3.15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하여 대구시에서 일어난 학생 의거예요.

두 번째, '3.8 민주 의거'는 1960년 3월 8일,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하여 대전시에서 대전지역 고등학생 1,000여명의 주도로 일어난 학생의거예요.

마지막, 6.3항쟁은 1964년 6월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상에 반대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일으킨 운동으로 5.16군사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선생님: 다음으로는 1970년대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1970년대는 '민중주의적 인식 단계', '반독재 민주주의형'으로 나타 낼 수 있어요. 1970년대 초반까지는 1960년대에 이어 장기집권, 부정선거 반대 등의 저항운동이 전개되었지만, 1972년 유신체제라는 폭압적 정권이 등장하면서 반유신운동이 주를 이루었다고 해요. 1970년대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김상진 할복 사건'은 1975년 4월 11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생인 김상진이 유신 철폐를 외치며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난 다음,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사망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인하대 78년 유인물 사건'으로 1978년 11월 14일, 인하대 학생들이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학내에 배포한 사건이에요.

학생1: 선생님, 확실히 1960년대와는 다르게 1970년대에는 유신철폐를 주장하는운동이 많이 일어났네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1980년대 이후에는 어떠한 운동이 전개 되었을까요? 1980년대는 '민중적·혁명적 인식 단계', '민중적 사회주의형'로 구분되며 학생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예요. 1980년 5월 18일 무슨 사건이 발생했죠?

학생2: '5.18광주민주화운동'이요!

선생님: 맞아요.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도 학생들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198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은 대중성을 겸비하게 되었어요. 1980년대에 일어난 학생운동은 어떨까요?

첫 번째, '80년 인하대 학생 시위'는 1980년 5월 7일에서 1980년 5월 16일까지 10일 동안 정부주도 개헌중지, '명분없는 계엄령 조속히 해제하고 군부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의 슬로건을 내세워 시위를 벌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인하대 이승만 동상 철거 시위 사건'은 1983년 10월 6일, 인하대 설립에 아무런 공헌도 없는 이승만의 동상을 철거하여 학교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목적으로 운동을 벌인 사건이에요.

세 번째,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은 1985년 5월, 서울 지역 대학생 73명이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광주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죄하라'는 등의 구호를 내세워 단식 농성을 벌인 사건이에요.

마지막은 '이한열 최루탄 피격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건일거예요. 1987년 6월 9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6·10 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서 전경이 쏜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에요.

학생1: 이렇게나 많은 학생운동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학생2: 맞아요.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희와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약 부패한 권력층에 항거하지 못하고 순응한 채로 살아갔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화 국가가 되어있을까요? 선생님은 감히, 민주화 운동이 이 나라를 세우고 후대 시민들을 세우고 한국인으로서의 '우리'라는 존재를 있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한 학생운동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이 사건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각 사건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볼거예요. 그럼 출발할까요??

학생1, 2: 네!!

그때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일어났고 변화를 성취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와 대한민국이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시민들이 그들의 타오르는 욕망과 열정을 통해 역사를 만들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학생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항쟁에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19혁명에만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팀 '안개'는 큰 사건들에 가려져 흐릿해진 학생 중심의 많은 시위와 사건들에 대하여 탐구해보고자 한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다

TEAM 인개

탐바결과보고서

떠든 사람

박채린

유민지

이채은

<목차>

- ▷ TEAM 안개 소개
- ▷ 안개 속 가려진 그들
- ▷ 수업 시간
- ▷ 수업을 통해 느끼는 점

왜 안개인가?

안개는 큰 물방울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구름과 달리, 작고 미성숙한 물방울들이 모여서 뿌연게 형성된다. 이러한 안개의 형성과정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어른들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지만 변화에 예민하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이 안개의 성질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학생 운동은 시위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 경찰과 군인들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고 시위 현장에 도착하면 학생들은 이미 몸을 숨긴 상태에 이른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특징이 흐릿하고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비슷하다고 연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안개가 갠 후에는 날씨가 맑아진다. 이러한 점에서 안개가 꺾을 때에는 학생들이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땀과 피들이 존재하지만 안개가 갠 후 즉, 변화를 성취한 이후에는 민주화라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팀 이름을 '안개'라고 정하였다.

안개 속 가려진 그들

팀 '안개'의 구성원의 신분은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배울 때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과 같은 거시적인 사건들만 배워왔다. 이러한 큰 사건 사이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을 것이고, 마을 단위로도 많은 민주화 운동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 가운데 우리와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이끈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배운 경험은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이라고 하면, 마냥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성세대보다 변화에 예민하며 과거 3.1 운동, 항일운동과 같이 이러한 변화에 중심에는 항상 학생들이 있었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민주화 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학생들이 과연 어떤 민주화 운동을 주체적으로 이끌었고, 어떤 심정으로 참여하였는지를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공감하고 싶어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오늘 수업 요약



1교시

서울 - 민주인권기념관, 이화여기념관
인천 - 이화대학교

2교시

대구 — 2.28민주의거 기념탑,
2.28민주운동기념회관

3교시

대전 — 3.8민주의거 기념탑

4교시

광주 —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4.19혁명 기념관

조례시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오늘 뭐 배워요?



오늘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 볼 거예요.



어? 근데 선생님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데요?



맞아요, 교과서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 항쟁'과 같은 큰 사건들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과거의 너희 많은 학생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민주화를 주장했던 사건들**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조례시간 ★

학생민주화운동은 크게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이후로 나눌 수 있어요.



선생님, 3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예요?

학생운동은 정치 변혁의 요구를 집약하여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대마다 학생운동이 내세운 슬로건을 살펴보면 조금씩 달랐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념적 유형을 기준으로 3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 시대가 내세웠던 이념은 무엇인가요?

1960년대에는 '소시민적 인식 단계' 이자 '반독재 민주주의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60년대는 학생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독재정권 타도에 중심을 둔 항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1970년대는 '민중주의적 인식 단계', '반독재 민주주의형'으로 나타 낼 수 있어요. 1970년대 초반까지는 1960년대에 이어 장기집권, 부정선거 반대 등의 저항운동이 전개되었지만, 1972년 유신체제라는 폭압적 정권이 등장하면서 반유신운동이 주를 이루었다고 해요. 1980년대는 '민중적·혁명적 인식 단계', '민중적 사회주의형'로 구분되며 학생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예요. 198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은 대중성을 겸비하게 되었어요.



1교시 - 서울, 인천



선생님, 처음으로 갈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갈 곳은 **서울**과 **인천**이에요. 서울에서는 '6월민주항쟁'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민주인권기념관**, **이한열 기념관**을 갈 거예요.



인천에서는 선생님의 모교인 **인하대학교**를 갈 거예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학교 건물구조가 복잡해서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학교 구조가 복잡했다고요? 왜 그렇지 공금해요. 저희 빨리 가봐요!!



1.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인권기념관(남영동 대공분실)’은 1976년 5층 규모로 지어져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사용되었고 1983년 7층으로 증축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명목은 국가안보를 위한 치안본부였지만 실상은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었던 곳으로, 이러한 일들은 아주 먼 곳이 아닌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곁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1. 이한열기념관



‘이한열기념관’은 총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한열 열사의 유품을 비롯한 1987년 6월항쟁의 기록을 보전하고, 연구하며, 전시를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교육하는 기념관이다.

실제 이한열 열사가 입었던 옷과 신발, 동아리 학생들이 이한열 열사에게 남긴 편지, 이한열 열사 장례식 영상 등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었다.

1. '6월 민주항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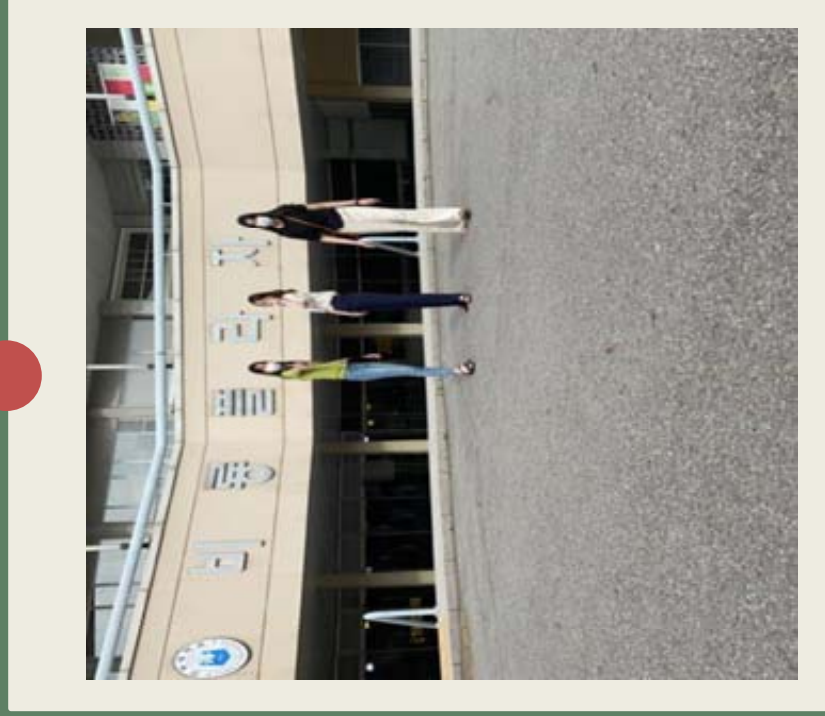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8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조치, 그리고 이한열 열사가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 전개 과정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은 1987년 1월 13일 자정 경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에게 연행되었다.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 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 받고 있었던 박종철을 잡기 위해 연행한 것이었다. 박종철이 순순히 대답하지 않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끝내 1987년 1월 14일 박종철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라고 사망원인을 발표했다. 참고자 신분으로 취조를 받았던 박종철 사망은 시민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고, 4.13호헌조치가 발표되자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 열기는 고조되었다. 이후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 축소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이 시위과정에서 최루탄에 의해 부상을 당하여 민주항쟁의 시위규모는 더욱 커졌다. 6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서는 민주정의당의 전당대회가 열렸고 노태우가 민정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동시에 시민과 학생은 서울 도심지 곳곳에서 '고문살인 은폐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1. 인하대학교

www.inh.ac.kr



‘인하대학교’는 인천소재의 대학교로, 인하대학생

들이 참여한 시위는 인천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78년 인하대학교 유인물 사건, 80년 인하대학교 학생시위, 인하대학교 이승만 농상 철거 시위사건 등이 벌어졌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인하대학교 건물이 복잡하게 지어졌다. 민주화 운동 당시 경찰, 군인들로부터 피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1. '인하대학교'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은?

'인하대 78년 유인물 사건'은 1978년, 조용호를 비롯한 인하대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학내에 배포한 사건이다.

'80년 인하대 학생 시위'는 1980년 5월 7일을 시작으로 '정부주도 개헌중지', '명분없는 계엄령 조속히 해제하고 군부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0일 동안 시위가 일어난 사건이다.

'인하대 이승만 동상 철거 시위 사건'은 이승만이 인하대학교 설립에 아무런 공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립자인양 학교 교정에 동상이 세워져 있어 그것을 철거하여 학교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목적으로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2교시 - 대구

다음으로 갈 곳은 대구예요. 대구 하면 뭐가 떠오르죠?



대구 하면.. 답다는 것 밖에 떠오르지 않아요..ㅠ



대구에서는 '2.28 민주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시각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불씨가 되어 많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민주화 운동의 시각이 되는 사건이라고요? 몰랐어요..
그럼 빨리 알아보러 가요!!



2. 2.28민주의거 기념탑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 이 순간
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 경북고 학생부 위원장 이대우의 결의문 -

'2.28민주의거 기념탑'은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명덕로터에서 이전하여 현재는
두류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2. 2.28민주운동 기념회관



'2.28민주운동 기념회관'은 '2.28민주운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발단 부터 전개과정 결과까지의 내용을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전시하고 있으며, 해설도 들을 수 있어서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2.28민주운동 기념회관'의 가장 큰 특징은 전시실 입구에 큰 **햇불** 모형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2.28 민주운동'의 상징이었던 **햇불**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2. '2.28민주운동'이란?

'2.28민주운동'은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다.

- 전개 과정

자유당 정부의 일요일 등교 지시 후, 1960년 2월 27일, 이대우 경북고 학생부 위원장의 집에서 경북고, 대구고, 경북대부속고 학생 8명 시위를 계획하고 학생들을 모았다. 다음날인 1960년 2월 28일, 학생부위원장 이대우 등이 학교 조희단에 올라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위를 진행하였다. 1960년 2월 29일에도 경북여고 · 대구여고 · 대구상고의 일부 학생들이 시위를 진행하였다. 3.15 정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고교생들의 시위는 한층 더 확대가 되었지만 결국 진압되었다. 하지만 3.15 부정선거 이후 4.19혁명과 같은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2.28민주운동은 고교생들이 주체이고, 계획적 조직 시위의 운동 요건을 갖춘 학생운동이었으며 학생운동의 효시가 되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3교시 - 대전



'2.28민주운동'이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몰랐던
제가 조금 부끄럽네요..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럼 다시 또 떠나볼까요?



선생님, 저희 다음에는 어디가요?



다음으로는 **대전**을 갈 거예요. 대전의 학생 민주화 운동으로
는 '3.8의거'가 있어요. 대전 '**3.8의거**'는 이승만 정부와 자유
당의 독재에 항거하여 대전시에서 대전지역 고등학생 1,000
여명의 주도로 일어난 학생의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
러 가볼까요~~!!

3. 3.8민주의거 기념탑



‘3.8민주의거 기념탑’은 3.8 민주 의거 당시의
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승만 정부와 유당의
독재에 항거하여 대전시에서 대전지역 고등학생
1,000여명의 주도로 일어난 학생의거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3.8 민주의거’**는 학생들이 주축
이 된 충청지역 최초의 학생운동이기도 하고 3.8민
주의거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념회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3. '3.8민주의거'란?

'3.8민주의거' 은 1960년 3월 8일 이승만 정부와 유당의 독재에 항거하여 대전시에서 대전지역 고등학생 1,000여명의 주도로 일어난 학생의거이다.

- 전개 과정

1960년 3월 8일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제히 쫓겨하여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하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거행하였다. 하지만 이 시위에서 학생을 무차별로 구타하고 연행하는 경찰에 분개하여, 3월 10일에 더 많은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경찰에 맞서 투석전까지 벌이는 규모로 시위가 커졌다.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4.19 혁명에 앞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며, 학생들이 주축이 된 충청지역 최초의 학생운동이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천둥하는 몸짓 줄러였다.

가슴 터지는 아우성 드높았다

1960년 3월 8일

민주의 목숨을 위해

자유의 광명을 찾아

파도처럼, 대전의 학생의거

양양했다. 우뚝했다

무지한 총부리도

비겁한 방망이도

못난 바리케이트도

모두 기세를 잃고

정의를 깃발로 올린

역사의 불꽃 진심으로 뜨거웠다.

시대의 검은 장막을 뚫고

저 눈부신 하늘 향해

증언의 얼굴로 탑이 서다.

<증언의 얼굴 - 김용재>

-3.8 민주주의거 기념탑 후면-

나교시 - 광주



선생님, 마지막으로 갈 곳은 어디예요?



마지막으로 갈 곳은 **광주**예요. 광주 하면 뭐가 떠오르죠?



'5.18민주화 운동'이요!!



맞아요, 우리는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실들을 전시해 놓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갈 예정이에요. 또한, 민주화 운동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4.19혁명**'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위해 '**4.19혁명 기념관**'을 방문할 거예요. 마지막 일정이니 만큼 남은 힘을 다해 파이팅 해봐요~~!!

4.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보여주었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담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록들은 광주시민들의 노력으로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보존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기록물들을 수집, 전시,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진실규명에 대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간직한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규명과 더불어 5·18민주화운동의 전국가·세계화를 위해 기록물DB화 및 국제 교류활동 등에 노력하고 있다.

4. '5.18민주화 운동'이란?

'5.18 민주화 운동' 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하여 광주와 전라도 일대에서 신군부 집권을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여 일어난 민중항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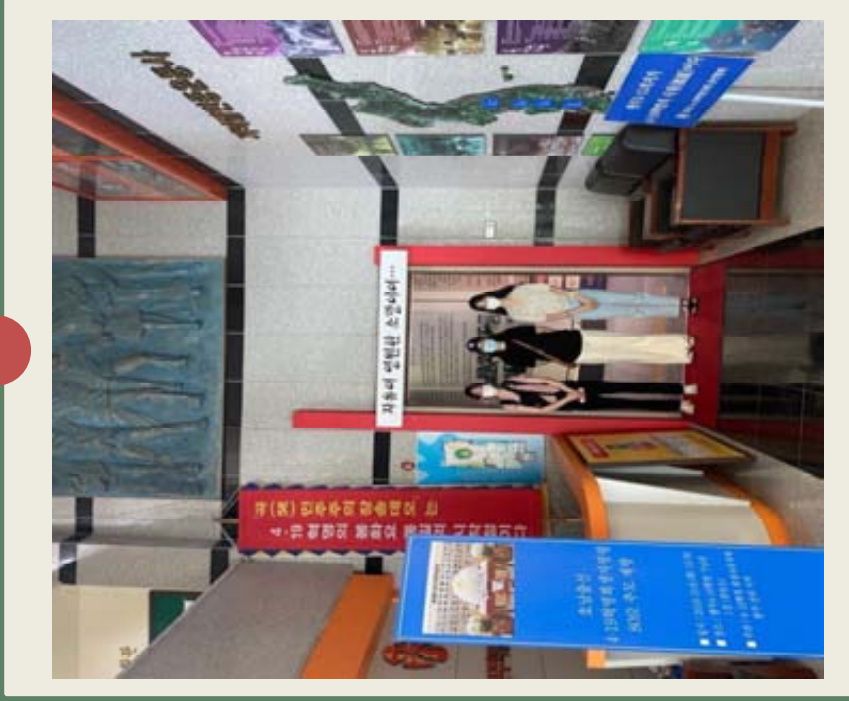
- 전개 과정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발단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1979년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부터 이다. 1979년 12월 12일 보안 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사 반란 쿠데타가 일어난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진 학생들을 중심으로 1980년 봄부터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는데, 시위의 주된 내용은 계엄령 해지와 정부주도 개헌 반대였다.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에 모여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학생들을 탄압한다. 이 과정에서 **군대의 폭력 아래 다치고 사망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도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위규모는 점차 커졌다.** 시위가 지속되고, 시민군이 항복하지 않자 계엄군은 도청 안으로 공수부대를 투입 시켜 도청 내 시민군을 학살하고 진압에 성공하여 도청을 점령하고 작전은 종료된다.

4. 4.19혁명 기념관

4.19혁명 기념관은 호남4.19통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민주 통일 교육장으로 운영하면서 ‘4.19혁명’이 시작되었던 호남 4.19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 가치와 통일 의 당위성을 바르게 일깨워 주는 교육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념관 내부 곳곳에는 ‘4.19혁명’의 사진뿐만 아니라 ‘4.19혁명’의 불씨가 되었던 ‘3.15의거’의 사진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19혁명 기념관에는 다른 기념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분향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4.19혁명으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한다.



4. '4.19 혁명'이란?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다.

- 전개 과정

4.19혁명의 발단은 3.15 부정선거로,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 자유당이 반공개 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건이다. 이에 **마산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총격과 폭력으로 강제 진압에 나섰다. 그러던 중 4월 11일 1차 마산시위(3월 15일)에서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시체로 발견**됐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제2차 시위가 다시 일어났다.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4월 19일 총궐기하여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다. 군중들은 정권의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였고, 4월 26일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다.

수업을 마치며

학생을 넘어서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약 부패한 권력층에 항거하지 못하고

순응한 채로 살아갔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화 국가**가 되어있을까?

민주화 운동 이 이 나라를 세우고 후대 시민들을 세우고 한국인으로서의

‘나’라는 존재를 있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일어났고 변화를 성취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와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5.18광주 민주화 운동, 4.19혁명에만 관심을

가져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수업을 통해 느끼는 점

우리가 탐방 다녀온 곳으로부터 민주화라는 꽃의 뿌리는 내려졌고, 마지막 1987년 6월에 사회 저바에 걸쳐 전국적으로 전개된 항쟁, 이로써 대통령 직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9번째 개헌을 이루어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개화하기 시작했었다. 아직까지 만개하지는 못한 꽃이지만, 이제 그대의 후손인 우리가 그대를 기억하고, 기리고, 부정부패에는 당당히 맞서 싸우고 투쟁하는 인물로 성장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온 이들이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감히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그 때 당시에 학생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참여할 수 있다고 확실히 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만큼 그대는 어려운 일을 해낸 거고 존경 받고 오래동안 기억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탐방을 하면서 생각보다 민주화가 많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웠다. 앞으로 민주화 운동 자료들이 수면위로 올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전달되어오면 한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을 원하신다면 여기로 와주세요!!

인스타: cha_e.un_02 / pa_..dam

블로그: <https://m.blog.naver.com/chaerin5119/222085644220>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광역시 '인천민주화운동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단체로, 인천광역시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단체입니다.

<주요사업>

1. 사료실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수집과 보존, 전시, 편찬 사업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



민주화운동 계승과 희생자 추모 사업

3. 민주역량강화사업



민주시민교육, 청소년, 청년 민주화 역량 강화사업

4.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사업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시민의場

인천민주화운동 역사를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으로!

<안내>

인천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 기증받습니다.
문건 사료(간행물, 일기, 메모, 재판자료...), 박물관사료(현수막, 포스터, 의상, 걸개그림...)
멀티미디어사료(비디오, 사진, 슬라이드 필름...), 구술사료(인터뷰, 사건 구술 기록...),
도서류(민주화운동 단체에서 생산된 도서 및 정기간행물)

